

2025년 구결학회·전남대 여름 국제학술대회

차자 표기 자료에서의 경어법

-석독 구결 자료와 한글 자료의 비교를 중심으로-

일자: 2025년 8월 5일(화) - 8월 6일(수)

장소: 전남대학교 인문대1호관 김남주기념홀

주관: 구결학회·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25년 구결학회·전남대 여름 국제학술대회

차자 표기 자료에서의 경어법

-석독 구결 자료와 한글 자료의 비교를 중심으로-

일자: 2025년 8월 5일(화) - 8월 6일(수)

장소: 전남대학교 인문대1호관 김남주기념홀

주관: 구결학회·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구결학회 회장 이용입니다.

먼저 오늘 제68회 구결학회 여름 전국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이 힘든 여름의 한가운데서도 어려운 발걸음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많은 분이 참석해 주셔서 매우 기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학술대회에 앞서서 사전등록이 있었는데, 많은 분이 등록하고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 구결학회는 2019년 여름에 이곳 전남대학교에서 이준환 선생님을 비롯하여 여러 분의 도움으로 학술대회를 연 바 있는데 6년 만에 다시 장소에서 학술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차자 표기 자료에서의 경어법”이라는 기획 주제 아래 3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8편의 일반논문 발표가 있습니다. 경어법은 한국어의 특성을 드러내 주는 대표적 문법 요소 중 하나로서 그동안 학계에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차자 표기 자료의 연구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받았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어려운 발표를 맡아 주신 성우철(고려대), 김태우(부산대), 가와사키 케이고(도쿄대)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가와사키 케이고 선생님께서는 일본에서 건너와 발표를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휴식을 가질 방학에 이 먼 곳까지 와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나치게 더운 올여름 더위와 싸우시는 것만으로도 힘드실 텐데 이번 학술대회를 기꺼이 찾아 주신, 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이하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학술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5일

구결학회장 이용

■ 2025년 구결학회·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공동 국제학술대회 일정표 ■

<제1부> 2025년 8월 5일(화)

개회식(장소: 인문대 1호관 김남주기념홀)		사회: 허인영(한국, 인하대)	
14:00-14:10	개회사: 이용(구결학회장)		
1일차 8월 5일(화)			
기획 주제: 차자 표기 자료에서의 경어법-석독 구결 자료와 한글 자료의 비교를 중심으로			
기획 주제 발표(장소: 인문대 1호관 김남주기념홀)		사회: 최성규(한국, 거례말큰사전)	
14:10-14:50	[기획1] 석독구결 자료의 지시대상 높임법 -15세기 한글 자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발표자: 성우철(한국, 고려대)		
14:50-15:30	[기획2] 차자 표기의 청자 높임 발표자: 김태우(한국, 부산대)		
15:30-16:10	[기획3] “主體높임”으로 보이는 “再歸的 客體높임” 現象의 韓日對照研究(試論) 발표자: 河崎啓剛(가와사키 케이고)(일본, 東京大)		
16:10-16:30	휴식		
종합 토론		좌장: 박진호(한국, 서울대)	
16:30-18:10	이병기(한국, 한림대), 김현주(한국, 공주교대), 문현수(한국, 인하대)		

<제2부> 2025년 8월 6일(수)

	1분과(장소: 인문대1호관 108호) 사회: 조재형(한국, 전남대)	2분과(장소: 인문대1호관 106호) 사회: 이준환(한국, 전남대)
09:30-10:00	언간에 나타난 선어말어미의 결합 양상 분석 발표자: 이수진(한국, 전남대)	중세 베트남어에서의 한어 파찰음 성모의 실현 양상 연구 발표자: 르우티낌옌(한국, 전남대)
10:00-10:30	한글 세계 지리 교과서 『초학지지』의 초판 본과 재판본에 나타난 언어적 차이와 의식 발표자: 선한빛(한국, 전남대)	역사 층위 분석을 통해 본 한국 한자음 후아음 성모의 혼란 발표자: 張俊翼(장준익)(중국, 南京大)
10:30-10:50	휴식(20분)	
10:50-11:20	호림박물관 소장 『유가사지론』 권3 점토 구결의 재검토 발표자: 이강혁(한국, 서울대)	한국 진언 범자 읽기-<오대진언>(1485)을 중심으로- 발표자: 安英姬(안영지)(중국, 雲南民族大)
11:20-11:50	海士本 『大慧普覺禪師書』의 서지와 언어 발표자: 배진술·이흥구(한국, 서울대)	한국어 전사 자료 연구를 위한 가나 대응 로마자 표기의 입력 방식에 대한 제언-일제강점기 한국어 학습서 『局員須知日鮮會話』(1912)를 중심으로- 발표자: 김준수(한국, 서울시립대)
폐회식(장소: 인문대1호관 108호)		사회: 허인영(한국, 인하대)
11:50-12:00	폐회사: 이용(구결학회장)·이준환(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장)	

■ 목 차

<기획 주제 발표>

석독구결 자료의 지시대상 높임법 -15세기 한글 자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성우철	9
기획 주제 발표 1에 대한 토론문	이병기	33
차자 표기의 청자 높임	김태우	37
기획 주제 발표 2에 대한 토론문	김현주	61
“主體높임”으로 보이는 “再歸的 客體높임” 現象의 韓日對照研究(試論)	가와사키 케이고	63
기획 주제 발표 3에 대한 토론문	문현수	81

<개인 연구 발표>

[1분과]

언간에 나타난 선어말어미의 결합 양상 분석	이수진	87
한글 세계 지리 교과서 『초학디지』의 초판본과 재판본에 나타난 언어적 차이와 의식	선한빛	101
호림박물관 소장 『유가사지론』 권3 점토구결의 재검토	이강혁	115
海士本 『大慧普覺禪師書』의 서지와 언어	배진솔·이흥구	141

[2분과]

중세 베트남어에서의 한어 파찰음 성모의 실현 양상 연구	르우티낌옌	161
역사 층위 분석을 통해 본 한국 한자음 후아음 성모의 혼란	장준익	181
한국 진언 범자 읽기-<오대진언>(1485)을 중심으로	안잉지	193
한국어 전사 자료 연구를 위한 가나 대응 로마자 표기의 입력 방식에 대한 제언	김준수	213

〈기획 주제 발표〉

석독구결 자료의 지시대상 높임법

- 15세기 한글 자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성우철(한국, 고려대)

1. 서론
2. 주체 높임법
 - 2.1. 화자를 높이는 ‘- 卬 -’의 용법
 - 2.2. ‘- 白 -’의 주체 높임 용법
3. 객체 높임법
4. 기타 중간적 용법
 - 4.1. 계사 보어에 대한 높임
 - 4.2. 확장 명사구의 명명 대상에 대한 높임

1. 서론

본 연구는 석독구결 자료에서 지시대상 높임을 나타내던 문법 요소, 특히 ‘- 卬 / 二 -’, ‘- 白 -’의 특징을 15세기 한글 자료의 {-시-}, {-습-}과의 비교를 통해 개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시대상 높임은 크게 주어의 지시대상을 높이는 주체 높임과 주어가 아닌 문장 성분의 지시대상을 높이는 객체 높임으로 나뉜다. 15세기 한글 자료의 경우 기본적으로 {-시-}는 주체 높임, {-습-}은 객체 높임으로 쓰여 두 요소의 용법이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었으나, 석독구결 자료의 경우 일부 문헌에서 ‘- 白 -’이 주체 높임으로 쓰이기도 하여 15세기 한글 자료와 차이를 보인다.

주체 높임으로도 객체 높임으로도 분류하기 어려운 중간적 사례도 존재한다. 주어의 지시대상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지만 계사 보어의 지시대상은 높임의 대상이 되는 경우, 15세기 한글 자료에서는 {-시-}도 쓰일 수 있고 {-습-}이 쓰일 수도 있었으나,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 卬 / 二 -’만이 쓰였다. 확장 명사구¹⁾의 명명 대상이 높임의 대상인 경우, 15세기 한글 자료에서는 {-시-}가 쓰였으나,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 白 -’이 쓰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 卬 / 二 -’, ‘- 白 -’의 용법을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 가운데 어느 한쪽으로 분류하는 대신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토석독구결 자료를 중심으로 석독구결 자료의 지시대상 높임법을 논의하고자 한다. ‘- 卬 / 二 -’, ‘- 白 -’의 경우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의 용법과 점토석독구결 자료에서의 용법이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장경준 2009, 성우철 2024가). 점토석독구결 자료의 예는 자토석독구결 자료나 15세기 한글 자료의 예를 이해하기 데에 도움을 주는 경우에만 부가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독자의 편의를 위해 본문에 제시한 옛 한국어 예문에는 모두 현대 한국어 번역문을 제시하였으며, 높임의 대상을 지시하는 주어는 점선, 객어는 물결선으로 표시하였다.

1) 확장 명사구라는 용어는 李賢熙(1994: 29)에 따른 것으로 하나의 명사로만 이루어진 단일 명사구가 통사적 절차를 거쳐 복수의 명사로 이루어진 명사구로 확장된 결과를 가리킨다.

2. 주체 높임법

2.1. 화자를 높이는 ‘-시-’의 용법

15세기 한글 자료에서는 화자가 주체인 절에 {-시-}가 쓰인 예가 잘 보이지 않으나, 일부 인용 구문에서는 {-시-}가 선어말어미 {-오-}와 함께 쓰인 예가 발견되기도 한다.

- (1) 가. 一切 ㅎ는 일 잇는 法이 便安티 몬흔 주를 如來 봰시노라 ㅎ시며 人 天들히 色身 에 즐겨 貪着흔 사름 위ㅎ샤 無常을 봰시노라 ㅎ샤 涅槃을 ㅎ시니 十方 諸佛이 實엔 涅槃이 업스샤디 衆生 調伏히노라 ㅎ샤 滅度를 봰시노니라 <석보상절(1447) 23:18ㄱ-18ㄴ>

모든 하는 일 있는 법이 편안치 못한 것을 여래가 보이신다고 하시며, 人, 天들이 색신에 즐겨 탐하고 집착한 사람을 위하여 무상을 보이신다고 하시어 열반을 하시니, 시방의 모든 부처가 실제로는 열반이 없으시지만 중생을 조복시킨다고 하시어 멸도를 보이시는 것이다.

- 나. 장차 精持를 나토샤리라 몬져 이를 드러 니르샤몬 한 사르물 警戒ㅎ샤 디니며 허는 果報ㅣ 그르디 아니흔 들 아라 精히 디녀 너비 刹호물 기피 愼게 ㅎ시니라 <월인석보(1459) 17:78ㄴ-79ㄱ>

장차 정밀한 지님을 나타내시겠다고 먼저 이를 들어 이르심은, 많은 사람을 경계하시어 지니며 험뜯는 과보가 잘못되지 않은 줄 알아, 정밀히 지녀 널리 이롭게 함을 깊이 믿게 하신 것이다.

- 나'. 장차 精持를 나토려 ㅎ샤 몬져 이를 드러 니르샤몬 한 사르물 警戒ㅎ샤 디니며 현 報ㅣ 어긋디 아니흔 들 아라 精히 디녀 너비 刹ㅎ샤물 기피 愼게 ㅎ시니라(將顯 精持ㅎ샤 先舉此者는 所以警衆ㅎ샤 使知持毀之報ㅣ 不謬ㅎ야 而深信精持廣利케 ㅎ시니라) <법화경언해(1463) 6:73ㄱ>

장차 정밀한 지님을 나타내려 하시어 먼저 이를 들어 이르심은, 많은 사람을 경계하시어 지니며 험뜯는 과보가 어긋나지 않은 줄 알아, 정밀히 지녀 널리 이롭게 하심을 깊이 믿게 하신 것이다.

(1)의 {-시-}는 원화자가 자신을 높이기 위해 쓴 것을 인용화자가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기보다는, 인용화자가 원발화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점을 반영하여 원화자를 높이기 위해 쓴 것으로 분석된다. 허웅(1975: 761-762), 강인선(1977: 45-46), 이강혁(2024: 200)에서는 (1)을 인용 구문의 예로만 다루었으나, (1가)의 ‘-노라’, (1나)의 ‘-오리라’는 그 자체로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일종의 연결어미에 가까운 요소로 분석될 수도 있다. 李賢熙(1986)에서는 중세 한국어의 간접인용 구문이 형식과 기능 양면에서 의도 구문나 목적 구문과 인접해 있음을 지적하고,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노라’, ‘-오리라’ 뒤에 오는 ‘ㅎ-’를 발화 동사의 대동사가 아닌 전언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²⁾ 허웅(1975: 744), 李賢熙(1986), 高恩淑(2004: 115)에서 다루어진

2) 李賢熙(1986)의 논의에 따른 전언어 ‘ㅎ다’는 정연주(2017)의 논의에 따른 자리채우미 ‘하다’와 그 외연이 상당 부분 겹쳐 있으나, 이처럼 특정 구문 내에서 형식적 기능만을 하는 요소가 나타나게 된 동기에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노라’, ‘-오리라’의 예 가운데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2) 가. 각시 쇠노라 닛 고비 빚여 드라 <월인천강지곡(1447) 상:18ㄱ>
 각시 핀다고 닛 곱게 꾸미고 들어가
 나. 梵志^다히 仙人^스 道理 닷노라 ㅎ야 옷 바사도 이시며(諸梵志 裸形曝露 以求神仙) <석보상절(1447) 24:25ㄴ-26ㄱ>
 범지들이 선인의 도리 닷는다고 하여 옷 벗고도 있으며
 다. 衆生 際度^호노랏 ㅁ속미 이시면 <금강경삼가해언해(1482) 2:13ㄱ>
 중생 제도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 (3) 가. 衆生 보차디 아니호리라 盟誓^호야 善心을 니르와다닐(不惱衆生以發善心) <월인석보(1459) 7:48ㄴ>
 중생 괴롭히지 않겠다고 맹세하여 선심을 일으키니
 가. 알랏 願心을 結^호야 究竟^호야 내종내 물러두미 업수려 제(R) 盟誓^호니(結前願心 ㅎ야 自誓究竟 ㅎ야 畢無退墮 ㅎ니) <능엄경언해(1462) 3:117ㄴ>
 앞서의 원심을 맺어 궁구하여 끝내 물러나 떨어짐이 없으려 스스로 맹세하니
 나. 衆生으로 一切 世間엿 信티 어려븐 法을 다 듣조바 알에 호리라 ㅎ샤 <석보상절(1447) 13:27ㄱ>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세간에 있는 믿기 어려운 법을 다 들어 알게 하겠다고 하시어
 나. 衆生으로 一切 世間에서 信호미 어려운 法을 다 드리 알에 코져 ㅎ샤(欲令衆生으로 咸得聞知一切世間難信之法게 호려 ㅎ샤) <법화경언해(1463) 1:90ㄱ>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세간에서 믿기 어려운 법을 다 들어 알게 하고자 하시어

(2가)의 ‘-노라’는 현대 한국어 ‘-느라’의 직접 소급형이며(리의도 1990: 223), (2나)의 ‘-노라 ㅎ야’는 연결어미 ‘-어’의 ‘-고’로의 대체와 ‘ㅎ-’의 감쇄를 거쳐 현대 한국어 ‘-느라고’로 이어졌다(이필영 1995, 장윤희 2002: 176, 이유미 2009: 23-36). 간접인용 구문이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해석되는 예는 현대 한국어에서도 드물지 않게 발견되며, 이러한 중의성을 유발하는 맥락이 연결어미의 발달을 이끄는 교량이 되기도 한다. 정연주(2017: 93-97)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에서 이러한 중의성이 나타남을 논의한 바 있다.

- (4) 가. 개는 전화한다고 복도에 나갔어.
 나. 아이들 고모가 제사상에 놓으라고 과일을 보냈어요.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화자가 주체인 절에 ‘-ㅁ-’가 쓰인 예가 『화엄경』 계통의 문헌에서만 드물게 발견된다(장경준 2009). 이 가운데는 (1)과 마찬가지로 원화자를 높이려는 인용화자의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해 볼 만한 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예도 있다.

- (5) 가. <화소35 11:20-12:03>

대한 설명 방식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연주(2017: 68-69)를 참고할 수 있다.

爾_ニ時_ニ菩薩_一 {是} _ニ念言_ノ入_乙 作_ッナ_ル丁 … 我_一 今_ニ 盛壯_ニ
_ハ富_シム_一 天下_乙 {有} _ハ乞者_ニ 現前_ニ 當_ハ 不堅_ニ
_一入_乙 以_ハ 而_ニ 堅_ニモセ 法_乙 求_ノテ_一ソナ_ル

그러한 때에 보살은 이 생각하는 것을 하기를 ‘… 나는 지금은 건장하시며 부유함에 있어서는 천하를 가지셨으며 걸인이 나타나며 하니, 마땅히 견고하지 못한 것으로써 견고한 법을 구할 일이다.’ 하며

나. 〈주본화엄31 18:18〉

A: 大師子吼[23(l)]出妙音[21(:)]我爲世間[25(.)]第一尊[14(i),41(·),12(l),21(·)],구분
 선]

B: 大師子吼[_ソ]出妙音[_ハナ_ル]我爲世間[_セ]第一尊[_ニ入_乙,_ハ富_シム_一,_ハ四]

C: 大師子吼_ソ 妙音 出_ハナ_ル 我 世間_セ 第一尊_ニ入_乙{爲}入_乙(_ソ)_ハ富_シム_一(_ニ)
_ハ四

D: 大師子吼하여 妙音 내시기를 “나는 세간의 第一尊이 되신 이라서…”

E: 크고 묘한 사자후 소리를 내어 세간에서 내가 제일 높은 자이니

다. 〈주본화엄34 06:01-05〉

A: 爾時[53(·)]金剛藏菩薩[33(·)]言[14(·)] … 我[33(·)]愍此等[41(·),14(l),45(·)]是
 故[45(·)]默然[42(-),12(·),55(/)]

B: 爾時[+]金剛藏菩薩[1]言[_ハナ_ル] … 我[1]愍此等[_ソ 1 乙,_ハ富_シム_一,_ハ四]是故[_ニ]
 默然[_ハ,_ト 1 乙,_ハ四]

C: 爾 時+ 金剛藏菩薩_一 言_ハナ_ル … 我_一 此 等_ソ 1 乙 愍(_ソ)_ハ富_シム_一入_乙 是 故
_ニ 默然(_ソ)_ハト 1 乙_ハ四

D: 그때 금강장보살은 말씀하시기를 “… 나는 이 같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므로 이
 까닭으로 默然히 있으시는 것이다.”

E: 그때 금강장보살이 말하였다. “… 그런 이를 딱하게 생각하여 잠자코 있는 것입니
 다.”

이강혁(2024: 199-200)에서는 (5가)를 직접인용의 방식(‘-_ハ’-)과 간접인용의 방식(‘-_ハ’-)이 혼재되어 나타난 예로 해석하였다. (5나)의 원화자인 부처와 (5다)의 원화자인 금강장보살은 지문에서도 인용화자인 서술자에 의해 ‘-_ハ’로 높여지고 있는 인물이므로 이러한 해석이 적용될 수 있으나, (5가)의 원화자인 왕은 지문에서 인용화자인 서술자에 의해 ‘-_ハ’로 높여지고 있는 인물이 아니므로 이러한 해석이 적용되기 어렵다. (5나), (5다)와 달리 (5가)는 화자가 자신을 높이는 데에 ‘-_ハ’를 쓴 예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5가)와 같이 왕의 발화에서 화자 자신을 높이는 데에 높임 요소가 쓰인 예는 고대 일본어에서도 발견된다. 고대 일본어는 신분과 같은 절대적 상하 관계를 중심으로 높임 표현이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잘 보여주는 현상이 바로 ‘自敬 표현’이다.³⁾

(6) 가. 〈万葉集 권6 973〉

A: 食国 遠乃御朝廷爾 汝等之 如是退去者 平久 吾者將遊 手抱面 我者將御在

3) (6)의 고대 일본어 원문은 한미경(2012), 한미경(2022: 242)의 것을 참고하였으며, 현대 한국어 번역문은 한미경(2013: 253), 한미경 외(2022: 242)의 것을 참고하되 본 연구의 원칙에 따라 일부 표현을 수정하였다.

B: 食す国の 遠の朝廷に 汝等し かく罷りなば 平らけく 朕は遊ばむ 手抱きて
朕はいまさむ

C: 다스리시는 나라의 먼 조정으로 그대들이 (집에게서) 물러나면 안심하고 짐은 지
내겠지. 아무 일도 없이 짐은 계시겠지.

나. 〈竹取物語 58〉

汝が持さて侍る かぐや姫たてまつれ。顔かたさよしと 問めして、使を賜ひしかど、
...

네가 데리고 있는 가구야히메를 (집에게) 바치거라. (짐이) 용모가 뛰어나다고 들으
고 사자를 보내셨는데...

(6가)의 화자는 쇼무[聖武] 덴노이며 청자는 절도사로 파견되는 세 명의 신하이다. 화자는 청자
가 주체인 절의 서술어로 “물러나다”를 뜻하는 겸양어 ‘まかる’를 쓰고 있으며, 자신이 주체인
절의 서술어로 “계시다”를 뜻하는 존경어 ‘います’를 쓰고 있다(한미경 2013: 253). (6나)의 화
자는 왕이며 청자는 다케토리오키나이다. 화자는 청자가 주체인 절의 서술어로 “바치다”를 뜻하
는 겸양어 ‘たてまつる’를 쓰고 있으며, 자신이 주체인 절의 서술어로 “들으시다”를 뜻하는 존경
어 ‘きこす’, “주시다”를 뜻하는 존경어 ‘たぶ’를 쓰고 있다(한미경 외 2022: 241).

(5가)와 같은 ‘-ニ-’의 쓰임은 석독구결 자료가 반영하고 있는 고려시대 한국어의 높임법, 특히
주체 높임법에 절대적(또는 객관적) 상하 관계에 기반을 둔 용법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을 가능
성을 제기한다. 문제는 향찰 자료나 11세기 이전의 이두 자료에서는 화자를 높이는 데에 ‘-賜-’
가 쓰인 예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홍고 2002, 최성규 2025). 이것은 자료의 제약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으나, 반대로 (5가)가 특정 불교 종파의 언어 관습에 따른 특유한 용법이었을 가
능성도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구역인왕경』 권상은 『화엄경』 계통의 현토 특징과 『유가사지론』 계통의 현토 특징을 모두 보
이는 문헌으로 알려져 있는데,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를 나타내는 구결자로 ‘-ニ-’를 쓴다는 점은
『유가사지론』 계통에 가까운 특징이다(문현수 2020). 『구역인왕경』 권상에서는 (5가)와 같은 ‘-ニ-’
의 용법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객관적 지위가 화자보다 낮은 인물에 대해서도 화자의 높임 의
도에 따라 ‘-ニ-’가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ニ-’의 용법은 (5가)에서 살펴본 ‘-ニ-’의
용법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7) 〈구인노 03:17-19〉

十六 大國王ニ 意ヲ 國土ニ 護ノ令セ 因縁ニ 問白{欲}ハソニトウノ入乙[火] 知白
ウロウノニソノ乃 吾ノ 今ソノ 先ウ 諸ノ 菩薩 {爲}シテ 佛果ニ 護ノ令セ 因縁ニ
土地ニ 行乙 護ノ令セ 因縁ニノ乙 説白ウシセ

“十六 大國王이 속으로 국토를 수호할 인연을 묻고자 하시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
는 지금 우선 모든 보살을 위하여 불과를 지킬 인연이니 십지의 행을 지킬 인연이니 하
는 것을 말하겠다.”

(7)의 화자는 부처이며 청자는 十六 大國王이다. 『구역인왕경』 권상에서 부처는 객관적 지위가
누구보다 높은 인물로 간주되지만, 十六 大國王 중 한 명인 바사닉왕에 대해 항상 호격 조사 ‘-
ト’를 쓰는 등 일관되게 공손한 태도를 취한다. 이 사실은 적어도 『구역인왕경』 권상에서는 ‘-ニ-’
가 화자의 태도나 관점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쓰일 수 있었음을 뒷받침한다.⁴⁾

비슷한 맥락에서 『합부금광명경』 권3의 경우 부처와 관련이 있는 개념, 사물, 사태 등이 주체로 오는 절에서도 ‘-ニ-’가 쓰임이 주목된다. 허웅(1975: 673)에서는 이러한 {-시-}의 용법을 간접 높임으로 지칭한 바 있다.

(8) 가. <금광3 14:16-18>

菩薩摩訶薩 1 {於}十方セ 一切 佛土ヨ十 諸 化佛身ニ 無上ソニ 1 種種セ 正法ニ
說ソモフニ {於}法如如ヨ十 動 不冬ヨ 去 不冬ヨ 來 不冬ヨソカ
보살마하살은 十方 일체 불토에서 여러 化佛身으로 무상하신 갖가지 정법을 설법하
나 法如如에서 움직이지 않고 가지 않고 오지 않고 하며

나. <금광3 15:01>

生死流ニ 逆ニ今セ 道 1 甚 深ソヨ 微ソヨソニ下 難シ 見白ノオロハニ 1
“生死流를 거스르시는 도는 매우 깊고微妙하고 하시어 어렵게야 볼 수 있는 것이시
니…”

다. <금광3 13:20-21>

世尊下 希有難量ノオニロ 1 是 金光明經ニ 微妙ソニモセ{之} 義 1 究竟滿足ソニ
カ 皆 能カ 一切 佛法ニ 一切 佛恩ニ 成就ソカソニロ 1入ニ
세존이시여, 希有하여 헤아리기 어려우십니다, 이 금광명경은 미묘하신 뜻이 究竟滿
足시키시며 모두 능히 일체 불법이니 일체 佛恩이니 하는 것을 성취하며 하시기 때
문입니다.”

라. <금광3 13:24-14:01>

善男子 1 是 1 不退地菩薩 善根ニ 成熟ノ今下 是 1 第一印リニカ 是 金光明微妙
經典 1 衆經ヨセ{之} 王リカソニ 1入ニ
선남자여, 이는 不退地菩薩의 선근을 성숙시키기에 이는 第一印이시며, 이 金光明微
妙經典은 많은 경전의 왕이며 하시기 때문이다.

(8가), (8나), (8라)의 화자는 부처이며, (8다)의 화자는 大自在梵王이다. (8가), (8나), (8라)에서 부처는 다른 부처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정법, 불도, 금광명경이 주체인 절에 ‘-ニ-’를 쓰고 있으며, (8다)에서 大自在梵王은 금광명경이 주체인 절에 ‘-ニ-’를 쓰고 있다. 정법, 불도, 금광명경은 그 자체로 높임의 대상이 된다고 보다는 부처와의 관련성을 토대로 높임의 대상이 되며, 이러한 관련성을 포착하고 ‘-ニ-’의 사용을 결정하는 것은 화자이다. 15세기 한글 자료에서도 {-시-}가 비슷한 용법으로 쓰인 예가 발견된다.

(9) 가. 四執이 헛마 업서 百非를 다 아스니 般若 기쁜쁘디 이를 니르신디(四執이 既亡

헛야 百非를 斯遣호니 般若玄旨 1 斯之謂歟 1 신디) <반야심경언해(1464) 8>
사집이 이미 없어져 백비를 다 앗으니 반야 깊은 뜻이 이를 이르셨구나.

나. 이 相은 [欲愛의 나신] 디 아니시니 엇테어뇨(此相은 非是欲愛所生이시니) <능엄경 언해_간경도감본(1462) 1:42>

이 상은 [애욕이 나신] 것이 아니시니 어째서인가?

4) (7)은 ‘-ニ-’뿐만 아니라 ‘-自-’의 쓰임에서도 흥미로운 면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3장에서 더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 다. 이 光의 爲 호산 因緣을 아습고져 호더라(欲知此光의 所爲因緣호더라) <법화경언해 (1463) 1:104L>
 이 빛이 위하신 인연을 알고자 하였다.
- 라. 이 經은 이 一卷을 그를 그르치산 디 아니라 當호 사르믹 佛性이 體를 브터 用을 니르와다 微妙호 利 | 無窮호물 나토려 호시니라(此經者는 非指此一卷之文也 | 要顯當人의 佛性이 從體起用호야 妙利無窮이시니라) <금강경언해(1464) 상:47L>
 이 경은 이 한 권의 글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해당 사람이 불성이 체로부터 용을 일으켜 미묘한 利가 무궁함을 나타내려 하신 것이다.

(9가)의 반야의 깊은 뜻, (9나)의 相과 애욕, (9다)의 빛, (9라)의 경전은 모두 그 근원이 되는 부처와의 관련성을 토대로 높임의 대상이 된다. 특히 (9나)의 애욕은 일반적으로 높임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이 아님이 주목된다. 이러한 개념, 사물, 사태가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있던 것은 (8)의 ‘-니-’, (9)의 {-시-}가 화자의 태도나 관점에 따라 주관적으로 선택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8)에서 살펴본 ‘-니-’의 용법과 (5가)에서 살펴본 ‘-하-’의 용법을 공시적으로 또는 통시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도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2.2. ‘-하-’의 주체 높임 용법⁵⁾

주로 절의 객체를 높임의 대상으로 삼았던 15세기 한글 자료의 {-습-}과 달리 석독구결 자료의 ‘-하-’는 절의 주체를 높임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였다. 이러한 ‘-하-’의 용법은 『구역인왕경』 권상, 『합부금광명경』 권3, 『유가사지론』 권20에서만 나타난다(문현수 2020).

(10) 가. <구인상 02:10-14>

爾¹ 時 十 十 十 三 明 三 大 滅 諦 三 金 剛 智 三 釋 迦 牟 尼 佛 一
 … 復¹ {於}頂上¹ 十 十 十 千 寶 蓮 花 乙 出 ソ 白 ウ 一 ム 其 花¹ 上¹ 一 非想非
 非想天¹ 十 至¹ 光¹ 亦¹ 復¹ 爾¹ 三 三 三
 그때 十호이며 三明이며 大滅諦이며 金剛智이신 석가모니불은 … 또한 정수리 위에
 서 千寶蓮花를 내시되 그 꽃은 위로 非想非非想天에 이르고 빛도 또한 그러하고 하
 시며

나. <구인상 03:13-14>

佛¹ 卽¹ 時 ハ リ 一 入 乙 知¹ ニ カ 衆生¹ ヲ 根¹ 乙 得¹ ニ 一 卽¹ リ 定¹ 乙 從¹ セ 起¹
ニ 下 方¹ セ 蓮花師子座上¹ 上 十 坐 ソ 白 ウ 一 ム 金剛山王 {如} 一 ソ ロ ハ ニ 一
 부처는 곧 때인 줄 아시며 중생의 根을 얻으시고 곧 선정에서 일어나시어 비로소 蓮
 花師子座 위에 앉으시되 金剛山王과 같으시니

(11) 가. <금광3 13:10-13>

世尊¹ ヲ 無邊身¹ 一 … 衆生¹ ヲ 相¹ 乙 思惟¹ ソ 白 ノ 尸 ム 一切 種 皆¹ セ 無¹ ソ 一 リ ウ セ
一 ソ ニ ロ 尸 ム 困苦¹ ソ ト 一 諸 衆生¹ ヲ 十 世尊¹ リ ニ シ 普¹ リ 救濟¹ ソ ニ ロ 尸 ム カ

5) 이 절의 내용은 주로 성우철(2024나)의 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세존의 無邊身은 … 중생의 相을 사유하시되 일체 種 모두 없는 것이라 하시나 困苦하는 모든 중생을 세존이야말로 널리 구제하시며

나. 〈구인상 14:01-04〉

幻諦セ 法ヲ 佛リ 出世ソ 白ウ尸 無セニ 一モセ 前ウナ 名字 無セ 義セ 名 無セ 幻法ニ 幻化ニ ノ令テ 名字 無セ 體相 無セ 三界セ 名字 無セ 善惡果報ニ 六道セ 名字 無セ

幻諦의 법은 부처가 出世하심 없으신 전에 名字 없고 義의 名 없고 하며, 幻法이니 幻化니 하는 것은 名字 없고 體相 없고 하며, 三界의 名字 없고 善惡果報인 六道의 名字 없고 하다.

(10)은 절의 주체가 ‘-白-’에 의한 주된 높임의 대상이 되지만, 객체도 주체와의 관련성을 토대로 높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예이다. (10가)의 객체인 천보연화는 주체인 부처의 정수리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높임의 대상이 될 만하며, (10나)의 객체인 연화사자좌는 주체인 부처가 앉는 곳이라는 점에서 높임의 대상이 될 만하다. (11)은 절의 주체만이 ‘-白-’에 의한 높임의 대상이 되는 예이다. (11가)는 타동절이기는 하나 객체인 중생의 相을 높임의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11나)는 요구하는 논항이 하나뿐인 자동절이므로 주체 이외에 높임의 대상을 상정하기 어렵다.

15세기 한글 자료에서는 (10)과 같이 객체가 주체와의 관련성을 토대로 높임의 대상에 포함될 만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시-}만이 쓰인다.

(12) 가. 그뵈 分陲 眉間 白毫相엿 光明을 펴샤 東方엿 一萬 八千 世界를 비취샤디(爾時 佛放眉間白毫相光 照東方萬八千世界) 〈석보상절(1447) 13:13ㄱ-13ㄴ〉

그때 부처가 미간의 白毫相에서 광명을 펴시어 동방에 있는 18,000 세계를 비추시되

나. 多寶如來 寶塔 中에 師子座애 안조샤 全身이 흠디 아니하샤 禪定에 드르신 듯하며 (多寶如來 於寶塔中 坐師子座 全身不散 如入禪定) 〈월인석보(1459) 15:83ㄱ〉

다보여래가 寶塔 가운데에서 師子座에 앉으시어 전신이 흠어지지 않으시어 선정에 들어가신 듯하며

(12)는 15세기 한글 자료에서 (10)과 비슷한 사태를 나타내는 절이다. (12가)의 객체인 광명은 주체인 부처의 미간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12나)의 객체인 사자좌는 주체인 다보여래가 앉는 곳이라는 점에서 각기 높임의 대상이 될 만하나, (10)과는 달리 {-습-}이 쓰이고 있지 않다. (12)와 같은 문장에서 {-시-}만이 쓰인 것은, 객체가 높임의 대상이 되는 것이 결국 주체와의 관련성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이므로, 주체를 높이는 것만으로도 공손에 대한 요구가 충족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15세기 한글 자료의 {-습시-}는 예외 없이 (10), (12)와 비슷한 사태를 나타내는 절에만 쓰였다.

(13) 가. 주는 [내(H) 호습시논] 브디시니라 〈훈민정음 언해본(1459) 2ㄴ〉

‘주’는 [세종인] “내갓”라고 하시는 뜻이시다.

나. 進上호수보니 [보묘] 주수오시고 곧 讚頌을 지스샤 일후를 月印千江이라 하시니(乃

進_후수보니 賜_후覽_후시고 輒_후製讚頌_후샤 名日月印千江이라 _후시니) 〈월인석보(1459) 서:12ㄴ-13ㄱ〉

(석보상절을) 진상하_니 (세종이) [e 친히 御覽함] 주시_고 곧 찬송을 지으시어 이름을 ‘월인천강’이라고 하시니

- 다. [[조흔 瑠璃人 가온디 안해 眞金像이 現_후신] 듯_후습신] 世尊이 大衆애 겨샤 기픈 法義를 펴시며(如淨瑠璃中에 內現眞金像_후신 世尊이 在大衆_후샤 敷演深法義_후시며) 〈개간법화경언해(1500) 1:34ㄱ-34ㄴ〉

[e [깨끗한 유리 가운데 안에 眞金像이 나타나신] 듯_하신] 세존이 대중 속에 계시어 깊은 法義를 펴시며

- 다’. 조흔 瑠璃人 가온디 안해 眞金像이 現_후신 듯_후신 世尊이 大衆애 겨샤 기픈 法義를 펴시며 〈법화경언해(1463) 1:118ㄴ〉

(13)의 {-습시-}는 모두 주체를 높임의 대상으로 한다. (13가)의 주체는 세종이며 객체는 1인칭 주격을 나타내는 세종의 발화이다. (13나)의 주체 역시 세종이며 객체는 세종이 행위주인 사태이다. (13다)의 주체는 부처이며 객체는 ‘眞金像’이 행위주인 사태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13)의 객체가 모두 주체와의 관련성을 토대로 높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이 주목된다. 세종의 발화는 화자 자신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세종과 함께 높임의 대상이 될 만하며, 세종이 행위주인 사태 도 세종과의 관련성을 토대로 높임의 대상이 될 만하다. ‘眞金像’은 부처의 現身이 보이는 형상으로 흔히 32相에 포함되곤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높임의 대상이 될 만하며, 실제로 ‘眞金像’을 주체로 삼는 내포질의 서술어에도 {-시-}가 통합되어 있다. 이러한 {-습시-}의 쓰임은 (10)에서 보이는 ‘-白-’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성우철(2024나)에서는 (10), (12), (13)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2)는 높임의 형식과 기능이 낭비 없이 대응되는 예이며, (13)은 높임의 형식과 기능이 잉여적으로 대응되는 예이다. (13)에서 높임 요소가 잉여적으로 쓰이게 된 것은 주체가 왕이나 부처와 같이 일반적인 주체 높임으로 대우해야 할 대상보다 높은 지위를 지니는 대상이기 때문이다(김태우 2022: 243). (10)은 높임의 형식과 기능이 부족하게 대응되는 예이다. 주어진 맥락에서 참여자에 대한 화자의 높임 의도를 가장 충실하게 드러내는 것은 ‘-白-’과 ‘-ニ-’를 모두 쓰는 것일 테지만 그것은 다소 번거로운 방식이므로, 주된 기능은 객체 높임이었으나 주체 높임으로도 쓰일 수 있었던 ‘-白-’을 활용하여 화자의 높임 의도를 뭉뚱그려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미가 하나의 문법 요소에 의해 표현되고, 심지어 하나의 예에서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전달되기도 하는 예는 석독구결 자료의 ‘-應/可セッ-’와 15세기 한글 자료의 ‘-엄직_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4)가. 〈화엄14 15:22-23〉

十方_후十 有_후 所_후七 諸_후一 妙物_후리 無上尊_후라 十 奉獻_후ッ 白_후 可_후 應_후 可_후 七_후 一_후 乙 掌_후七
中_후 十 悉_후 雨_후 可_후 一_후 ム 備_후 可_후 尸 不_후 ッ 尸 丁_후 尸 無_후 可_후 ッ ナ_후 三 菩提樹_후 七 前_후 十
持_후 可_후 三 佛_후 乙 供_후 ッ 白_후 乙 可_후

시방에 있는 모든 妙物이 無上尊께 봉헌할 만하거늘 손에서 다 흘부리되 갖추지 않음 없이 하여 보리수의 앞에 지녀서 부처님을 공양하며

- 가’. 시방세계에 있는 묘한 것들과 가장 높은 부처님께 받들 만한 것 손바닥 가운데서 흘러나와서 보리 나무 앞에서 여래께 공양.

나. 그제 諸天龍神王이 모몰 現티 아니호야 華香을 비허 부터쨌 供養호며 三千大千世界 다 ㄴ장 震動커든 부텃 모매서 光明을 내야 그지업스 나라홀 비취여 濟度호암직호니 다 부터를 보리라(爾時 諸天龍神王 不現其身 而雨華香 供養於佛 三千大千世界 皆大震動 佛身出光 照無量國 應可度者 皆得見佛) 〈월인석보(1459) 23:35ㄱ〉

그때 여러 천, 용, 신, 왕이 몸을 나타내지 않고 꽃과 향을 흩뿌려 부처께 공양하며, 삼천大千세계가 다 크게 진동하거늘, 부처의 몸에서 광명을 내어 끝없는 나라를 비추어 제도할 만한 이가 다 부처를 볼 것이다.

나'. 그대 여러 하늘·용·귀신·왕들은 그 몸을 나타내지 않고서 꽃과 향을 비처럼 내려 미륵불에게 공양하매, 삼천大千세계가 다 크게 진동하고, 미륵불의 몸에서 광명을 내어 한량없는 국토에 비추매 제도를 받아야 할 자는 다 미륵불을 보게 되느니라.

(14가)는 박진호(1997), 장윤희(2001)에서 다루어진 ‘-ㄴ 應可ヒ-’의 예이며, (14나)는 정담(2021: 79)에서 다루어진 한문 원문의 ‘應可’에 대응되는 ‘-엄직호-’의 예이다.⁶⁾ (14가)에서 모든 미묘한 사물은 부처에게 봉헌할 만한 것인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봉헌해야 할 것이 되며, (14나)에서 제도할 만한 이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제도해야 할 이가 된다. (14나')에서는 같은 한문 원문을 ‘-어야 하-’로 번역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가능성과 필연성의 양태 의미 간에 모호성을 보이는 문법 요소의 예는 독일어, 영어, 스웨덴어, 덴마크어 등 인도유럽어족에 속하는 언어에서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van der Auwera and Plungian 1998).

석독구결 자료의 ‘-ㅁ-’이 객체 높임과 주체 높임으로 모두 쓰일 수 있었던 동기가 무엇이었던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에 제안되어 온 가설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5) 가. 백두현(1995): 문헌 외부에 있는 현토자의 겸양이 객체가 아닌 주체를 대상으로 실현된 일종의 화용적 변이.

나. 박진호(1997): 내포절의 주체를 높이는 모절 서술어로 쓰이던 발화 동사 ‘쉴다’의 기능이 문법화 과정에서 불균형하게 유지되어 나타난 과도적 용법.

다. 이승재(1998): {-시-}를 표기하는 데에 쓰이는 구결자가 ‘-ㅁ-’에서 ‘-ㅂ-’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적 표기.

라. 박富子(2013): 객체뿐만 아니라 주체를 높이는 데도 쓰이던 발화 동사 ‘쉴다’의 기능이 화석처럼 굳어져 특정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남겨진 용법.

마. 성우철(2022): 내포절 주체 높임의 ‘-ㅁ-’으로부터 내포절의 주체와 모절의 주체가 일치하는 예를 교량 맥락으로 삼아 발달한 이차적 용법.

하나의 표현이 주체 높임으로도 쓰이고 객체 높임으로도 쓰이는 예는 현대 한국어 ‘말씀’, ‘여쭙보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쭙보다’의 경우 객체 높임에서 청자 높임을 거쳐 주체 높임으로 쓰이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말씀’의 경우 어떤 경로를 거쳐 지시대상 높임 요소로 발달하였는지 알려진 바 없다(성우철 2024나). 이러한 사례가 주로 발화 사태와 관련한 의미를 나타

6) (14나)의 한문 원문과의 대응 관계는 어디까지나 추정상의 것이다. (14가'), (14나')에 제시한 『대방광불 화엄경』, 『불설미륵하생성불경』의 한문 원문에 대한 현대 한국어 번역문은 모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통합대장경에서 제공하고 있는 동국역경원 번역문에서 가져온 것이다.

내는 요소에서 발견된다는 점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그밖에 주체 높임의 ‘-白-’과 관련하여 언급할 만한 예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16) 〈금광3 15:11〉

何以故^{ニソフノチル入} 說法セ{之} 處^リ 卽^ノ 是^ニ 其 塔^リニ^ロ入^ルム^ニ
어째서냐고 하시면 說法の 장소가 곧 그 탑이시기 때문입니다.

(16)의 화자는 대중이며 청자는 부처이다. 여기에서 ‘-白-’은 직접인용 구문의 원화자이자 절의 주체인 청자, 즉 부처를 높이기 위해 쓰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5세기 한글 자료에서는 비슷한 구문에 주체 높임 요소가 쓰이지 않는다.

(17) 가. 世尊하 우리들히 부터 滅度^{호신} 後에 世尊^스 分身 거시던 나랏 滅度^{호신} 짜해 이
經을 너비 날오리니 엇데어뇨 호란^딕 우리도 이런 眞實^스 조흔 큰 法을 得고져 호야
바다 디녀 날그며 외오며 사겨 니르며 쓰며 호야 供養호리이다(世尊 我等於佛滅後
世尊分身所在國土滅度之處 當廣說此經 所以者何 我等亦自欲得是眞淨大法 受持讀誦解
說書寫 而供養之) 〈석보상절(1447) 19:37ㄴ-38ㄱ〉

세존이시여, 우리들이 부처 멸도하신 후에 세존의 분신 계시던 나라의 멸도하신 땅
에서 이 경을 널리 이를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도 진실의 깨끗한 큰 법을 얻고자 하
여 받아 지녀 읽으며 외우며 새겨 이르며 쓰며 하여 공양할 것입니다.

나. 願^호든 어머니미 雲雷音宿王 華智佛^의 가쇼셔 우리들토 존즈바 親近히 供養^{호스}
바 저스바지이다 엇데어뇨 호란^딕 부테 一切 天人衆 中에 法華經을 니르시^느니
듣즈바 受^{호스}바사 호리이다(願母往詣 雲雷音宿王華智佛所 我等亦當侍從親近供養
禮拜 所以者何 此佛於一切天人衆中 說法華經 宜應聽受) 〈석보상절(1447) 21:35ㄴ
-36ㄱ〉

원컨대 어머니미 雲雷音宿王 華智佛께 가십시오. 우리들도 좇아 친근히 공양하여 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처가 모든 天人衆 가운데에서 법화경을 이리시는데 듣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17)의 ‘엇데어뇨 호란^딕’은 절차적 의미를 나타내는, 즉 화자가 의도한 추론의 유형을 청자에
게 안내하는 접속 부사(문숙영 2018)로 기능한다. 화자는 자신이 왜 그러한 행동이나 요청을 하
고 있는지 알고 있으므로, (17)에서 ‘엇데어뇨’라는 의문을 떠올리게 되는 주체는 청자일 것이다.
그러나 (17)의 어느 예에서도 ‘호란^딕’에 {-시-}가 통합해 있지는 않다. 이것은 ‘엇데어뇨 호란
딕’라는 구성 전체가 하나의 부사로 굳어졌기 때문으로 여겨진다.⁷⁾ 그러나 (16)은 그러한 변화를
겪지 않은 통사적 구성이기 때문에 주체 높임의 ‘-白-’이 쓰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습화되어 하나로 굳어진 구성이라고 해서 지시대상 높임 요소가 개재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현희(2002)에서는 필사본 『열성지장통기』에 종결형 ‘-이…라’ 사이에 {-시-}가 끼어들
어 ‘-이시라’로 실현되는 예가 있음을 논의하였으며, 현대 한국어의 ‘-이시라서’, ‘-이시라야’ 등
도 비슷한 방식으로 연결형 ‘-이…라서’, ‘-이…라야’ 등 사이에 {-시-}가 끼어들어 나타난 구성으

7) 15세기 한글 자료의 ‘-이사’도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문제는 4.1절에서 더 자세히 논의하
기로 한다.

聞_白로_ッ 大_法利_乙 得_モハ_ニカ

이때 모든 대중은 [月光王의 十四王의 한량없는 功德藏을 歎하시는 것을] 듣고서는 大_法利를 얻으시며

(19가), (20가)는 절이 나타내는 사태의 객체가 곧바로 높임의 대상이 되는 예이다. (19가)의 ‘大耳兒’는 중국 삼국시대의 유비를 가리키며, (20가)의 ‘道樹’는 보리수, 즉 가장 뛰어난 깨달음의 경지에 있는 모든 부처를 가리킨다. (19나), (20나)는 절이 나타내는 사태의 객체와 관련을 맺는 다른 인물이 간접적으로 높임의 대상이 되는 예이다. (19나), (20나)의 탑은 모두 그것이 기리는 대상인 부처를 높이기 위한 매개가 된다. (19다), (20다)는 모절의 객체인 내포절을 매개로 내포절의 주체가 간접적으로 높임의 대상이 되는 예이다. (19다)의 {-습-}은 궁극적으로 내포절의 주체인 부처를 높임의 대상으로 삼으며, (20다)의 ‘-自-’은 궁극적으로 내포절의 주체인 월광왕을 높임의 대상으로 삼는다.

다음은 {-습-}이 객체 높임으로 쓰였으나 높임의 대상이 주격을 취하고 있는 예이다.

(21) 世尊이 큰 힘 거샤 壽命이 헤디 몬_흐스오리시니(世尊이 有大力_하샤 壽命이 不可量이 시니) <법화경언해(1463) 5:181ㄴ-182ㄱ>
세존이 큰 힘이 있으시어 [(그 수명을) 헤아리지 못할] 분이시니

(21)은 허웅(1975: 706)에서 다루어진 예로 일종의 ‘tough’ 구문(박진호 1994: 65-68)에 가까운 것이다. 여기에서 ‘헤디 몬_흐-’에 {-습-}이 통합한 것은 내포절의 목적어 논항인 부처의 수명이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인데, 이 논항에 주격 조사가 통합해 있어 언뜻 보기에는 주어의 지시대상이 높임의 대상인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예는 형용사 ‘어렵다’, ‘쉽다’가 명사절을 논항으로 취하는 구문에서 흔히 발견되나(이영경 2007: 188-190), 그러한 구문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 한문 원문의 ‘A不可B’ 구문의 A가 언해문에서 ‘NP이’로 실현되는 예는 15세기 한글 자료에서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2) 가. 고지며 모시며 各色 새들히 몬 니르 헤리러라(花果池鳥 不可稱計) <석보상절(1447) 3:5ㄱ>
꽃이며 못이며 각색 새들이 헤아릴 수 없겠더라.
가’. 得_흔 功德을 부텨 智慧로도 몬 니르 헤리어며(所得功德 以佛智慧 籌量多少 不得其邊) <석보상절(1447) 20:25ㄴ>
얻은 공덕을 부처의 지혜로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며
나. 이 법이 뵈도 몬_흐며 니르도 몬_흐리니(是法不可示 言辭相寂滅) <석보상절(1447) 13:41ㄱ>
이 법이 보이지도 못하며 이르지도 못할 것이니
다. 설부미 몬내 니르리러라(楚毒苦痛 不可復言) <월인석보(1459) 20:113ㄴ>
고통스러움이 도저히 다 이를 수 없겠더라.
다’. 설부를 몬내 니르리로다(苦痛難可陳) <월인석보(1459) 10:29ㄴ>
고통스러움을 도저히 다 이를 수 없겠구나.

주본 『화엄경』 계통의 점토석독구결 자료에서도 (21)과 비슷한 예가 드물게 발견된다.

(23) 가. <주본화엄22 10:14>

- A: 如來[44(·)]出世[14(l),15(·)]難[43(·)]可值遇[34(-),24(\),25(·),41(·)]{11(·)}⁹⁾
 B: 如來[尸]出世[而尸,入1]難[シ]可值遇[白,シ,セ,而1乙]
 C: 如來尸 出世(ッ)而尸入1 [難^シ 值遇(ッ)白(シ)]可セ(ッ)而1乙
 D: 여래가 出世하시거든 [어렵게야 (여래를) 만나 뵈직하시거늘
 E: 여래께서 출세하심을 만나기 어렵거늘

나. <주본화엄22 08:06-08>

- A: 百萬億少光天[33(·)]宣揚讚歎佛世[24(l)]難值[34(-),31(l·),41(-),52(·)]百萬億無量
 光天遙[34(l)]向佛[41(·),23(l)]禮[52(·)]百萬億光音天讚歎如來[24(l)]甚[24(l)]難[4
 3(·)]得[43(l)]見[34(-),31(l·),41(-),52(·)]
 B: 百萬億少光天[1]宣揚讚歎佛世[リ]難值[白,シ,而1入乙,ッカ]百萬億無量光天
 遙[ッ]向佛[乙,ッ]禮[ッカ]百萬億光音天讚歎如來[リ]甚[リ]難[シ]得[ホ]見[白,シ
牙,而1入乙,ッカ]
 C: 百萬億 少光天1 佛世^リ 難 值^{白,シ,而1入乙} 宣揚 讚歎^{ッカ} 百萬億 無量
 光天 遙^ッ 佛^乙 向^ッ 禮^{ッカ} 百萬億 光音天 如來^リ 甚^リ 難^シ 得^ホ 見^白
^{シ,而1入乙} 讚歎^{ッカ}
 D: 百萬億 少光天은 佛世^가 [어렵게야 (佛世를) 만날 수 있는] 바이신 것을 선양하
 고 찬탄하며, 百萬億 無量光天은 멀리 부처를 향하여 예하며, 百萬億 光音天은
여래가 [심히 어렵게야 능히 (여래를) 뵈] 분이신 것을 찬탄하며
 E: 백만억 소광천은 부처님 세상을 만나기 어렵다 찬탄하고, 백만억 무량광천은 멀
 리 부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백만억 광음천은 여래를 뵈옵기 어렵다 찬탄하고

(23나)의 ‘-牙-’는 명사형 어미와 계사를 포함하는 구성으로 분석될 수 있으며, (23가)의 ‘-應/可セ-’도 ‘-而-’를 명사형 어미로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장윤희 2001).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23)에서의 ‘-白-’의 용법도 (21)과 같은 유형으로 볼 수 있겠으나, (21)의 경우 모절의 주어 논항과 내포절의 목적어 논항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석독구결 자료에서 객체를 높이는 ‘-白-’과 15세기 한글 자료의 {-습-}이 보이는 차이 가운데 하나는 전자의 경우 주관적 용법으로는 잘 쓰이지 않는다는 점이다.¹⁰⁾ 김태우(2022: 55-59)에서는 차자표기 자료에서 명확히 주관적 용법으로 쓰였다고 볼 만한 {-습-}의 예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더불어 언어 요소의 의미 변화에서 흔히 발견되는 주관화의 경향을 고려하여, {-습-}의 객관적 용법으로부터 주관적 용법이 파생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다음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예이다.

(24) <구인상 03:17-19>

9) 文玄洙(2017: 285)에서는 11(·)을 판독에 반영하여 ‘值遇(ッ)白(シ)可セ(ッ)而1乙:’로 해독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당 구결점을 판독에 반영하지 않았다. (22가)의 ‘如來出世難可值遇’는 명사구 접속 구문, 명명 구문, 뜻풀이 구문, 호출 구문, 감탄 구문, 도치 구문 등 조사 ‘-^ㄴ/:’가 쓰일 만한 전형적인 환경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전기량 2018). 『합부금광명경』 권3에 ‘說ニロト1乙^ㄴ’의 예가 보이기는 하나 해당 예는 도치 구문에 ‘-^ㄴ’가 쓰인 예이므로 (23가)와는 구분된다.

10) {-습-}의 객관적 용법, 주관적 용법, 종합적 용법과 각 용법을 판정하는 기준은 김태우(2022: 36-39)를 참고할 수 있다.

[十六 大國王_リ 意_リ十 國土_乙 護_ノ今_セ 因緣_乙 ① 問_白{欲}人_ソニ_トウ_リ入_乙{火}]
 ② 知_白ウ_ロウ_リミ_ソ一_方 吾_一 今_ソ一_先 諸_一 菩薩 {爲}シ_テ 佛果_乙 護_ノ今_セ
 因緣_ミ 十地_セ 行_乙 護_ノ今_セ 因緣_ミ 一_乙 說_白ウ_リテ_一 |
 [十六 大國王_이 속으로 (나_{에게}) 국토를 수호할 인연을 ① 묻고자 하시는 것을] ②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우선 모든 보살을 위하여 불과를 지킬 인연이니 십지의 행을 지
 킬 인연이니 하는 것을 말하겠다.

(24)의 화자는 부처이고 청자는 十六 大國王이다. (24)-①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제안된 바 있다. 하나는 간접 목적어인 화자 자신을 ‘-白-’에 의한 높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고(김태우 2022: 56-58), 다른 하나는 직접 목적어인 ‘국토를 수호할 인연’, 나아가 그 가르침의 기원이 되는 다른 부처를 높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성우철 2022). 전자에 따르면 (24)-①은 객관적 용법의 예가 되며, 후자에 따르면 주관적 용법의 예가 된다. 15세기 한글 자료에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모두 있는 절에서의 {-습-}의 사용이 주로 간접 목적어의 높임 자질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柳東碩 1991), 전자의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24)-②는 석독구결 자료에서 ‘-白-’이 명확히 주관적 용법으로 쓰였다고 볼 만한 유일한 예이다. 화자인 부처는 十六 大國王가 주체인 절에 ‘-ニ-’를 쓰고 있으며, 十六 大國王 중 한 명인 바사닉왕을 부르는 데에 항상 호격 조사 ‘-下-’를 쓰고 있다. (24)-②에 ‘-白-’이 쓰인 것은 내포절의 주체에 대한 화자의 이러한 높임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여겨진다(성우철 2024나). 이렇게 볼 경우 (24)는 하나의 문장에 객관적 용법의 ‘-白-’(①)과 주관적 용법의 ‘-白-’(②)이 모두 쓰인 예가 된다.

(24)-①에서 ‘-白-’이 높이는 대상을 간접 목적어인 화자 자신으로 보면서 (24)-①을 종합적 용법의 예로 볼 가능성도 있다. 15세기 한글 자료에서 연결어미 ‘-고져’, ‘-오려’, ‘-과더’가 이끄는 절은 간접인용 구문의 피인용절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며(李賢熙 1986), 이때 {-습-}의 실현은 화자, 상위절의 주체, 하위절의 객체가 맺는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¹¹⁾ 석독구결 자료에서 ‘-스’가 이끄는 절이 ‘-고져’, ‘-오려’, ‘-과더’와 달리 직접인용 구문의 피인용절에 가까운 성격을 지녔다면, (24)-①에서 ‘-白-’이 쓰인 것은 일종의 원화자에 해당하는 十六 大國王의 관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게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15세기 한글 자료의 다음 예를 참고할 수 있다.

(25) 후다가 三千 大千 國土에 그 中에 그득흔 怨讐人 도죽애 흔 商主 | 여러 商人 두려 重寶 가져 嶮흔 길헤 디날 제 그 中에 흔 사루미 이 말 호디 모든 善男子아 두리디 말오 너희 반두기 一心으로 觀世音菩薩人 일흐믈 ① 일곤조오라 이菩薩이 能히 저품 업수무로 衆生이게 施히시느니 너희 후다가 일흐믈 ② 일곤조오면 이 怨讐人 도죽개 반두기 解脫을 得히리라 한 商人이 듣고 다 소리 내야 닐오디 南無 觀世音菩薩 하면 그 일흐 ③ 일곤 전초로 즉재 解脫을 得히리니 無盡意여 觀世音菩薩摩訶薩의 威神力이巍巍호미 이 곤히니라(若三千大千國土에 滿中흔 怨賊에 有一商主 | 將諸商人하야 齎持重寶하야 經過嶮路홀 제 其中一人이 作是唱 言호디 諸善男子아 勿得恐怖호고 汝等이 應當一心으로 稱觀世音菩薩人名號 하소오라 是菩薩이 能以無畏로 施於衆生히시느니 汝等이 若稱名者 | 면 於此怨賊에 當得解脫히리라 衆商人이 聞호고 俱發聲言호디 南無觀世音菩薩 하면 稱其名故로 卽得解脫히리니 無盡意여 觀世音菩薩摩訶薩의 威神之力이巍巍如是

11) ‘-고져’의 경우 {-습-}이 하위절에만 통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64회), 하위절과 상위절 모두에 통합할 수도 있고(12회), 상위절에만 통합할 수도 있다(2회). ‘-오려’의 경우 {-습-}이 예외 없이 하위절에만 통합한다(37회). ‘-과더’의 경우 15세기 한글 자료에서는 {-습-}이 통합한 예가 보이지 않는다.

후니라) 〈법화경언해(1463) 7:58L-59L〉

만일 삼천 대천 국토 가운데 원수 같은 도적이 가득한 속에 한 상주가 여러 상인을 데리고 귀중한 보물을 가지고 험한 길에서 지나갈 때, 그 중 한 사람이 이 말하기를 “모든 선남자여,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반드시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① 일컬어라. 이 보살이 능히 두려움 없어짐으로 중생에게 베푸시는데, 너희가 만일 그 이름을 ② 일컬으면 이 원수 같은 도적에게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상인이 듣고 다 소리 내어 말하기를 “나무 관세음보살” 하면 그 이름 ③ 일컬은 까닭으로 즉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니, 무진의여 관세음보살마하살의 위신력이 우뚝함이 이와 같다.

(25)는 安秉禧(1961), 김태우(2022: 42-44)에서 다루어진 예이다. (25)-①, (25)-②는 직접인용구문의 피인용절에 해당하는데, 원화자인 상인의 관점이 반영되어 관세음보살의 이름이 객체인 절에 {-습-}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모절인 (25)-③에서는 화자인 부처의 관점이 반영되어 관세음보살의 이름이 객체인 절에 {-습-}이 쓰이지 않고 있다. 다만 (24)-①에 나타난 ‘-白-’의 용법과 (25)-①, (25)-②에 나타난 {-습-}의 용법을 대등한 것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 석독구결 자료에서 ‘-스’가 이끄는 절의 문법적 성격에 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석독구결 자료에서 객체를 높이는 ‘-白-’과 15세기 한글 자료의 {-습-}이 보이는 두 번째 차이는 전자의 경우 통합 가능한 서술어의 유형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15세기 한글 자료의 {-습-}은 타동사뿐만 아니라 둘 이상의 논항을 요구하는 자동사나 형용사, 심지어는 계사에도 통합할 수 있었다(김태우 2022: 67-72). 반면에 석독구결 자료에서 ‘-白-’이 자동사나 형용사에 통합한 예는 모두 6건에 불과한데, 이 가운데 객체만이 높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만한 것은 다음의 한 예뿐이다.

(26) 〈구인상 14:20-23〉

汝 1 {於}過去セ 七佛十 已シ 一リモセ 義ニ 二リモセ 義ニノ乙 問白ウハニ一リ四
汝 1 今ッ一 聽ノ尸 無セカ 我 1 今ッ一 說ノ尸 無セ白ウ一 聽ノ尸 無セカ 說ノ
尸 無セ一入乙 卽リ {爲}-一リモセ 義ニッカ 二リモセ 義ニノオ一入三 故ノニ 諦
聽 諦 聽カ 善カ 之乙 思ッミ 念ッミッカ 法乙 {如}宣 修行ッナリ 七佛セ 偈ニ 是
{如}一ッナ一

그대는 과거의 七佛께 이미 하나인 것의 義이니 둘인 것의 義이니 하는 것을 물으신 이라서, 그대는 지금 들을 것이 없으며 나는 지금 말할 것이 없다. 들을 것이 없으며 말할 것이 없는 것을 곧 하나인 것의 義라 하며 둘인 것의 義라 하는 까닭이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며, 이를 잘 생각하고 생각하고 하며 법과 같이 수행하라. 七佛의 계송이 이와 같다.

(26)에 대해서는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說ノ尸’의 지시대상인 七佛의 계송을 높이기 위해 ‘-白-’이 쓰인 것이다. 둘째, 하위절이 나타내는 발화 사태의 객체인 바사닉왕을 높이기 위해 상위절의 서술어에 ‘-白-’이 쓰인 것이다. 셋째, 주체인 화자 자신을 높이기 위해 ‘-白-’이 쓰인 것이다.¹²⁾ 『구역인왕경』 권상은 화자가 자신을 높이기 위해 ‘-ニ-’나 ‘-白-’을 쓴 것으로 볼 만한 명확한 예가 발견되지 않는 문헌이라는 점에서 세 번째 해석은 설명의 부담이 크다. 두

12) 앞의 두 가지 해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성우철(2022)를 참고할 수 있다.

넷째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편안히 머무를 때의 할 일이니, 말하자면 ‘만일 愛樂하여서 여러 재가와 출가와와 무리와 더불어 섞여 거주하는 경우 곧 갖가지 세간과 상응하는, 견문을 수용하는 여러 산란한 일을 지닐 것이라서, 나로 하여금 저 바로 살피고 관찰하는 心一境位에서 반드시 장애를 짓게 하지 말 일이다.’ 할 것이다.

(28가)의 객체인 八住의 보살은 화자인 부처의 전생으로, 『인왕경소』에서는 여기에서의 ‘四住’와 ‘八住’가 각기 焰慧地와 等觀地에 대응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화자의 전생인 八住의 보살은 이미 ‘十住’, 즉 法雲地에 이른 현생의 부처보다 낮은 지위에 있으므로, 화자가 과거의 자신을 객관화하여 높임의 대상으로 삼았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성우철 2022). 『구역인왕경』 권상은 화자 자신을 높이는 ‘-ニ-’나 ‘-白-’의 명확한 예가 발견되지 않는 문헌이라는 점에서 이때의 ‘-白-’이 주체 높임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기도 부담스럽다.

(28나)는 장경준(2007: 181)에서 다루어진 예이다. (28나)의 경우 주체가 화자 자신이며, 객체인 ‘諸 散亂事’가 객관적으로든 주관적으로든 높임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박부자(2019)에서는 이 예와 더불어 『유가사지론』 권20의 ‘○○地ニト當ハ説白ノ尸 如支ツリリ丁’ 구문에 나타난 ‘-白-’의 기능을 모두 주체 높임으로 분류하였으나, 장경준(2009)에서 논의된 ‘-而-’의 예외적 용법을 고려한 잠정적 처리임을 지적하였다.

4. 기타 중간적 용법

4.1. 계사 보어에 대한 높임

15세기 한글 자료에서는 주어의 지시대상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지만 계사 보어의 지시대상은 높임의 대상일 때 {-시-}가 쓰일 수도 있고 {-습-}이 쓰일 수도 있었다(李賢熙 1994: 123-127).

(29) 가. 南北東西에 흔 釋迦 ㅣ 샷다(南北東西에 一釋迦 ㅣ 샷다) <금강경삼가해(1482) 2:60ㄱ>
남북동서에 한 분 석가가 계시도다.

나. 能仁는 梵語에 釋迦 ㅣ 시고 예서 날오맨 能仁이라 <원각경언해(1465) 하3-2:101ㄱ>
能仁는 범어에서는 석가이시고 여기에서 이를 때는 能仁이다.

다. 一大事는 一乘妙法이니 곧 諸佛^원 知見이시며 當^하흔 사르맨 妙心이며(一大事者는 一乘妙法也 ㅣ 니 卽諸佛知見이시며 當人妙心이며) <법화경언해(1463) 1:177ㄴ>
일대사는 일승묘법이니 곧 모든 분처께는 지견이며 당한 사람에게는 묘심이며

라. 世尊하 내 이제 娑婆世界에 가미 다 如來스 히미시며 如來스 神通遊戲시며 如來스 功德智慧莊嚴이시니이다(世尊 我今詣娑婆世界 皆是如來之力 如來神通遊戲 如來功德智慧莊嚴) <석보상절(1447) 20:37ㄴ>

세존이시어, 내가 이제 사바세계에 가는 것이 다 여래의 힘이시며, 여래의 신통유희이시며, 여래의 공덕지혜장엄이십니다.

마. 이 우리 허므리라 世尊스 다시 아니루사시이다 <월인석보(1459) 12:3ㄴ>
이것이 우리의 허물이라 세존의 탓이 아니셨습니다.

마’. 이는 우리 허므리라 世尊스 다시 아니시다스이다(是는 我等咎 ㅣ 라 非世尊也 ㅣ 시다스이다) <법화경언해(1463) 2:5ㄴ>

- (30) 가. 七寶 바리에 供養을 담으샤미 四天王의 請이스 븍니 <월인천강지곡(1447) 상:32 ㄱ>
 七寶 바리에 공양을 담으심이 (부처를 향한) 사천왕의 청이니
- 나. 花香과 風流로 寶塔애 供養이 諸 天 人 鬼 精誠이스 븍니 <월인석보(1459) 15:60 ㄱ-60ㄴ>
 화향과 풍류로 보탑에 공양함이 (부처를 향한) 모든 天, 人, 鬼의 정성이니
- 다. 大王하 더 雲雷音宿王 華智佛이 … 法華經을 너비 니르시느니 이 우리 스승이시며
 우리 그 弟子 | 스보이다(大王 彼雲雷音宿王華智佛 … 廣說法華經 是我等師 我是弟子) <월인석보(1459) 19:78ㄴ-79ㄱ>
 대왕이시어, 저 雲雷音宿王 華智佛이 … 법화경을 널리 이르시는데, 이 우리 스승이
 시며 우리 그 제자입니다.
- 라. 내 보텃 佛아드리스오니(我爲佛長子 | 스오니) <법화경언해(1463) 1:169ㄴ>
 나는 부처의 맏아들이니
- 마. 羅睺羅는 이 보텃 아드리스오니(羅睺羅는 是佛之子 | 스오니) <법화경언해(1463) 4:48 ㄴ>
 라후라는 부처의 아들이니

이 경우 {-시-}가 쓰이는지 {-습-}이 쓰이는지는 계사 보어가 높임의 대상과 의미상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계사 보어가 (29가), (29나)와 같이 그 자체로 높임의 대상이 되거나, (29다)와 같이 높임의 대상을 의미상의 주체로 삼거나, (29라), (29마)와 같이 높임의 대상과 분리 불가능한 소유 관계를 맺는 경우 {-시-}가 쓰인다. 그러나 계사 보어가 (30가), (30나)와 같이 높임의 대상을 의미상의 객체로 삼거나, (30다), (30라), (30마)와 같이 높임의 대상과 분리 가능한 소유 관계를 맺는 경우 {-습-}이 쓰인다.¹⁶⁾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비슷한 구문의 계사 보어를 높이는 데에 ‘-ᄃᆞ/=-’만이 쓰인다.

(31) 가. <화엄14 19:02-03>

記心ᄃ 敎戒ᄃ 及ᄃ 神足ᄃᄃ 悉ᄃ 是ᄃ 如來尸自在用ᄃᄃ 彼 諸ᄃ 大士ᄃ 皆ᄃ 示現ᄃᄃ 能ᄃ 衆生ᄃ 盡ᄃ 調伏 使ᄃᄃ
 記心이니 敎戒이니 및 神足이니 하는 것은 다 여래의 自在用이시거늘 저 모든 大士는 다 示現하여서 능히 중생을 다 조복하게 하며

나. <금광3 15:04-15:13>
 若 有 處處ᄃᄃ 此 金光明經ᄃ 講宣ᄃᄃ 是 說法處ᄃᄃ 一切 諸

16) {-시-}가 쓰인 (29라), (29마)와 {-습-}이 쓰인 (30다), (30라), (30마)의 차이를 기술하는 데에 분리 가능성(separability)의 개념을 적용한 것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처리이다. 15세기 한글 자료의 명사 수식 구성에 이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판단하기에는 알려진 문법 현상이 그리 많지 않다. 친족 관계가 어느 정도로 긴밀한 소유 관계로 여겨지는지는 언어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친족 관계가 가장 긴밀한 소유 관계로 여겨지는 언어도 있고, 덜 긴밀한 소유 관계로 여겨지는 언어도 있으며, 친척과 인척을 구분하거나 순위 친족과 손아래 친족을 구분하는 언어도 있다(Dixon 2010: 284). 성우철(2024나)에서는 (30다), (30라), (30마)에 대해 ‘부처를 섬기는 제자’, ‘부처에게서 난 아들’ 정도의 사태 구조를 상정하여 (30가), (30나)와 같은 유형으로 처리하였으나, 이 경우 ‘부처가 가르친 제자’, ‘부처가 낳은 아들’ 정도의 사태 구조를 상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다소 자의적인 처리로 판단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정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天人非人等ッリ及諸衆生ノ尸乙得ッホ上乙從セ而過
ッッ說法セ之處乙汗漫スリ尸不冬ッロセノホセ何以故ッ白ノ尸
入ッ說法セ之處リ卽ノ是ッ其塔リニロッ入ム若善男子善女人ノ
尸當諸香花繪綵幡蓋ノ尸乙以シ是說法處乙供養ノ
ホ應セッロ

“혹 있습니다, 곳곳에서 이 금광명경을 講宣시키는 이가. … 이 설법하는 곳에 대해 서는, 모든 여러 天이니 人이니 非人이니 같은 것이니 여러 중생이니 하는 이를, 능 히 위로 지나다녀 설법하는 곳을 더럽히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법하는 곳이 곧 그 탑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령 선남자니 선여인이니 하는 이는 마땅히 여러 향이니 꽃이니 繪이니 綵니 幡이니 蓋니 하는 것으로써 이 설법하는 곳을 공양해야 합니다.”

(31가)의 화자는 현수보살이며, (31나)의 화자는 대중이다. (31가)에서 ‘-ホ-’가 쓰인 것은 계사 보어인 自在用이 여래, 즉 부처에 의한 것이기 되기 때문이며, (31나)에서 ‘-ニ-’가 쓰인 것은 계사 보어인 탑이 부처를 모시는 곳이기 때문이다. (31나)의 ‘說法處’가 탑과 별개로 높임의 대상 이 되는 장소였다면 『합부금광명경』 권3의 다른 예와 마찬가지로 ‘供養ノホ應セッロ’에도 ‘-白-’이 통합했을 것이다.

홍고(2002: 329-331)에 따르면 계사 보어에 통합하는 ‘-白-’의 용법은 14세기 후반의 이두 자료에서부터 발견된다.

(32) 가. 洪武二十六年 七月二十九日 左承旨 李勲 次知 口傳 王旨 […有司宜悉 載賞典亦 敎事]是白齊 〈鄭津 開國原從功臣 錄券(1395)〉

홍무 26년 7월 29일 좌승지 이근 담당관에게 말로 전하신 교지는 [(임금)] “… 有司가 마땅히 모두 賞典에 기록해야 할 것이다.” 하신 일이었다.

나. 洪武三十年 九月十一日 都承旨 通政大夫 經筵參贊官 集賢殿 直學士 知 製敎 知吏曹事 鄭澹 伏奉 王旨 [依申敎事]是白有良 〈沈之伯 開國原從 功臣 錄券(1397)〉

홍무 30년 9월 11일 도승지 통정대부 경연 참찬관 집현전 직학사 지제교 지이조사 정담이 삼가 받은 교지는 [(임금)] 아뢴 대로 시행하도록 윤허하신 일이었기에

다. 吾曾祖 貞景公 金士元 遺書內 […如或有之孝順子孫 告狀於官奪其奴婢 永絕屬籍爲良如 敎 遺書]是白乎等用良 〈金務 許與文記(1429)〉

내 증조부 정경공 김사원의 유서는 그 내용이 [(증조부가) “… 孝順한 자손이 있으면 관에 소장을 올려 그 노비를 빼앗고 屬籍을 영원히 끊어버려라.” 하신 유서]였기 때 문에

(32)에서 ‘-白-’이 쓰인 것은 계사 보어를 수식하는 내포절의 주체가 높임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32)에서의 ‘-白-’의 용법은 (20다)에서 보이는 ‘-白-’의 내포절 주체 높임 용법과 연속성을 지닌다(성우철 2022). 내포절의 주체에 속격이 통합하는 현상이 범언어적으로 흔히 발견되는 일임을 고려할 때, (32)와 같은 ‘-白-’의 용법으로부터 (30다), (30라), (30마)와 같은 {-습-}의 용법이 발달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계사 구문에서 비롯되어 문법화한 보조사 가운데 하나로 ‘-이사’를 들 수 있다(李賢熙 1995, 박진호 2015). 15세기 한글 자료의 ‘-이사’는 선행 명사구가 높임의 대상이더라도 {-시-}가 통합

하지 않았다.

- (33) 가. 오직 부테사 큰 勢 거샤 能히 險흔 길헤 救히시며(唯佛이사 有大勢히샤 能救險道
히시며) 〈법화경언해(1463) 1:232L〉
오직 부처이시어야 큰 勢가 있으시어 능히 험한 길에서 구하시며
나. 오직 부터 世尊이사 우리의 기픈 本來人 願을 能히 아라시느니라(唯佛世尊
이사 能知我等의 深心本願히시느니라) 〈법화경언해(1463) 4:6ㄱ〉
오직 부처 세존이시어야 우리의 깊은 마음, 본래의 원을 능히 아십니다.
다. 오직 佛이사 아라시며 地에 오르니샤 비르서 受히리니(唯佛이사 了知히시며 登地
샤 方受히니) 〈원각경언해(1465) 상2-3:6ㄱ〉
오직 부처이시어야 아시며 地에 오른 이어야 비로소 받을 것이니

그런데 석독구결 자료에서 15세기 한글 자료의 ‘-이사’에 대응되는 구성은 선행 명사구가 높
임의 대상인 경우 ‘-니-’가 통합하였다(李賢熙 1995).

- (34) 가. 〈구인上 11:06〉
唯ハ 佛_ニニ_ハ 一人_ニニ_ハ 淨土_ヲ 居_ニニ_ハ 四
오직 부처이실 한 분이시어야 정토에 머무르시는 것이라서
나. 〈금광3 13:04-05〉
衆生_ニ {於}見_ニ 失_ニ 世尊_ニ 能_カ 濟度_ニ 衆生_カ
중생이 正見을 잃은 것을 세존이시어야 능히 제도하시며
다. 〈금광3 13:14-15〉
世間_ニ 一_ハ 異_ニ 一_ハ 不_ニ 變_ニ 譬_ニ 空谷_ニ 響_ニ 如_ニ 不_ニ 滅_ニ
세간은 같지도 다르지도 않은 것이, 비유하자면 空谷의 메아리 같아, 不度하고 또한
不滅하고 하는 것을 오직 부처이시어야 능히 了知하시며

15세기 한글 자료의 ‘-이사’는 이미 문법화가 완료되어 계사를 포함하는 구성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였으나, 석독구결 자료의 ‘-니-’는 아직 그러한 성격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니-’가
통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2.2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미 하나의 문법 요소로 굳
어진 구성이라고 해서 ‘-니-’가 끼어드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4.2. 확장 명사구의 명명 대상에 대한 높임

15세기 한글 자료에서는 어떤 대상의 이름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확장 명사구가 구성되는 일이
있었는데, 명명 대상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개체인 경우 ‘NP₁이 일후미 NP₂라 호리’ 구성
과 ‘NP₂이라 홀 NP₁’ 구성이 모두 쓰일 수 있었으나, 명명 대상이 자신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개체인 경우 ‘NP₂이라 홀 NP₁’ 구성만 쓰일 수 있었다(李賢熙 1990: 699). ‘NP₁이 일후미 NP₂
라 호리’ 구성에서 명명 대상이 높임의 대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NP₂에 후행하는 ‘히-’에 {-시-}
가 통합하여 ‘히샤리’로 실현되었다.

- (35) 가. 淨飯王 아드님 悉達이라 흐샤리 나실 나래 하늘로서 설흔두 가짓 祥瑞 누리며(淨飯王子 厥名悉達 其生之日 天降瑞應 三十有二) 〈석보상절(1447) 6:17〉
정반왕 아드님 실달이라고 하시는 이 나시는 날에 하늘로부터 설흔두 가지의 상서가 내리며
나. 그뵈 모든 中에 흐 菩薩摩訶薩 일후미 救脫이라 흐샤리 座에서 니르샤(爾時 衆中 有一菩薩摩訶薩 名曰救脫 卽從座起) 〈석보상절(1447) 9:29〉
그때 모인 이 중에 한 보살마하살 이름이 구탈이라고 하시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李賢熙(1990: 770)에서는 (35)의 ‘흐샤리’에 대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체도 자신을 그렇게 부른다는 전제가 있으므로 ‘흐’에 {-시-}가 통합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런데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구문에 ‘-白-’이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36) 〈구인노 02:24-03:01〉

時十六 大國王セ 中ろセ 舍衛國主ニル 波斯匿王ニ 名[火] 日白尸 月光ニッ白
う今一 德行一 十地ニ 六度ニ 三十七品ニ 四不壞淨ニ ノ乙ッ 摩訶衍セ 化乙 行ッ
るッニト一ニ

그때 十六 大國王의 가운데 舍衛國主이신 바사닉왕이 이름을 이르기를 月光이라고 하는
이가 덕행은 十地이니 六度이니 三十七品이니 四不壞淨이니 하는 것을 하며 摩訶衍의
化를 행하며 하고 계셨는데

(36)에 나타난 ‘-白-’의 용법을 주체 높임으로 보아야 하는지 객체 높임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단언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36)이 (35)와 마찬가지로 주체도 자신을 그렇게 부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주체 높임으로 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주체를 그렇게 부름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객체 높임으로 볼 수 있다. 성우철(2022)에서는 후자의 해석에 따라 (36)의 ‘-白-’을 모두 객체 높임으로 분류하였으나, 『구역인왕경』 권상이 주체 높임의 ‘-白-’이 발견되는 문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체 높임으로 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5. 결론

(생략)

참고문헌

- 강인선(1977), 「15세기 국어의 인용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태우(2022), 『{-습-}의 기능 변화 연구』, 國語學叢書 81, 태학사.
- 柳東碩(1991), 「중세국어 객체높임법에 대한 통사론적 접근」, 『國語學의 새로운 認識과 展開: 金完鎭先生 回甲紀念論叢』, 민음사, 489-503쪽.
- 리의도(1990), 『우리말 이음씨끝의 통시적 연구』, 어문각.
- 문숙영(2018), 「관련성 이론의 관점에서 본 접속부사의 의미기능」, 『國語學』 88, 국어학회, 97-136쪽.
- 文玄洙(2017), 「周本 『華嚴經』 點吐釋讀口訣의 解讀 研究」,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문현수(2020), 「『구역인왕경』과 『자비도량참법』의 석독구결 현토 양상에 대하여」, 『國語學』 93, 국어학회, 123-155쪽.
- 朴富子(2013), 「東大寺 所藏 『大方廣佛花嚴經』 卷第12~20에 記入된 角筆字 [白]에 대한 研究」, 『口訣研究』 30, 구결학회, 81-106쪽.
- 박부자(2019), 「고대국어 경어법 선어말어미의 연구 현황과 과제: ‘-ㅁ-’을 중심으로」, 『제56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별지.
- 박부자(2022), 「東大寺圖書館藏 新羅 花嚴經에 기입된 각필자 [白]의 추가 용례에 대한 연구」, 『돈암어문학』 42, 돈암어문학회, 119-157쪽.
- 박진호(1994), 「통사적 결합 관계와 논항구조」,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진호(1997), 「借字表記 資料에 대한 통사론적 검토」, 『새국어생활』 7(4), 국립국어연구원, 117-145쪽.
- 백두현(1995),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경어법 선어말어미 ‘-ㄴ-’, ‘-ㅁ-’의 분포와 기능에 관한 연구」, 『語文論叢』 29, 경북어문학회, 45-114쪽.
- 성우철(2022), 「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ㅁ(습)-’의 기능에 관한 연구」, 『東洋學』 88,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35쪽.
- 성우철(2024가),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ㅁ-’의 기능에 관한 연구」, 『국어사연구』 38, 국어사학회, 75-107쪽.
- 성우철(2024나),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ㅁ-’의 기능: 15세기 한글 자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國語學』 112, 국어학회, 255-284쪽.
- 安秉禧(1961), 「主體謙讓法の 接尾辭 ‘-습-’에 대하여」, 『震檀學報』 22, 진단학회, 103-126쪽.
- 이강혁(2024), 「중세한국어 인용구문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승재(1998), 「고대 국어 형태」,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고대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41-75쪽.
- 이영경(2007), 『중세국어 형용사 구문 연구』, 國語學叢書 57, 태학사.
- 이유미(2009), 「‘-노라 흥-’ 구성의 접속어미화 연구」, 경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필영(1995), 「통사적 구성에서의 축약에 대하여: ‘다-, 이라-, 더라-, 러-, 노라-’ 형을 중심으로」, 『국어학』 26, 국어학회, 1-32쪽.

- 李賢熙(1986), 「中世國語 內的 話法の 性格」, 『한신논문집』 3, 한신대학교 출판부, 191-228쪽.
- 李賢熙(1990), 「중세국어 명사구 확장의 한 유형: 형식명사 ‘이’와 관련된 몇 문제」, 『國語學 論文集: 基谷 姜信沆先生 華甲紀念』, 태학사, 681-703쪽.
- 李賢熙(1994), 『中世國語 構文研究』, 신구문화사.
- 李賢熙(1995), 「‘-ㅅ’와 ‘-沙’」, 『韓日語學論叢: 南鶴 李種徹先生 回甲紀念論叢』, 국학자료원, 521-585쪽.
- 이현희(2002), 「중세·근대국어 형태론의 몇 문제」, 『문법과 텍스트』, 서울대학교 출판부, 139-155쪽.
- 장경준(2007), 『『瑜伽師地論』 點吐釋讀口訣의 解讀 方法 研究』, 國語學叢書 58, 태학사.
- 장경준(2009), 「점토구결 자료의 문법 형태에 대하여」, 『國語學』 56, 국어학회, 249-279쪽.
- 장윤희(2001), 「중세국어 ‘-암/엄 직ㅎ-’의 문법사」, 『형태론』 3(1), 1-21쪽.
- 장윤희(2002), 『중세국어 종결어미 연구』, 國語學叢書 41, 태학사.
- 전기량(2018), 「중세 한국어 ‘-여’ 구문 연구」,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정담(2021), 「‘-(으)ㅁ직하-’ 구성의 통시적 연구」, 공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정연주(2017), 『구문의 자리채우미 ‘하다’ 연구』, 國語學叢書 75, 태학사.
- 최성규(2025), 「향찰과 석독구결의 선어말어미 비교」, 『口訣研究』 54, 구결학회, 43-118쪽.
- 한미경(2012), 「경어연구와 커뮤니케이션」, 『日本語學研究』 34, 한국일본어학회, 25-41쪽.
- 한미경(2013), 『일본어 경어사』, 태학사.
- 한미경·권경애·박현정(2022), 『일본어 고전문법』,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 許雄(1954), 「尊待法史: 國語 文法史의 한토막」, 『成均學報』 1, 성균관대학교, 139-207쪽.
- 허웅(1975), 『우리 옛말본: 15세기 국어 형태론』, 샘문화사.
- 홍고 테루오(2002), 「이두자료의 경어법에 관한 통시적 연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Dixon, R. M. W. (2010), *Basic Linguistic Theory, Volume II: Grammatical Topics*, Oxford University Press.
- van der Auwera, J. and V. A. Plungian (1998), Modality's Semantic Map, *Linguistic Typology* 2(1), pp. 79-124.

“석독구결 자료의 지시대상 높임법”에 대한 토론문

이병기(한국, 한림대)

이 논문은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높임 선어말어미 $-\text{ㄴ} / -\text{ㄴ}$, $-\text{白}$ 의 특징을 15세기의 {-시-}, {-습-}과 비교하며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성격이 명확한 전형적인 용법보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용법을 중심으로 설명하였기 때문에 간과하기 쉬운, 또는 명확한 설명 없이 이견이 많은 현상에 대하여 다시 고민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각 형태소가 나타내는 높임의 기능을 명확히 설명해 내기 위해서는 발화 상황과 문맥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불경은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화자와 청자의 구분도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예들을 중심으로 각 형태소가 수행하는 높임의 기능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연구 자체로 충분히 의의가 인정되지만, 한편으로 각 예들에 대한 이해와 설명에 공감되지 않는 부분들도 보여 전체적으로 기존의 연구들보다 진일보한 부분이 무엇인지 짚어 내기가 여의치 않았다. 재고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한다.

1. (1)가 ... 주를 如來 보시노라 하시며 人 天들히 色身에 즐겨 貪着한 사름 위^하샤 無常을 보시노라 하샤 涅槃을 하시니 (... 것을 여래가 보이신다고 하시며, 人, 天들이 색신에 즐겨 탐하고 집착한 사람을 위하여 무상을 보이신다고 하시어 열반을 하시니)

(1가)에 대하여 “인용화자가 원발화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점을 반영하여 원화자를 높이기 위해 쓴 것으로 분석된다”(3쪽)고 하며 ‘-노라’ 뒤의 ‘ㅎ다’에 대하여 발화동사의 대동사가 아닌 전이어로 설명한 논의(이현희1986), 자리채우미로 설명한 논의(정연주2017)를 인용하고 보완 설명이 없다. 이들 논의의 인용이 원화자를 높이기 위해 ‘-시-’가 사용되었다는 주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원화자를 높이기 위해 쓴 것이라는 것이 인용화자의 높임 의도가 들어간 간접 발화를 염두에 둔 것인지 아니면 뒤이어 설명하는 일본어의 自敬 발화와 동궐에서 설명하고자 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어려움은 현대역이 높임 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은 데에서도 기인한다. 참고로 토론자가 생각하는 현대역은 “(여래가) … 것을 보이시려 하시며, 색신에 빠져 탐하고 집착하는 사람, 하늘 들을 위하여 보이시려 하시어”이고, 이때의 ‘ㅎ다’는 사유동사의 대동사로 파악한다.

2. (5)가. <화소35 11:20-12:03>

爾セツフ時ナ菩薩ヲ{是}リ念言ノ尸入乙作ツナ尸丁…我₁今ツフ盛壯ツカ_イ富
イ₁ム₁天下乙{有}カ_イカ_イ乞者リ現前ツカツロ₁當ハ不堅ツフ入乙以₁ハ而…堅
ツヒセ法乙求ノ者₁セ₁ツナカ

그러한 때에 보살은 이 생각하는 것을 하기를 ‘... 나는 지금은 견장하시며 부유함에 있어서는 천하를 가지셨으며 결인이 나타나며 하니, 마땅히 견고하지 못한 것으로써 견고한 법을 구할 일이다.’ 하며

(5가)에 대하여 “(5나), (5다)와 달리 (5가)는 화자가 자신을 높이는 데에 ‘-ㅁ-’를 쓴 예로 보

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로 설명하였다. ‘-ᄃ-’를 화자가 자신을 높이기 위한 문법 형태로 파악한 것은 매우 파격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논거는 (6)을 ‘自敬 발화’로 이해한 한미경(2013, 2022)의 인용과 “주체 높임법에 절대적(또는 객관적) 상하 관계에 기반을 둔 용법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6쪽) 정도로 파악된다. 그렇지만 앞뒤 보살이 주어로 나오는 여러 발화 상화에서는 ‘-ᄃ-’가 결합하지 않았고 상위문 서술어라 할 수 있는 후행의 ‘求ノテ 〽セリッソナカ’에도 ‘ᄃ’가 결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설득적인 보완 설명이 필요하다.

3. “(10)은 절의 주체가 ‘-ᄃ-’에 의한 주된 높임의 대상이 되지만, 객체도 주체와의 관련성을 토대로 높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예이다. (10가)의 객체인 천보연화는 주체인 부처의 정수리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높임의 대상이 될 만하며, (10나)의 객체인 연화사자좌는 주체인 부처가 앉는 곳이라는 점에서 높임의 대상이 될 만하다. (12나)의 객체인 사자좌는 주체인 다보여래가 앉는 곳이라는 점에서 각기 높임의 대상이 될 만하나, (10)과는 달리 {-습-}이 쓰이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석독 구결 자료의 ‘ᄃ’을 기본적으로 객체 높임의 용법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부처와 관련한 ‘좌(坐)’를 일반인들이 경외하고 조심하기는 하겠지만 객체높임의 대상으로 간주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千寶蓮花’의 경우도 부처의 정수리에서 나와서 높임의 대상이라고 하는 설명이 일면 타당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막상 그 부처가 주어인 ‘出ッ白クテム’에 꽃을 높이는 객체 높임 요소만 쓰이고 부처를 높이는 주체 높임 요소는 쓰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千寶蓮花’가 주어인 至ᄃ, 爾ᄃ에는 주체 높임 요소가 결합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된다.

4. (13)가. 予는 [ᄃ(H) ᄃ습시논] 쁘디시니라 <훈민정음 언해본(1459) 2ㄴ>
 ‘予’는 [(세종이)] “ᄃᄃ”라고 하시는 뜻이시다.

(13가)의 ‘ᄃ(H) ᄃ습시논’에 대하여 “(세종이) “내가”라고 하시는”으로 현대역하고 “주체는 세종이며 객체는 1인칭 주격을 나타내는 세종의 발화이다.”(10쪽)라고 설명하였는데 이때의 ‘ᄃ-’는 ‘不은 아니 ᄃ논 쁘디라’, ‘相은 서르 ᄃ논 쁘디라’에서와 같이 부사 ‘아니’, ‘서르’가 용언 ‘ᄃ-’를 수식하는 의미로 쓰인 것과 동궤에서 ‘내’가 주어임을 드러내는 동사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이럴 경우 현대역은 ‘내가 하시는’이 좋을 듯하다] 이러한 생각이 맞다면 ‘객체인 세종의 발화’를 높이기 위해 ‘-습-’이 결합하였다는 설명은 재고가 필요하다.

5. ‘-ᄃ應可ヒッ-’가 “가능성과 필연성의 양태 의미 간에 모호성을 보이는” (14)를 객체 높임 형태소가 주체 높임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논거로 활용하였는데 양태의 다의성과 높임 요소의 다의성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설득적이지 않다. 양태의 다의성은 일반적이지만 높임의 다의성은 일반적이지 않다. 또한 “여쭙보다’의 경우 객체 높임에서 청자 높임을 거쳐 주체 높임으로 쓰이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12쪽)고 하였는데 ‘여쭙보다’의 주체 높임의 용법은 의문스럽고, ‘말씀’의 경우는 더더욱 ‘자신의 겸양과 상대 및 제3자의 높임’으로 이해되지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 두 가지 용법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아랫사람에게 ‘내 말씀을 들어라.’라고는 하지 않기 때문이다.

6. “이현희(2002)에서는 필사본 『열성지장통기』에 종결형 ‘-이...라’ 사이에 {-시-}가 끼어들어 ‘-이시라’로 실현되는 예가 있음을 논의하였으며, 현대 한국어의 ‘-이시라서’, ‘-이시라야’ 등도

비슷한 방식으로 연결형 ‘-이…라서’, ‘-이…라야’ 등 사이에 {-시-}가 끼어들어 나타난 구성으로 분석된다.”(13쪽)고 하였는데 성격이 다른 것 같다. 이현희(2002)의 종결형 ‘이시라’에 대한 설명은 ‘이시다’가 아닌 것을 설명하기 위한 방편인데 ‘이시라서’는 ‘이시며’ 등과 같이 그냥 ‘어간+선어말어미+어말어미’의 일반적인 구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7. “현대 한국어 ‘왜냐하면’ 역시 ‘왜냐하시면’의 예가 간혹 발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사로 굳어진 구성이라고 해서 ‘-ㅁ-’이 끼어드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인다.”(13쪽)라고 하며 (18)의 예들을 보였는데 이들은 현대에 ‘-시-’가 상대높임 용법으로 오용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일 뿐이어서 (16)의 ‘ㅁ’을 주체 높임으로 볼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8. (28가)의 ‘-ㅁ-’에 대하여 객체 높임으로도, 주체 높임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하였는데 제3의 기능을 염두에 둔 진술인지? 그렇다면 일인칭 주체 높임으로 설명한 (5)와 같은 예도 제3의 기능으로 묶을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 위의 질의 중 제가 잘못 이해하였거나 그 사이에 추가된 사항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68회 구결학회 여름 전국학술대회



차자 표기의 청자 높임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태우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트랜스-로컬 한국어문학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1



개요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트랜스-로컬 한국어문학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2



목적과 문제

- 차자 표기 자료 연구는 훈민정음 창제 이전 한국어의 단면을 알고 한국어의 통시적 발달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 차자 표기 자료가 반영하는 언어의 높임법은 어떤 상태였는지, 중세 문헌어에 '-으시-', '-습-', '-이-'로 나타나는 형태소는 원래 어떤 형태였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 됨.
- 그러나 높임법 중 청자 높임법은 차자 표기 자료의 특성상 확인이 어려운 면이 있음.
- 향가는 노래이고, 이두는 금석문이나 관용 문서를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화·청자 관계가 반영된 대화가 거의 없기 때문.
-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향가에는 청자 높임과 관련된 형태가 없으며, 이두의 경우 {-白-}이 청자 높임으로 쓰인 예가 14세기 중엽부터 보임(홍고 2002).
- 이 자료들을 통해서 청자 높임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하기가 힘들.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트랜스-로컬 한국어문학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홍고 태루오(2002), 『이두자료의 경어법에 관한 통시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



목적과 문제

- 구결 자료는 불경에 기입되어 있기 때문에, 불교 경전에 대화 부분의 구결을 확인함으로써 당시 청자 높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실제로 13~14세기 경 기입된 초기 음독구결 자료에는 청자 높임법이 잘 반영되어 있는데, 이때의 청자높임법은 15세기 문헌어와 거의 다를 바 없음.

如是 〰 〰 識心 〰 實居身內 〰 〰 〰 〰 <남권회본 능엄경 1:10b_13>
如是 〰 야 識心 은 實居身內 〰 〰 〰 〰 <간경도감본 능엄경 1:47a>

世尊 地性 〰 障礙 〰 空性 〰 虛通 〰 〰 云何 〰 俱周徧法界 〰 〰 〰 〰 <남권회본 능엄경 4:2a5>
世尊 地 〰 性 〰 障礙 〰 空 〰 性 〰 虛通 〰 〰 云何 〰 俱周徧法界 〰 〰 〰 〰 <가람본 능엄경 4:2a5>
世尊 하 地性 은 障礙 〰 고 空性 은 虛通 커니 云何 〰 俱周徧法界 〰 〰 〰 〰 <간경도감본 능엄경 4:6a>

惟垂大悲 〰 〰 再愍斯會及與將來 〰 〰 施以法音 〰 〰 〰 〰 洗滌沈垢 〰 〰 〰 <남권회본 능엄경 5:4b_7>
惟垂大悲 〰 하 再愍斯會 와 及與將來 〰 하 施以法音 〰 하 洗滌沈垢 〰 〰 〰 <간경도감본 능엄경 5:17a>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트랜스-로컬 한국어문학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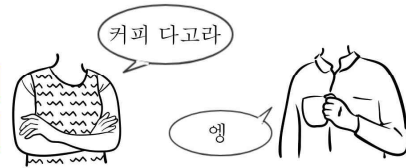


목적과 문제

- 이 시기에 청자 높임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초기 음독구결은 의의가 있으나, 통시적 연속성을 확인한다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자료임.
- 그 이전의 청자 높임을 확인함으로써 중세 문헌어의 청자 높임법 체계에 대해 통시적 이해를 하고 싶음. 특히 (다른 선어말어미도 마찬가지이지만) '-으시-'와 '-이-'의 문법화 과정은 많은 국어 연구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 이런 점에서 음독구결보다 과거의 언어를 반영하고 있는 석독구결은 청자 높임의 통시적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됨.
- 이 발표에서는...

① 석독구결에서 청자 높임과 관련될 수 있는 형태소·표현을 찾고

② 이들의 청자 높임 표현으로서의 성립 여부를 검토한다.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트랜스-로컬 한국어문학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5



석독구결의 청자 높임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트랜스-로컬 한국어문학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6



석독구결의 대화(1)

문헌	위치	화자	청자		비고
화엄경소35	10:08	어떤 사람	보살마하살	화<청	
	10:17~11:01	어떤 사람	전륜왕=보살마하살		
	11:09~11:11	어떤 사람	전륜왕=보살마하살		
	11:18~11:20	어떤 사람	전륜왕=보살마하살		
	12:10~12:13	가난한 사람	전륜왕=보살마하살		
	15:20~16:01	여러 불편 중생	전륜왕=보살마하살		
화엄경14	01:04~02:09	지수보살	문수사리보살	화<청	
	02:10~08:18	문수사리보살	지수보살	화<청	
	08:21~08:24	문수사리보살	현수보살	화<청	
	09:01~20:15	현수보살	문수사리보살	화<청	게송
	02:01~09:02	부처	사자상무대광염보살	화<청	
금광명경03	09:02~13:01	부처	사자상무대광염보살	화<청	주문
	13:01~13:17	사자상무대광염보살	부처	화<청	주문
	13:18~13:21	대자재법천	부처	화<청	
	13:21~14:22	부처	대자재법천	화<청	
	15:03~15:14	대중	부처	화<청	
	15:14~15:16	부처	대중	화<청	



석독구결의 대화(2)

문헌	위치	화자	청자		비고
구역인왕경	03:17~03:20	부처	대중	화<청	
	3:22	바사닉왕	부처	화<청	
	03:23~03:25	부처	바사닉왕	화<청	
	11:01~11:13	바사닉왕	부처	화<청	게송(?)
	11:20~14:14	세존	대중	화<청	
	14:18~14:20	바사닉왕	부처	화<청	
	14:20~14:23	부처	바사닉왕	화<청	
	14:23~15:20	부처	대중		게송
	15:21~15:22	바사닉왕	부처	화<청	
	15:22~15:25	부처	바사닉왕		
유가사지론20			없음		
자비도량참법04	21:02~21:04	혹자	육줄	화~청(?)	
	21:04~21:21	육줄	혹자	화~청(?)	
	21:10~21:12	육줄	혹자	화~청(?)	액자식으로



사용된 어미(1)

문헌	위치	화자	청자		사용된 어미
화엄경소35	10:08	어떤 사람	보살마하살	화<정>	一口ハ而立 一口ハ而立 一口乙イ尸入 一▶ 一ホロ乙イ 一ホロ乙イ 一口下ハ ▶ 一口ハ而立 一口乙イ 一口下ハ ▶ 一口ハ而立 一ホロ乙イ 一口ハ而口 一▶ 一七口乙イ 一ヨホ ▶ 一口ハ而分 一口ハ而分 一口ハ而 一▶ 一口ホシノ 一口七ノ 一 一 一▶ 一口下ハ ▶ 一 一口ハ而分 一口七ノ 一ヨホ ▶ 一口ハ而立
	10:17~11:01	어떤 사람	전륜왕=보살마하살		
	11:09~11:11	어떤 사람	전륜왕=보살마하살		
	11:18~11:20	어떤 사람	전륜왕=보살마하살		
	12:10~12:13	가난한 사람	전륜왕=보살마하살		
	15:20~16:01	여러 불평 중생	전륜왕=보살마하살		



사용된 어미(2)

문헌	위치	화자	청자		사용된 어미
화엄경14	01:04~02:09	지수보살	문수사리보살	화<정>	一ナオ 一七口 一ホナ 一 一▶ 一ホナ 一七 一七立 一七尸入 一▶ 一ホナ 一七 一ヨ口乙イ 一 一 一▶ 一口ハ而分 一ナ 一口乙イ 一七 一ナ 一 一 一▶ 一ナ 一七 一ナ 一七
	02:10~08:18	문수사리보살	지수보살	화<정>	
	08:21~08:24	문수사리보살	현수보살	화<정?>	
	09:01~20:15	현수보살(계송)	문수사리보살	화<정?>	



사용된 어미(3)

문헌	위치	화자	청자		사용된 어미
금광명경03	02:01~09:02	부처	사자상무애광염보살	화)청	－ナ尸入リ ▶－ナウセ －ナリ
	09:02~13:01	부처	사자상무애광염보살	화)청	－ナウセ
	13:01~13:17	사자상무애광염보살	부처	화)청	－ニコ尸分 ▶－ニ分 ▶ －ニコリウセカ ▶ －ニコリウセカ ▶－コリウセ －ニコ尸分 ▶－ニコ尸分 ▶ －ニコリウセ
	13:18~13:21	대자재법천	부처	화)청	－オニコ ▶－ニコリ入ムム
	13:21~14:22	부처	대자재법천	화)청	－ナ , －オ , －ナオリ入ムム －モオ分 ▶－モウセ －コナリ入ムム －コセノオ分 ▶－スリ分 ▶ －コロセノオ分 ▶－コロセノウセ －ニコリ入ムム －コ －コロセノウセ
	15:03~15:14	대중	부처	화)청	－ニコリ入ムム －コ －コロセノウセ
	15:14~15:16	부처	대중	화)청	－オナリ



사용된 어미(4)

문헌	위치	화자	청자		사용된 어미
구역인왕경	03:17~03:20	부처	대중	화)청	－ウウリ －ウウセ －ナウ
	3:22	바사닉왕	부처	화)청	－ウウウ
	03:23~03:25	부처	바사닉왕	화)청	－オリテ
	11:01~11:13	바사닉왕	부처	화)청	－ニリ入ムウ －ニ分 ▶－ニリ －ニウウ －コトウ －ニ分 ▶－ニコ乙分 ▶－コロ乙分 ▶ －コロ ▶－코로
	11:20~14:14	세존	대중	화)청	－ナト , －ナ , －ニコセ －コウウ ▶－ウ －ニウ尸入リ ▶－코乙分 ▶ －ニコ尸入리 ▶－우 －코우
	14:18~14:20	바사닉왕	부처	화)청	－니우尸入리 ▶－코乙分 ▶ －ニコ尸入리 ▶－우 －코우



사용된 어미(5)

문헌	위치	화자	청자		사용된 어미
구역인왕경	14:20-14:23	부처	바사닉왕	화)청	－ㄱ ㄹ, －ㄱ ㄹ ㄴ ㄴ, －ㄱ ㄹ
	14:23-15:20	부처	대중	화)청	－ㄱ ㄹ, －ㄴ ㄱ ㄹ ㄴ ㄴ, －ㄱ ㄹ ㄹ, －ㄱ ㄹ ㄹ
	15:21-15:22	바사닉왕	부처	화)청	－ㄴ ㄹ ㄹ ㄹ
	15:22-15:25	부처	바사닉왕	화)청	－ㄱ ㄹ (cf. 大王 王)

문헌	위치	화자	청자		사용된 어미
자비도량찰법04	21:02-21:04	혹자	옥출	화)청(?)	－ㄱ ㄹ
	21:04-21:21	옥출	혹자	화)청(?)	－ㄴ ㄹ ㄹ ㄹ, －ㄴ ㄹ ㄹ ㄹ ㄹ, －ㄴ ㄹ, －ㄴ ㄹ ㄹ ㄹ ㄹ, －ㄴ ㄹ ㄹ ㄹ ㄹ ㄹ, －ㄱ ㄹ ㄹ ㄹ, －ㄴ ㄹ ㄹ ㄹ ㄹ, －ㄴ ㄹ ㄹ ㄹ ㄹ
	21:10-21:12	옥출	혹자	화)청(?)	－ㄴ ㄹ ㄹ ㄹ, －ㄴ ㄹ ㄹ ㄹ ㄹ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트랜스-로컬 한국어문학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13



사용된 어미: 정리

	화자>청자	화자<청자
어미	-ㄴ ㄹ ㄹ ㄹ (ㄴ ㄹ ㄹ ㄹ) -ㄴ ㄹ (ㄴ ㄹ ㄹ) -ㄴ ㄹ (ㄴ ㄹ) -ㄴ ㄹ (ㄴ ㄹ) -ㄴ ㄹ (ㄴ ㄹ ㄹ ㄹ) -ㄴ ㄹ (ㄴ ㄹ ㄹ) -ㄴ ㄹ (ㄴ ㄹ) -ㄴ ㄹ (ㄴ ㄹ ㄹ) -ㄴ ㄹ (ㄴ ㄹ) -ㄴ ㄹ (ㄴ ㄹ) -ㄴ ㄹ (ㄴ ㄹ) -ㄴ ㄹ (ㄴ ㄹ) -ㄴ ㄹ (ㄴ ㄹ) -ㄴ ㄹ (ㄴ ㄹ) -ㄴ ㄹ (ㄴ ㄹ)	-ㄴ ㄹ ㄹ ㄹ (ㄴ, ㄴ, ㄴ, ㄴ) -ㄴ ㄹ ㄹ ㄹ (ㄴ ㄹ) -ㄴ ㄹ ㄹ ㄹ (ㄴ ㄹ ㄹ, ㄴ, ㄴ) -ㄴ ㄹ ㄹ ㄹ (ㄴ, ㄴ ㄹ) -ㄴ ㄹ ㄹ ㄹ (ㄴ, ㄴ ㄹ) -ㄴ ㄹ ㄹ ㄹ (ㄴ, ㄴ ㄹ, ㄴ ㄹ ㄹ ㄹ, ㄴ ㄹ ㄹ ㄹ ㄹ) -ㄴ ㄹ ㄹ ㄹ -ㄴ ㄹ ㄹ ㄹ (ㄴ, ㄴ ㄹ ㄹ ㄹ, ㄴ ㄹ ㄹ ㄹ ㄹ, ㄴ ㄹ ㄹ ㄹ ㄹ) -ㄴ ㄹ ㄹ ㄹ (ㄴ ㄹ, ㄴ ㄹ, ㄴ) -ㄴ ㄹ ㄹ ㄹ (ㄴ) -ㄴ ㄹ ㄹ ㄹ (ㄴ ㄹ, ㄴ ㄹ ㄹ, ㄴ ㄹ ㄹ) -ㄴ ㄹ ㄹ ㄹ (ㄴ) -ㄴ ㄹ ㄹ ㄹ (ㄴ ㄹ, ㄴ ㄹ ㄹ, ㄴ ㄹ ㄹ) -ㄴ ㄹ ㄹ ㄹ (ㄴ) -ㄴ ㄹ ㄹ ㄹ (ㄴ ㄹ, ㄴ ㄹ ㄹ, ㄴ ㄹ ㄹ)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트랜스-로컬 한국어문학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14



선행 연구

	관련 어형	소	엄	구	금	자	유	선행 연구
①	一口ハ而立 -遣賜立 -遣只賜立 -ヒ立	○	○				○	이승재(1991): -곡#이시- [ㄱ:“對句”] cf. 장윤희(2005): 항가 -격#이시-)-거#이시(去有)-)-거시- 이승재(1998): 확인법 '곡' + 존경법 '-(으)시-' + 명령법 '-서' 박진호(1998): 청자 높임 '-고-' + '기' + '-(으)시-' + '-서' 남풍현(2018): 확인법 '고' + 존대 '-(으)시-' : 한층 강한 존대 백두현(1998): 존재동사적 특성의 '기'와 주체 존대 '-시-'
	一口ハ而一	○		○	○	○	○	대부분 '-口ハ而立'의 '-口ハ而-'와 같은 구성으로 보지만, 박진호(1998)은 '-口ハ而1' 등에 나타나는 '-口ハ而-'는 서법적 요소로 봄.



선행 연구

	관련 어형	소	엄	구	금	자	유	선행 연구
②	一口七ノ一 -웃 -깃고 -랫고 -고웃 -긋디 -고저	○				○	○	백두현(1997, 1999): 감동, 감탄(-고-스-) 이승재(1998): (-앗, 웃, 스-과 함께) 개연, 강조. 문현수(2019): (복수 주어와 호응하는) 소망·예정 -긋 호-
	一口口七ノ一					○		백두현(1999): -고(미상)-긋(욕망)- 이병기(2006): -고(미래성)-긋(청자 높임)- 문현수(2019): (복수 주어와 호응하는) 소망·예정 -긋 호-
③	一口(ㄱ)一	-고(라) -쇼서			○	○		이승재(1998): 확인법 ('-거-'의 이표기) 박진호(1998): 청자 높임 (+ 서법[조건, 원망, 능력 등]) 이용(1999): 원망(願望) 이병기(2006): 미래성



선행 연구

	관련 어형	소	엄	구	금	자	유	선행 연구
④	－ㅁ乙(尸)－	○	○	○	○	○	○	이승재(1998, 2000): 강조법

	관련 어형	소	엄	구	금	자	유	선행 연구
⑤	－ㅅㄷ－	○	○	○	○	○	○	백두현(1997): 감동법 (-아- + -ㅅ-) 이승재(1998): ('-곳, 웃, ㅅ-'과 함께) 개연·강조 박진호(1998), 장윤희(1998/2002): 청자 높임 장윤희(1999): 화자의 정감성 (=청자 높임) 김미경(2024): inferred certainty, 의지



개별 어미 검토



－口ハ ㄴ(ニ)－

- 석독구결에서 거의 유일하게 청자 높임이 분명한 어미 구조체.
- 석독구결에 '－口ハ ㄴ－'와 계열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보이는 ① '－ㄱ/ㄷ/ㄹ ㄴ－'가 존재하고, ② 향가에 이에 대응하는 어미로 '－遣賜立, 遣只賜立'가 존재하며, ③ 일부 어미에서 '－ㄴ－'가 주체 높임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예가 있어 여러 분석이 제안된 바 있음.
- 1) －곡#이시－서: 향가에서 '－遣'이 연결어미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되는 '－口－'도 연결어미로 보고, ③을 근거로[(1), (2)] '－ハ ㄴ－'를 '－#이시－'를 적은 것으로 파악.
- 2) －고#기－시－서: '－ハ－'를 '*겨－' 정도로, '－ㄴ－'는 주체 높임으로 봄.

(1) 其會々方廣ヲ九百五十里ニ 一乙大衆ニ 僉然ヲ而ニ坐ヰハハニ一 <구인02:08-09>
주어: 대중 (지문)

(2) 汝一於於過去七七佛十已シ一リㄴ七義ニ二リㄴ七義ニノ乙問自ハハニ一 ㄴ七 ㄴ七
<구인14:20-21>
주어: 너(바사닉왕), 화자: 부처 (화<청)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트랜스-로컬 한국어문학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19



－口ハ ㄴ(ニ)－

- 3) －고－기시－서: '－口－'를 선어말어미로 보고, '－ハ ㄴ－'를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극존칭의 선어말어미로 파악.
- '－口ハ ㄴ立', '－遣賜立, 遣只賜立'가 부처 등 절대자에게만 사용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인데, 이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한 것일 수 있음.
- 4) －고－기－시－서: '－口－'를 선어말어미로 보고, '－ㄴ－'를 주체 높임의 형태소로 파악.
- '－口－'의 기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연구자들 사이에 견해차가 있음.
- '－고－'를 TAME 형태소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거나, 박진호(1998)은 '－고기시서'의 '－고－'는 청자 높임의 형태소로 보고, '－口ハ ㄴ(ㄱ, ㄷ(ㄴ))' 등의 '－고－'는 TAME 기능으로 봄.
- '－口ハ ㄴ立'는 존재하지만 '*ㄱ/*ㄷ/*ㄹ ㄴ立'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가짐.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트랜스-로컬 한국어문학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박진호(1998),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국어원.

20



—口ハ 卩(二)—

- '-ㅁㅂㅅ'는 '-으시-'가 시상법 선어말어미보다 앞에 나타난다는 석독구결의 일반적인 배열 순서를 어기고 있음.
- 시·상·법 형태소가 기능 변화와 함께 결합 위치를 이동하는 변화 속에서 '-ㅁㅂㅅ'는 굳어진 표현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ㅁ'의 이형태로 보이는 '-우-'가 '-ㅁㅂㅅ'의 뒤에 나타난 예가 있음.

(3) 대覺世尊 前ヲ已シ我レ等ノ大衆ヲ爲ス二十九年ノ摩訶般若波羅蜜、
金剛般若波羅蜜、天王問般若波羅蜜、光讚般若波羅蜜、ノ說ハニウ
<구인02:19-23>
주어: 부처, 화자: 대중, 청자: 대중 (화능청)

- 이처럼 '-ㅁ-'가 '-ㅁ-'의 뒤로 이동하고 'ㅁ'가 탈락하면 '-*ㅁㅁ' (쇼셔)'가 되어 15세기 문헌어의 형태를 재구할 수 있음 (박진호 1998).



—□七ノ—, —□□七ノ—

- '-ㅁㅅㅌ-'와 '-ㅁㅁㅅㅌ-'는 'ㄴ'의 독법에서 이견이 있음. 이를 선어말어미 '-오-'로 읽는 견해와, '호-'와 '-오-'의 결합인 '호'로 읽는 견해(백두현 1999, 문현수 2019)가 대립.
- 한편, '-ㅁㅅㅌ-'와 '-ㅁㅁㅅㅌ-'는 『화소』와 『금광』에서는 항상 하위자의 발화에서 나타나 청자 높임과 관련이 된다는 견해가 있음(박진호 1998?, 이병기 2006)

(4) 大王ヲ 名稱乙 周セ 十方ノ十 聞リロハ 而一 {我}又 {等} | ヲ一 風乙 欽セロセノ 尸ム 故キ
來ソウホ {此}リム 至ホセノ |
＜和全12:11-12>

화자: 가난한 사람, 청자: 전륜왕, 화<청

(5) 是會セ大眾ノ皆悉彼ム往ノ爲ノ聽衆リ戸入乙作ッロセノ牙分是說法師乙此種種ノ利益ノ安樂無障ッ身心泰然ッハリカ{我}チ等ッ^レ皆當ハ盡ヒセ心ノ供養ッ白カ諸聽衆乙四刀安隱快樂ッ{令}リロセノ牙分(...)

<금광15:05-15:07>

화자: 대중, 청자: 부처, 화<청





一口七ノ一, 一口口七ノ一

- 『자비』에서 상·하위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一口七ノ一'가 사용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를 중세어의 청원 구문 '一口, 고저 七'와 같은 계열의 구문(문현수 2019)으로 보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음.

(6) 乃_レ至_リ進修_ハ十_ハ地_ニ行_ハ滿_ハ金剛心_ヲ入_ハ等正覺_ヲ成_ハ還_ハ十方一切衆生_ニ度_ハリ_セイ_ハ口七ノ一_ヲセ_ハ | 화자: 참회자, 주어: 대중(?) (강설) <자비19:07-11>

(7) 我_ハ一{於}罪人_ヲナ_ハ片_ハ七_ハ慈心_ヲ無_ハ七_ハ(...)復[甲]更_ハ還_ハ不_ハ口七ノ一_ヲ入_ハ | 화자: 우두아방, 청자: 혹자, 화자능청자(?) <자비21:15-17>

- 그런데, 『자비』에서 (6)은 참회자의 독백이고 (7)은 혹자와 우두아방의 관계가 조금 애매하게 기술되어 있어, 청자 높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음.

(8) 或_ハ一獄卒_ヲ問_ハナ_ハ衆生_ニ苦_ハ受_ハト_ハ入_ハ甚_ハ悲念_ノ可_ハセ_ハ一_ハ而_ハ汝_ハ常_ハ酷毒_ニ懷_ハセ_ハ慈愍_ノ心_ハ無_ハ七_ハ一_ハ口七ノ一_ヲ | 화자: 혹자, 청자: 우두아방, 화<청(?)>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트랜스-로컬 한국어문학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문현수(2019), 「『소망』과 『배정』의 어말어미 '一口'와 그 변천 과정에 대하여」, 『국어학』, 89.

23



一口七ノ一, 一口口七ノ一

- '一口七'은 다시 '一口'와 '七'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중세 문헌어의 '一口아저', '一口고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망(願望)의 의미는 '一口(ス)一口' (이현희 1995)에서 오는 것일 가능성이 있음.

미래적 의미의 一口七ノ一 구문(?)

(9) 善男子_ハ初_ハ菩薩地_ヲナ_ハ是_ハ相_ハ前現_ノ一_ハ三千大千世界_ヲナ_ハ量_ハ無_ハ七_ハ邊_ハ無_ハ一_ハ種種_ハ寶藏_ニ皆_ハ悉_ハ盈滿_ハ口七ノ一_ヲ入_ハ菩薩_ハ悉_ハ見_ハ口七ノ一_ヲ | <금광05:23-25>

(10) 善男子_ハ菩薩_ハ二地_ヲナ_ハ是_ハ相_ハ前現_ノ一_ハ三千大千世界_ニ地_ハ平_ハ一_ハ掌_ハ如_ハ一_ハナ_ハ量_ハ無_ハ數_ハ無_ハ一_ハ種種_ハ妙色_ニ一_ハ清淨_ハ口七ノ一_ヲ入_ハ菩薩_ハ悉_ハ見_ハ口七ノ一_ヲ | <금광05:25-06:02>

(11) 善男子_ハ菩薩_ハ五地_ヲナ_ハ是_ハ相_ハ前現_ノ一_ハ寶女人_ハ如_ハ一_ハ一切_ハ之_ハ其_ハ身_ハ頂上_ニ莊嚴_ノ一_ハ散多那花_ハ妙寶瓔珞_ハ一_ハ身_ハ首_ハ貫_ハ飾_ハ口七ノ一_ヲ入_ハ菩薩_ハ悉_ハ見_ハ口七ノ一_ヲ | <금광06:07-08>

- 그렇다면 '一口'는 양태적 의미 등의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있음.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트랜스-로컬 한국어문학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이현희(1995), 「一口아저와 一口良婦」, 『국어사와 차자표기』, 태학사.

24



개별 어미: -ㅁ(ㄴ)-

- 박진호(1998)에서 '-ㅁ-'('나'나 '-ㅁ-' 뒤에서는 수의적으로 '-ㄴ-'로 나타남.)를 청자 높임의 형태소로 봄.
- 다만, 석독구결에는 'ㅁ'로 적히는 형태소가 적어도 세 가지(양태 선어말어미, 의문 첨사, 연결 어미; 최성규 2025 참조)가 있으며, 특히 양태 선어말어미와 분포가 크게 다르지 않아 구별해 내는 것이 쉽지 않음.
- 한편으로는 화자·대상 표시의 '-ㄴ-'와 구별하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음.

(12) 爾_ㄴ時_ㄴ菩薩_ㄴ {是_ㄴ 念言_ㄴ 作_ㄴ 今_ㄴ 盛壯_ㄴ 富_ㄴ 天下_ㄴ 有_ㄴ 乞者_ㄴ 現前_ㄴ }
 <화소11:20-12:03>
 화자: 보살, 주어: 화자(보살) (생각)

(13) 若_ㄴ 言_ㄴ 無_ㄴ 智_ㄴ 二_ㄴ 應_ㄴ 不_ㄴ 失_ㄴ 若_ㄴ 言_ㄴ 有_ㄴ 智_ㄴ 一_ㄴ 應_ㄴ 不_ㄴ 失_ㄴ }
 <구인14:18-14:19>
 화자: 바사닉왕, 청자: 부처, 주어: 부처 (화<청>)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트랜스-로컬 한국어문학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박진호(1998),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국어원; 최성규(2025), 「항찰과 석독구결의 선어말어미 비교」, 「구결연구」 54.

25



개별 어미: -ㅁ(ㄴ)-

- 그러나 대화 상황, 청자 높임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ㅁ(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14) 若_ㄴ 善男子_ㄴ 善女人_ㄴ 當_ㄴ 諸_ㄴ 香_ㄴ 花_ㄴ 繒_ㄴ 綵_ㄴ 幡_ㄴ 蓋_ㄴ 以_ㄴ 是_ㄴ 說法處_ㄴ 供養_ㄴ 應_ㄴ }
 화자: 대중, 청자: 부처 (화<청>) <금광15:11-13>

(15) 若_ㄴ 言_ㄴ 有_ㄴ 智_ㄴ 一_ㄴ 應_ㄴ 不_ㄴ 失_ㄴ } <구인14:19>

(16) 天尊_ㄴ 快_ㄴ 十四_ㄴ 王_ㄴ 說_ㄴ 故_ㄴ 我_ㄴ 今_ㄴ 略_ㄴ 佛_ㄴ 歎_ㄴ 自_ㄴ 羅_ㄴ 漢_ㄴ } <구인11:13>

(17) 一切_ㄴ 衆生_ㄴ {暫_ㄴ 報_ㄴ 住_ㄴ 金剛_ㄴ 原_ㄴ 登_ㄴ 淨土_ㄴ 居_ㄴ } <구인11:07>

(18) 世尊_ㄴ 一切_ㄴ 菩薩_ㄴ 云何_ㄴ 佛果_ㄴ 護_ㄴ 云何_ㄴ 十地_ㄴ 行_ㄴ 護_ㄴ 因緣_ㄴ } <구인03:22-23>

(15-18) 화자: 바사닉왕, 청자: 부처 (화<청>)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트랜스-로컬 한국어문학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26



개별 어미: -ㅁ(ㄴ)-

- 관계가 애매한 경우 내지 독백·내적 사유(12) 등에도 사용되기도 함

(19) 前ヲ 已シ {我}チ 等ッ1 大衆ヲ {爲}シキ 二十九年ノナツニモ 摩訶般若波羅蜜：金剛般若波羅蜜：天王問般若波羅蜜：光讚般若波羅蜜：ノ乙 説フハニキ	<구인02:20-23> 화자: 대중, 청자: 대중 (화능청)
(20) 免脱ノ今セ{之}日ニ 至1 {每}1ケ1 恒ニ 加シ 勸諭ソロイテ	<자비21:10-11> 화자: 옥졸(우두아방), 청자: 혹자 (화능청)?
(21) 此 中ニ 劇苦1 忍耐ヲリッ1イキ 可セッ1 非矣1乙 汝1 今1 得フホ 出ッホナ1リ 復 [甲] 更ニ 造尸 勿セナ四ッ <u>ロトイ1</u>	<자비21:11-12> 화자: 옥졸(우두아방), 청자: 혹자 (화능청)?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트랜스-로컬 한국어문학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27



개별 어미: -ㅁ乙(尸)-

- 청자 높임으로 해석할 수 있는 '-ㅁ(ㄴ)-'은 『구인』, 『금광』, 『자비』에서만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유가』를 제외한 모든 문헌에 나타나는 '-ㅁ乙(尸)-'의 분포가 주목됨. '-ㅁ(ㄴ)-'은 'ㄴ', '-ㅁㅁㅁㅁ', '-ㅁㅁㅁㅁㅁㅁ', '-ㅁㅁㅁㅁㅁㅁㅁㅁ', '-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 (어미 두음 ㄴ, ㄷ, ㄹ) 앞에 분포하고, '-ㅁ乙(尸)-'은 'ㄴ', '-ㅁㅁㅁㅁ', '-ㅁㅁㅁㅁㅁㅁ', '-ㅁㅁㅁㅁㅁㅁㅁㅁ', '-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 (어미 두음 ㄴ, ㄷ, ㄹ) 앞에 분포함.
- 한국어에서 'ㄴ', 'ㄷ'이 'ㄹ'을 탈락시키는 환경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다른 두음을 가진 어미 앞에서 '-ㅁㅁㅁㅁ'가 '-ㅁㅁㅁㅁ'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가정을 해볼 수 있음(이승재 2000).
- 실제로 '-ㅁㅁㅁㅁ'은 하위자의 발화에서 많이 나타남.
- '-ㅁㅁㅁㅁ'의 형태소 분석에 문제가 있고, 연결어미나 전성어미 앞에서 많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 환경에서도 청자 높임은 실현될 수 있으므로(이승녕 1962, 안예리 2013, 김태우 2018/2022) '-ㅁㅁㅁㅁ'이 청자 높임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트랜스-로컬 한국어문학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이승재(2000), 「존경법 선어말어미 '-ㅁㅁㅁㅁ'의 형태소론적 연구-구결자료를 중심으로-」, 『전단학보』 90: 이승녕(1962), 「결합법 연구」, 『아세아연구』 5-2: 안예리(2013), 「20세기 전반기 국어의 문장 구성에 대한 연구: 대중종합지 『삼천리』(1929-1942)의 말문치 언어학적 분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태우(2018/2022), 「[-ㅁㅁㅁㅁ]의 기능 변화 연구」, 태학사.

28



개별 어미: -ㅁ 乙 (尸) -

(22) 我 今 ッ 已 諸 菩薩 ヲ 爲 佛 夫 往 十 修 ヲ 行 ヒ セ 清 淨 行 ハ 説 ク ロ 乙 イ リ 四 仁
カ 亦 ッ 當 ハ { 於 } { 此 } 會 セ 中 十 ッ ハ 修 行 ヲ 行 ヒ セ 勝 功 德 ハ 演 暢 ッ ロ ハ 前 立

<화엄08:23-08:24>

화자: 문수보살, 청자: 현수보살 (화<청)?

(23) 我₁今₁衰老₁身₁重疾₁十₁嬰₁ヒツカ 癡獨₁ニ 羸頓₁ノ₁ツロ₁死₁ノ₁入₁ 將₁今₁ハ
久₁ノ₁不₁ツ₁ホロ乙イ (...) 若₁セ 王₁身₁セ 手足₁ 血肉₁ 頭目₁ 骨髓₁ ノ₁今₁ 得₁ロ乙イ₁入₁
(...) 存活₁ソセイ₁ツ₁ホロ乙イ₁ <韓₁₀18-20>

<화소10:18-20>

화자: 어떤 사람, 청자: 전륜왕 (화<청)

- 앞의 예와 비교하였을 때, 화자 표시의 '-오-' 앞에서는 '-ㅁㄷ-'이 나타나고, 대상 표시의 '-오-' 앞에서는 '-ㅁ-'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절대적인 것은 아님.

cf.) (24) 十六大國王_ニ意_ヲ十國土_ニ乙護_ノ々セ因縁_ニ問白{欲}人_ソニトリ_テ入_ル乙[火]知

白く口をミソ乃 화자: 부처, 청자: 대중 (화>청), 주어: 화자(부처) <구인03:17-18>



개별 어미: -ㅁ 乙 (尸) -

- '-ㅁ乙-'은 내적 사유·독백에서도 많이 보임. 이는 뒤에서 살펴볼 '-ㅅㅌ-'과 같음.

(25) 今ッ1 我1 亦ッ1 當ハ{於}往昔ッ十同ッハ而…其命乙捨ッロ乙イ牙四 (...) 亦ッ1 悵
ノア所ノ無セリノ應セッ1リリセッ1ナシセ1 < 創10:10-10:13 >

<화소10:10-10:13>

화자: 보살마하살 (내적 사유)

(26) 世尊ヲ 無邊身ノ 一言字ノカ 説フ 不冬ッニ ロフニ 一切 弟子衆ヲナ 法雨ニ 飽滿
 ナリセヨッ入ニ 故ノソニロフカ ＜音＞

<금광13:10-11>

화자: 사자상무애광염보살, 청자: 부처 (주문)

(27) 又ッ 復々 十方 盡虛空界七 量 無 一 形像リニ 一 (...) ノ今乙 歸依ッ 白口乙ン 又 一 復々 十方七 如來尸 (...) 歸命ッ 白口乙ン (...) 又 復 諸 一 (...) ノ今乙 歸命ッ 白口乙ン (...) 又 一 復々 十方 盡虛空界七 一切 諸佛乙 歸依ッ 白 十方 盡虛空界七 一切 尊法乙 歸依ッ 白 十方 盡虛空界七 一切賢聖乙 歸依ッ 白口セノ 七セ |

<자비17:19-18:01>

<사비 17:19-18:01>

화자: 참회주 (독백)





개별 어미: -ㅁㅅ(ㅍ)-

- '-ㅁㅅ-'와 '-ㅁㅅㅅ-'은 안높임:높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함.
- 이때 '-ㅅ-'는 '-ㅁㅅ-' 사이에 개재하는 듯한 분포를 보임.

(28) 口₃十₄常₅說₆法₇白₈う₉尸₁₀ム 無₁₁義₁₂ッ₁₃入₁₄乙₁₅ッ₁₆非₁₇冬₁₈ッ₁₉ニ₂₀分₂₁心₂₂智₂₃寂₂₄滅₂₅ッ₂₆ニ₂₇下₂₈緣₂₉無₃₀セ₃₁照₃₂
 ッ₃₃ニ₃₄ロ₃₅乙₃₆分₃₇人₃₈中₃₉ろ₄₀セ₄₁師₄₂子₄₃衆₄₄ヲ₄₅{爲₄₆}ヲ₄₇說₄₈ロ₄₉ハ₅₀ニ₅₁大₅₂衆₅₃ヲ₅₄歡₅₅喜₅₆ッ₅₇金₅₈花₅₉乙₆₀散₆₁ッ₆₂白₆₃ロ₆₄乙₆₅分₆₆
 화자: 바사닉왕, 청자: 부처 (화<청) <구인11:10-11:11>
 (29) 是₁セ₂ッ₃時₄十₅世₆界₇セ₈其₉地₁₀ヲ₁₁六₁₂種₁₃ニ₁₄震₁₅動₁₆ッ₁₇ロ₁₈ト₁₉ト₂₀ト₂₁
 (30) 即₁ろ₂百₃億₄種₅色₆セ₇花₈乙₉散₁₀ッ₁₁ロ₁₂ハ₁₃ニ₁₄變₁₅ッ₁₆ろ₁₇ト₁₈ト₁₉百₂₀億₂₁寶₂₂帳₂₃ヲ₂₄成₂₅テ₂₆諸₂₇ヲ₂₈大₂₉衆₃₀乙₃₁蓋₃₂ッ₃₃ロ₃₄ト₃₅ト₃₆ト₃₇
 (31) 正₁法₂輪₃乙₄轉₅ろ₆寂₇滅₈ろ₉十₁₀入₁₁ッ₁₂ろ₁₃乃₁₄ヲ₁₅至₁₆リ₁₇舍₁₈利₁₉乙₂₀廣₂₁リ₂₂分₂₃布₂₄ッ₂₅ろ₂₆ト₂₇ト₂₈ト₂₉ト₃₀ト₃₁
 화자: 현수보살, 청자: 문수보살 (화>청)?
 (지문) <구인03:20-21>
 (지문) <화엄14:20>

- 청자가 상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ㅁㅅㅅ-'은 나타남.

cf. (32) 時₁十₂無₃色₄界₅セ₆ヲ₇量₈無₉セ₁₀變₁₁ノ₁₂ト₁₃ト₁₄ト₁₅大₁₆香₁₇花₁₈乙₁₉雨₂₀ヲ₂₁ト₂₂ト₂₃香₂₄ヲ₂₅車₂₆輪₂₇{如₂₈}ト₂₉ッ₃₀花₃₁ヲ₃₂須₃₃
 彌₃₄山₃₅王₃₆{如₃₇}ト₃₈ッ₃₉ナ₄₀ト₄₁雲₄₂{如₄₃}ト₄₄ッ₄₅而₄₆ニ₄₇下₄₈ッ₄₉ロ₅₀ト₅₁ト₅₂ト₅₃ト₅₄
 (지문) <구인02:14-15>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트랜스-로컬 한국어문학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31



개별 어미: -ㅅㅅ-

- 박진호(1998)에서는 '-ㅅㅅ-'도 청자 높임의 기능을 한다고 봄.

(33) 云₁何₂{於₃}一₄切₅衆₆生₇セ₈中₉ろ₁₀十₁₁第₁₂一₁₃リ₁₄尸₁₅{爲₁₆}大₁₇爲₁₈勝₁₉爲₂₀最₂₁勝₂₂爲₂₃妙₂₄爲₂₅極₂₆妙₂₇爲₂₈上₂₉爲₃₀無₃₁上₃₂爲₃₃無₃₄
 等₃₅爲₃₆無₃₇等₃₈等₃₉{爲₄₀}入₄₁乙₄₂ッ₄₃ナ₄₄ヲ₄₅セ₄₆ト₄₇
 <화엄02:07-09>
 화자: 지수보살, 청자: 문수보살 (화<청)
 (34) 能₁カ₂一₃法₄ケ₅カ₆生₇リ₈尸₉不₁₀冬₁₁ッ₁₂ろ₁₃亦₁₄一₁₅法₁₆ケ₁₇カ₁₈滅₁₉尸₂₀不₂₁冬₂₂ッ₂₃ろ₂₄ニ₂₅下₂₆平₂₇等₂₈見₂₉リ₃₀ニ₃₁ト₃₂入₃₃乙₃₄爲₃₅ニ₃₆ト₃₇入₃₈
 故₃₉ノ₄₀尊₄₁ヲ₄₂無₄₃上₄₄處₄₅ろ₄₆十₄₇至₄₈ニ₄₉ロ₅₀ト₅₁ト₅₂ト₅₃ト₅₄生₅₅死₅₆乙₅₇損₅₈不₅₉冬₆₀ッ₆₁ニ₆₂ト₆₃入₆₄故₆₅ノ₆₆願₆₇ッ₆₈ろ₆₉ト₇₀尊₇₁ヲ₇₂涅₇₃槃₇₄乙₇₅證₇₆
 ッ₇₇ニ₇₈ロ₇₉ト₈₀ト₈₁ト₈₂ト₈₃二₈₄法₈₅見₈₆乙₈₇過₈₈ッ₈₉ニ₉₀ト₉₁入₉₂故₉₃ノ₉₄是₉₅故₉₆ニ₉₇寂₉₈靜₉₉乙₁₀₀證₁₀₁ッ₁₀₂ニ₁₀₃ロ₁₀₄ト₁₀₅ト₁₀₆ト₁₀₇ト₁₀₈ト₁₀₉世₁₁₀尊₁₁₁ヲ₁₁₂智₁₁₃ヲ₁₁₄一₁₁₅味₁₁₆ニ₁₁₇
 下₁₁₈淨₁₁₉品₁₂₀ニ₁₂₁不₁₂₂淨₁₂₃品₁₂₄ニ₁₂₅ノ₁₂₆十₁₂₇界₁₂₈乙₁₂₉分₁₃₀別₁₃₁不₁₃₂冬₁₃₃ッ₁₃₄ニ₁₃₅ト₁₃₆入₁₃₇故₁₃₈ノ₁₃₉無₁₄₀上₁₄₁清₁₄₂淨₁₄₃乙₁₄₄獲₁₄₅ニ₁₄₆ロ₁₄₇ト₁₄₈ト₁₄₉ト₁₅₀ト₁₅₁
 <금광13:06-10>
 화자: 사자상무에광염보살, 청자: 부처 (화<청) [게송]

- '-ㅅㅅ-'은 종결어미 앞과 연결어미 앞에서 모두 나타남.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트랜스-로컬 한국어문학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박진호(1998),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국어원.

32



개별 어미: - ㄴ - ㄷ -

- 그런데, 이미 박진호(1998), 장윤희(1998/2002)에서도 지적되었으나 'ㄴ(ㄷ) ㅅ ㅁ'은 대화보다는 독백·생각 등을 포함한 내적 사유 구문에서 주로 나타난다는 특성이 있음.
- 'ㅇ ㅅ ㅁ'을 제외하면 'ㄴ ㅅ ㅁ'은 모두 47회 나타나는데, 이 중 내적 사유의 예가 34회임. 문자가 특징되지 않은 부처의 강설이나 계송을 포함하면 총 46회가 이와 같은 유형의 구문에서 나타남.

(35) 菩薩摩訶薩 1 {是}リ 如^レ來ッ 1 念^ニ作ッナ^ルフ (...) 我 1 當ハ 發意ッ^ルホ 多聞藏^ニ 持ッ^ルハ 阿耨多羅三藐三菩提^ニ 證ッ^ルホ 諸 1 衆生^ヲ 爲^ス [三] 眞實法^ヲ 説^ク 1 1 ヲ^レセ 1 ヲ^レ入^ル 1

<화소08:19-09:03>

화자: 보살마하살 (생각)

(36) 謂₁ 我₁ 當_レハ{於}无戲論涅槃₁十心₁十退轉ノ无_レ憂慮₁生₁リ₁ホ 謂_レ我ヲ我₁今
日{者}何₁所₁在₁ツカ₁リ₁セ₁ツヤ{耶} 不_レ多ノ我₁リ₁セ₁ツヤ₁矣₁カ <유가08:17-19>

화자: 출가자 (다짐?)



부산대학교
PUJAN NATIONAL UNIVERSITY

트랜스-로컬 한국어문학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박진호(1998),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국어원; 장윤희(1998/2002), 「중세국어 종결어미 연구」, 태학사.



독백·내적 사유의 - 37 -

문헌	위치	화자	종류	문헌	위치	화자	종류
회임경소35	07:18-07:19 8:03	부처	강설	구역인왕경	2:23	대중	독백
	08:06-08:07				15:05-06	부처	게송
	08:12-08:13				15:09	부처	게송
	09:01-09:03	보살마하살	생각	금광명경 3	05:10-05:11	부처	설법
	09:13-09:16	중생	독백(생각)		13:06-13:17	사자상무대광염 보살	게송
	10:09-10:10	보살마하살	생각	유가사지론 20	6:05	대사(大師)	독백(생각)
	10:12-10:13				08:15-08:16	출가자	독백
	11:03				08:18-08:19		
	11:12				08:20-08:21		
	12:03				09:01-09:02	수행자	생각
	12:15-12:18				16:14-16:15		
	14:01-14:02				18:10-18:17		
	16:11-16:12	19:07-19:09					
	16:14-16:17	22:22-22:23					
					25:20-25:21		
					29:03-29:05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트랜스-로컬 한국어문학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개별 어미: - ㅓ ㅕ -

- 즉, '-ㅅㅌ-'은 인용문에서 주로 등장하는 어미이기는 하나, 높임에 특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김미경 2024).
- 김미경(2024)에서는 '-ㅅㅌ-'의 주된 기능을 증거성('추론된 확실성')이라고 보았고, 이송재(1998)은 '必當, 宜, 皆, 悉' 등의 부사와 흔히 공기한다는 점에서 강조·개연으로, 백두현(1997)은 '-ㅅ-ㅌ-'을 분리하여 감동법으로 보았음. 김미경(2024)도 '-ㅅㅌ-'이 중세 문헌어의 감동법 '-ㅅ-ㅌ-'과 모종의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함.

(37) 佛¹言¹乃^ニ善男子^ヲ何^ニツ乙^ニ者^ヲ波羅蜜義^リハッロノ今^ニロツナ^ニヲ入^ル行道^セ勝利^ス
 ツ失^フ是波羅蜜義^リカ大甚深智^ヲ滿足^スツ失^フ是波羅蜜義^リカ行非行^ヲ乙心^ヲ執^ス不^レ
 冬^ツ失^フ是波羅蜜義^リカ生死^ヲ過失^リカ(涅槃^ノ功^ヲ)德^リリツセ正覺^ヲ正觀^スツ失^フ是波羅
 蜜義^リカ

[추론된 확신 = 화자가 사유하여 깨달은 내용] <금광05:08-05:11>

(38) 願_口尸入₁ 我₁ {於} 身₃ + 永_ホ 貪_著 乙 斷_ノ 牙₃ セ | ヲナ_尸 入_乙

[(깨달음을 토대로)다짐하는 맥락] <화소09:19>



부산대학교
PUJAN NATIONAL UNIVERSITY

트랜스-로컬 한국어문학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김미경 (2024), 「석독구결 - 石讀求決 - 의 기능 재론」, 『국어사연구』 39; 이승재 (1998), 「고대 국어 형태」,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국어원; 백두헌 (1997), 「고려시대 석독구결에 나타난 선어말어미의 계열관계와 통합관계」, 『구결연구』 2.



개별 어미: - ㅓ ㅕ -

- 그런데 (37, 38)에 나타나는 [확신(깨달음)], [다짐, 의지] 등의 의미 성분은 '- ㄴ ㅅ ㅅ -' 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 ㄴ ㅅ ㅅ -' 와 '- (ㅅ) ㅅ -' 에서 나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현대 한국어의 '-은 것-' 과 중세 한국어의 '-은 디-', '-은 이-' 로 해석될 수 있는 '-은 니-', 석독구결의 '- ㄴ ㅅ ㅅ -' 는 맥락에 따라 '깨달음/발견', '재인식' 등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음.

(39) 一切衆生ノ於生死中ナリトモ聞ノ無ナリト有ナリ ◀[추론·근거] [결론]▶ 此ノ一切法ヲ了知ス能ハスナリトモ
 <화소08:20-09:01>

<화소08:20-09:01>

(40) 大王下 若セ菩薩上 見ル所 如 一ッ 衆生 幻化 皆セ 是 一ッ 假誑 一ッ 空中セ 花 如 一ッ 一ッ 一ッ ◀[추론·근거] [결론]▶ 十住菩薩 諸ニ 佛ハ 五眼カ 幻諦セ 如 而 見ニ 一ッ 一ッ 一ッ <구인14:11-14:13>

<구원 14:11-14:13>

- '-(으)ㄹ'-'(선어말어미 '-으리-'이든, '-을 이-' 구성이든)가 [의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트랜스-로컬 한국어문학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개별 어미: - ㅅ ㅈ -

- '- ㅅ ㅈ -'의 이와 같은 맥락적 의미가 문법화하면 '객관적 앞에 바탕을 둔 사태 판단'을 하는 소위 원칙법의 '- ㅅ ㅈ -'로 발달함(고영근 1981). [확실성]의 의미 또한 '- ㅅ ㅈ -'의 맥락적 의미로부터 파생된 것일 수 있음.
- 이승재(1998)의 [강조] 또한 '- ㅅ ㅈ -'로부터 나오는 [결론]에 해당하는 맥락적 의미, '- (ㅅ) ㅈ -'로부터 나오는 [의지]에 해당하는 맥락적 의미로부터 감지된 것일 수 있음.
- '- ㅅ ㅈ -'은 '- ㅅ ㅈ -', '- (ㅅ) ㅈ -'에 후행하기 때문에 김미경(2024)에서 제안한 양태적 의미는 정확히 어디에서 비롯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 박진호(1998)의 지적처럼, ① 내적 사유·독백에서도 구체적 청자를 상정할 수 있고, 상위 지에 대한 내용을 말하면서 높임 표현을 쓸 가능성이 많다는 점("신아, 나를 구해라"), ② '- ㅅ ㅈ -'이 인용문 형식에서만 출현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여전히 '- ㅅ ㅈ -'이 청자 높임과 관련된 성분일 것이라는 가설은 유효할 것으로 보임.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트랜스-로컬 한국어문학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고영근(1981), 『중세국어의 시상과 서법』, 탑출판사; 이승재(1998), 『고대 국어 형태』,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국어원; 김미경(2024), 『석독구결 '- ㅅ ㅈ -'의 기능 재론』, 『국어사연구』 39; 박진호(1998),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국어원.

37



정리 및 결론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트랜스-로컬 한국어문학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38



정리: 석독구결 청자 높임의 특징

- 석독구결에서 청자 높임과 관련된 형태소로 불만한 것으로 'ㄴ-ㅁ-', 'ㄴ-ㅁ ㄷ(ㄴ)-', 'ㄴ-ㅁ ㅅ-' 등이 있음.
- 이들은 인용문 형식일 때, 그리고 상위자에 대한 하위자의 발화일 때, 거의 항상 나타나는 점에서 청자 높임의 형태소로 볼 여지가 있음.
- 그러나 ① 하위자의 발화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내적 사유·독백 등에도 많이 나타나고 ② 동형의 TAME 형태소가 존재하며 ③ 동형의 TAME 형태소와 분포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 등, 청자 높임의 형태소로 보기 힘들다는 근거도 병립함.
- 이는 청자 높임 형태소이든 TAME 형태소이든 명제적 의미를 결여하고 있어 명확한 해석이 어려워, 맥락적 의미를 추론하여 형태소의 의미를 파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기는 분석의 어려움으로 볼 수 있음.
- 또, 위의 형태소들은 중세 문헌어나 방언에 흔적을 거의 남기고 있지 않아['ㅎ야썌'체의 'ㄴ-앗-'(?){'-ㅌ 효'를 고려하면 이렇게 보기도 힘들}, 'ㅎ고라'의 'ㄴ-고-' 정도], 회고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함.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트랜스-로컬 한국어문학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39



Conjecture: 석독구결의 청자 높임

- 석독구결이 반영하고 있는 언어는 어느 시기의 언어로 보아야 할까?
- 적어도 선어말어미 체계는 석독구결이 기입된 시기보다 꽤 오래 전일 것임.

- (41) 『계림유사』의 'ㅎ쇼셔'체
- 048. 約明日至曰轄烏受勢 (*할제 오쇼셔?)
 - 329. 語話曰替里受勢 (*니르쇼셔? 들으쇼셔?)
 - 332. 借物皆曰皮離受勢 (*빌이쇼셔)

- 『계림유사』는 12세기 초에 이미 'ㄴ-쇼셔'가 사용되었음을 보임. 음독구결 자료를 참고하면 늦어도 13세기에는 중세 문헌어와 같은 청자 높임법이 형성되어 있었을 것임.
- 따라서 석독구결의 언어가 12세기보다 이전에 성립된 것이라고 본다면, 최대한 올려 잡아서 균여의 방언본 『석교분기』가 최초로 기입된 시기 정도의 언어라고 가정한다면, 이때의 높임법 체계는 현재와 많이 달랐을 수도 있음.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트랜스-로컬 한국어문학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40



Conjecture: 석독구결의 청자 높임

- TAME의 'ㄴ-ㅁ-ㅂ'는 [의지]와 [추측](박진호 2016)의 의미를, 'ㄴ-ㅅ-ㅈ'은 김미경(2024)의 제안을 일부 받아들여 [추측·추론]의 의미 성분을 가진 것이라고 본다면 이 둘은 모두 [미래성](이병기 2006)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들이 대화의 맥락에서 일종의 hedge로서 기능하며 공손성을 표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 즉, 석독구결에 반영된 한국어에는 지시체 높임법(주체 높임, 객체 높임)은 있으나, 청자 높임법은 아직 발달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음. 'ㄴ-ㅁ-ㅂ'도 'ㄴ-ㅁ-ㅂ'가 청자 높임 표현이 아니라면, 화행 어미에 주체 높임의 'ㄴ-으시-'가 결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청자 높임 전략은 대체로 모든 언어에 보편적이고, 지시체 높임 전략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지시체 높임법이 청자 높임법을 함의한다고 볼 수 있으나, 역사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상고 일본어의 경우 지시체 높임법은 존재하지만 청자 높임법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음 (Dasher 1995, 한미경 2013).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트랜스-로컬 한국어문학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박진호 (2016), 「문법」, 「신라의 언어와 문학」,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이병기 (2006), 「한국어 미래성 표현의 역사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김미경 (2024), 「석독구결 'ㄴ-ㅁ-ㅂ'의 기능 제언」, 「국어사연구」, 39; Dasher, R. (1995), *Grammaticalization in the System of Japanese Predicate Honorifics*, Stanford Ph. D. Dissertation; 한미경 (2013), 「일본어 경어사」, 태학사.

41



Conjecture: 석독구결의 청자 높임

- 후기상고일본어 시기에 이르면 '완료/연속상'을 이용하여 청자 높임을 표현한 예가 나타난다.

(42) *Sakura-no hana-no tiri-h~~aber~~i-keru wo mi-te yomi-keru*
'(이 시는) 벚꽃이 날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낭송되었다.'

<고금집 76 여백의 메모>

(Lewin 1969:28; Dasher 1995:139에서 재인용)

- 현대 일본어에서도 여러 *-gar-*, *no(n)*, *soo*, *rasi* 등의 증거성 표현이 공손성과 관련되어 사용되기도 함(Aoki 1986).

(43) *Wakai koibito ga deki ta rasi-i*
'어린 애인이 생긴 듯해.'

(Aoki 1986:236)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트랜스-로컬 한국어문학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Dasher, R. (1995), *Grammaticalization in the System of Japanese Predicate Honorifics*, Stanford Ph. D. Dissertation; Aoki, H. (1986), *Evidentials in Japanese*, in *Evidentiality: The Linguistic Coding of Epistemology*,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42



Conjecture: 석독구결의 청자 높임

- 이처럼 TAME 표현이 공손성에 기여하는 것은 여러 언어에서 발견되는 현상임.
- 이는 부정적 체면(Brown & Levinson 1987)과 관련된 hedge로(Hoye 1997), 단언하지 않음으로써 명제 내용에 대한 책무를 격하시켜(House&Kasper 1981) 의지적 공손성(Hill et al. 1986)을 달성하는 공손성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청자 높임법이 발달하지 않은 언어에서 발화의 공손성을 획득하기 위해 이런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음.
- 한국어의 '-을 것 같-', '-겠-', 영어의 'would' [미래성]과 관련된 표현들은 발화를 비범주적으로 만드는 기능을 함(Markkanen & Schröder 1997).
- 청자 높임법이 있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청자 높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지만, 만약 어떤 시기에 청자 높임법이 없었다면 청자에 대한 공손한 표현으로 인식되었을 수 있음.
- 즉, '-ㅁ-' , '-ㅁㄷ(ㅍ)-' , '-ㅁㅌ-'이 가지고 있는 분석의 어려움은, 이들이 형태·통사적으로는 기존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맥락에 따라 청자 높임의 요소로 전용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일 수 있음.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트랜스-로컬 한국어문학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Brown & Levinson (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e*, CUP; Hoye, L. (1997). Adverbs and modality in English, Longman; House & Kasper (1981), Politeness markers in English and German, in *Conversational Routine*, Mouton; Hill et al. (1986), *Universals of Linguistic Politeness*, JPr 10; Markkanen & Schröder (1997). Hedging: A challenge for pragmatics and discourse analysis, in *Hedging and Discourse: Approaches to the Analysis of a Pragmatic Phenomenon in Academic Texts*, Walter de Gruyter.

43



Conjecture: 석독구결의 청자 높임

- '-ㅁ-'의 전략적 사용은 명령형 계열의 어미에만 흔적을 남기고 다른 어미 앞에서는 사라짐.
- 중세 문헌어의 청자 높임은 체계적이지만, 모든 문장 유형에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청자 높임 형태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음. [평서형·청유형: -이-, 의문형: -잇-, 명령형: ?]
- 이는 다른 기능을 하는 형태소를 전용하는 과정이 수차례 반복되며, 서로 다른 시기에 청자 높임 표현이 성립되었기 때문일 수 있음[아마, '-쇼셔'가 가장 먼저 만들어지고, 평서형·청유형의 '-이-'가 그 다음으로, 의문형의 '-잇-'이 마지막?]
- 청자 높임법이 discernment의 기능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음독구결 이후의 발달과 청자 높임 전략만이 있었을 석독구결 이전의 높임 표현의 발달은 그 양상이 달랐을 수 있음.
- 그러나 화·청자 사이에 공손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공손성을 획득하려 한다는 점에서는 보편성을 가짐.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트랜스-로컬 한국어문학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44



감사합니다.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트렌스-로컬 한국어문학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45

“차자 표기의 청자 높임”에 대한 토론문

김현주(한국, 공주교대)

한국어를 비롯해 동아시아의 여러 언어에서는 청자 및 문장의 논항으로 표현된 인물에 대한 화자의 높임 의도가 문법으로써 표현되며, 한국어의 경우 15세기 한글 창제 직후의 한글 문헌에서 이미 청자, 문장의 주체, 문장의 객체 등 세 범주로 나뉜 문법적 높임 체계가 확인됩니다. 이 가운데 청자 높임은 ‘-이-’를 중심으로 ‘-쇼셔’, ‘-아씨’ 등의 어미로써 실현되었습니다. 당연히 한글 창제 이전에도 청자 높임 어미가 존재했습니다. 발표문에도 나왔듯이 13~4 세기 초기 음독 구결에는 15세기 한글 문헌 자료의 ‘-이-’, ‘-잇-’, ‘-쇼셔’에 대응하는 ㄴ, ヒヒ, ㄹヒ, 小西 등이 확인됩니다. 김태우 선생님의 “차자 표기의 청자 높임”은 음독 구결보다 앞선 시기에 발달한 석독 구결로 기입된 언어 자료에서 청자 높임 표현이 될 만한 후보를 ‘-ㄱ-, -ㄱ乙-, -ㄴヒ-’의 세 가지로 추리고, 이들이 TAME 요소로서 hedge 용법으로써 청자 높임을 표현했을 가능성을 타진하였습니다. 구결 자료의 위 세 형태소를 다룬 선행 연구의 성과를 종합하여 hedge라는 화용적 수단과 결부한 점에서 독창적이고 개연성이 있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자는 높임을 나타내는 어휘적 수단이나 문법적 수단의 등장과 변천에 나름대로 관심을 두고 있고, 꽤 오래전이지만 구결 자료를 읽고 해독하는 강좌를 듣고 공부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상당 기간 구결 자료에 대한 연구는 물론 연구물에 대해 가까이 대하여 공부해 오지를 못하여서 연구를 위해 발표자가 검토한 자료 자체에 대해서나 그 해독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발표문을 보고 토론자가 품게 된 의문이나, 불명료하게 정리되는 내용 등에 대해 질문하며 소임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ㄱ乙 히-”

- 1) ‘-고-기-시-셔’는 존재하고 ‘-거/나/아-기-시-셔’는 존재하지 않으며, ‘-고/거/나/아-기-시-며’ 등이 존재한다는 점으로써 ‘-고기시셔’의 ‘-고-’를 청자 높임 형태소로 볼 수 있고 ‘-고기시며’ 등의 ‘-고-’는 TAME 형태소로 보는 근거로 삼을 만하다는 설명에 대해 상술을 부탁드립니다.
- 2) (3)의 ‘-아-기-시-오-다’는 종결어미 앞에 ‘-고-’의 이형태로 추정되는 ‘-오-’가 결합한 예로, 발표자는 TAME 형태소가 주체 높임 형태소 뒤로 이동한 예로 든 것인데, 이 위치는 오히려 TAME 형태소보다 청자 높임 요소가 나타날 수 있는 위치로 보입니다. 즉 이러한 위치 이동은

TAME 요소이기 때문이 아니라 청자 높임 요소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일 가능성을 검토함 직합니다.

2. “-코ㅅ노-”, “-코ㅅ노-”

청자 높임 요소가 다른 선어말 어미에 앞서는 것은 매우 가능성이 낮은 일로 생각되기에 ‘-코ㅅ노-’나 ‘-코ㅅ노-’ 등의 ‘-고-’를 곧장 청자 높임 요소라고 판단하기에 저어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供養ᄃ야 親近히 절ᄃ며 또 法華經을 供養ᄃ야 듣고져 ᄃ는다”[세존→문수사리불, 석상20:39L]에서 보듯, ‘-코ㅅ노-’와 관련된 중세어 형으로 제시한 ‘-고져 ᄃ-’나 ‘-아져 ᄃ-’라면 ‘-코ㅅ노-’처럼 청자의 지위가 높은 청자에 대해서 주로 쓰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ㅅ노-’와 ‘-고져 ᄃ-’의 이러한 차이는 어떻게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혹시 생각한 바가 있는지요?

3. Conjecture

1) 발표문에서 문장의 논향으로 표시된 인물에 대한 문법적 높임이 먼저 발달한 것에 대해 함의 위계에서 벗어난 것으로 생각되지만 역사적으로는 실제로 지시체에 대한 문법적 높임이 먼저 발달한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덧붙이면, 청자 높임 전략이 모든 언어에서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과 그것이 문법 체계에 들어와 있는 것은 별개이며, 특히 한국어 선어말 어미의 배열 순서의 변화도 어간에 가깝게 결합하던 요소가 후행 요소로 밀려난 일은 있지만 그 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명제 해석에 대한 관련성이 낮아지고 담화 참여자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요소로서의 성격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반적이므로 문법적 수단을 통한 높임에서, 청자 높임의 문법 요소가 존재하는 것이 해당 언어의 역사에서 문법적 지시체 높임의 지표가 될지언정 그 역은 성립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2) 토론자도 메일이나 문자를 보낼 때 자신의 일정에 대해 말하면서도 ‘-은 것 같-’을 쓰는 일이 잦습니다. 예컨대 ‘내일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같은 표현을 쓰는데 ‘어렵다’도 hedge 표현인데 여기에 ‘-을 것 같-’과 ‘-습니다’까지 덧붙여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발표에서도 ‘다 했어요?’에 대한 질문에 ‘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hedge 표현이 청자 높임의 문법 표지로 정착한 경우가 있는지 알아봤는데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 ‘-골-’, ‘-앗-’이 hedge로 쓰였다면 그렇지 않은 예도 많아야 할 듯한데 자료에서는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主體높임”으로 보이는 “再歸的 客體높임” 現象의 韓日對照研究 (試論)¹⁾

河崎啓剛(가와사키 케이고)(일본, 東京大)

<目次>

- | | |
|---------------------|-------------------------------|
| 1. 序論 | 3. 再歸的 客體높임 |
| 2. “客體높임”의 性質 | 3.1. 日本語의 ‘奉る’와 ‘參る’ |
| 2.1. 韓國語의 “客體높임” | 3.2. 韓國語의 ‘-습-’[白] |
| 2.2. 日本語의 “補語尊敬語” | 3.2.1. 『訓民正音諺解本』의 ‘호습시-’ |
| 2.3. “客體높임” 文法化의 機制 | 3.2.2. 釋讀口訣 資料의 ‘-白 ㄹ ㅍ / ㅌ’ |
| | 3.2.3. 吏讀 資料의 ‘在白敎’, ‘是白(敎)-’ |
| | 3.2.4. 均如鄉歌의 “邀里(呂)白乎隱” |
| | 4. 結論 |

<韓日 敬語法 用語 整理>

존경법	- 주체높임	尊敬語	- 主語尊敬語
겸양법	- 객체높임	謙讓語	- 補語尊敬語
공손법	- 상대높임	丁寧語	- 對者敬語

1. 序論

韓國語에서는 客體높임(謙讓法) 先語末語尾 ‘-습-’[白, ㅍ]이 (現代語的인 눈으로 볼 때) 마치 主體높임 ‘-으시-’와 같은 機能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들이 있다. 그러한 ‘-습-’은 주로 吏讀나 釋讀口訣에서 많이 觀察되지만, 특히 15세기 『訓民正音(諺解本)』에 나타나는 다음 예가 有名하다.

- (1) 予ㅣ 爲此憫然호야 【予는 내 호습시는 ㅍ디시니라 ...】 <訓諺2b>
... 【(여기서) “予”는 “내”라고 하시는 뜻이시다 ...】

周知한 바와 같이 보통은 客體높임법 先語末語尾 ‘-습-’과 主體높임법 先語末語尾 ‘-으시-’의 形態素 連續은 “-스ㅍ시-”처럼 實現되는데, 이처럼 “-습시-”라는 어형으로 實現되는 것도 매우 特異하다. 15세기 共時的으로는 分析 不可能한 하나의 先語末語尾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이 발표문은 발표 직전에 다시 제출하게 된 수정판이다. 일차 원고 제출 후 均如鄉歌에 대해 검토한 3.2.4項을 추가하면서 일본어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도 부족하나마 보충하였고, 또 인하대학교 문헌 수 선생님께 미리 받았던 토론문의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반영하였다. 유익한 지적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또한 이번에 저의 발표와 학회 참석을 위해 여러 모로 도와 주신 인하대학교 허인영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습시-’는 單純한 주체높임 ‘-으시-’보다 높이는 程度가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cf. “주체 뒤편임” 김정수(1984), 고광모(2016))

과연 이러한 소위 “주체높임” ‘-습-’의 정체는 무엇일까?

中世韓國語(10-16世紀)의 “객체높임법”(겸양법)과 中古日本語(9-11世紀)의 “補語尊敬語”(謙讓語)는 서로 매우 類似한 樣相을 보여 주는데, 실은 中古日本語에서도 典型的인 “補語尊敬語”(謙讓語) 動詞가 “主語尊敬語”(尊敬語)로서의 意味·用法도 가진다는 特異한 現象이 있다.

本稿에서는 中世韓國語와 中古日本語의 該當 現象을 서로 對照하면서, “主體높임”처럼 보이는 “客體높임”(“主語尊敬語”처럼 보이는 “補語尊敬語”)에 대해 깊이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이 現象이 “再歸의 客體높임”(“再歸的 補語尊敬語”)이라 命名할 만한 韓日 兩言語에서 共通的인 現象임을 指摘하고자 한다.

2. “客體높임”의 性質

2.1 韓國語의 “客體높임”

허웅(1975: 726)에서는 先語末語尾 ‘-습-’의 機能을 “객체높임”이라 規定하면서(⇔“주체높임” 先語末語尾 ‘-으시-’), 이것이 “話者”가 “客體”를 높임을 표시하는 것이지, “主體의 謙讓한 態度”(말하자면 “주체낮춤”?)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主張하였다.¹⁾

다음은 허웅(1975)에서 그 根據로 提示된 예들이다.

(2) a. 그 菩薩을 자바 남기 모를 빼스바 뒤편디 (因收菩薩前後劫盜法。以木貫身。<釋迦:3b03> <月釋1:6b>

b. 그 王이 (菩薩을) 사름 브려 쏘아 주기스브니라 (王使左右弩射殺之。<釋迦:3b07>)<月釋1:7b>

c. 怨讐ㅣ라 ㅎ야 부터를 疑心ㅎ스브니 (己稱怨以疑佛。<法華要:304a21>)<月釋13:32a>

(3) a. (世祖가 釋譜詳節을 世宗에게) 進上ㅎ스보니 (世宗이) 보물 주스오시고 (乃進ㅎ스보니 賜覽ㅎ시고)<月釋1:月釋序13a>

b. 上(=世祖)이 꾸메 世宗이 上의 金剛經 四菩薩八金剛名字 ㅼ들 묻조오시며 (上이 夢世宗이 問上金剛經四菩薩 八金剛名字之義ㅎ시며)<金剛:事實3a>

(2)의 예들에서는, 主體가 客體를 虐待하거나 怨讐로 삼고 있어 “謙讓하며 높이는 態度”와는 거리가 멀다. (3)의 예들에서는, 世宗이 아들인 世祖에 대해 “謙讓”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이들은 모두 “話者”가 “客體”를 높이는 것이다.

2.2. 日本語의 “補語尊敬語”

1) 安秉禧(1982: 21)는 “中世國語의 謙讓法은 客語가 主語보다 上位者인 동시에 話者보다도 上位者일 때, 그 客語를 지배하는 動詞에 사용되는 敬語法”(밑줄은 引用者)이라고 정리하였다. 즉, 허웅(1975)의 주장처럼 “話者”가 “客體”를 높인다는 요소도 중요하지만 “主體”와 “客體”의 關係도 無視할 수 없음을 指摘하였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허웅(1975)이 強調하는 “객체높임”으로서의 性質에 注目하여 論議를 進行한다.

小田勝(2015: 551)에서는 中古日本語의 補語尊敬語에 대해 “補語尊敬語는 한때 ‘主語를 낮추어 結果적으로 補語를 높인다’는 식으로 說明된 적이 있었지만, 적어도 古代語에서는 그러한 理解는 不當하다”(翻譯은 引用者)고 하면서, 허웅(1975)이 “객체높임”에 대해 한 것과 매우 類似한 指摘을 展開하고 있다.

以下에서 小田(2015: 551, 581)에서 제시된 허웅(1975)와 “매우 類似한” 근거들을 紹介한다. 여기서 補助動詞 ‘奉る’(tatematuru, lit. “드리다, 올리다, 바치다, 받들다, 獻上하다”)는²⁾ 中世韓國語 ‘-습-’에 해당하는 文法要素로서 많은 動詞에 生産적으로 適用되어 補語尊敬語를 만드는 가장 典型的인 文法 중 하나이다.

- (4) 一の宮を見奉らせ給ふにも <源氏物語・桐壺>
 (天皇께서) 첫째皇子를 보(-奉-)실 때에도

- (5) a. 「近くだに寄りおはしまさば突き殺し奉らむとす」と言へば <今昔物語集 25-11>
 “만약 가까이 오신다면, (당신의 아이를) 찔러 죽여 버리(-奉-)겠다”라고 하니,
 b. 武士どもさむざむに射奉る。明雲大僧正、円恵法親王も御馬より射落とされて御頸とられさせ給ひけり。 <平家物語 8・鼓判官>
 武士들은 저마다 화살을 쏘(-奉-)았다. 明雲大僧正과 圓惠法親王도 화살에 맞아 말에서 떨어져 목이 베이고 말았다.

(4)의 예문처럼 天皇도 흔히 補語尊敬語의 主語가 되는데, 古代日本語 敬語體系에 있어서 “天皇을 낮추는” 일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또한 (5)의 예문처럼 “主體의 敬意”와 矛盾되는 行爲에 대해서도 補語尊敬語를 사용할 수 있다. 이들은 역시 모두 “話者”가 “補語”(“客體”)를 높이는 것이다.

참고로 現代日本語의 해당하는 補助動詞 ‘申し上げる’(moosiageru, lit. “말씀올리다”)는 “主體의 敬意”와 矛盾되는 行爲에 대한 適用은 不可能하다. 現代日本語의 경우는 該當 文法을 “謙讓語”라 부를 만하다.

- (6) *私は部長をお殴り申し上げた。
 *나는 부장님을 때리(-申上-)었다.

2.3. “客體높임” 文法化的 機制

이제 우리는 中世韓國語의 “客體높임”과 中古日本語의 “補語尊敬語”를 便宜上 “같은 言語現象”으로 보고, 이를 “客體높임”이라는 用語로 統一的으로 指稱하기로 한다.

文法化하기 전의 本動詞로서의 用法를 생각할 때, 본래는 “主體”가 謙讓한 態度로 “客體”를 높인다는 意味가 本來的이었을 텐데, 그것이 文法化되면서 “話者”가 “客體”를 높이는 文法이 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言語變化이다. 우리는 이 變化에 대해 조금 더 分析的으로

2) 本動詞로서의 ‘奉る・獻る’(tatematuru)는 tate[立] maturu[奉・獻・祭・祀]로 分析된다. 여기서 tate[立, “세우다”]는 “눈에 띄게 분명히 보여주는 의미”(『岩波古語辞典 補訂版』), maturu는 tatematuru와 거의 같은 의미로 “바치다, 올리다, 獻上하다”를 의미하지만, maturu는 특히 祭祀, 政治, 統治, 服從 등의 文脈에서 使用되며 神佛이나 主君, 나라에 대한 奉仕와 服從을 의미한다.

생각해 보자.

보통 非統辭的 合成動詞 V_1-V_2 가 있으면, $[N_1이 N_2를 V_1-V_2]$ 構文에 대해, V_1 과 V_2 의 行爲主體가 모두 다 $N_1(=主語)$ 인 상태(즉, 動詞의 單純 連續)가 가장 基礎的인 段階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V_2=餽-$ 으로서 文法化가 進行된 $[N_1이 N_2를 V_1-餽-]$ 構文에서는, V_1 의 行爲主體는 여전히 $N_1(=主語)$ 이지만, $-餽-(“餽-”)$ 의 行爲主體는 이제 $N_1(=主語)$ 이 아니라 “話者”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話者”가 “ $N_2(“客體”)$ 에 대해 언급해 드리다(=‘餽-’의 原義 “말씀드리다”)

“話者”가 “ $N_2(“客體”)$ 에 대해 언급을 바친다(=‘奉る’의 原義 “바치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본다면, 수많은 謙讓動詞 중에서 왜 하필 “말하다”류나 “바치다”류의 動詞(ex. ‘餽-’, ‘奉る’, ‘申し上げる’)가 客體높임법 文法要素로 文法化했는지를 說明할 수 있게 된다. 또한 “客體높임” 文法이 通時的으로 “相對높임”으로 變化해 가는 傾向(韓日 共通)에 대해서도 說明이 보다 簡潔해진다. (“話者”가 $N_2(“客體”)$ 를 높이면 “客體높임”, “相對”를 높이게 되면 “相對높임”)

3. 再歸的 客體높임

本章에서는 “主體높임”처럼 보이는 “客體높임” 現象에 대해 살펴보자. 韓國語에서도 日本語에서도 觀察된다.

3.1. 日本語의 ‘奉る’와 ‘参る’

‘奉る’(tatematuru)와 ‘参る’(mawiru)는 둘 다 中古日本語의 매우 基礎的인 “客體높임” 動詞이다. 이들은 모두 “바치다, 獻上하다”와 같은 의미를 共有하기도 하는데, 中西宇一(1969: 138f.)는 이들의 意味的 對立에 대해, ‘参る’(mawiru)는 <사람(主體)의 行爲>에 重點이 두어지는 반면 ‘奉る’(tatematuru)는 行爲의 結果로서의 <물건(對象, 客體)의 移動>에 重點이 두어진다고 하며, 말하자면 ‘参る’(mawiru)에서는 ‘사람’(主體)이 <奉仕者>로서 行爲하는 것이고, ‘奉る’(tatematuru)에서는 ‘물건’(對象, 客體)이 <獻上物>로서 바쳐지는 것이라고 說明하였다.

그런데 中古日本語에서는 이들 典型的 “客體높임”(補語尊敬語, 謙讓語) 動詞가 “主體높임”(主語尊敬語, 尊敬語) 動詞로서의 意味·用法까지 가지는 現象이 널리 알려져 있다.

	“客體높임” 動詞로서의 意味 (本來의 典型的인 意味)	“主體높임” 動詞로서의 意味 (派生된 意味)
奉る tatematuru [奉·上·獻]	【与ふ(atapu, “주다”)】, 【贈る(okuru, “보내다”)】, 【遣る(yaru, “보내다”)】	【食ふ(kupu, “먹다”)】, 【飲む(nomu, “마시다”)】, 【着る(kiru, “입다”)】

	등의 謙讓語로서 “드리다, 올리다, 바치다, 받들다, 獻上하다” ※補助動詞로서 ‘-습-’에 해당하는 文法的 機能	【乗る(noru, “타다”)】 . 【居る(wiru, “앉다”)】 등의 尊敬語로서 “드시다”[食·飲], “입으시다”[着], “타시다”[乘], “앉으시다”[座]
參る mawiru	【行く(yuku, “가다”)】 , 【来(ku, “오다”)】 , 【与ふ(atapu, “주다”)】 , 【仕ふ(tukapu, “섬기다”)】 등의 謙讓語로서 (높은 사람이 있는 곳에) “들어가다” (높은 사람에게) “(물건을) 바치다, 獻上하다” “(행동으로) 도와 드리다, 奉仕하다”	【食ふ(kupu, “먹다”)】 , 【飲む(nomu, “마시다”)】 , 【着る(kiru, “입다”)】 , 【乗る(noru, “타다”)】 등의 尊敬語로서 “드시다”[食·飲], “입으시다”[着], “타시다”[乘]

즉, 가장 典型的인 “客體높임” 動詞 중 하나인 ‘奉る’(tatematuru, “드리다, 올리다, 바치다, 받들다, 獻上하다”)가, 신기하게도 “드시다”, “입으시다”, “타시다”, “앉으시다”와 같은 主體높임 動詞로서의 用法도 가지는 것이다.

- (7) a. 股長(ももなが)に 寝(い)をし寝(な)せ / 豊御酒(とよみき)奉らせ <古事記(712 年)上·歌謡>

다리를 뻗고 주무십시오 / 풍성한 神酒를 드십시오

- b. 壺なる御藥奉れ。汚き所の物聞こしめしたれば、御心地悪しからんものぞ <竹取物語(9c 末-10c 初)>

항아리 안의 약을 드십시오. 더러운 곳의 음식을 드셨으니 기분이 안 좋으시겠습니다.

- c. 殊更にやつして無文(むもん)を奉れり <源氏物語(1001-14 頃)·幻>

일부러 초라하게 입고 무늬 없는 옷을 입으셨다.

- d. 親王たち、上達部率ゐて出で給へり。右大将降りて入り給ふ。皆御座(おまし)に奉りぬ。 <宇津保物語(970-999 頃)·内侍督>

親王들은 上達部(上級貴族)들과 함께 나오셨다. 右大將이 下車하여 들어가시고, 모두 자리에 앉으셨다.

- e. 女御殿、対の上(たいのうへ)は、一つに奉りたり。次の御車には、明石の御方、尼君忍びて乗り給へり。女御の御乳母、心知りにて乗りたり。 <源氏物語(1001-14 頃)·若菜下>

아카시노노고(明石의 女御: 源氏의 正室 夫人)와 무라사키노우에(紫の上: 事實上的 夫人)께서는 한 가마에 타셨다. 다음 가마에는 아카시노오카타(明石의 御方: 側室)와 아마기미(尼君: 그 어머니)께서 눈의 띄지 않게 타셨다. 아카시노노고의 젓어미도 사정을 아는 사람으로서 함께 왔다.

(7e)에서는 主語의 身分에 따라 각각 ‘奉る’(tatematuru, “타시다”) > ‘乗り給ふ’(noritamapu, lit. “타시다”) > ‘乗る’(noru, “타다”) 가 다 區別되어 있다는 점이 注目된다(小田 2015: 570). 특히 본래 客體높임 動詞인 ‘奉る’tatematuru가, (主體높임 補助動詞 ‘給

ふ'tamapu 에 의해) 規則적으로 만들어진 '乗り給ふ'nori tamapu(lit. 타시다)보다 더 높은 主體높임 動詞라는 점이 注目된다.

같은 現象이 역시 典型的인 客體높임 動詞인 '参る'(mawiru, "(높은 곳으로) 들어가다, 獻上하다, 奉仕하다")에서도 관찰된다.

- (8) a. ほかにて酒など参り、酔ひて、夜いたく更けてゆくりもなく物し給へり <大和物語(947-957年頃)125>

다른 곳에서 술을 드시고 취해서 밤이 꽤 늦어서야 불쑥 찾아오셨다.

- b. 心地もまことに苦しければ、物もつゆばかり参らず <源氏物語(1001-14頃)・総角>

(大君께서) 기분이 참으로 괴로우시어 음식도 조금도 드시지 않으시고

- c. さるべき干物(からもの)ばかりして、御かはらけ参る <源氏物語(1001-14頃)・若菜上>

적당히 마른 생선 따위만으로 술잔(술을) 드신다.

- (9) a. 御物の怪など加はれる様におはしましけるを、今宵はなほ静かに加持など参りて出でさせ給へ <源氏物語(1001-14頃)・若紫>

귀신 같은 것이 붙으신 듯하시니, 오늘 밤에는 역시 조용히 加持祈禱라도 하시고(되마하신 뒤) 돌아가십시오.

- b. 御衣《ぞ》などもただ芥子《けし》の香《か》にしみかへりたる、あやしさに御ゆるす参り、御衣(ぞ)着かへなどし給ひて試みたまへど <源氏物語(1001-14頃)・葵>

입으신 옷에도 온통 겨자 냄새가 배어 있는데, 이상히 여기시어 머리를 감으시고(lit. 洗髮 하시고) 옷을 갈아입는 등으로 시도해 보시나,

- c. 夜深く御手水(てうつ)参り、御念誦(ねんず)などし給ふも <源氏物語(1001-14頃)・須磨>

(히카루젠지(光源氏)께서) 깊은 밤에 손과 입을 淨潔히 씻으시고 念佛을 외우시는 것도

管見으로는 종래 이처럼 '奉る'tatematuru, '参る'mawiru 등 補語尊敬語(객체높임) 동사가 主語尊敬語(주체높임) 동사로 사용되는 現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解釋들이 一般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장 위의 『全文全訳古語辞典』의 説明이 代表的이며, 다른 説明들도 조금씩 表現만 다를 뿐, 大同小異하다.

『全文全訳古語辞典』 '奉る'tatematuru 項目

“貴人들은 이러한 動作들을 다른 사람들의 奉仕를 받음으로써 하기 때문에, '奉仕를 받으면서 하시다'라는 뜻의 尊敬語로 바뀌었다.”(翻譯은 引用者)

『日本国語大辞典』 '参る'mawiru 項目

“奉仕者에 의해 준비된 것들을 奉仕를 받는 사람이 쓴다는 데에서, [一] (=謙讓語 用法)을 奉仕를 받는 貴人の 動作 그자체로서 直接 表現하게 됨으로써 생긴 尊敬語”(翻譯은 引用者)

『角川古語大辞典』 '奉る'tatematuru 項目

“가까이 모시는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드리며 奉仕하는 일이 바로 貴人들이 '마시'거나 '입'는 行爲와 다름이 없다는 데에서 轉換된 것”(翻譯은 引用者)

『岩波古語辞典 補訂版』 '奉る'tatematuru 項目

“獻上하는 의미가, 그 물건을 貴人이 받아들여 使用한다는 의미로 확장되어 尊敬語가 된다”(翻譯은 引用者)

小田(2015: 587)에서도 비슷하게 “下位者が 上位者에게 하는 行爲이지만, 이것이 그것을 받는 上位者の 行爲로서 表現되면, 主語尊敬語가 된다.”(翻譯은 引用者)처럼 說明할 뿐, 그 變化의 機制까지 자세히 밝히려는 試圖은 아직 管見으로는 못 찾았다.³⁾

하지만 이러한 傳統的 說明에 대해서는, 그런 言語變化가 정말 可能的지 一般言語學的 觀點에서 慎重하게 檢討할 需要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王은 항상 주변 사람들이 옷을 奉る(“입혀드리다”)하기 때문에, 이제 王 自身の 動作으로서, 즉 “입으시다”라는 뜻으로 “王께서 옷을 奉る(“입혀드리다”)”라고 表現할 수 있게 되었다는 說明인데, 이러한 變化를 可能하게 하는 理論的 根據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發表者は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解釋하고자 한다. 먼저 여기에 나타나는 “드시다”[食·飲], “입으시다”[着衣], “타시다”[乘車], “앉으시다”[座]와 같은 動詞들이 모두 “再歸性(reflexivity)”을 지닌 “再歸的 動詞”임을 指摘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再歸的 動詞”란 主語의 行爲가 主語 自身에게 돌아와 스스로 影響을 입게 되는 意味構造를 가진 動詞들을 가리킨다.⁴⁾ 再歸的 動詞의 경우, 行爲의 “主體”와 그 行爲의 影響을 입는 “客體”가 一致한다는 점이 매우 重要하다.

이들이 모두 再歸的임을 (9)의 예, 즉 ‘參る’*mawiru*가 널리 “하시다”의 意味로도 使用된다고 說明되는 예들을 보아도, 이들에게 共通的으로 “몸을 씻는” 再歸的 動詞의 意味가 抽出되는 등, 역시 예외 없이 모두가 “再歸的 動詞”임을 確認할 수 있다.

이제 다시 整理해 보자. 典型的인 “客體높임” 動詞인 ‘奉る’*tatematuru*나 ‘參る’*mawiru*가 “主體높임”처럼 使用되는 特異한 現象은 반드시 “再歸的 動詞”로 쓰일 때에만 나타나는 것이다. 즉, 흔히 하는 說明처럼 “주변사람들이 王께 입혀드린다는 의미가 基盤이 된 것이 아니라, 主語는 文章에 나타나는 그대로, “王께서 王 自身께” 입혀 드린다는 再歸的 動作의 意味가 基盤에 있는 表現이라고 解釋되는 것이다.

“王께서 옷을 奉る*tatematuru*(“입으신다” lit. 입혀 드린다)”라고 할 때, ‘奉る’*tatematuru*의 行爲 主體는 主語인 “王”, 그 行爲를 받는 對象(客體) 역시 主語인 “王”이다. 즉, 再歸的 動詞에 있어서 主語는 “主體”인 同時에 “客體”이기 때문에, “主體높임”으로 轉換된 것처럼 보이는 ‘奉る’*tatematuru*나 ‘參る’*mawiru* 도 실은 여전히 “客體높임”으로서의 本分을 잃지 않은 것이며, 말하자면 “[客체=주체]높임”이다. 本稿에서는 이를 “再歸的 客體높임”이라고 命名하고자 한다.

3) 中西宇一(1969: 136)에서도 “御衣奉る”(옷을 입혀드리다)라는 表現이 尊敬語가 되는(‘옷을 입으시다’의 意味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相對方이 自身の 손에 ‘奉る’*tatematuru*한 것을 스스로가 着用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데에서 成立하는 用法이다.(翻譯은 引用者)라는 설명이 보인다.

竹村義一(1964: 10), 辻村敏樹(1968: 69), 宮腰賢(1986: 34ff.) 등에서도 이 現象에 대해 記述할 뿐, 그 機制에 대한 언급은 없다.

4) 日本語에서는 이들이 再歸的 動詞임을 外形으로 알 수는 없지만, 言語에 따라서는 이러한 動詞들은 再歸動詞(reflexive verb)로 表現된다. 즉, 再歸代名詞를 目的語로 취하는 他動詞的 形式에 의해 自動詞的인 意味가 表現된다. 예를 들어 스페인어에서는 *ponerse*(“입다”, lit. 자신을 입히다), *subirse*(“타다”, lit. 자신을 태우다), *sentarse*(“앉다”, lit. 자신을 앉히다), *lavarse*(“몸을 씻다”, lit. 자신을 씻다)처럼 表現되는데, 中古日本語의 ‘奉る’*tatematuru*, ‘參る’*mawiru*도 마치 이들처럼 “自身에게 바치다/奉仕하다”와 같은 感覺으로 使用되는 것이라고 說明된다.

이 “再歸的 客體높임” 現象은 우리가 第2章에서 확인한 “客體높임”이라는 概念의 本質과 매우 잘 通하는 부분이 있는 듯하다. 그 共通點이란, 主語(主體)의 行爲動作 중에서 “主語(主體)의 敬意와 관련된 요소(待遇 意圖)”는 무시될 수도 있는 한편, “客體”가 제대로 “話者”의 敬意를 받는다는 부분이 一貫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王은 스스로 옷을 입을 때 결코 “자신에게 입혀 드린다”라는 높임의 待遇 意圖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王께서 옷을 奉るtatematuru”라고 表現할 수 있다는 점이, 마치 世宗께서 아들인 世祖에게 “보아 드린다”라는 待遇 意圖를 가지고 본 것은 아니었지만 “(世宗이 世祖께) 보물 주스오시고”라고 表現할 수 있다는 점과 통하는 것이다.

“客體높임”은 역시나 “客體” 중심의 개념이며 “主體”에 관한 개념이 아님을 여기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3.2. 韓國語의 ‘습’[白]

앞 節에서 우리는 中古日本語 ‘奉る’tatematuru, ‘参る’mawiru 가 再歸的 動詞로 사용될 때 나타나는 “再歸的 客體높임” 現象을 살펴보았다. 거기서는 客體=主體가 一致하는 再歸的 動詞의 特性上 (우리의 現代語的인 色眼鏡으로는) “主體높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客體높임”으로서의 本分을 잃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제 本稿에서는, 같은 現象이 韓國語의 客體높임 先語末語尾 ‘습’에 있어서도 觀察됨을 論議하고자 한다. 즉, 종래 報告되었던 “主體높임”처럼 보이는 ‘습’[白]의 많은 예가 사실은 “再歸的 客體높임”이라는 觀點에서 理解할 수 있음을 論議하고자 한다.

3.2.1. 『訓民正音諺解本』의 ‘ᄃ습시’

먼저 序論에서 보았던 15세기 유일한 ‘습시’의 예를 다시 보기로 하자.

- (1) 予 | 爲此憫然ᄃ야 【予는 “내” ᄃ습시는 쁘디시니라 ...】 <訓諺2b>
... 【(여기서) “予”는 “내”라고 하시는 뜻이시다 ...】

이는 “[世宗大王께서] [자신을] ‘내’라고 하시다”라는 構造로, ‘ᄃ-’가 再歸的이며 主體도 客體도 世宗大王임을 確認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습시’의 ‘습’은 “客體로서의 世宗大王”을 높이는 것이라고 解釋된다.⁵⁾

‘습시’라는 特異한 形態는 아마도 “再歸的 客體높임” ‘습’의 用法이 점점 消滅되어 가는 過程에서, ‘습’ 만으로는 主語에 대한 높임을 表現하는 데 不足함이 느껴져서, ‘ᄃ습’과 ‘ᄃ시’를 “혼효”(blending)⁶⁾시킴으로써 (‘-스 븃시’[-습-으 시-]와도 잘 辨別되도록) 만들어진 어형일 것으로 생각된다.

5) 이 分析에 대해서는, 다음 3.2.2項에서 논의할 釋讀口訣 資料에 대한 分析처럼 “(世宗大王을 가리킨다는 그 귀한 내용의) ㅼ”을 客體로 높이고 있다는 分析도 可能할 것이다. 어느쪽이 더 妥當할 것인지에 대한 判斷은, 韓國語의 “再歸的 客體높임” 現象의 全貌가 어느 정도 網羅的으로 檢討된 후에 다시 檢討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分析의 可能性을 指摘해 주신 인하대학교 문현수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6) 고광모(2016)에서도 ‘습시’라는 形態가 blending에 의해 形成되었다고 主張한 바 있다. 다만 그것을 單純한 “말하기 실수”로 說明한다는 점에서는 本稿의 見解와는 다르다.

그렇게 만들어진 ‘읍시-’는 17世紀쯤부터 諺簡 등 口語의 資料에서 주로 ‘읍시-’의 모습으로 널리 나타나게 되는데, “再歸의 客體높임”으로서의 본래 用法이 잊혀지면서 단지 ‘으시-’보다 더 높이는 “主體 貶높임”(김정수1984, 고광모2016) 정도로만 쓰였던 것인지, 아니면 그 ‘읍시-’의 分布에서 “再歸性”에 起因한 어떤 痕迹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는, 앞으로 檢討해 보아야 할 課題로 남는다.

3.2.2. 釋讀口訣 資料의 ‘-白 尸/1’

다음으로 釋讀口訣 資料를 보자. 백두현(1995: 59-62)에서는 主語가 부처(如來, 法王)일 때 쓰인 一連의 ‘-ㅁ’의 存在를 指摘하면서, “主體 尊待”의 기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ㅁ’이 모두 ‘-ㅁ’¹, ‘-ㅁ’²이라는 動名詞形 語尾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指摘한 바 있다.

먼저 ‘-ㄴ 尸 ㄴ ㅅ ㅅ ㅅ’, ‘-ㄴ ㄱ ㅅ ㅅ ㅅ’의 예들을 보자. 이들은 후대에 한글 자료에서 ‘-오디’가 된 “설명형” 연결어미이지만, 이 당시에는 이처럼 依存名詞 ‘ㅅ ㅅ ㅅ’를 分析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아래 現代語 翻譯에서는 ‘-오디’의 現代語形 ‘-되’를 그대로 使用할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는 本來의 構文의/意味의 構造를 分析의 理解하기 위해, 다소 不自然스럽더라도 直譯의 翻譯하기로 한다.

- (10)a. 佛₁ 卽₁ 時₁ リキ₁リ₁ 入₁乙 知₁ニカ 衆生₁ヲ 根₁乙 得₁ニッ₁ 卽₁ 定₁乙 從₁セ 起₁ニ下 方₁セ 蓮
花師子座上₁ヲ + 坐₁ソ白₁リ₁ ム 金剛山王 {如₁} | ソロハニ₁ (佛卽知時得衆生根, 卽從定起,
方坐蓮華師子座上, 如金剛山王。)<舊仁上03:13-14>

부처는 바로 때가 된 것을 아시며 衆生の 根性(이 익었음)을 得ᄃᆞ시자 定(禪定)에서부터 일어나서, 蓮華 꽃 師子座 위에 앉으신 것(=그 귀한 모습)이 金剛山王과 같으시니

- b. 釋迦牟尼佛₁ … 復ッ₁ {於}頂上₃+ ヲ₃ 千寶蓮花_乙 出ッ白ウ₁ ム 其₁ 花₁ 上ッ₁ 非想
非非想天₃+ 至₅ 光_カ 亦ッ₁ 復_リ 爾_七₅ ソニ_ハ (釋迦牟尼佛, … 復於頂上出千寶蓮花,
其花上至非想非非想天, 光亦復爾, 乃至他方恒河沙諸佛國土。) <舊仁上02:12-13>

釋迦牟尼佛은 ... 또한 정수리에서 千寶蓮花를 내신 것(=그 귀한 모습)이 그 꽃은 非想非非想天에까지 이르고 그 光明도 마찬가지로 하시며

- c. 法王₁ 上₁ 無_セ 人₁ 中₁ 樹_リニ下₁ 大衆_乙 覆蓋_ソ白_リ尸_ム 量₁ 無_セ 光₁…ソニ₁ 口₁
十₁ 常_リ 説法_ソ白_リ尸_ム 無義_ソ 入_乙 ソ₁ 非_冬ソニ₁ (法王₁無上人₁中樹₁ 覆蓋₁大衆₁無量₁光₁
 口₁常₁説法₁非₁無義₁) <舊仁上11:09-10>

法王은 위 없어 인간 가운데 나무이시어 大衆을 덮으실 것(=그 귀한 모양)은 無量光으로 하시며 입에 항상 說法하실 것(=그 귀한 내용)은 헛된 말을 하지 않으시며

(10a, b)는 ‘ $\text{ㄴ} \text{白} \text{ㄹ}$ 하수은 스틱 ’, (10c)는 두 예가 다 ‘ $\text{ㄴ} \text{白} \text{ㄹ}$ 하수을 스틱 ’의 예들이다. 여기서 각각의 ‘-白-’이 높이는 “客體”는, 쉽게 말하면 依存名詞 ‘스틱’라 할 수 있으며, 좀 더具體的으로는 각각 (10a, b)는 “그 귀한 모습”, (10c)는 “그 귀한 모양”, “그 귀한 말씀” 정도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直前の 動名詞句(冠形詞句)와 依存名詞 ‘^ㄱ티’가 同格關係에 있다고 볼 수 있기에,⁷⁾ 예를 들어 (10a)의 경우는 ‘-하-’이 붙은 動詞 ‘坐-’의 “主體”와 “客體”(높임법의

7) 본래 **動名詞** 語尾였던 ‘-은’, ‘-을’은 “**同格 構造**”의 名詞句 並列이라는 構造에 힘입어 **冠形詞形** 語尾로 變化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고 있음이 確認된다. “부처님의 말씀”, 즉 佛法이나 陀羅尼 그 자체가 마치 부처님 자체, 혹은 부처님의 一部처럼 간주되면서 부처와 같은 最高의 높임의 對象이 될 수 있는 것이다. 國家의으로 佛敎를 信仰했던 高麗時代 佛敎界에서 새겨진 口訣이라면, 佛敎를 否定한 朝鮮時代 王權이 主導해서 만들어진 한글 資料들보다 훨씬 더 그러한 傾向이 강했을 것으로 想像해 볼 수 있다.

3.2.3. 吏讀 資料의 ‘在白敎’, ‘是白(敎)’

앞 節에서 확인한 “敬意의 波及現象”(혹은 “넓은 意味로 主體의 一部”)으로 설명될 만한 現象이 吏讀 資料에서도 확인된다.

本節에 提示하는 예들은 모두 홍고 테루오(2002:329ff.)에서 “존경법으로 보이는 (‘白’의) 용례”로서 提示된 예들이다. 發表者는 아직 그 모든 용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일단은 (本動詞 ‘白’이 아니라) 先語末語尾 ‘白’에 注目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代表的 構文의 存在를 確認할 수 있었다. (여기서 ‘在_가’는 存在詞, ‘是_아’는 繫辭이다.)

“[귀한 말씀] 在白敎_{겨쑤시}—” “~라는 말씀이 있으시다”
 “[귀한 말씀]是白(敎)_{이쑤(시)}—” “~라는 말씀이시다”

다음 예들은 『大明律直解』의 “[귀한 말씀] 在白敎_{겨쑤시}—”(~라는 말씀이 있으시다) 構文의 예이다.

- (13)a. 逢音 有旨 在白敎是良置 放赦不得爲乎 流罪人矣 家口乙良 (會赦猶流者家口) <1395大明律直解1:16b 【流囚家屬】>
 마침 恩赦가 있으셔도(王의 恩赦를 만나더라도) 放赦를 못할 流罪人(그 정도 重罪人)의 가족에 대해서는 ...
 b. 凡 徒流人亦 路次良中 逢音 有旨 在白敎是去等 (凡徒流人、在道會赦)<1395大明律直解1:18b 【徒流人在道會赦】>
 무릇 徒流人이 (流刑地로) 가는 길에 마침 恩赦가 있으신 경우, ...

이 構文을 理解하기 위해서는 現代日本語의 ‘言う’(iu, “말하다”)의 尊敬語 ‘仰る’(ossyaru, “말씀하시다”)의 存在가 큰 參考가 된다. 이 말은 語源的으로 ‘仰せ有る’(oose aru lit. 말씀 있다)에서 由來한 말이며, 여기서 ‘仰せ’(oose)는 “분부, 명령”, “말씀”의 意味를 가진 尊待名詞이다.

(13a, b)에 나타나는 “有旨(有旨) 在白敎_{겨쑤시}—”도, 마치 日本語의 ‘仰せ有る’(“말씀하시다”, lit. 말씀 있다)와 비슷한 構造와 語感を 공유하는 構文일 것으로 생각된다. 즉, ‘有旨 在’ 통째로 마치 “赦免하시다”와 같은 하나의 動詞처럼 把握할 수 있고, 그 경우 ‘白’의 主體와 客體를 아래와 같이 解釋할 수 있다.

主體 = 王
 客體 = “(王께서) 赦免하신 것(=그 귀한 有旨)”

이처럼 結果的으로는 ‘在_가’의 主語인 “有旨”가 높임의 “客體”가 되면서 “주체 높임”처럼

보이게 되는 셈이다. 8)

다음의 예도 살펴보자.

(14) 是雖我聖德神功應天順人 所致白教是乃 <1392李和開國功臣錄券> 朴盛鍾(1993b)

이(建國의 成功)는 비록 우리 聖德과 神功이 應天順人함이 이르게 하신(招致하신) 바이시나

이 吏讀文은 거의 正則 漢文에 마치 口訣처럼 “白教是乃”가 달려 있는 構造로 되어 있는데, 形態論으로는 漢文 “... 所致”와 “白教是乃” 사이에 繫辭 ‘이-’가 介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是”(建國의 成功)은 “我聖德神功應天順人”(太祖 李成桂의 德과 功이 하늘과 민중들의 支持를 얻은 일)이 “致”(招致)한 “所”(바)라고 漢文으로 表現되어 있는데, 漢文 構造에 근거하여 “致”의 主體와 客體를 아래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主體 = 我聖德神功應天順人

客體 = “建國의 成功”, “朝鮮王朝의 誕生”

太祖께서 招致하신 바(=그 귀한 “建國의 成功”(≡“朝鮮王朝” 자체))

이처럼 ‘白-’이 形態論으로는 繫辭 ‘이-’에 접속하는 경우에도, 그 先行名詞句(이 경우는 漢文)에서 換喩(metonymy)의으로 抽出되는 動詞(이 경우는 “초치하다, 이르게 하다”[致])에 붙은 것처럼 ‘白-’이 機能할 수 있다는 점은 注目해 둘 만하다.⁹⁾

다음의 예들은 계사 ‘是_이’에 ‘白-’이 결합한 “[말씀]是白(敎)_{이_훈(시)-}”(∼라는 말씀이시다) 構文이다.

(15)a. 爲等如 王旨內 兒如 “功勞可尙”是白敎 等用良 更良 功臣職名單字 申聞爲白叱乎亦中 科科以落點分例敎矣 <1395 鄭津開國原從功臣錄券>

이들 모두 王旨 內의 모양대로 “功勞可尙”이신 바로써 다시 功臣의 職名單字를 올려드렸을 때 등급대로 落點分例하시되

b. “有司 宜悉載賞典”亦 敎 事是白齊<1395鄭津開國原從功臣錄券>

“擔當者는 마땅히 모두 賞典을 記載할 것”이라고 하신 일입니다

c. “...永絕屬籍爲良”如 敎 遺書是白乎 等用良<1429金務許與文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영원히 屬籍에서 끊어 버리라”라고 하신 遺書이신 바

(15a)는 “말씀하시기에 ‘∼’(말씀내용)이셨다”, (15b)는 “∼라고 하신 일(≡말씀)이셨다”, (15c)는 “∼라는 하신 遺書(≡말씀)이셨다”라는 構造로 되어 있는데, 모두 “[말씀]是白(敎)_{이_훈(시)-}”라는 틀에 맞는 예들이라 할 수 있다.

이것도 繫辭 ‘是_이’ 앞의 先行名詞句에서 換喩的으로 動詞 “말하다”를 추출하여 “王께서 [말씀]을/[말씀내용]이라고 말하(-白-)다”와 같은 構造를 復元해 본다면, 바로

8) 이와 같은 論議는 存在詞의 非對格動詞로서의 側面을 彷彿케 한다.

9) 이 이야기는 앞의 예문 (13)에서 본 “有旨(宥旨) 在白敎_{저_훈시}” 構文에서도 똑같은 논의가 可能하다. 즉, ‘白-’이 形態論으로는 存在詞 ‘在_자’[있다]에 접속하는 경우에도, 그 先行名詞句(主語)(이 경우는 “말씀”類라 分類할 만한 “有旨”)에서 換喩(metonymy)的으로 抽出되는 動詞(이 경우는 “말하다”)에 붙은 것처럼 ‘白-’이 機能할 수 있는 것이라고 說明된다.

主體 = 王
客體 = 王의 귀한 말씀

이라는 동기로 쓰인 “再歸의 客體높임”의 ‘-白-’이라고 說明할 수 있을 것이다.

3.2.4. 均如鄉歌의 “邀里(呂)白乎隱”

마지막으로 均如鄉歌에 나타난 “邀里白乎隱”, “邀呂白乎隱”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다음 (16), (17)에서 (a)가 바로 그 예들이며 現代語 翻譯은 拙稿(2012)의 “解釋案”을 그대로 따랐다(밑줄은 引用者). (b)는 『均如傳』에 함께 실린 崔行歸의 漢譯詩, (c)는 內容의 出處가 된 『華嚴經』 「普賢行願品」의 해당 부분이다.

- (16)a. 塵塵馬洛 佛體叱 刹亦 / 刹刹每如 邀里白乎隱 / 法界 滿賜隱 佛體 / 九世 盡良 禮爲白齊 <禮敬諸佛歌5-8>
塵塵마다 부처의 刹(佛國土)이여 / 刹刹마다 모신(존재하시는) / 法界 가득 차신 부처(를) / 九世 다하여 禮敬하자.
- b. 一一塵塵諸佛國 重重刹刹衆尊堂 <禮敬諸佛頌(崔行歸 漢譯詩)>
하나하나의 티끌마다 많은 佛國土이며(~가 있으며), 겹겹이 중첩된 佛國土마다 모두 諸尊의 殿堂이다(~이 자리하고 있다).
- c. 善男子! 言禮敬諸佛者: 所有盡法界、虛空界十方三世一切佛刹極微塵數諸佛世尊, ...<貞元本 華嚴經 卷40 普賢行願品 T10n0293_p0844c01>¹⁰⁾
- (17)a. 塵塵虛物叱 邀呂白乎隱 / 功德叱 身乙 對爲白惡只 / 際 于萬隱 德海盼 / 間 毛冬留 讚伊白制 <稱讚如來歌5-8>
塵塵虛物로(法界 모든 곳에¹¹⁾) 모신(존재하시는) / 功德의 몸을 대하여 / 끝이 아득한 功德海를 / 빈틈없((이)) 稱讚하자.
- b. 稱揚覺帝塵沙化 頌詠鑿王¹²⁾刹土風 <稱讚如來頌(崔行歸 漢譯詩)>
모든 티끌마다 化現하신 覺帝(부처)를 稱揚하고, 모든 佛國土에 바람처럼 가득차신 鑿王(부처)을 頌詠하자
- c. 復次, 善男子! 言稱讚如來者: 所有盡法界、虛空界十方三世一切刹土所有極微一一塵中, 皆有一切世界極微塵數佛, ...<貞元本 華嚴經 卷40 普賢行願品 T10n0293_p0844c12>

拙稿(2012)의 “解釋案”에서 “모신(존재하시는)”처럼 表現된 것(16a, 17a)은, 微視的 觀點, 즉 (종래 一般的이었던 解讀 方式으로) 音韻이나 形態의 側面에서 接近하면 [*모리-옴-오-은](中世語 “되스븐”에 해당) 정도로 읽히며¹³⁾ 直譯的으로 “모신”(“모셔드린”)처럼 解釋되는 한편, 巨視的 觀點, 즉 文脈이나 漢文과의 對應 樣相을 검토해 본다면 分明히 “존재하시는”이라는 意味의 말이 들어가야 하는 자리임을 表現하고 있다. 즉, 이들 두 예문의 文脈

10) 拙稿(2012: 103)에서는 이 部分의 對應關係에 대한 記述이 빠져 있어 修正이 必要하다.

11) “티끌마다, 허공마다 (존재하심)”처럼 翻譯하면 조금 더 直譯에 가까울 것이다.

12) 拙稿(2012: 108)에서는 “禪王(선왕)”으로 表示되었으나 “鑿王(의왕)”으로 修正되어야 한다.

13) 金完鎭(1980: 161, 166)의 見解를 따른다. 金完鎭(1980)은 ‘里/呂’는 末音添記이지 先語末語尾 ‘-리’일 수 없음을 統辭論的 觀點에서 論議하였으나, 本稿의 觀點에서는 意味의으로도(즉, 文脈이나 漢文과의 對應關係를 보아도) irrealis ‘-리’가 介入할 根據를 찾기가 어려움을 指摘할 수 있다.

은 모두 華嚴宗에서 說해지는 ‘부처의 遍在性’의 개념을 表現한 것이 確實하다. “부처는 全宇宙의 時間과 空間, 物質的인 制約을 超越하여 모든 곳에 두루 存在한다”는 思想인데, 그것을 高麗語로 “(모든 곳에) 遯里白乎隱 (부처님)”처럼 表現하고 있다.

실제로 對應하는 漢文 資料를 살펴보면, 먼저 (16c)와 (17c)는 거의 같은 內容의 重複이라 할 수 있는데 後者が 조금 더 仔細하다. 그러나 “遯里(呂)白乎隱”에 直接 對應하는 要素로서 “모시다”나 “맞이하다”에 해당하는 意味의 要素는 찾아내기 어렵고, 단지 “皆有”의 “有”가 對應할 뿐이다.

또한 지금 (17b)의 漢譯詩를 “諺解”해 보자면 “塵沙에 化한 覺帝를 稱揚하고, 刹土에 風한 鑒王을 頌詠하자” 程度의 構造가 될 텐데, 이는 위에서 提示한 現代語 翻譯처럼 “無數한 有形의 부처”와 “遍滿한 無形의 부처”를 對比의으로 表現한 것으로 解釋할 수 있다. 從來에는 이 “化”와 “風”을 각각 “教化”, “感化”와 같은 意味로 解釋하는 것이 一般的이었으나, 一次的으로는 本稿의 解釋처럼 有形/無形으로 모든 곳에 存在하는 ‘부처의 遍在性’을 表現한 것이라고 보아야 비로소 “塵塵虛物叱 遯呂白乎隱”(티끌마다 허공마다 존재하시는)이라는 鄉歌의 翻譯詩로서 成立한다고 하겠다.¹⁴⁾ 어쨌든 간에, “遯里白乎隱”과 直接的으로 대응하는 漢文 要素는 찾아내기 어렵다.

요컨대, 文脈上 반드시 “존재하시는”이라는 意味의 말이 들어가야 하는 자리에, 現代語의 인 觀點에서는 多少 덜 매끄럽게 “遯里(呂)白乎隱”(“모신”, 혹은 “맞이한”)이라는 말이 들어 있는 셈이다. 對應하는 漢文 資料에도 ‘有’ 자가 있을 뿐, 아무런 뒷받침도 없다.

이에 대한 說明으로서, 우리는 두 가지 說明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이 두 예에 나타나는 “遯里(呂)白乎隱”에 있어서 中古日本語의 “再歸的 客體 높임”과 똑같은 現象이 일어났고, 마치 日本語 ‘奉る’(tatematuru, “바치다, 받들다, 獻上하다, 奉仕하다”)가 “再歸的 客體 높임”으로 ‘앉으시다’, ‘자리 잡으시다’와 같은 意味를 가지게 된 것처럼, “遯里(呂)白乎隱”도 같은 기제로 “앉아 계신”, “자리잡고 계신”, “존재하시는”과 같은 意味를 나타내게 된 말이라고 把握하는 것이다. 즉, “遯里(呂)白乎隱”의 行爲 主體도 부처님, 行爲를 받는 客體도 부처님인 再歸的 動詞라고 把握하는 說明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均如鄉歌의 創作時期가 960년대쯤으로 알려져 있어 時代的으로도 中古日本語와 同一한 時代에 屬하는데, 거의 같은 時代에 高麗語와 日本語가 매우 비슷한 客體 높임법을 共有하면서, “再歸的 客體 높임” 現象도 그 정도까지 비슷했다고 볼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興味롭다.

다만, “存在하다”라는 動詞는 “意圖의 行爲”가 아니라는 점에서 日本語의 ‘奉る’tatematuru나 ‘參る’mawiru가 보여주는 “再歸的 客體 높임”의 경우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또다른 說明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두 번째 해석으로서, 그렇게 굳이 “再歸的 動詞”로 보거나 “行爲主體도 부처 自身”이라고 볼 것도 없이, 우리가 一般的으로 理解하는 대로 “遯里(呂)白乎隱”의 主體는 非人稱의인 “우리”나 “사람들”(혹은 “場所”)처럼 해석하는 說明도 可能하다.

14) 우리는 崔行歸의 翻譯詩가 “韓國語의 定型詩를 中國語의 定型詩로 옮긴다는 큰 언어적 제약 속에서 翻譯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마치 15세기 諺解 文獻의 漢文과 諺解文과 같은 지역적인 對應 關係를 기대하기는 어려운”(拙稿2012: 98) 것임은 충분히 알고 있으나, 처음부터 잘 對應하지 않을 것이라는 前提로 接近한다면 그에 대한 큰 실례가 될 것이다. 큰 制限 속에서 最大限 뜻을 잘 옮기려고 精微한 공을 들인 崔行歸의 努力을, 우리는 最大限 잘 理解하도록 努力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中國語에서 英語의 have 처럼 “X를 所有하다”의 意味를 가지는 他動詞 ‘有’¹⁵⁾ 構文의 主語 없이 “X가 存在하다”의 意味도 나타내는 것처럼, 또한 스페인어에서도 원래 “X를 所有하다”의 意味를 가지는 他動詞였던 haber가 構文의 主語 없는 非人稱構文으로 (항상 hay 등의 三人稱單數形으로) “X가 存在하다”의 意味를 나타내게 文法化된 것처럼, 똑같이 韓國語에서도 “어디어디에 모신(우리가 삼가 가치는)”이라는 표현이 “어디어디에 存在하시는”이라는 意味로 轉換되었다고 想定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아마도 두 번째 解釋이 一般的인 理解와 더 잘 통할 것이고 說明的 負擔도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韓國語의 “再歸의 客體높임” 現象의 全貌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現在 段階에서는 일단은 前者의 可能性도 排除하지 말고 考慮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結論

中世韓國語의 “客體높임”과 中古日本語의 “補語尊敬語”가 서로 매우 類似한 文法임을 指摘하였다. 즉, 허웅(1975)와 小田勝(2015, 2020)가 各 言語에 대해 매우 類似한 論議를 展開하고 있음을 指摘하였다.

中古日本語의 客體높임(補語尊敬語) 動詞 ‘奉る’tatematuru, ‘參る’mawiru 가 特異하게 보여주는 主體높임(主語尊敬語) 用法은 모두 “再歸의 動詞”로서의 用法임을 指摘하였다. 이 部分에 대해서는 先行研究를 더 찾아볼 必要가 있다.

本稿에서는 그 現象을 “再歸의 客體높임”이라 命名하였고, 그것이 中世韓國語에서 “주체높임”처럼 보이는 一連의 ‘-습-[白]의 쓰임에 대해서도 說明할 수 있는 原理일 것으로 指摘하였다. 다만 韓國語와 日本語 사이에서 表面的으로 보이는 現象은 다른 면이 많기 때문에 慎重한 批判的 檢討도 必要할 것이다.

특히 釋讀口訣 資料와 吏讀 資料에 대한 더욱 자세한 檢討가 必要하며, 資料面과 理論面에서 說明을 精密化할 必要가 있다. 또한 17世紀 이후 口語的 資料에서 널리 쓰이게 된 ‘-읍시-’의 分布에서 “再歸性”에 起因한 어떤 痕迹을 찾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檢討해 볼 必要가 있다.

또한 均如鄉歌에서는 文脈이나 漢文 資料와의 對應 關係上 반드시 “(모든 곳에 두루) 존재하시는 (부처님)”이라는 意味의 말이 들어가야 하는 자리에, 現代語의인 觀點에서는多少덜 매끄럽게 “邀里(呂)白乎隱”(“모신”, 혹은 “맞이한”)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이 역시 “再歸의 客體높임” 現象과 관련된 現象일 可能性을 檢討해 볼 만하다.

韓國語와 日本語의 깊이 있는 歷史的 對照研究가 兩言語에 대한 理解를 深化하는 데 매우 有益할 것이며, 앞으로 그 重要性은 더욱 커질 것이다. 특히 電子的 研究 環境의 發展으로 인해 過去에 비해 이러한 研究를 遂行하는 데 따르는 進入 障壁도 낮아지고 있음을 實感하고 있다.

15) 參考로 ‘有’자는 손(又)에 고기(月)를 잡은(가진) 모습을 表現한 글자라고 한다.

参考文献

- 河崎啓剛(가와사키 케이고)(2012), 均如鄉歌 解讀을 위한 漢文 資料의 體系的 對照와 巨視的 接近, 『口訣研究』 29, 구결학회, 97-151.
- 고광모(2016), 주체높임을 나타내는 어미 ‘-(으)니사’의 발달 — {-습사-}의 형성과 ‘-(으)니사’에 이르는 변화 —, 『언어학』 76,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57-85.
- 金完鎭(1980), 『鄉歌解讀法研究』 (韓國文化研究叢書 21), 서울大學校出版部.
- 김정수(1984), 『17세기 한국말의 높임법과 그 15세기로부터의 변천』, 정음사.
- 南豊鉉(2000), 『吏讀研究』, 태학사.
- 朴富子(2013), 東大寺 所藏 『大方廣佛花嚴經』 卷第12~20에 記入된 角筆字 [ㅅ]에 대한 研究, 『口訣研究』 30, 구결학회, 81-106.
- 박지용 외 편(2012), 『향가 해독 자료집(PDF)』,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 박진호(1997), 借字表記 資料에 대한 통사론적 검토, 『새국어생활』 7-4, 국립국어연구원, 117-145.
- 박진호(2008), 鄉歌 解讀과 國語 文法史, 『國語學』 51, 313-338.
- 백두현(1995),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경어법 선어말어미 ‘-니-[시]’, ‘-ㅅ-[白]’의 분포와 기능에 관한 연구, 『어문론총』 29, 한국문헌언어학회, 45-114.
- 安秉禧(1961), 主體謙讓法の 接尾辭 「-습-」에 對하여, 『震檀學報』 22, 震檀學會, 103-126.
- 安秉禧(1982), 中世國語의 謙讓法 研究에 대한 反省, 『국어학』 11, 국어학회, 1-23.
- 허웅(1975), 『우리 옛말본 —15세기 국어 형태론—』, 샘문화사.
- 홍고 테루오(北郷照夫)(2002), 『이두자료의 경어법에 관한 통시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大久保一男(1990), 「加持参る」の解釈—源氏物語における, 『国語研究』 54, 國學院大學国語研究会, 30-40. (未確認)
- 小田勝(2015), 『実例詳解 古典文法総覧』, 和泉書院.
- 小田勝(2020), 『古代日本語文法』, ちくま学芸文庫.
- 金田一京助(1959[2022]), 『日本の敬語』, 講談社学術文庫.
- 小久保崇明(1976), 大鏡における為手尊敬の動詞「奉る」をめぐって, 『語文』 41, 日本大学国文学会, p146-152.
- 竹村義一(1964), 源氏物語における謙讓語「奉る」についての一考察, 『高知女子大学紀要 人文・社会科学編』 13, 高知女子大学, 1-10.
- 辻村敏樹(1968), 『敬語の史的研究』, 東京堂出版.
- 中西宇一(1969), 召す・参る・奉る—「ひと」および「もの」の移動に関する敬語, 『女子大國文』 55・56, 京都女子大学国文学会, 115-145.
- 宮腰賢(1986), 『まゐる・まゐらす考』, 桜楓社.
- 森野宗明(1965), 「奉る」の解釈—竹取物語「壺なる御薬奉れ」について, 『国文学言語と文芸』 7-6, 国文学言語と文芸の会, 56-60. (未確認)

辞典類

한글학회(1992), 『우리말 큰 사전』, 어문각.
 장세경(2001), 『이두자료 읽기 사전』, 한양대학교 출판부.
 大野晋·佐竹昭広·前田金五郎編(1990), 『岩波古語辞典 補訂版』, 岩波書店.
 北原保雄(編)(2003), 『全文全訳古語辞典』, 小学館.
 中村幸彦ほか編(1982-1999), 『角川古語大辞典』, 角川書店.
 日本国語大辞典第二版編集委員会 小学館国語辞典編集部編(2000-2002), 『日本国語大辞典 第二版』, 小学館.
 諸橋徹次(1956;1968), 『大漢和辞典』, 大修館書店.
 汉语大词典编辑委员会汉语大词典编纂处 编纂(1990-93), 『汉语大词典』(全13冊), 汉语大词典出版社.

借字表記 資料類

盧明鎬·朴榮濟·朴宰佑·吳英善·尹京鎭·尹善泰·崔鉛植·李鍾書(2000), 『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 (上)―校勘譯註篇』, 서울대학교출판부.
 朝鮮總督府中樞院(1974), 『校訂 大明律直解』, 景仁文化社.
 崔喆·安大會 譯注(1986), 『譯注 均如傳』, 새문社.
 許興植(1988), 『韓國의 古文書』, 민음사.

佛經 資料類

『大正新脩大藏經』 1-85, 東京: 大正一切經刊行會, 1924-1932.
 『卍新纂大日本續藏經』 1-90, 東京: 国書刊行會, 1975-1989.
 CBETA 中華電子佛典協會(<https://www.cbeta.org/>)
 SAT大正新脩大藏經テキストデータベース(<https://21dzk.l.u-tokyo.ac.jp/SAT/>), 大藏經テキストデータベース研究会(SAT)

文献名	略号	T 大正新脩大藏經 X 卍新纂大日本續藏經
大方廣佛華嚴經	華嚴	T10 No. 293
釋迦譜	釋迦	T50 No. 2040
法華經要解	法華要	X30 No. 602

「“主體높임”으로 보이는 “再歸的 客體높임” 現象의 韓日對照研究 (試論)」에 대한 토론문

문현수(한국, 인하대)

이 발표문은 중세한국어와 중고일본어에서 모두 존재하는 주체높임처럼 보이는 객체높임 현상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를 ‘재귀적 객체높임’ 현상으로 설명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본 토론자도 큰 틀에서는 발표자의 생각에 동의하는 바이지만, 본 발표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몇 가지 의문점을 질문함으로써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1. ‘奉る’(tatematuru, “타시다”)가 ‘乗り給ふ’(nori tamapu, lit. “타시다”)보다 더 높은 주체높임의 동사로 쓰이는 이유에 대해서

(7e)에서 “客體높임 動詞인 ‘奉る’tatematuru가, (主體높임 補助動詞 ‘給ふ’tamapu 에 의해) 規則적으로 만들어진 ‘乗り給ふ’nori tamapu(lit. 타시다)보다 더 높은 主體높임 動詞라는 점이 注目된다”고 서술하였는데, ‘奉る’tatematuru가 ‘乗り給ふ’nori tamapu(lit. 타시다)보다 더 높은 주체높임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찾아볼 수 없었다. 고전일본어문법에 익숙지 않은 한국의 연국자들에게 이렇게 해석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2. 『訓民正音諺解本』의 ‘호습사’에 대하여

- (1) 予 | 爲此惘然호야【予는 “내” 호습사는 쁘디시니라 …】〈訓諺2b〉
…【여기서 “予”는 “내”라고 하시는 뜻이시다 …】

위의 ‘호습사’에 대해 “이는 “[世宗大王께서] [자신을] ‘내’라고 하시다”라는 構造로, ‘호-’가 再歸의이며 主體도 客體도 世宗大王임을 確認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습사’의 ‘-습-’은 “客體로서의 世宗大王”을 높이는 것이라고 解釋된다.”고 기술하였다. 하지만 이 예도 정확히 말하자면 뒤에서 설명한 석독구결이나 이두의 예처럼 “(세종대왕님의) 쁜”을 객체로서 높이기 위해 ‘-습-’이 쓰인 예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쁜”에 후행하는 ‘-이-’에 주체높임의 ‘-시-’가 결합한다는 것도 참고할 수 있을 듯하다.

3. 석독구결 『구역인완경』에 쓰인 ‘-ㅅ(습)-’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爾ニ時ト佛ノ大衆ヲ告スニテ十六大國王リ意ヲ十國土ニ護ル今ニ緣ニ乙
問ハ白ク欲スハニトリ入ル乙ニ火ニ知ル白ク口ヲトリミツトリ乃ニ吾ニ今ニトリ先ニ諸ノ菩薩ノ爲スシ
佛果ニ護ル今ニ緣ニ十地ニ行ル護ル今ニ緣ニノニ說ハ白クトリ諦ニ聽ル
諦ニ聽ル善カ之ニ思フ念フ法ニ如シ修行スカニソナソロハニト
그때에 佛은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十六 大國王이 뜻에 國土를 수호할 인연을 묻고자

하시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우선 모든 菩薩을 위하여 佛果를 지킬 因緣이니 十地の 행을 지킬 因緣이니 하는 것을 말하겠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며 잘 이것을 생각하고 생각하며 法대로 수행하며 하거라.” 하셨는데(爾時 佛告大衆 知十六大國王 意欲問護國土因緣 吾今先爲 諸菩薩說 護佛果因緣 護十地行因緣 諦聽諦聽 善思念之 如法修行) 〈구인 03:17-20〉

위에서 밑줄 친 동사 ‘說(니르)-’에는 선어말어미 ‘-ㅅ(습)-’이 쓰이고 있다. 이 ‘-ㅅ(습)-’은 주어가 부처인 ‘나’라는 점에서 목적어인 ‘因緣’을 높이고자 쓰인 것으로도 보기 어렵고, 또 주어가 1인칭인 ‘나’라는 점에서 ‘재귀적 객체높임’으로 쓰여 주체를 높이고자 쓰인 것으로도 해석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 예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다.

〈개인 연구 발표〉

〈1분과〉

언간에 나타난 선어말어미 결합 양상 연구 - 순천김씨묘출토언간을 중심으로 -

이수진(한국, 전남대학교)

1. 서론
2. 연구 대상 및 방법
3. 언간에 나타난 선어말어미와 결합 양상
4. 결론

1. 서론

이 글은 언간에 나타난 선어말어미의 통합 관계에 따른 결합 양상을 살펴보고 언간에 나타나는 선어말어미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구어적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본과 인간의 자료적 차이에서 나타나는 언어 현상에 대해 선어말어미의 발달 과정을 확인하고자 한다.

언간 즉, 한글 편지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전제되어 있으며 일상적인 구어를 보여준다.¹⁶⁾ 특별한 제약 없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록한 언간에서는 구어의 표현이 생생하게 살아 있다. 강선지(2023: 19)에서는 현대국어 ‘그저께’의 의미를 지니는 ‘그적과’가 간본에서는 17세기 『첩해신어』에서 처음 보이지만 언간에서는 그보다 100여 년 전인 <순천김씨묘출토언간>에서 쓰였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기존의 국어사 연구가 간본의 문어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언어의 통시적 변화는 구어에서부터 시작되어 문어에 이르러 정착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국어와 같이 언어의 직관이 닿을 수 없는 국어사의 언어 현상을 현전하는 문헌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기에 언간의 언어는 당대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에 많은 실마리를 제공한다.

국어 용언의 활용형은 어간과 선어말어미, 어말어미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형태 축약이 자주 일어나는데 형태가 변화하면 의미 기능의 변화가 동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구어 자료인 인간의 선어말어미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국어의 선어말어미의 통시적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순천김씨묘출토언간>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여 선어말어미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16) 김일근(1986/1991)에서 언간이 직접 대면해서 담화하는 대신 글로 쓴 것이라고 하며 자연히 구어성을 띠게 된다는 점을 언급했는데 문어 문장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종래의 국어학적 현상과 상당히 다른점이 있다고 보았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2.1. 연간과 〈순천김씨묘출토연간〉

이 글에서는 현재까지 발굴된 연간 자료 중 〈순천김씨묘출토연간〉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래호(2023)에 따르면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거나 공개된 연間は 약 5,100건에 이른다¹⁷⁾고 한다. 이 중 실제 판독문이 공개되어 국어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연間は 3,400여 건 정도이지만 이 자료가 모두 말뭉치로 구축된 것은 아니다. 최초에 ‘21세기 세종계획’을 통해 〈순천김씨묘출토연간〉과 〈진주하씨묘출토연간〉 2종류 연간 343건이 32,547어절 규모로 구축되었고,¹⁷⁾ 이후 2006~2007년 정제작업을 통해 31,558어절로 정리되었다.

21세기 세종계획에서 구축한 자료 중 2014, 2015, 2016, 2018년에 걸쳐 “역사자료 종합 정비” 사업을 진행하였고, 여러 오류를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표 1〉 역사자료 종합 정비 연간 말뭉치 구축 현황(이래호, 2023: 71)

연간명	건수	어절
신창맹씨묘출토연간	2	463
순천김씨묘출토연간	192	17,966
안민학애도문	1	709
이응태묘 출토 연간	1	206
학봉 김성일 연간	1	83
진주하씨묘출토간찰 ¹⁸⁾	168	13,109
계	194	32,536

〈신창맹씨묘출토연간〉은 대전에서 발견된 2건의 편지로 안정나씨 묘역의 신창맹씨 목관 내에서 출토된 것으로 1490년대 연간으로 추정한다(배영환, 2012: 213, 219). 〈순천김씨묘출토연간〉¹⁹⁾은 1550~1592년대의 것으로 전체 192건 중 189건이 한글 편지이다. 조항범(1998)에 의하면 ‘순천김씨묘출토연간’의 주된 발신자는 ‘신천강씨’로 ‘순천김씨’의 어머니이다. 대부분이 시집간 딸인 순천김씨에게 보낸 편지이다. 시기적으로 중세국어 시기의 대량의 구어 자료로서 〈순천김씨묘출토연간〉은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연구되었다. 17세기 초의 〈진주하씨묘출토연간〉은 김일근의 보고서(1991)에 168매로 되어 있으나 백두현(2019)에서는 꺾씨 문중에서 보관하고 있

17) 이 말뭉치는 구축할 당시에 〈순천김씨묘출토간찰〉은 조항범(1998)의 판독을 그대로 따랐고, 〈진주하씨묘출토간찰〉은 김주필 교수 입력본을 그대로 따라 구축한 것이다. 이후 정비 작업에서 여러 오류를 수정하였다.

18) 〈진주하씨묘출토연간〉이라고도 하고 〈현풍곽씨연간〉이라고도 한다. 백두현(2019: 21)에서는 ‘진주하씨묘 출토 문헌’ 또는 ‘진주하씨연간’이라 부르는 것에 대해 실제로 “누가 썼는가”가 더 비중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 문건을 〈현풍곽씨연간〉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는 〈신창맹씨묘출토연간〉, 〈순천김씨묘출토연간〉, 〈이응태묘출토연간〉과 같이 연간의 출처에 따라 이름 붙인 형식에 통일하여 〈진주하씨묘출토연간〉으로 칭하고자 한다.

19) 한꺼번에 발견된 연간의 양으로는 최대이기도 하며 이 글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선어말어미의 변화를 포착하기에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던 편지 8매를 추가하여 176매가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분석 대상인 <순천김씨묘출토언간>의 자료적 구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 <표 2>와 같다.²⁰⁾

<표 2> <순천김씨묘출토언간>의 발·수신자 정보와 어절 수

발신자	수신자	편수	어절수
신천강씨(어머니)	순천김씨(딸)	124	12,915
	김여물(아들)	3	505
	순천김씨와 그 여동생(딸들)	2	268
	순천김씨 및 그 여동생(딸들)	1	87
신천강씨(장모)	채무이(사위)	3	372
신천강씨(미상)	미상(미상)	1	70
채무이(남편)	순천김씨(아내)	44	2,987
김훈(아버지)	순천김씨(딸)	6	540
	순천김씨와 그 여동생들(딸들)	1	50
	순천김씨와 민서방댁(딸)	1	92
김훈(시아버지)	순천김씨 올케(며느리)	1	209
김여홀(남동생)	순천김씨(누나)	1	55
김여홀(오빠)	순천김씨 여동생 등(동기들)	1	48
김여물 등(남자 동기)	순천김씨(여자 동기)	1	118
미상(미상)	미상(미상)	1	186
합계		189 ²¹⁾	18,145

189편의 언간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천강씨의 편지는 134편이며 순천김씨의 남편인 채무이가 보낸 것이 44편, 순천김씨의 아버지 김훈이 보낸 것이 9편으로 주요 비중을 차지한다.

2.2. 발신자와 수신자의 언어

이 글에서는 ‘모두의 말뭉치’에서 공개한 ‘국어 역사 말뭉치’에서 언간의 주요 정보와 내용을 추출하고 형태소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언간 자료 용언 활용형 말뭉치를 구축하였다.²²⁾ 구축한 말뭉치 내용을 발신인과 수신인에 따라 정리하고 편지 내용에서 각 용언 활용형의 이형태들은 대표형으로 태깅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한글 편지에서 남성의 언어와 여성의 언어에 차이가 있음이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아래 <표 3>, <표 4>와 같이 발신자가 남성이 경우와 여성인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0) 아래 <표 2>는 21세기 세종계획의 ‘국어 역사 말뭉치’를 기반으로 구축한 KOHICO의 말뭉치에서 추출한 언간 자료 내용에서 발신자, 수신자 정보를 추출하고 어절수를 구한 것이다. 어절 단위는 입력된 형식을 그대로 따랐다.

21) <순천김씨묘출토언간>의 053-1, 053-2, 103-1, 103-2 편지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달라서 분리되어 있으나 한 건의 편지로 처리한 선행연구의 논의들을 그대로 따랐다.

22) 이 말뭉치는 언간의 시기와 발신자, 수신자 정보를 함께 정리하여 언간에서 나타나는 남성, 화계 체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 〈순천김씨묘출토언간〉 남성 발신자의 선어말어미 사용 양상

발신인 수신인 선어말어미	채무이 (남편)	김여물 등 (남자 동기)	김여흘 (남동생)	김여흘 (오빠)	김훈 (시아버지)	김훈 (아버지)		
	순천김 씨 (아내)	순천김 씨 (여자 동기)	순천김 씨 (누나)	순천김 씨 여동생 (동기들)	순천김씨 의 올케 (며느리)	순천김씨 (딸)	순천김씨 와 그 여동생들 (딸들)	순천김 씨와 서방댁 (딸)
앗/엇	31		1	1	5	5	1	
거/어	36				2	4		1
더	16				3	4		1
시	31	5	2	2	1	2		
느	20				4	4		1
오	14		1		1	4	1	1
리	15					4		
도/돏	4							
습/읍	3		3	1				1
(없음)	1152	43	15	14	66	197	19	35
총합계	1320	48	22	18	82	224	21	40
선어말어미 출현 비율	9.02%	10.42%	31.82%	22.22%	12.20%	8.48%	9.52%	10.00%

〈표 4〉 〈순천김씨묘출토언간〉 여성 발신자의 선어말어미 사용 양상

발신인 수신인 선어말어미	신천강씨 (미상)	신천강씨 (어머니)				신천강씨 (장모)
	미상 (미상)	김여물 (아들)	순천김씨 및 그 여동생 (딸들)	순천김씨 (딸)	순천김씨와 그 여동생 (딸들)	채무이 (사위)
앗/엇	2	5	1	150	3	3
거/어		5		166	7	7
더		6		101		2
시	1	5		75	1	
느		3	1	127	2	1
오		5	1	102	1	5
리		1	1	71		
도/돏				11		1
습/읍				6	1	

(없음)	26	194	32	4961	93	141
총합계	29	224	36	5768	108	154
선어말어미 출현 비율	10.34%	9.82%	8.33%	9.57%	5.56%	7.14%

위 <표 3>과 <표 4>을 살펴볼 때 순천김씨의 남동생인 김여홀이 보낸 편지에서 다른 편지보다 선어말어미 사용이 두드러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선어말어미의 결합 양상에서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드러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선어말어미의 사용은 언간에 나타나는 남성 언어와 여성 언어의 차이라기보다는 내용 전개와 세대 간의 언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어성을 지닌 언간에서는 선어말어미간의 통합 순서는 어떠한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간본에서 나타나는 통합 관계와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구어적으로 형태가 통합되는 과정이 형태 변화를 이끌고 나아가 기능 변화를 초래하는 데에 있어 구어적 자료인 언간의 선어말어미를 분포와 통합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이들의 통시적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언간에 나타난 선어말어미의 결합 양상

3.1. 시상의 선어말어미의 통합 순서

시상의 선어말어미 ‘-앗/엇-’, ‘-거/어-’, ‘-느-’, ‘-더-’, ‘-리-’의 통합 순서를 확인해 보기로 하자.

3.1.1. ‘-거/어-’, ‘-더-’, ‘-앗/엇-’

중세국어 시기 선어말어미 ‘-거-’에 대해서는 이미 선어말어미로서의 기능이 약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서는 그러한 ‘-거/어-’의 약화가 구어 자료인 언간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여러 발신인 중에서 신천강씨와 채무이의 편지에서만 확인되는데 이들이 보낸 편지에서 용언의 약 0.3%에만 ‘-거/어-’가 쓰인 것으로 보아 다른 발신인들의 편지에서는 ‘-거/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쉽게 짐작이 된다. 우선 아래 예문을 통해 ‘-거-’가 나타나는 문맥을 살펴 보도록 하자.

- (1) ㄱ. 빚슨 일가 믈스 일이 벼슬 청히여곰 내 헤쁘던고 즈시가 세 〃 갈아더 몸 살게 되거다
<순천김씨 4>
- ㄴ. 길히 가 유무를 호되 영그믹게 하고 이번도 하 유무다이 아니하니 사르미 정이 인느나
또 너히만 보고 숲디 마라 보낸 거슨 명디는 무명이 굿거니 그러 아니라 <순천김씨 36>
- ㄷ. 근심들 마라 이버는 사라셔도 믈스를 잡디 못히여 네 아바님 제곰 두고 겨집 드린 후는
통히 헤라 호되 자내는 겨집 드리고 도히 살건다 <순천김씨 60>
- ㄹ. 아니 오니 날 몸 닛는 일가 하고 노히여 호마 마리려도 갈 거시니 가 주거도 가려는 호

거니와 내 이리 하 설이 되니 늘거사 이리 되건다 <순천김씨 93 >

ㄱ. 바매나 집 헤아리고 우느니 눈물붓니니 꺾득흔 괴오니 엇디 오라리 그 맛벼스를 히여
히여 가지고 그더도록 간고히 사던 겨지를 이리히건다 <순천김씨 93 >

(2) ㄱ. 이제 □□□싱원 비져벼쳐 흥창슈의 지벼 머디 아닌 법 인느니 오직 그리 가 든니면 저
뜨려 툇파늘가 몬 가서 올라 하느 적스몬 녀아도 얻다가 몬하과라 <순천김씨 26 >

ㄴ. 다몬 프라떡디 아닐 붓니로다 마좌 알파 음식 몬 머글 제 그 자반 오나를 반 나 먹고
반 아바님씨 보내요라 돌목도 즉시 글혀 먹과라 <순천김씨 70 >

ㄷ. 셔방님과 의논□□□ 느믹게 둘 빌고 내 짓 치 둘 잇더니 □□려웨라 하니 미가흔 즈식
곤디 아녀 내 처□를 몬홀 겨시라 사르물 다 헤터 브리과라 <순천김씨 96 >

ㄹ. 그리고셔 네 아바님 드려셔 자내 나날 살아 내고라 히여늘 그 녀늘 내여 보내도더라 혼
자는 몬 이실 겨시오 나는 이리 등히 되니 벼술 더게 나는 몬 살게 되과라 <순천김씨
115 >

ㄱ. 늘그니 병득른 니어 나고 즈식근 흐릿고 다시 보미 명티 몬하로다 나도 녀느 병 업시
심증이 날로 디터 가니 민망타 효양의 이룬 그이업서 듣고 놀라과라 <순천김씨 148 >

예문 (1)은 ‘-거-’가 어말어미와 바로 통합하는 예이고, (2)는 ‘-오-’와 통합하여 ‘-과-’로 나타나는 예이다. ‘-거-’의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중세국어 시기 선어말어미의 배열에 대한 연구자들의 논의는 아래 (3)을 참고할 수 있다.

(3) 유창돈(1964): 습 - 거 - 리 - 다/더 - 시 - ... - 느 - ... - 니 - 이

이기문(1972/1998): 습 - 거/더 - 시 - 느 - 오 - 리 - 듯 - 이

이승욱(1973): 습 - 더 - 시 - 느 - 오 - 리 - 이

안병희·이광호(1990): 습 - 거/더 - 시 - 느 - 오 - 리 - 듯 - 니 - 이

최동주(1995): 습 - 시 - (리) - 더/느 - 리 - 듯 - 오 - (리) - 이

김소희(1996): 습 - 시 - (리) - 거/더/느 - 리 - 듯 - 오 - (리) - 이

김유범(1998): 습 - 거1/더1 - 시 - 느 - 오 - 리 - 거2/더2 - 니 - 이

박부자(2005): 습 - 더/거 - 시 - (리) - 느/(더) - 스,웃,도/듯 - 오 - 리 - (더)/(거) - 이

‘-거-’는 백화문 ‘了’의 번역에 ‘-거-’가 사용되었고, 후대 문헌에서 ‘-앗/엇-’에 대응한다는 점으로 ‘-거-’를 ‘과거’나 ‘완료(상)’으로 파악하곤 하였는데 고영근(2005: 23)에서 ‘-과-’, ‘-가-’가 비1인칭의 확인법 ‘-거-’에 화자 표지 ‘-오-’가 화합 내지 융합을 일으킨 것이라고 하며, 문법적으로 조건된 이형태는 아니라고 하였다. <순천김씨묘출토언간>에서도 종결형 ‘-과라’ 형태로 나타난다.

<순천김씨묘출토언간>에서는 ‘-거/어-’가 용언 중 약 2%에 쓰였는데 ‘-거니와’, 거든/거든, ‘-거나’, ‘-거라’의 순으로 나타났다. (1),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거-’ 뒤에 통합하는 선어말어미는 ‘-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오-’뿐이다. ‘-오-’는 16세기에는 사라진 것으로 보이지만 ‘-과라’ 형태에서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기문(1974: 163-164)에서는 ‘-더-’와 ‘-거-’, ‘-어-’를 과거의 선어말어미로 보았다. ‘-더-’는 과거에 완료되지 않은 동작의 회상, ‘-거/어-’는 완료된 동작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동주(1995), 이금영(2002) 등에서는 ‘-거/어-’는 이미 중세국어 시기에 이전에 이루던 ‘-더-’와의 상적 대립이 사라진 것으로 보았는데 ‘-더-’가 16세기 이후에는 시점의 이동에 쓰여 회상의 기능

을 하게 되었다.

- (4) ㄱ. 양천 놈 갈 제 보육 흔 몹 가더니 바든다 <순천김씨 18>
 ㄴ. 묻져 유무 보고 가려 셔도로되 종마 묻 기드려 흔더니 하 믋스믈 용시믈 흔니 <순천김씨 87>
 ㄷ. 당명이 밥 머여 보내소 명싱워니 옷도 아니 받고 편지도 아니흔더라 흔니 <순천김씨 1>
 (5) ㄱ. 아기내게 답 네 오라비를 묻 기드려 근심흔다니 나흔날사 드러오나를 도히 이시니 깃겨^ㅎ노라 <순천김씨 9>
 ㄴ. 이 농시에 영그미를 보내니 내 보낼 싱각도 아넛다니 내 유무 보고 오냐 더 즈식도 더러코 너도 하 민망^ㅎ니 <순천김씨 34>

예문 (4)에서 보듯이 ‘-더-’는 장면의 회상에 쓰였다. (4ㄱ)에서 ‘양천이가 갈 때 보육 한 점 가더니’라고 하여 물건을 보냈던 과거 장면을 회상하고 있으며, (4ㄴ)도 순천김씨의 오라비가 집에 왔다가 내내 앓았다는 소식 뒤에 종마를 못 기다려 하는 장면을 회상하며 편지를 적고 있다. (4ㄷ)은 정 생원이 옷도 받지 않고 편지도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더-’는 (5)와 같이 ‘-오-’가 통합되어 ‘-다-’로도 교체된다. 다만 ‘-오-’가 통합된 형태나 그렇지 않은 형태의 기능상의 차이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

- (6) ㄱ. 올히도 셔을 가신 제 홀터 바다 면화 빅 근 자기 왔더니 늙자내 와서 열서 근 주고 자내 옷 닐굽 거시 두고 <순천김씨 80>
 ㄱ'. 새집 사름 가는 되 유무는 본가 흔노라 양되는 왔다니 사괴여나 히여 보고져 두엇 노라
 ㄴ. 새 공스 아니 난 시브밀식 제 어미로 히여 그린이 너기더니 두곤〃 보니 내 밍턴 이 리 우이 되니 ㄱ이업다 두고셔 보자 너기니 어히업다 <순천김씨 114>
 ㄴ'. 서방님은 학개 방이나 설고 잇게 너기다니 그러면 엇디리 요스이 한식 저는 즈식들 간스키 히고 제 가시고 히니 여드랜날사 드러오시면 스므날 디나야 좋은 이시려니 와

(6)에서 보듯이 ‘왔더니:왔다니’, ‘너기더니:너기다니’와 같이 단순 교체로 보인다. <순천김씨묘출토언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선어말어미는 ‘-왔/엇-’이라고 할 수 있다.

- (7) ㄱ. 너일 지브 들리로쇠 빅로는 필종이를 제 가져 가거나 그리 묻^ㅎ여도 브경이 수이 허 소터 아니케 보내라 히연느니 녀나믄 이룬 아므려나 편히 겨소 <순천김씨 49>
 ㄴ. 이 아기도 하 용시믈 히여 가니 묻 보내고 히혀 고티면 두어 들 스이니 견^ㅎ터여라 은 지니도 드러왔거니 그러나 나 이리 군히니 설워 종의게 온 가지□ 거시라 하 나도 □ 별 듣고 술란^ㅎ니 이만 □...□ 온 히리거든 <순천김씨 87>
 ㄷ. 서방님도 청쥬 가 유무^ㅎ도터라 도히 갓터라 이리 오마 터니 올디 모르리로다 여러 고^ㅎ터 스니 이만 논어 서 못 묻어 세 광어 다^ㅎ섯 가느니라 <순천김씨 18>

예문 (7)은 ‘-앗/엇-’에 후행하는 ‘-느-’, ‘-거-’, ‘-더-’가 통합하여 나타나는 것들이다. ‘-앗/엇-’에는 ‘-리-’가 후행하지 않는다. ‘-앗더-’는 일어난 상황을 재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 (8) ㄱ. 저도 브더니 너긴다 내 주거도 므자 여히니 누닐 굶고 바닐 버더 가로다 이리 와서 죽
게 되여시니 내 설오미 괴 히니로다마는 운쉬 그러니 즈시기라 흔하랴 <순천김씨 30 >
ㄴ. 네 아바니몬 보원스 드려 주글 반 살 반 돈니더니 쏘 예 바티는 썸 칩스원 히여 닉월
초싱의 셔올로 가게 히여시니 이제는 동너 썸 트라 간느니라 <순천김씨 57 >
ㄷ. 기릭 구지르□□□ 당문슈 썸 사르미 브딕흔 일로 당단 가니 게셔웃 편지^히과며 히시거
든 편지^히소 스시른 내 □□□ 다 히여시니 자내 유무란 □□□□ 편지 시^히행^히시고 가
는 종 바비나 머기쇼셔 <순천김씨 107>

또 ‘-어시니’ 형태로 나타나는 ‘되여시니’, ‘히여시니’를 확인할 수 있다. <순천김씨묘출토연간>에는 이와 같은 ‘-앗/엇-’, ‘-어시-’, ‘-시-’가 공존하고 있는데 박준석(1996: 41)에서는 이 형태들은 과거의 선어말어미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사어미 ‘-아/어’와 ‘잇/이시-’의 의미를 보유한 ‘완결’ 상태의 ‘존재’로 파악하였다.

〈표 5〉 ‘-앗/엇-’과 통합하는 후행 선어말어미

	김여흘	김훈	미상	채무이	신청강씨	총합계
(없음)	2	9	2	20	119	152
거/EP				4	14	18
과/EP					1	1
노/EP		1			5	6
느/EP				3	8	11
다/EP				1	1	2
더/EP		1		3	14	18
총합계	2	11	2	31	157	208

위 〈표 5〉를 보면 순천김씨의 동생 김여물이 보낸 편지에는 ‘-앗/엇-’이 쓰이지 않았는데 그 전문을 보면 아래 (8)과 같다.

(8) 두 누님 전 상장 채 민 썸 근봉

아바님 하 요란^히고 밧바 유무 몬^히노라 히시고 두 디괴 은구어 각 스믈콤^히고 동휘 히나
식 보내시닝이다 휘히 다서 가닝이다 즈세 츠려 바드쇼셔 민 썸 므를 둘 주고 히나 밧자
히니 앓가온 듯^히고 맛당^히 므리 나디 아니^히니 하 옷 몬^히면 우줄 무명이나 히고 저를 그
저 보내고져 히노라 히시되 쏘 두 지비 죠히 열 권식 가닉 칩 마소 이의 보내여든 인는 테
히고 느를 주디 말면 아니라 히시닉 두 지비 열 권식 히니 도쉬 스므 귀니 문형님^의도 열
권 가니 대되 설^히 권 가닉 외라비 므를 아프려도 엇디 몬^히니 친히 보와 히게 히여 우줄
무명 닷 필 봉^히고 쏘 겨틀 노^히로 빼여 봉^히여 가니 즈세 츠려 바드쇼셔 히시닉 들충 히
며며 다 간스^히여 도하 가닉 <순천김씨 64>

(8)은 아버지가 바빠 두 누이에게 소식을 전하지 못하니 두 댁에 보내는 것들을 대신 정리해 보내는 편지이다. 내용의 전개상 ‘-앗/엇-’이 나타나지 않는다.

‘-앗/엇-’이 ‘-아/어 잇-’의 축약으로 생겨난 것으로 이기갑(1981)은 ‘-어 잇-’이 상태지속상을 나타낸다고 하였고, 안예리(2013: 170-171)에서는 ‘-어 잇-’이 ‘-엇-’으로 변한 후 과거의 의미와 상태지속상의 의미를 함께 가지면서 형용사와 계사에 결합하는 경우가 드물었다고 하였다. 반면 이래호(2017: 46)에서는 ‘-엇-’이 형용사와 결합한 예가 언간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데, ‘-엇-’이 현재의 의미뿐만 아니라 과거의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고 하였다.

〈표 6〉 형용사와 결합하는 ‘-앗/엇-’

	미상(미상)	신천강씨 (어머니)	총합계
ㄱㅌ/VA		1	1
돌/VA		1	1
멀/VA	2		2
성히/VA		2	2
없/VA		1	1
총합계	2	5	7

(9) ㄱ. 그러타 가랴 팔월도 머렀다 구월도 머렀다 너기다니 ㄷ리 다ㄷ라 나리라 드르니 수머 아니 갈 거시매 숨고져이고 아이고 天下의 어엿쓰니 내로다 소리도 얼굴도 아니라 흘 짜히 가 어너 시를 니저 알려뇨 <순천김씨 3>

ㄴ. 우리도 올 겨으론 다 도히 디내노라 나는 괴오니 쇠 성히엿노라 네 아바님도 관찰스 ㄷ려 아랜 녀크로 가 든니다가 어제사 관찰스 비송흐고 본여그로 가시니라 <순천김씨 85>

(9 ㄱ)은 ‘8월과 9월이 멀었다’는 것이 편지를 쓰고 있는 순간, 즉 발화시의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이다(이래호, 2017: 46). 이러한 현상은 ‘-엇-’이 형용사와 결합하는 것은 ‘-엇-’이 ‘-어 잇-’의 문법화한 형식인 것에 기인한다는 최동주(2002)의 논의를 눈여겨 볼 수 있다.

(10) ㄱ. 닐웬나룬 정혀여 갈 거시니 ㅁ사름 일 보내소 일거니도 알팠고 성개 즈식도 알팠다 흐니 자내네란 게 두고 나만 나왔다가 내종을 었디흐라 흐시논고 <진주하씨 143>

ㄴ. 큰아귀 심도 ㅁ일 알룬다 흐고 며느리도 알팠고 명낭의 형제도 알팠다 흐니 이런 슈 양고 민망흐 이리 어디 이실고 <진주하씨 168>

이래호(2017: 46-47)에서는 (10 ㄱ)의 <진주하씨묘출토언간>에서 자식들이 아픈 상태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데 후행 문장의 ‘자내네란 게 두고 나만 나왔다가 내종을 었디흐라 흐시논고’로 짐작해 볼 때, 현재도 자식들이 아프니 진주하씨만 거기에 두고 오면

나중에 어찌할 것이냐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10 나)은 동일한 ‘알팠고’이나 상태지속으로 현재도 아프다는 의미로 읽히지 않는다. 현재 ‘아픈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이는 ‘큰아기’로 보이며 이 때는 ‘알른다’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근래에 집안 사람들이 아프거나 아팠다는 의미로 보여서 형용사 어간과 결합하는 ‘-앗/엇-’의 상태지속과 과거의 의미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만 완전히 과거를 나타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아직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언간에 보이는 ‘-앗/엇-’이 점차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 시간적 의미로 ‘과거’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지 시제 체계로 재편은 아직 이르다고 보인다.

이용(2003: 56)에서는 형태의 ‘형식’과 관련된 변화와 형태의 ‘기능’과 관련된 변화를 나누어, 완결 지속의 의미를 지니고 있을 때는 ‘-어 잇-’이 쓰이지만 과거의 의미를 지니는 형태소로 바뀌면서 점차 ‘-엇-’으로 축약된다고 하였다. 이래호(2017: 48)에서는 ‘-시-’가 ‘-엇-’ 앞에 출현한 것은 ‘-시-’와 ‘-엇-’의 결합이 가능해졌다는 것과 ‘-엇-’이 그동안 나타나지 못하던 환경에 쓰이게 되었다는 점에서 분포를 확대한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아직 <순천김씨묘출토언간>에서는 ‘-앗/엇-’과 ‘-시-’의 결합은 나타나지 않는다.

3.1.2. ‘-느-’

<순천김씨묘출토언간>에서 ‘-느-’는 아래 (11)과 같이 나타난다.

- (11) 가. 한시글 디내고 엇췌날 나가고져 호뇌 문밧 아기네 오게 되여시니 곡셔기 긴느다 호
 너 하 췌 것곳 업거든 가져다가 쓰고 편지호소 <순천김씨 20>
 나. 당시 밧 소귀 무터시니 ㄹ업다 아기내손딤 요스이 괴별 모르니 대되 엇디 인느순다
 뷔디 아닌 몸드리 엇디 잇거노 <순천김씨 124>
 다. 밧양 누늬 불이고 닛디 못흐니 이려셔 어버이 글즈시글 몬 닛느쫘다 돌흔 제 쳐즈시
 기 잇거니와 요스이도 고로이 간느가 더욱 닛디 못히여라마는 <순천김씨 135>
 르. 나는 당시 사라 인노라마는 만흔 즈식 더디고 누를 브라 오나노 다엇 들 기드려 들
 러 나가고 흔 즈식도 업시 원ㄹ터 와 안자시니 믹스미 엇디 아니 설오니 춤노라 히
 여도 <순천김씨 36>
 라. 다시곰 도히 겨오 다시 보자 을묘 구월 순늑이레 니별호뇌다 내 간고호던 일도 헤다
 니야 유공흔 줄도 헤다니 혼다 즈시기 다 모르거든 믹스미 다르거니 알라 상시 날드
 려 호던 이리 제 괴신 업서 나를 의지코 사노라 그리토더라 <순천김씨 3>

‘-느-’는 선어말어미 ‘-오-’, ‘-스-’, ‘-이-’ 외에는 후행하는 선어말어미가 확인되지 않는다. 박준석(1996: 47)에서는 ‘오-’와 통합하는 ‘-느-’와 ‘-거-’의 형태를 확인하고 ‘-느-’의 의미 기능을 ‘-거-’와의 계열 관계에서 [현재 지각]으로 보았다.

3.1.3. ‘-리-’

<순천김씨묘출토언간>에 선어말어미 ‘-리-’가 나타나는 예를 살펴보자.

- (12) 가. 자내는 겨집 드리고 도히 살건다 내 일 설온다 헤노라 호니 용시미 일국도 니치다
리니 날 위히여 업시 아닐 거시니 믹스 잡디 못호고 병은 디터 가니 쫘즈시기사 보

- 미 쉽디 묻흐다 <순천김씨 60>
- ㄴ. 내 이리 어히엿다 그를사 도과니 발와더니 궁흐 제 일 업서서 너히 이를 흐리러니 이 제는 내 일도 묻흐리로다
- ㄷ. 평양군 디기 즉시 댜흐라 호신다 브디히 즉시 댜홀 이뉘라 회경이 제 다 교슈 드러 가니 제 와 만즈리로다 <순천김씨 134>
- ㄹ. 처어른 첩 홀 □물 아냐 날 고로이 사다가 초보게 호고 아미란 거시나 의지호려더니 저기 호화히 되니 첩 믁스미 나 더런 쳐블 호니 내 이리 아니 어엿브고 설오냐 위연 호면 업개를 어더 보내고져 호라 <순천김씨 154>

(12)에서는 일반적으로 미래 상황, ‘추정’ 또는 ‘의지’의 의미로 알려진 ‘-리-’가 쓰인 예를 확인하였다. ‘일각도 지체하지 말 것’, ‘묻할 것이다’, ‘맞을 것이다’로 이해할 수 있다. (12 ㄹ)에 선행하는 ‘-오/우-’가 ‘의지’를 나타낸다면 ‘-리-’는 ‘미래 추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리-’는 ‘-더-’에 선행하여 결합할 수 있도 주로 ‘-도/뎡-’이 후행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3.2. 높임의 선어말어미의 결합 양상

3.2.1. ‘-시-’

<순천김씨묘출토언간>에서 ‘-시-’와 다른 선어말어미가 결합하는 양상을 확인해 보면 다음 (13)과 같다.

- (13) ㄱ. 소나모 구블 살 양이어든 사 보내시면 호썸니 베 내 어더 보내요리 아랜몰조차는 세식에 해재 만홀가 □예 운뎡 □굽 패나 사 보내시과다 업서 민망이로쇠 믁론 오늘 오리라 호니 <순천김씨 103-2>
- ㄴ. 너히 봉싱이 안심티 아니타 아바니미 병드려서 이베 마즌 거시 업서 셔울셔 사르미 오디 조그 닛도 아녀 보내니 노호시도더라 면화논 비첼흔 저기니 묻히염직건마는 두 저을 보내노라 <순천김씨 57>
- ㄷ. 믁습곳 편히 아니 머그면 이 병이 둥히 되고 믁스미 용심곳 업스면 혼 히 너로 야글 당복호면 도호시리라 호니 용시미 업게 아바니미 간스호고라 <순천김씨 24>
- ㄹ. 아미려나 견디여 사라거라 하느리 우리 이를 아르시면 아미려나 이버니 아니호라 마는 내 이리 죄 만히여 스〰 이리 하 어히엿슨 이리 만호니 이리 일라 너기노라 <순천김씨 67>

예문 (13)은 ‘-시-’가 쓰인 것으로 각각 ‘-과다’, ‘-도더-’, ‘-리-’와 통합한 것이고 (13 ㄹ)은 ‘알-’과 같이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에 ‘-으시-’로 나타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시-’는 주체를 높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선어말어미와의 결합이 비교적 자유로다. ‘-거-’와 ‘-더-’가 ‘-시-’에 선행하느냐 후행하느냐에 따라 이들 어미구조체의 결합력을 통해 선어말어미의 기능을 판단하기도 하지만 <순천김씨묘출토언간>에서는 ‘-시-’에 앞서는 선어말어미가 보이지 않는다.

- (14) ㄱ. 도히 잇거샤 볼 나리 언제어뇨 내의 므음대로 몬 상면될가 술 〃 설위호노라 다시곰
도히 겨오 다시 보자 을묘 구월 순늑이레 니별호녕다 <순천김씨 3>
ㄴ. 아바님도 느려오는 예 치스원 히여 어제 오시니라 요스이사 괴온도 성히여 겨시다
<순천김씨 9>

(14)는 ‘-시-’가 ‘겨-’에 결합하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계시다’로 어휘화되는 단계를 연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2.2. -습-

언간에서 ‘-습-’은 15세기처럼 선어말어미의 어간 바로 뒤에 통합하는데 언간에 ‘-습-’은 다양한 이형태로 나타난다.

- (14) ㄱ. 네는 궁히여도 어업슨 이라라도 즈시고 이리면 다 버뇌 몬 쓰다니 이제는 정신 업스
니 즈식도 아모것도 스랑흠디 아녀 므양 술 취흔 사름 ㄱ티 어렵פות하고 이시니 아모
일도 츠리디 몬호 〇 〇 나가며 바다 가니 즈시 몬호노라 <순천김씨 12>
ㄴ. 팔월 스므다췌날 모 동싱님네췌 대되 요스이 엇디 겨신고 괴별 〇라 분별호습뇌 우리
는 대되 무스히 뵈니와 인뇌 <53-2>
ㄷ. 내 괴시늘 보니 점점 므스미 서 가니 므습 성흔 제나 내 머근 옷드리나 히여 받죵고
마자 적심호디 몬 일위 호노라 <순천김씨 102>
ㄹ. 자내 유무란 〇〇〇〇 편지 시형호시고 가는 종 바비나 머기쇼셔 이워제 동싱 〇〇
뵈습논 열우신 췌 사르미니 그지업시 절히여 호노이다 <순천김씨 107>
ㅁ. 흥덕골 채 싱원 췌 문안호습고 요스이는 엇더호신고 온 후의는 괴별 몰라 호습뇌이
다 <순천김씨 191>
ㅂ. 업슨 거슬 닐어라 히여 내 가고져 호디 호령 겨시다 흘시 몬 가 잇스오리 의워니 호
디 므습곳 편히 아니 머그면 이 병이 둥히 되고 므스미 용심곳 업스면 혼 히 너로
야글 당복호면 도호시리라 <순천김씨 24>

(13 ㄱ)은 ‘-오-’와 ‘-습-’이 통합한 형태이고 (13 ㄴ)은 ‘-습-’, (13 ㄷ)은 ‘-습-’, (13 ㄹ)은 ‘-습-’ 형태로 확인된다. (13)의 예문에서는 ‘-시-’와 통합하는 예가 확인되지 않는다. (13 ㅁ)은 순천김씨의 남동생 김여흠이 보낸 편지로 수신자인 누나 순천김씨를 높이기 위한 화자 겸양으로 기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근대국어 시기 이후 ‘-습-’이 어말어미의 일부가 되어 중세국어와 기능이 상이해졌으나 언간에서는 객체 높임보다는 청자 존대로서의 기능으로 변모 중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훈민정음 창제 이후 간본의 문어를 대상으로 국어의 여러 문법 체계를 살펴보았는데

구어성을 띠고 있는 언간을 대상으로 하여 선어말어미의 통합 관계에 따른 결합 양상을 분석해 보았다. 〈순천김씨묘출토언간〉은 16세기 자료로서 중세국어 이후 선어말어미의 통합 관계가 변화하며 일어나는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좋은 자료임을 확인하였다.

선어말어미의 결합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언간 원시 말뭉치와 형태 분석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언간이라는 특별한 성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말뭉치에 발신자와 수신자, 관계를 입력하여 빠르게 해당 언간의 언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선어말어미의 결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어 잇-’으로부터 발달하여 생성된 ‘-앗/엇-’일 것이다. 구어성을 지닌 언간 자료에서 해당 축약형이 적극적으로 쓰이며 상태지속 또는 과거의 의미를 획득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언간 자료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활용하기 적합한 〈순천김씨묘출토언간〉을 기초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국어의 시상 체계의 변화는 분명 구어에서부터 시작된 형태 변화가 있고 기능 변화가 후속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중간 단계의 모습을 포착하기에 적절하였다고 판단한다. 아직 ‘-습-’이 쓰이지만 객체 높임보다 청자 존재로서의 기능을 획득해 나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전히 우리의 직관이 닿을 수 없는 통시적 변화 과정에서 언간은 간본보다 더 이른 시기의 언어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 글에서는 용언의 활용형만을 추출하여 선어말어미간의 통합 과정만을 살펴보았으나 차후 어말어미와의 결합 양상을 통한 통사적 기능을 살펴보는 것도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영근(2005), 「형태소의 교체와 형태론의 범위」, 『국어학』 46, 국어학회, 19~51.
- 김무식(1997),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자료의 국어학적 연구: 주로 음운현상과 표기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19, 문학과언어학회, 1-28.
- 김유범(2007), 『국어 문법형태소의 역사적 이해』, 박이정.
- 김일근(1986/1991) 『언간의 연구』, 건국대학교 출판부.
- 박부자(2014), 「언간 자료의 어휘사적 가치에 대한 연구」, 『국어사연구』 18, 국어사학회, 45-78.
- 박준석(1996), 「16세기 <청주 북일면 김씨묘 간찰>의 선어말 어미」,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영환(2012), 「현존 최고의 한글편지 ‘신창맹씨묘출토언간’에 대한 국어학적인 연구」, 『국어사연구』 15, 국어사학회, 211-239.
- 배영환(2017), 「조선시대 언간 자료의 어휘적 특징 -언간 자료에 나타나는 특징적 어휘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35, 영주어문학회, 65-96.
- 백두현(2003), 『현풍곽씨언간 주해』, 태학사.
- 서태룡(1996), 「16세기 청주 간찰의 종결어미 형태」, 『정신문화연구』 6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57-93.
- 신성철(2017), 「조선시대 언간 자료의 음운론적 특징」, 『영주어문』 35, 영주어문학회, 5-35.
- 안예리(2013), 「‘-엇느’의 통시적 연구」, 『형태론』 15-2, 형태론, 170-185.
- 이래호(2017), 「조선시대 언간 자료의 문법적 특징」, 『영주어문』 35, 영주어문학회, 37-64.
- 이래호(2023), 「언간의 말뭉치 구축 현황과 향후 구축 방향」, 『한민족어문학』 102, 한민족어문학회, 47-87.
- 조항범(1998ㄱ), 『주해 순천김씨묘출토언간』, 태학사.
- 조항범(1998ㄴ), 「<순천김씨 묘 출토 간찰>에 대한 몇 가지 문제」, 『개신어문연구』 15, 개신어문학회, 105-133.
- 장요한(2025), 「역사 자료 형태소 분석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순천김씨 묘 출토 간찰』을 중심으로-」, 『언어과학』 32-2, 한국언어과학회, 113-136.
- 최동주(2002), 「전기 근대국어의 시상체계에 관한 연구」, 『어문학』 76, 119-152.
- 황문환(2007), 「조선시대 언간 자료의 부부간 호칭과 화계」, 『장서각』 17, 한국학중앙연구원, 121-139.
- 황문환(2010), 「조선시대 언간 자료의 현황과 특성」, 『국어사연구』 10, 국어사학회, 73-131.
- 황문환(2024), 「조선시대 [남편→아내] 언간의 종결형 변화와 그 해석」, 『어문연구』 52-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5-36.
- 황문환·임치균·전경목·조정아·황은영(2013), 『(조선시대)한글편지판독자료집 1-3』, 역락.

한글 세계 지리 교과서 『초학디지』의 초판본과 재판본에 나타난 언어적 차이와 의식

선한빛(한국, 전남대학교)

I. 서론

이 글의 목적은 마티 M. H. 밀러(Mattie M. H. Miller, 1873-1966)가 저술한 한글 세계 지리 교과서 『초학디지』(1906)를 검토하여 자료에 나타난 20세기 국어의 양상과 초판본·재판본의 언어적 차이를 기술하고 언어 사용에 반영된 당대의 언어 인식을 밝히는 것이다.

『초학디지』는 경신학교(敬新學校, 경신중·고등학교의 전신(前身))에서 지리 교육을 담당했던 지리 교사이자 선교사였던 마티 M. H. 밀러가 한글로 저술하여 1906년 10월에 출판한 세계 지리 교과서이다. 한글 교과서라는 점에서 『초학디지』는 국어사 연구를 위해 활용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 지리학적인 관점에서 『초학디지』를 다루거나 『스민필지』와 비교하면서, 헐버트 교과서 시리즈로서 소개하면서 『초학디지』를 소개하였다.²³⁾ 국어사적 논의는 선한빛(2024)에서 이루어졌다. 선한빛(2024)에서는 그동안 『초학디지』가 면밀하게 논의되지 않아 판본의 정보, 현황 등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자료의 서지적인 측면을 논의하였다. 또한 『초학디지』의 저자인 ‘밀 부인’, ‘Mrs. E. H. Miller’가 지칭하는 인물이 1905년에 경신학교의 제5대 교장이었던 에드워드 H. 밀러(Edward H. Miller, 1873-1966)의 부인인 마티 M. H. 밀러라는 것을 선교사 관련 기록, 기독교계와 경신중·고등학교의 자료들을 통해 확실히 하였다.

다만 선한빛(2024)는 『초학디지』의 서지적인 면을 검토하고 자료를 소개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기 때문에 자료에 반영된 당대 언어의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선한빛(2024: 271)에서 밝힌 것과 같이 초판본과 재판본 사이에 언어적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선한빛(2024)의 후속 논의로서 『초학디지』의 초판본과 재판본을 비교·검토하여 두 판본이 차이를 보이는 모습을 언어 사용의 측면과 언어 교정의 측면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그 속에 담긴 저자의 의식도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한다.²⁴⁾

II. 판본 간 언어 사용의 측면

1. 모음 ‘·’ 표기의 혼란

국어사에서 모음 ‘·’는 두 단계를 거쳐 변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1단계 변화는 16세기에 일어난 것으로, 제2음절 이하에서 ‘·’가 ‘ㅡ’로 바뀌는 변화이다. 제2단계 변화는 18세기 후

23) 『초학디지』의 선행 연구 현황과 내용은 선한빛(2024: 269-270)을 참조하기 바란다.

24) 허재영(2020)에서는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바를 『스민필지』를 가지고 먼저 논의한 바가 있다.

반에 일어났는데 제1음절에서 ‘·’가 ‘ㅏ’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는 음소로서는 소실되었지만 문자로는 표기가 보수적으로 이어져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제정되기 전까지 나타났다. 『초학디지』는 20세기 초기에 출간되었기 때문에 ‘·’의 표기 혼란을 두드러지게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초학디지』의 초판본과 재판본을 비교하여 모음 ‘·’의 표기와 관련된 양상을 ‘·’와 ‘ㅏ’, ‘·’와 ‘ㅓ’로 나누어 기술하고자 한다.

1.1. ‘·’와 ‘ㅏ’

‘·’의 소실에 따른 변화 단계를 고려한다면 ‘·’로 표기되던 것들이 ‘ㅏ’로 표기되는 방향이 자연스럽다. 『초학디지』 초판본에서는 ‘·’로 표기된 어형들이 재판본에서 ‘ㅏ’로 수정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여 비교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8: ‘·’에서 ‘ㅏ’로 표기>

번호	현대어	품사	초판본(1906)	재판본(1907)
1	고래	명사	고ړ가(45)	고래가(45)
			고ړ느(45)	고래느(45)
			고ړ와(57)	고래와(57)
2	그때	명사	그썩(37)	그썩(37)
3	나	조사	비느(38)	비나(38)
4	내[川]	명사	넛(12)	내(12)
			넛가(8)	내가(8)
			넛느(19)	내느(19)
			넛를(31)	내를(31)
5	내다	동사	넛며(37)	내며(37)
			넛여(20)	내여(20)
6	내리다	동사	느려(22)	나려(22)
7	넛째	수사	넛진러라(34)	넛재러라(34)
8	대궐	명사	딛궐(9)	대궐(9)
9	대나무	명사	딛나모가(17)	대나무가(17)
			딛나무와(18)	대나무와(18)
10	대단히	부사	딛단히(45)	대단히(45)
11	대추	명사	딛조와(13)	대조와(13)
			딛초와(17)	대초와(17)
12	대한	명사	딛한(6)	대한(6)
13	둘째	수사	둘진(18)	둘재(18)
			둘진로(31)	둘재로(31)
14	둘째가다	동사	둘진가는(20)	둘재가는(20)
15	때[時]	명사	썩를(40)	썩를(40)
			썩마다(서: 1)	썩마다(서: 1)
			썩에(7)	썩에(7)
			썩에도(57)	썩에도(57)
16	모래	명사	모ړ가(17)	모래가(17)
			모ړ에(41)	모래에(41)

			모릭와(5)	모래와(5)
17	모래밭	명사	모릭밭(43)	모래밭(43)
			모릭밭도(21)	모래밭도(21)
			모릭밭슨(25)	모래밭슨(25)
			모릭밭시(22)	모래밭시(22)
			모릭밭이오(25)	모래밭이오(25)
			모릭밭치(39)	모래밭치(39)
			모릭밭치니라(54)	모래밭치니라(54)
18	바라보다	동사	브르보면(16)	바르보면(16)
19	보내다	동사	보닌(26)	보내(26)
			보닌든(54)	보내든(54)
			보닌여(38)	보내여(38)
20	빼내다	동사	썩여닌여(25)	썩여내여(25)
21	새	의존 명사	신(22)	새(22)
22	새로	부사	신로(9)	새로(9)
23	셋째	수사	셋진(15)	셋째(15)
24	아래	명사	아린(3)	아래(3)
			아린에(54)	아래에(54)
			아린와(50)	아래와(50)
25	아래편	명사	으린편이니(1)	아래편이니(1)
26	오래	부사	오린(18)	오래(18)
27	자라다	동사	즈라는(51)	자라는(51)
28	잘하다	동사	잘흐민(54)	잘흐매(54)
29	태조	명사	틱조(6)	태조(6)
30	퍼내다	동사	퍼닌느니라(35)	퍼내느니라(35)

근대 국어 시기에 ‘·’가 ‘ㅏ’로 바뀐 것은 어두에 있는 ‘·’에서이다. 그런데 ‘·’가 소실되면서 ‘·’와 ‘ㅏ’의 발음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탓인지 (1)과 같이 비어두 음절에서도 ‘·>ㅏ’의 표기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 (1) ㄱ. 제1음절에서의 변화: 닌(12)-내(12), 닌가(8)-내가(8), 닌논(19)-내논(19), 닌를(31)-내를(31), ...
 ㄴ. 제2음절 이하에서의 변화: 고린가(45)-고래가(45), 고린논(45)-고래논(45), 고린와(57)-고래와(57), ...

그런데 ‘·’의 표기 변화가 순방향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역방향, 즉 ‘ㅏ’로 표기된 것을 ‘·’로 표기하는 양상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 용례를 제시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9: ‘ㅏ’에서 ‘·’로 표기>

번호	현대어	품사	초판본(1906)	재판본(1907)
1	가르치다	동사	가라치고(51)	ㄱㄹ치고(51)

2	가장	부사	가장(10)	갸장(10)
3	같이	부사	갸치(서: 1)	갸치(서: 1)
4	같다	형용사	갸흔(서: 1)	갸흔(서: 1)
5			갸히여(22)	갸히여(22)
6	경포대	명사	경포대가(13)	경포되가(13)
7	공부하다	동사	공부할(4)	공부홀(4)
8	공자	명사	공자(3)	공즈(3)
9	관찰사	명사	관찰사(7)	관찰스(7)
			관찰사가(8)	관찰스가(8)
10	귀공자	명사	귀공자(公)와(14)	귀공즈(公)와(14)
11	나누다	동사	낱호앗스니(5)	낱호앗스니(5)
			낱호와(19)	낱호와(19)
			낱왔스니(48)	낱왔스니(48)
12	남다	동사	남느(46)	느느(46)
13	남짓하다	형용사	남죇히터라(17)	느죇히터라(17)
14	내려가다	동사	나려가느(3)	느려가느(3)
15	내려오다	동사	나려온(8)	느려온(8)
16	내리다	동사	나려(28)	느려(38)
			나려다(1)	느려다(1)
17	농사하다	동사	농산히느(21)	농스히느(21)
18	다니다	동사	다니느(31)	토니느(31)
19	득달하다	동사	득달할지니(3)	득달홀지니(3)
20	또한	부사	또한(27)	또흔(27)
21	라는 (‘라고 하는’의 준말)	-	강화도란(7)	강화도르(7)
			금산이란(17)	금산이르(17)
			낙민루란(12)	낙민루르(12)
			라플너드란(51)	라플너드르(51)
			바나마란(49)	바나마르(49)
			췌메가란(47)	췌메가르(47)
			아메리간이란(51)	아메리간이르(51)
			오레노코란(50)	오레노코르(50)
			월미도란(7)	월미도르(7)
			유대국이란(4)	유대국이르(4)
			장림산이란(12)	장림산이르(12)
			천슈만이란(13)	천슈만이르(13)
			침브라소란(50)	침브라소르(50)
			헤바나란(48)	헤바나르(48)
22	만들다	동사	만다느니라(17)	문드느니라(17)
			만다느(17)	문드느(17)
			만드는(51)	문드는(51)
			만드느니라(51)	문드느니라(51)
			만드느(51)	문드느(51)
			만든(53)	문든(53)
			만든(10)	문든(10)

23	말[馬]	명사	말과(40)	몰과(40)
			말이(11)	몰이(11)
24	바라보다	동사	바라보고(42)	바르보고(42)
25	빠르다	형용사	쌌른(42)	썩른(42)
26	빨리	부사	썰니(42)	썰니(42)
27	사이	명사	사이논(24)	스이논(24)
			사이로(25)	스이로(25)
			산이에(4)	스이에(4)
28	십자가	명사	십자가에(27)	십즈가에(27)
29	십자군	명사	십자군을(27)	십즈군을(27)
30	싸움하다	동사	싸흠하야(36)	싸흠호야(36)
31	안데스	명사	앤디스라는(53)	윌디스라는(53)
32	안데스산	명사	앤디스산(50)	윌디스산(50)
			앤디스산은(49)	윌디스산은(49)
33	어느	관형사	어나(6)	어느(6)
34	어느날	명사	어나날(1)	어느날(1)
35	유자	명사	유자요(17)	유즈요(17)
36	장사	명사	장사가(8)	장스가(8)
			장사를(48)	장스를(48)
37	장사하다	동사	장사하논(17)	장스하논(17)
38	정사[政事]	명사	정사논(20)	정스논(20)
39	차차	부사	차차(22)	츠츠(22)
40	칠불사	명사	칠불사라(9)	칠불스라(9)
41	타다	동사	타고(11)	트고(11)
42	하나	수사	하나흔(48)	흐나흔(48)
43	하다	동사	하논(28)	흐논(28)
			할(16)	홀(16)
44	하루	명사	하로에(42)	흐로에(42)
45	한	관형사	한(3)	호(3)
46	한가운데	명사	한가온디(18)	호가온디(18)
			한가온디논(35)	호가온디논(35)
			한가온디로(39)	호가온디로(39)
			한가온디에(25)	호가온디에(25)
47	한번	부사	한번(50)	호번(50)
48	한편	명사	한편으로(55)	호편으로(55)
49	항상	부사	항상(3)	호상(3)

〈표 2〉를 〈표 1〉과 비교했을 때 표기 변화의 비중이 ‘·>ㅏ’보다 ‘ㅏ>·’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특정 품사에 치우치지 않고 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등 다양한 품사에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다.

- (2) ㄱ. 제1음절에서의 변화: 갓흔(서: 1)-긔흔(서: 1), 말과(40)-몰과(40), ...
 ㄴ. 제2음절 이하에서의 변화: 어나(6)-어느(6), 장사가(8)-장스가(8), ...

‘·’가 제1음절에서 ‘ㅏ’로 바뀐 ‘·’의 제2단계 변화가 (2ㄱ)과 같이 이전 표기로 돌아간 것 뿐만 아니라 (2ㄴ)처럼 제2음절 이하에서도 초판본에서 ‘ㅏ’로 표기된 것이 재판본에서 ‘·’로 돌아간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가 소실되면서 근대 국어 시기에 ‘·’의 표기가 혼란스러워졌음을 보여 준다.²⁵⁾

(3) 본래 ‘ㅏ’였던 경우: 낱느(46)-느느(46), 바라보고(42)-바르보고(42), ...

그런데 (3)과 같이 본래 ‘ㅏ’로 표기했던 어휘까지도 ‘ㅏ’를 ‘·’로 표기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또한 ‘·’ 표기의 혼란을 보여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표 10: ‘·’와 ‘ㅏ’의 양방향 표기 변화〉

번호	현대어	품사	초판본(1906)	재판본(1907)
1	하나	수사	<u>하</u> 느흔(3)	<u>흐</u> 나흔(3)
			<u>하</u> 느히니(15)	<u>흐</u> 나이니(15)
			<u>하</u> 느이니(15)	<u>흐</u> 나이니(15)
			<u>하</u> 느히며(41)	<u>흐</u> 나히며(41)
2	하나	명사	<u>하</u> 느만(39)	<u>흐</u> 나만(39)

〈표 1〉, 〈표 2〉와 같이 어느 한 쪽 방향에서만 ‘·’와 ‘ㅏ’ 표기의 변화가 일어나는 용례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초학디지』 초판본에 음절에 ‘ㅏ’와 ‘·’가 있는 어형이 재판본에서는 두 모음이 다 반대로 표기되는 양상도 나타난다. 〈표 3〉에는 현대어 ‘하나’의 예가 제시되어 있다. 초판본에는 ‘하느ㅎ’ 또는 ‘하느’로 표기되었는데, 재판본에서는 제1음절의 ‘ㅏ’가 ‘·’로, 제2음절의 ‘·’가 ‘ㅏ’로 바뀌어 표기된 것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중세 국어 표기가 ‘흐나ㅎ/흐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1음절에서 ‘·’가 ‘ㅏ’로 변한 것뿐만 아니라 본래 ‘ㅏ’였던 모음까지 표기가 혼란스러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와 ‘ㅡ’

역사적으로 제2음절 이하의 ‘·’는 16세기에 ‘ㅡ’로 바뀌는 제1단계 변화를 겪었다. 그런데 ‘·’가 두 차례나 소실되면서, ‘·’의 소실에 따른 표기 변화가 제2음절 이하에서 ‘·’>‘ㅡ’의 변화를 겪은 형태에도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25) 이기문·이호권(2008: 209-210)에서는 유희(柳僖, 1773-1837)가 그의 저서인 『諺文志』에서 조선인들의 발음 습관이 ‘·’에 정확하지 못해 ‘ㅏ’, ‘ㅡ’와 혼동하고 있다고 쓴 것을 들며 ‘·’의 소실을 증언하고 있다고 보았다. 유희가 『諺文志』에 기술한 내용은 당시 사람들이 ‘·’가 소실되면서 바뀐 모음을 잘못 발음한 것이 표기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표 11: ‘ㄴ’에서 ‘ㄷ’로 변화〉

번호	현대어	품사	초판본(1906)	재판본(1907)
1	기르다	동사	기르기도(42)	기르기도(42)
			기르느(51)	기르느(51)
2	니르다[至]	동사	니르러(5)	니르러(5)
			니르렀고(19)	니르렀고(19)
			니르리니(44)	니르리니(44)
			니르며(23)	니르며(23)
3	다르다	형용사	다르(33)	다르(33)
4	만들다	동사	몬들며(23)	몬들며(23)
5	어느	관형사	어느(5)	어느(5)
6	여섯	관형사	여섯(51)	여섯(51)
7	흐르다	동사	흐르느(12)	흐르느(12)

〈표 4〉는 제2음절 이하의 ‘ㄷ’가 ‘ㄴ’로 바뀐 형태가 초판본에 나타났다가 재판본에서 이전 표기로 돌아간 것을 보여 주고 있다.

2. ‘ㅎ’ 말음 체언의 표기

‘ㅎ’ 말음 체언들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 ‘ㅎ’이 표기되거나 평음인 자음과 결합했을 때 유기음화가 일어나면서 ‘ㅎ’이 존재를 드러낸다. 이러한 ‘ㅎ’ 말음 체언들은 근대 국어 시기에 접어들면서 점점 ‘ㅎ’이 탈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홍윤표(2023: 365)에서는 19세기 말까지 어간의 말음 ‘ㅎ’이 표기되는 명사들이 있다면서 ‘나라, 바다, ㅎ나, ㅅ나, 나(年), 내(川), 우, 뫼, 네(四), 길, 둘(二)’을 그 예로 제시하였다.

〈표 12: ‘ㅎ’ 말음 체언의 표기 변화〉

번호	현대어	품사	초판본(1906)	재판본(1907)
1	나라	명사	나라히니(38)	나라이니(38)
2	하나	수사	하느히니(15)	ㅎ나이니(15)

그 중, ‘나라, 하나’는 『초학디지』에서도 확인되는데, 『초판본』과 『재판본』에서는 〈표 5〉와 같이 표기에서 차이를 보인다. 초판본에서는 ‘나라, 하느’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니’와 결합하면서 ‘ㅎ’이 연결 표기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재판본에서는 ‘나라, ㅎ나’가 ‘ㅎ’이 탈락한 형태로 표기된 것을 알 수 있다.

초판본이 나온 후 1년 사이에 ‘ㅎ’ 탈락이 표기에 반영되었다는 것은 당시에 ‘ㅎ’ 말음 체언들의 표기 양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 (4) ㄱ. 귀에 말 잘ㅎ기를 공부ㅎ얏스면 세계에 어딴디지 그중에 문명ㅎ다는 나라에 가서 정치학 법률학 스관학 비화 온 것보다 월슈히 나흘 듯ㅎ도다 <1901년 1월 8일 제국신문 제4권 제3호: 1면>

- ㄴ. 그 나라의 우상을 갖다가 사마리아에 큰 집을 짓고 <1904 신학월보 4: 449>
- ㄷ. 나라와 박성 간에 상관되는 일에 무어시 밋을 거신지 닐너 주고 밋을 연고식지 불혀 주어 대한 박성의 유익을 도모헿노라 <1906년 10월 19일 경향신문 제1호: 1면>
- (5) ㄱ. 이에 주고 위로 허락헿샤 동편 몇 나라를 정관하라 헿시매 <1905 기해일기 4>
- ㄴ. 더 일인의게 덕혀는 대한 곳치 갓갑고 슈토와 절기와 싱도가 비슷한 나라히 다시 업기에 주연 일인들이 만히 들어와 살 거시오 <1906년 11월 2일 경향신문 제3호: 1면>
- ㄷ. 저기 나라헤 물산과 디방에 경위와 도수 고흐 거시며 <1907년 1월 4일 경향신문 제12호: 1면>
- (6) ㄱ. 엿지 나를 꺾박헿나 헿심은 너희가 내 동싱 중에 지극히 적은 이 하나에게 헿흔 거시 곳 내게 헿흠이라 헿신 말슴과 고흐나라 <1902 신학월보 2: 283>
- ㄴ. 문득 산모롱이로 좇차 교군 하나이 그 주점을 향햐 오더니 교군을 늦코 쉬히논디 <1908 설중매 41>
- ㄷ. 이 하나에 일빅만 원은 드럿쇼 <1908 철세계 47>
- (7) ㄱ. 슬슬 도라당기난 사름 하느히 잇난디 그 사름은 창고 회사 압해서 인력거를 타고 <1907 귀의성 상: 138>
- ㄴ. 열은 하나헤서 싱겨 나느니 하나를 만 천 빅 열에서 시작이니 <1907 신학월보 5: 108>
- ㄷ. 즈네가 만득이 하느를 살녀만 주면 제가 즈라 나셔 그 은혜를 몰으겿나 <1912 행락도 64>

(4-7)과 같이 비슷한 시기의 다른 문헌들에서도 ‘ㅎ’ 발음 체언들의 표기가 ‘ㅎ’을 가지고 있는 것과 ‘ㅎ’이 탈락한 것으로 혼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재판본에서 ‘ㅎ’이 탈락한 형태로 표기가 바뀌었다는 것은 20세기 초기에 ‘ㅎ’이 탈락한 형태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어중 ‘ㄹㄹ’의 표기

『초학디지』 초판본과 재판본에서는 어중 ‘ㄹㄹ’ 표기에서 차이를 보인다.

<표 13: 어중 ‘ㄹㄹ-ㄹㄴ’의 표기>

번호	현대어	품사	초판본(1906)	재판본(1907)
1	콜롬비아	명사	콜롬비아국브터(50)	콜녘비아국브터(50)
			콜롬비아국예(51)	콜녘비아국예(51)
2	별로	부사	별로(9)	별노(9)
3	볼리비아	명사	쉴리비아국(53)	쉴니비아국(53)
4	서울	명사	서울로(18)	서울노(18)
5	잉글랜드	명사	잉글린드(38)	잉글닌드(38)
6	칠레	명사	칠리국과(51)	칠니국과(51)

<표 6>에서는 초판본과 재판본에서 어중 ‘ㄹㄹ’의 표기가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별로’를 제외하면 국가나 수도의 이름을 표기한 것이다. 위의 용례들은 초판본에서 ‘ㄹㄹ’로 표기되

다가 재판본에서 ‘ㄹㄴ’으로 표기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들은 본래 ‘ㄹㄹ’로 표기되던 것들이 ‘ㄹㄴ’으로 역표기된 경우이다.

(8) ㄱ. 초판본: 별노(49), 별노(55)

ㄴ. 재판본: 별로(25), 별로(28), 별로(32), 별로(33), 별로(34), 별로(36), 별로(45), 별로(46), 별로(47)

‘별로’는 17세기부터 ‘별로’로 표기된 어휘로, 본래 ‘ㄹㄹ’로 표기된 경우이다. 그런데 18세기부터 ‘ㄹㄴ’으로 표기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여은지(2008: 50)에서도 이를 언급하며 후대로 갈수록 ‘ㄹㄹ>ㄹㄴ’의 역표기가 갈수록 증가한다고 기술하였다.²⁶⁾

(9) ㄱ. 초판본: 서울노(7), 서울노(9), 서울노(15)

ㄴ. 초판본: 칠나국ㅅ지(50), 칠나국에도(51), 칠나국은(52)

반면, ‘서울’과 ‘칠나국’은 초판본에서는 ‘ㄹㄹ’과 ‘ㄹㄴ’이 혼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재판본에서는 해당 어휘들이 모두 ‘ㄹㄹ’로 표기된 것을 볼 수 있다.

III. 판본 간 언어 교정의 측면과 반영된 의식

이 장에서는 『초학디지』 초판본과 재판본을 비교했을 때 언어적 차이가 나면서도 ‘교정’의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판단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1. 연결 어미 ‘-요’의 일괄 교정

『초학디지』 초판본에서는 서로 다른 내용 A, B, C를 나열할 때 ‘ㄱ’이 약화된 연결 어미 ‘-오’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재판본에서는 이 부분이 일괄적으로 ‘-요’로 표기된 것을 볼 수 있다.²⁷⁾

(10) ㄱ. 올흔손을 들어 ㄱ루치면 셔편이오 왼손을 들어 ㄱ루치면 동편이오 압흘 바로보면 남편이 오 뒤를 도라보면 북편이오 하늘을 쳐다보면 웃편이오 싸흘 내려다 보면 ㄹ릭편이니(초: 1)

ㄴ. 올흔손을 들어 ㄱ루치면 셔편이요 왼손을 들어 ㄱ루치면 동편이요 압흘 바로보면 남편이 요 뒤를 도라보면 북편이요 하늘을 쳐다보면 웃편이요 싸흘 ㄴ려다 보면 아래편이니(재: 1)

(11) ㄱ. 엇던 나라는 황폐가 계셔 권세를 온전히 잡앗스니 아라사와 청국 고흐 나라히오 엇던 나라는 님군이 계시나 빅성과 고티 주장하느니 일본과 영국 고흐 나라히오 쏘 엇던 나

26) 여은지(2008: 50)에 따르면 16-20세기 문헌에서 ‘Xㄹ로’와 ‘Xㄹ노’를 비교했을 때 후자의 비중이 더 높았는데, ‘ㄹㄴ’ 표기가 16-17세기에 나타나서 18세기에 ‘ㄹㄹ’ 표기와 대등하게 나타나다가 19세기에 ‘ㄹㄹ’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27) 자료에서는 발표문에 제시한 용례 외에 69개를 더 확인할 수 있지만 지면의 제약으로 일부 용례만 제시하였다.

라는 대통령만 계시고 빅성의 뜻을 온전히 주장하느니 미국과 영국 고훈 나라이니라(초: 3)

- ㄴ. 엇던 나라는 황제가 계시 권세를 온전히 잡앗스니 아라사와 청국 고훈 나라히요 엇던 나라는
님군이 계시나 빅성과 고티 주장하느니 일본과 영국 고훈 나라히요 또 엇던 나라는 대통령만
계시고 빅성의 뜻을 온전히 주장하느니 미국과 영국 고훈 나라이니라(재: 3)

(12) ㄱ. 온나라히 남북이 삼천 리요 동서가 육백 리요 또 십삼 도로 논호앗느니라(초: 4)

- ㄴ. 온나라히 남북이 삼천 리요 동서가 육백 리요 또 십삼 도로 논호앗느니라(재: 4)

(10-12)와 같이 『초학디지』 재판본에서는 초판본에서 ‘-오’로 표기되었던 연결 어미를 ‘-요’로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요’는 ‘-오’에 선행하는 서술격 조사 ‘이’에 ‘-오’가 결합하면서 반모음화가 일어나 발음의 변화가 표기에 반영된 것이다.

(13) ㄱ. 회회교는 아라비아에서 난 사롬 모함멧이 시작흔 교요 예수교는 하느님의 9돌 예수를
밋어 죄샤홈을 밋고 구원을 얻는 거시니 예수는 일천구백여 년 전에 유대국이란 나라에
나섯던 이시오 이 교는 지금 온 세상에 전하여 밋는 사롬이 각국에 만흐니라(초: 4)

- ㄴ. 회회교는 아라비아에서 난 사롬 모함멧이 시작흔 교요 예수교는 하느님의 9돌 예수를
밋어 죄샤홈을 밋고 구원을 얻는 거시니 예수는 일천구백여 년 전에 유대국이런 나라에
나섯던 이시오 이 교는 지금 온 세상에 전하여 밋는 사롬이 각국에 만흐니라(재: 4)

(13)은 (10-12)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 앞에서는 해당 구절이 [S₁-요, S₂-요, S_n-요, S-니], [S₁-요, S₂-요, S_n-요, S-니, S-다]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와 결합하는 문장들이 서로 동등한 위치에 놓여 있다. 그런데 (13)은 초판본에서 의도적으로 ‘-요’와 ‘-오’의 표기를 구분하고 있다가 재판본에서 ‘-요’로 일괄 수정한 것을 보여 준다. 초판본에 해당하는 (13ㄱ)만을 분리하여 원문의 구조를 수정하면 아래와 같다.

(13') 불교와 유교와 회회교와 예수교와 이외에 여러 우상 위하흔 교가 잇스니 ... 회회교는 아라
비아에서 난 사롬 모함멧이 시작흔 교요 예수교는 하느님의 9돌 예수를 밋어 죄샤홈을 밋
고 구원을 얻는 거시니 【예수는 일천구백여 년 전에 유대국이란 나라에 나섯던 이시오】 이
교는 지금 온 세상에 전하여 밋는 사롬이 각국에 만흐니라

(13')은 원문에는 없는 주석 표기 【】를 추가한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요’가 결합된 예들은 나열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나열된 내용들은 동등한 값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위에서 【】로 표시한 부분은 ‘-요’로 나열된 내용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는 지구의 모양을 기술한 부분으로, 저자가 기독교적인 시각을 반영하여 여러 나라를 설명하면서 나라마다 믿는 종교가 다양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불교-유교-회회교-예수교’의 순서로 내용이 기술되고 있는데, 예수교를 설명하면서 예수를 설명하는 내용이 중간에 나온다. 회회교에 대한 내용은 [S-요]의 구조를 보이고 예수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를 설명하는 주석에 해당하는 내용만 ‘-오’로 끝나 [S-오]의 구조를 보이는 것이다.

내용의 성격이 달라지는 부분을 (13')과 같이 【】로 구분하면 연결 관계가 더 잘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재판본에서는 (13ㄴ)과 같이 일괄적으로 ‘-요’로 수정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내용을 기술하는 측면에서는 언어의 변화를 분명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의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2. 어휘 교체와 의미 강조

초판본과 재판본을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는 변화는 일부 어휘들이 교체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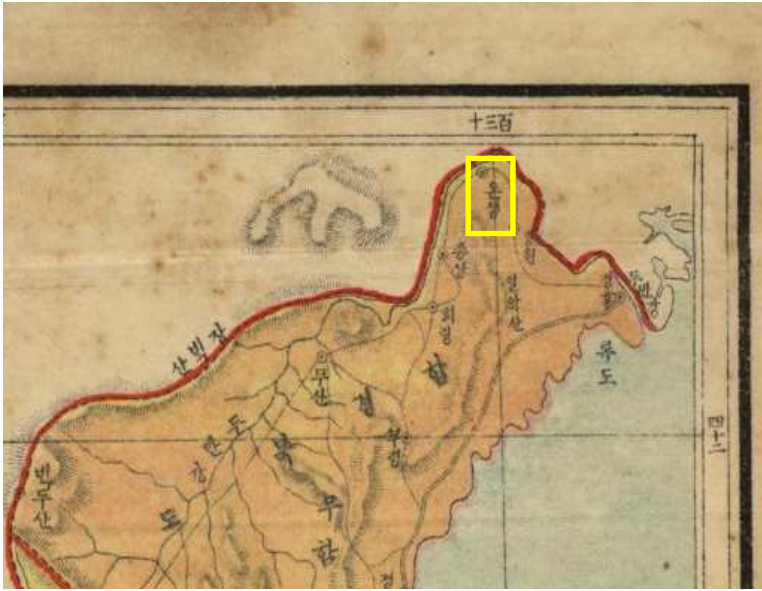
<표 14: 어휘 교체 양상>

번호	대응 현대어	초판본(1906)	재판본(1907)
1	자석	지남철(서: 2)	지남침(서: 2)
2	고을	촌(11)	고을(11)
3		촌으로(12)	고을노(12)
4		촌을(19)	고을을(19)
5		촌을(11)	고을을(11)
6	대주	이 나라(52)	이 대쥬(52)
7	도회	성으로(38)	도회로(38)
8		성이오(38)	도회요(38)
9		큰 촌과(38)	큰 도회와(38)
10	온대 선	열딘 선은(48)	온딘 선은(48)
11	일기[日氣]	날기운이(16)	일기가(16)
12	점점	점으로(22)	점점(22)
13	줄	선이(34)	줄이(34)
14	지진	디동이(19)	디진이(19)
15	호수	못도(20)	호슈도(20)

<표 7>은 초판본과 재판본에서 차이를 보이는 어휘들이다. 동일한 구절에서 어휘가 다른 것으로 바뀐 것이다. 예를 들어, ‘촌(村)’은 재판본에서 ‘고을’ 또는 ‘도회’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촌’이 나타난 예문을 제시하면 (14-15)와 같다.

- (14) ㄱ. 대한민국 데일 북편에 잇는 큰 촌 일흠이 무어시뇨(초: 11)
 ㄴ. 큰 길이 어디서 어나 촌으로 지나갓뇨(초: 12)
 ㄷ.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 어디 잇스며 무슴 큰 촌을 지나갓뇨(초: 19)
 ㄹ. 이 도에 큰 길이 어나 편에서 무슴 큰 촌을 지나갓뇨(초: 11)
- (15) 또 큰 촌과 큰 항구가 만흐니 그 중에 서울 런던은 세상에 데일 큰 성이라(초: 38)

먼저, 재판본에서 ‘고을’로 바뀐 ‘촌’을 보면 조선의 지리를 설명할 때 나오는 부분이다. ‘촌(11)’이 가리키는 것을 문헌에 수록된 지도에 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대한 지도」 속 함경북도 ‘온성’(독립기념관 소장본; 재판본)

[그림 1]에서 ‘촌(11)’에 해당하는 것은 함경북도 온성(오늘날의 온성군)으로 ㉠로 표시되어 있다.
재판본에서 ‘도회와’에 대응하는 ‘촌과(38)’는 영국 런던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등장한다.



[그림 2] 「유로바 지도」 속 영국 ‘런던’(독립기념관 소장본; 재판본)

[그림 2]에 보이는 것처럼 유럽의 지도에는 주요 도시가 •로 표시되어 있고, 수도는 ✱로 표

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런던은 모든 산업이 발달했던 도시로, 조선의 고을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자 ‘고을’과 ‘성’이 의미하는 범위가 달랐기에 재판본에서 명칭을 달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3. 내용에 따른 교정

『초학디지』 재판본은 초판본에서 기술한 내용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지시하는 바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교정한 부분들을 볼 수 있다.²⁸⁾

- (16) ㄱ. 이 성 서북에 큰 돌기둥이 잇서 이 비를 큰 기둥에 미엿다 허더라(초: 9)
 ㄴ. 이 성 서북에 큰 돌기둥이 잇서 이 비를 그 기둥에 미엿다 허더라(재: 9)

먼저 (16)은 비를 댈 기둥을 나타내는 구절에서 교정이 이루어졌다. 앞서 이 성 서북에 큰 돌기둥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 돌기둥이 바로 배를 댈 기둥이다. 따라서 지시 관계를 정확히 하기 위해 초판본의 ‘큰 기둥’을 재판본에서는 ‘그 기둥’으로 교정한 것으로 보인다.

- (17) ㄱ. 이 외에 한 화산 줄기가 잇서 그 중에 푸지 화산이 데일 크니(초: 19)
 ㄴ. 이 외에 한 화산 줄기가 또 잇서 그 중에 푸지 화산이 데일 크니(재: 19)

다음으로 (17)은 일본에 대한 내용으로, 일본을 이루는 화산 줄기를 설명하고 있다. (17)을 보면 ‘이 외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보다 앞에 다른 화산 줄기(화태산 줄기)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온다. 화태산 줄기 외에 다른 줄기가 더 있는데, 그 줄기 가운데 ‘푸지 화산’이 제일 크다고 기술하는 부분이다. 후지 화산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다른 화산 줄기가 있다는 것 또한 강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재판본에서는 ‘또’를 삽입하여 (17ㄴ)과 같이 교정한 것으로 보인다.

4. 오기 교정

『초학디지』의 초판본과 재판본을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또 다른 부분은 오기를 교정했다는 점이다.

〈표 15: 오기 교정 양상〉

번호	대응 현대어	초판본(1906)	재판본(1907)
1	일곱	닐곱(9)	닐곱(9)
2	항구	황구도(20)	항구도(20)
3	장사하다	쟝사허느(30)	장사허느(30)
4	고로	고고로(33)	고로(33)
5	삼	심과(34)	삼과(34)
6	통하다	동허계(49)	통허계(49)

28) 자료에서는 발표문에 제시한 용례 외에 12개를 더 확인할 수 있지만 지면의 제약으로 일부 용례만 제시하였다.

〈표 8〉은 『초학디지』 초판본과 재판본을 비교했을 때 초판본에서 오기로 보이는 표기들이 재판본에서 수정된 용례들이다. 위의 예들은 문맥상으로도 오기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이다. 위와 같이 오기를 교정하려는 모습을 통해 저자가 초판본이 출판된 이후 문헌을 꼼꼼히 살펴 보완해야 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여 글을 수정해 재판했을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IV. 결론

(생략)

참고문헌

1. 자료

Mrs. E. H. MILLER(1906), 『초학디지』, 대한예수교서회.

Mrs. E. H. MILLER(1907), 『초학디지』(SECOND EDITION), 대한예수교서회.

2. 논저

선한빛(2024), 「20세기 초등 세계 지리 교과서 『초학디지』의 서지적 고찰」, 『국어사연구』 38, 국어사학회, 267-305.

여은지(2008), 「근대 국어 ‘ㄹㄴ’ 표기의 음운론적 해석」, 『韓國言語文學』 64, 한국언어문학회, 45-67.

이기문·이호권(2008), 『국어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허재영(2020), 「《사민필지》의 국어사적 의미」, 『한글로 세계를 바라보다, 지리교과서 사민필지』(2020년 소장자료총서 8), 국립한글박물관.

홍운표(2023), 『근대국어연구』(개정증보판), 태학사.

호림박물관 소장 『유가사지론』 권3 점토구결의 재검토

이강혁(한국, 서울대학교)

1. 들어가며

- 연구 목적: 호림박물관 소장 유가사지론 권3(이하 ‘호림본’)의 기초연구를 보다 정밀하게 기술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연구 대상: 기존 잠정 판독 및 해독안³⁰⁾, 호림본 촬영 자료 4종

□ 호림본 촬영 자료 4종²⁹⁾

- ① 2000년대 기존 촬영본: 1장당 7행씩 중복 촬영 ×
- ② 2022년 촬영본: 각필스코프(우상단), 자연광(형광등 차단), 장당 행 중복 촬영 ○
- ③ 2022년 촬영본(역): 각필스코프(좌상단), 자연광(형광등 차단), 장당 행 중복 촬영 ○
- ④ 2023년 촬영본: 각필스코프(우상단), 형광등, 무반사 유리 사용, 장당 행 중복 촬영 ○

- 연구 방법

- ① 기존 잠정 판독 및 해독안 전체 검토 3회(2023년 9월부터 2025년 7월까지)
- ② 판독이 어려운 ‘?’ 부분의 판독 및 해독, 위치 해석 검토
- ③ 이상의 재검토 용례를 유형화하여 기존에 주목하지 못했던 권3의 점토구결 특징 기술

2. 호림본 재검토 용례의 유형화

2.1. 점토 기입 특징

2.1.1. 자획에 근접하여 기입된 점토

(1) <유가3, 01:10-11>

A: 云何[34(·)]造色[22~32(·)?]依[역독선]彼[34(·),55(·)]彼[22~32(·)]所建立[33(\\),55(·)]彼[22~32(·)]所任持[33(\\),22~32(·),55(·)]彼[22~32(·)]所長養[33(\\),51(·),15(·)]耶

B: 云何[乙]造色[ㄱ]依彼[乙,가]彼[ㄱ]所建立[ノ 1,가]彼[ㄱ]所任持[ノ 1,ㄱ,가]彼[ㄱ]所長養[ノ 1,ㄱ,ノ 소코]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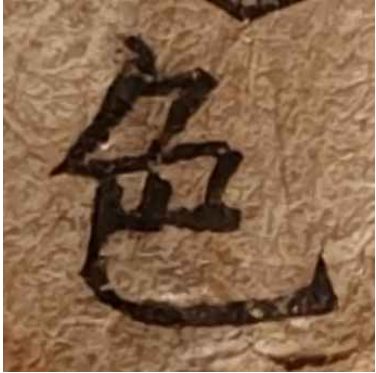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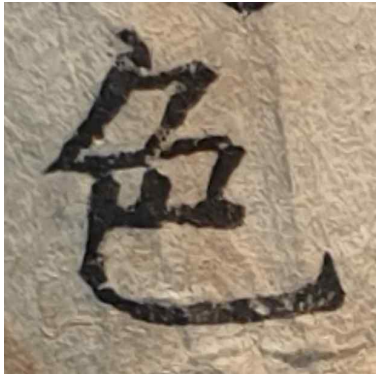
C: 云何乙 造色ㄱ 彼乙 依가 彼ㄱ 建立ノ 1 所(ㄱ)가 彼ㄱ 任持ノ 1 所ㄱ가 彼ㄱ 長養ノ 1 所(ㄱ)ㄱノ 소코{耶}

D: 무엇을 造色이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이 건립한 것이며 그것이 任持한 것이며 그것이 長養한 것이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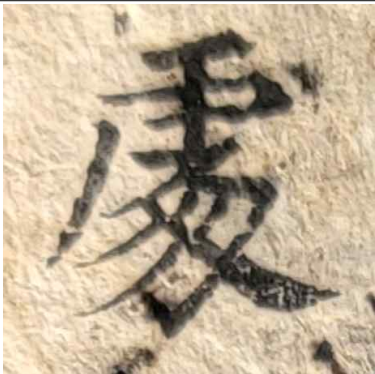
기존	2022	2023

29)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다섯 차례(11/9, 11/17, 12/7, 12/22, 1/18)에 걸쳐 정재영, 문현수, 성우철 선생님과 함께 호림박물관에 자료 실사를 진행하며 촬영을 실시하였다.

30) 점토구결 연구 모임에서 2008년 4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진행한 공동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 다(장경준 2008: 74 참조).

		
2022(역)		
		

- (2) <유가3, 06:10-11>
A:謂[33(·)]或由所依處[34(·),24(·)?,43(/)](故)
B:謂[1]或由所依處[ㄷ, ㄱ, (ㅈ) 1 ~]故
C:謂 1 或 所依處 ㄷ 由 ㄱ 1 ~ {故}(ㄴ)
D:즉 或은 所依處를 말미암기 때문이며

기존	2022	2023
		
2022(역)		

		
---	--	--

(3) <유가3, 06:11-12>

A:或由時[34(·),24(·)?,43(·)]故[55(·)]

B:或由時[乙, 彡, 彡]故[ㄱ]

C:或 時 乙 由 彡 (1) 彡 {故} ㄱ

D:或은 時를 말미암기 때문이며

기존	2022	2023
		
2022(역)		
		

(4) <유가3, 07:05-06>

A: 又一刹那五識身生已[24(·)?,44(·)]從此[34(·),42(·)]無間[45(·)]必意識[=22~32(·)]生[35(·)]

B: 又一刹那五識身生已[ㄷ, x+]從此[ㄷ, ㄷ]無間[ㄷ]必意識[ㄷ]生[ㄷ]

C: 又 一 刹 那 五 識 身 生 (尸) 已 ㄷ x+ 此 ㄷ 從 ㄷ 無 間 ㄷ 必 意 識 ㄷ 生 (ㄷ) ㄷ

D: 또 一 刹 那 에 五 識 身 이 이미 생 한 후 에 는 이 로 부 터 無 間 히 만 드 시 意 識 이 생 하 고

기존	2022	2023
		
2022(역)		
		

(5) <유가3, 07:08-09>

A: 若不散亂[44(·)]必定意識[42(·)]中[=22(·),=42(·)?]第二決定心[22~32(·)]生[+53(/)]

B: 若不散亂[x+]必定意識[ㄷ]中[ㄷ, ㄷ]第二決定心[ㄷ]生[ㄷ 尸 ㄷ]

C: 若 不 散 亂 x+ 必 定 意 識 ㄷ 中 ㄷ ㄷ 第 二 決 定 心 ㄷ 生 ㄷ 尸 ㄷ

D: 만약 散亂 해 지 지 아 니 하 면 만 드 시 意 識 의 中 의 第 二 決 定 心 이 생 하 는 데

기존	2022	2023

		
2022(역)		
		

(6) <유가3, 08:13>

A: 受云何[11~21(-),+15(·)]謂[33(·)]領納[51(·)?]

B: 受云何[ㄷ, ㅁ]謂[1]領納[x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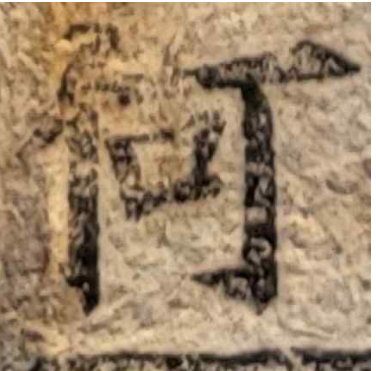
C: 受 云何(ㅍ)ㄷ ㅁ 謂 1 領納x 1

D: ③ 受는 무엇인가? 즉 領納하는 것이다.

기존	2022가	2022나
		
2022(역)	2023	



- (7) <유가3, 08:23-09:01>
A: 觸作何[21(·)?]業[34(·),51~52(·),15(·)]
B: 觸作何[ㄹ]業[ㄷ,x l, / ㅅ ㅁ]
C: 觸(1) 何 ㄹ 業 ㄷ 作 x l / ㅅ ㅁ
D: 觸은 어떤 業을 作한다 하는가?

기존	2022	2023
		
2022(역)		
		

(8)

<유가3, 10:14-15>

A: 諸因[53(·)]諸緣[53(·),+15(\\)]能[55(·)]生識[34(·)?,51~52(·)]者[23~33(·)]彼[33(·)]卽此四[34(·),+51(·)]

B: 諸因[ㄴ]諸緣[ㄴ,X]能[ㄴ]生識[ㄷ,xㅣ]者[xㄴㅣ]彼[ㅣ]卽此四[ㄷ,xㅣ]

C: 諸 因ㄴ 諸 緣ㄴX 能ㄴ 識ㄷ 生xㅣ{者}xㄴㅣ 彼ㅣ 此 四ㄷ 卽xㅣ

D: 모든 인이니 모든緣이니 하는 것이 능히 識을 낸다 하는 것은, 그것은 이 넷을 卽한다.

기존	2022	2023
		
2022(역)		
	34위치 단점 판독 가능	

2.1.2. 흐릿하게 기입된 점토

(1) <유가3, 03:03-04>

A: 一切色聚[22~32(·)](有色諸根[43(·)?])所攝[+15~25(-),지시선(/)]者[32(/)#22~32(/),15~25(-),23~33(·)]

B: 一切色聚[ㄹ]有色諸根[ㄴ]所攝[ノ尸]者[X,尸,ㄴㅣ]

C: 一切 色聚ㄹ 有色 諸根ㄴ 攝ノ尸 所X尸ㄴㅣ{者}

D: 一切 色聚가 有色 諸根으로 攝하는 바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2022	2023
		
2022(역)		
		

(2) <유가3, 03:10>

A: 或內[22~32(·)?,14(·)]或外[22~32(·)?,14(·)]所有[33(/),42(·)]諸聚

B: 或內[ㄹ,ㄴ]或外[ㄹ,ㄴ]所有[ㅍ,ㅑ,ㅓ]諸聚

C: 或 內ㄹㄴ 或 外ㄹㄴ 有ㅍㅑㅓ 所ㅓ 諸聚

D: 혹 안이나 혹 밖이나 있는 바의 諸聚

기존	2022	2023
		

2022(역)		
		

(3) <유가3, 05:18-19>

- A: 謂作意等[11~21(-),**31(·)?**]乃至[22~32(·)]尋伺[34(·)]爲後邊[24(·),11~21(-),31(·),=33~43(·),53(·)]如前[23(·)]說[33(\\),11(·),51(·)]{31(·)}
- B: 謂作意等[ヒ,人]乃至[リ]尋伺[乙]爲後邊[シ,ヒ,人,リ,一,一]如前[ヲ]說[ノ,一,支,一]
- C: 謂 作意 等(ッ)ヒ人 乃 至リ 尋伺乙 後邊 {爲}シヒ人リ一 前ヲ 說ノ 一 如支(ッ)一
- D: 즉 作意 等과 乃至 尋伺를 後邊 삼은 것인데, 앞에 말한 것과 같다.

기존	2022	2023
		
2022(역)		
		

--	--	--

(4) <유가3, 05:23-06:01>

A:幾[33(·)]唯[32~42(·)]依善[34(·),+53(/)]非[역독선]一切處心[44(·)?]生[=15~24(/),55(·)]

B:幾[1]唯[ハ]依善[乙, ッ尸ㄴ]非一切處心[+]生[ッ ㄴ, ㄱ]

C:幾 1 唯ハ 善乙 依ッ尸ㄴ 一切處 心+ 生ッ ㄴ 非(ㄱ)ㄱ

D:몇 가지가 오직 善을 의지하는 것이지 一切處 心에 나는 것 아니며

기존	2022	2023
		
2022(역)		
		

(5) <유가3, 06:20-21>

A:謂若於彼[23(·),44(·)]已[24(·)]善[55(·)]取[역독선]其相[34(·),22(·)]已極作想[=22(·)?,44(·),33(·)?]

B:謂若於彼[ㄴ, +]已[ㄴ]善[ㄱ]取其相[乙, ㄴ]已極作想[ㄴ, x+, 1]

C:謂(1) 若 {於}彼ㄴ+ 已ㄴ 善ㄱ 其 相乙 取(ㄴ)ㄴ 已(ㄴ) 極 作想(ㄴ)ㄴ x+ 1

D:즉 만약 그것에 대해 이미 잘 그 相을 取하여 이미 지극하게 作想한 때에는

기존	2022	2023

		
2022(역)		
		
기준	2022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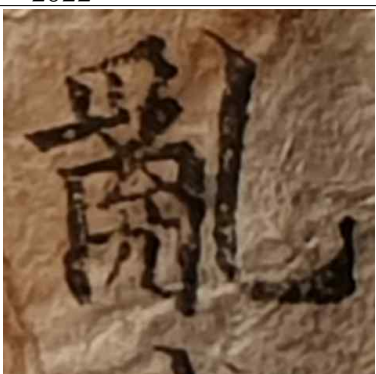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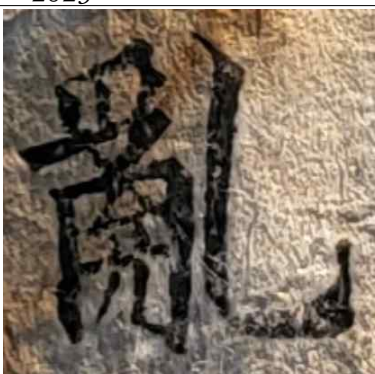
(6)<유가3, 07:07>

A: 從此[34(·),42(·)]無間[45(·)]或[11~21(-),42(·)]時[53(·),44(·)]散亂[44(·)?]或耳識[22~32(·)]生[35(·)]

B: 從此[乙, 七]無間[ㄅ]或[ㄷ, 七]時[一, 十]散亂[x+]或耳識[ㄱ]生[ㄴ]

C: 此乙 從七 無間ㄅ 或(ㄷ)ㄷ七 時一十 散亂x+ 或 耳識ㄱ 生(ㄴ)ㄴ

D: 이로부터 無間히 어떤 때에 散亂해지면 혹 耳識이 生하고

기준	2022	2023
		
2022(역)		

		
---	--	--

- (7) <유가3, 12:05>
A: (是[33(·)?]染)汙[22~32(·),55(·)]餘[33(·)]是[33(·)?]无記[22~32(·),51(·)]
B: 是[1]染汙[ㄱ, ㅋ]餘[1]是[1]无記[ㄱ, 1]
C: 是1 染汙ㄱ 餘1 是1 无記ㄱ
D: 이 工巧處業은 染汚이며 나머지는 無記이다.

기준		
		
2022(역)		
		

2.2. 종이 문제 관련

2.2.1. 종이 주름과 겹쳐진 점토

(1) <유가3, 01:14-15>

A: (要由彼生造)色[22~32(·)]方[42(·)?]從自種子[34(·),42(·)]生[+31(/),경계선]

B: 要由彼生造色[ㄴ]方[ㄷ]從自種子[ㄷ, ㄷ]生[x ㄷ]

C: 要 彼 生 由 造 色 ㄴ 方 ㄷ 自 種 子 ㄷ 從 ㄷ 生 x ㄷ

D: 만드시 그것의 生함을 말미암아 造色이 비로소 자신의 種子로부터 生하는 것이라

기존	2022	2023
		
2022(역)		
		

(2) <유가3, 02:09-10>

A: 此[33(·)]是聚色[44(·),구결자(+)]所有[33(/),33~43(·)?,53(·)]

B: 此[1]是聚色[+]所有[ㄷ 1, ㄴ 1, ㄷ]

C: 此 1 {是}聚色 + 有 ㄷ 1 所 ㄴ 1 ㄷ

D: 이는 聚色에 있는 것이지,

--	--	--

		
기존	2022가	2022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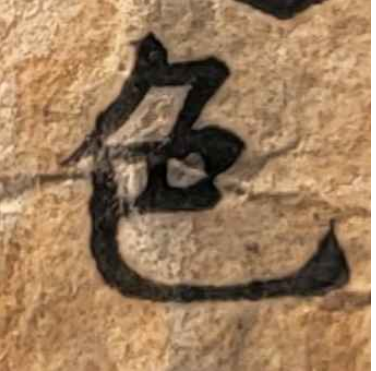
(3) <유가3, 02:21-21>

A: 由此因緣[34(·),22(·)]說所造色[34(·)?,22(·)]依於大種[34(·),54~55(·)#55(·),뵈 침 선(42,\)]

B: 由此因緣[ㄷ, ㄴ]說所造色[ㄷ, ㄴ]依於大種[ㄷ, xㄴ]

C: 此 因緣ㄷ 由ㄴ 所造色ㄷ 說ㄴ {於}大種ㄷ 依xㄴ

D: 이 因緣을 말미암아 所造色을 일러 大種을 의지한다고 하며

		
기존	2022	2023

(4)<유가3, 06:21>

A: 心[22~32(·)]則[21(·)]於彼[23(·),44(·)]多[23(·)]作意[22(·)?]生[15~25(·),51(·)]

B: 心[ㄴ]則[ノ]於彼[ㄴ, +]多[ㄴ]作意[ㄴ]生[ㄴ x ㄴ, 1]

C: 心ㄴ 則ノ {於}彼ㄴ+ 多ㄴ 作意(ㄴ)ㄴ 生ㄴ x ㄴ 1

D: 마음이 곧 그것에 대해 많이 作意하여 나는 것이다.

기존	2022	2023

		
2022(역)		
		

(5) <유가3, 07:04-05>

A: 又非[역독선]五識身[44(·)]有[역독선]二刹那[22~32(·)]相隨俱生[+15~25(-),11~21(-),55(·)]亦無展轉无間[45(·)]更~~互~~[32~42(·)?]而[43(·)]生[+15~25(-),51(·)]

B: 又非五識身[+]有二刹那[∣]相隨俱生[ノ尸,ㄷ,ㄴ]亦無展轉无間[ㄱ]更互[ハ]而[∴]生[ノ尸,∣]

C: 又 五 識身+ 二 刹那∣ 相隨俱生ノ尸 有(ㄴ)ㄷ 非(ㄴ)ㄴ 亦 展轉无間ㄱ 更 互ハ 而∴ 生ノ尸 無(ㄷ)∣

D: 또 五 識身에 二 刹那가 相隨俱生함 있는 것 아니며 또한 展轉無間히 다시 서로 生함 없다.

기준	2022	2023

		
2022(역)		
		

- (6) <유가3, 03:21>
A: 於各別內身[44(·)?]
B: 於各別內身[+]
C: {於}各別 內身+
D: “각각 다른 內身에

		
기준	2022	2023

		
2022역순	역사선과 같은 단점	

(7) <유가3, 08:21-22>

A: 或由如理所引[34(·)?,22(·),55(·)]或由不如理所引[34(·),22(·),55(·)]或由非如理非不如理所引[34(·),22(·),51~52(·)]

B: 或由如理所引[ㄷ, ㅅ, ㅈ]或由不如理所引[ㄷ, ㅅ, ㅈ]或由非如理非不如理所引[ㄷ, ㅅ, x 1]

C: 或 如理所引ㄷ 由 ㅅ(ㅈ)ㅈ 或 不如理所引ㄷ 由 ㅅ(ㅈ)ㅈ 或 非如理非不如理所引ㄷ 由 ㅅx 1

D: 혹은 如理所引을 말미암아 하며, 혹은 不如理所引을 말미암아 하며, 혹은 非如理非不如理所引을 말미암는다.

기준	2022	2023
		
2022(역)		
		

2.2.2. 종이가 접힌 부분

(1) <유가3, 02:10>

A: 是故[43(·)?]極微[33(·)?]非[역독선]有分[33(·), 33~43(·), 구결자(印)]

B: 是故[~]極微[1]非有分[1, 1]

C: 是 故 ~ 極微 1 分 有(˘) 1 非 1 1

D: 그러므로 極微는 分 있는 것이 아니다.

기준	2022	2023
		

기존	2022	2023
		

(2) <유가3, 03:13>

A: (或有聚[42(·)]中[=44(·)?]唯一大種可得[42(\)])

B: 或有聚[ㄷ]中[+]唯一大種可得[ノㄷㄷ]

C: 或 有(ㄴ 1) 聚ㄷ 中+ 唯 一 大種 得ノㄷ{可}ㄷ(ㄴ x-)

D: 혹 있다, 聚 가운데에 오직 하나의 大種 얻을 수 있는 것이.

기존	2022	2023
		

(3) <유가3, 08:15-17>

A: 勝解云何[11~21(-),+15(·)]謂於決定事[44(·)]隨彼彼行[34(·)?,21(·)]印可隨順[15~24(/),=42(·)]性[51(·)]

B: 勝解云何[ㄷ, ㅁ]謂於決定事[+]隨彼彼行[ㄷ, ㄴ]印可隨順[ㄴ, ㄷ, ㄷ]性[1]

C: 勝解 云何(ㄴ)ㄷㅁ 謂(1) {於}決定事+ 彼 彼行ㄷ 隨ノ 印可 隨順ㄴㄷㄷ 性(1)1

D: ② 勝解는 무엇인가? 즉 決定事에 대해 그와 그 행을 따라 印可 隨順하는 성품이다.

기존	2022	2023

		
2022(역)		
		

2.3. 기타

2.3.1. 경계선 판독

<유가3, 09:0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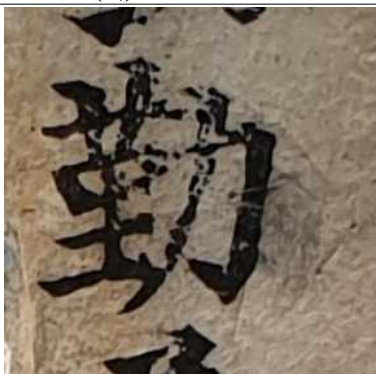
A: 欲[33(·)]作何[21(·)]業[34(·),51~52(·),15(·)]謂發勤[34(·),+45(/)]{14~24(l)?}爲業[24(·),51(·)]

B: 欲[1]作何[ㄱ]業[ㄷ,xㅣノ今口]謂發勤[ㄷ,x尸入ㄷ]爲業[ㄷ,ㅣ]

C: 欲1 何ㄱ 業ㄷ 作xㅣノ今口 謂 勤ㄷ 發ッ尸入ㄷ 業 {爲}ㄷㅣ

D: 欲은 어떤 業을 作한다 하는?. 즉 勤을 發하는 것을 業 삼는다.

기존	2022	2023

		
2022(역)		
		

2.3.2. 목점 존재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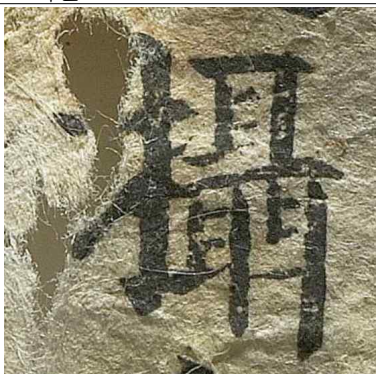
(1) <유가03, 04:21-22>

A: 又心心所[23(·)]所執種子[34(·)]名[54(·)]近攝[~~목-53(·)?, 각-55(·)?~~]名[54(·)]執受[53(·), 54~55(·)]

B: 又心心所[ㄹ]所執種子[ㄷ]名[ㄱ]近攝[ㄴ, ㄷ]名[ㄱ]執受[ㄴ, ㄷ]

C: 又 心 心所 ㄹ 所執 種子 ㄷ 名 ㄱ 近攝 ㄴ(ㄷ) ㄷ 名 ㄱ 執受 ㄴ ㄷ

D: 또 心 心소의 所執 種子를 일컬어 近攝이라 하며 일컬어 執受이라 하며

기존	2022(역)가	2022(역)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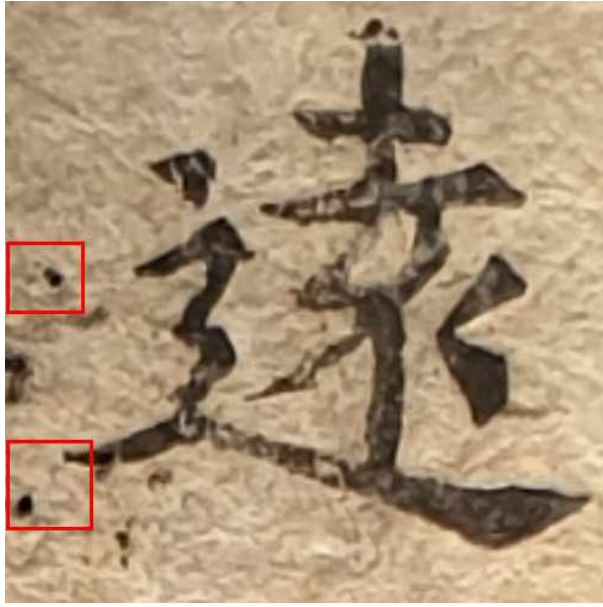
(2) <유가3, 06:15-16>

A:謂處所極遠[31(·)]損減極遠[잡-31(·),잡-51(·)]

B:謂處所極遠[ㅅ]損減極遠[ㅅ]

C:謂 處所 極遠ㅅ 損減 極遠ㅅ(ㅅㅣ)

D:즉 處所 極遠과 損減 極遠이다.

기존	2022	2023
		
2022(역)가	2022(역)나	2022(역)다
		
		

2.3.3. 세필 부호(오류 표시)

<유가3, 07:09-10>

- A: 由此{34(·),22(·)?}尋求[31(·)]決定[31(·),=42(·)]二意識[34(·),=24(·),43(·)]故[21(·)]分別境界
[34(·),54~55(·)]
- B: 由此尋求[ス]決定[ス,セ]二意識[ㄷ,ㄱ,ㄴ]故[ノ]分別境界[ㄷ,xㄱ]
- C: 此 尋求ス 決定スセ 二 意識ㄷ 由ㄱ(1)ㄴ 故ノ 境界ㄷ 分別xㄱ
- D: 이 尋求와 決定의 二 意識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境界를 分別하며

기존	2022가	2022나
		
2022(역)가	2022(역)나	
		

2.3.4. 미상

(1) <유가3, 18:02> 난상에 기준 사각형 있음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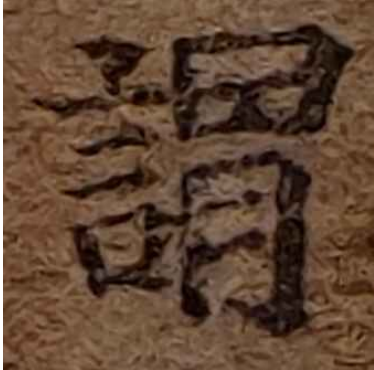
(2) <유가3, 12:11-12>

A: 謂[구결자-尸]五趣[43(·)]所攝[+15~25(-),42(·)]眼[51(·)]

B: 謂五趣[~]所攝[ノ尸,ㄷ]眼[Ⅰ]

C: 謂(Ⅰ) 五趣~ 攝ノ尸 所ㄷ 眼(Ⅱ)Ⅰ

D: 즉, 五趣로 攝하는 바의 눈이다.

기존	2022	2023
		
2022(역)		
		

3. 나가며(생략)

참고문헌

- 국립한글박물관(2018), 『초조대장경 瑜伽師地論 卷66 각필구결』, 국립한글박물관.
- 권인한·김성주·문현수·안대현·이용·장경준·황선엽(2018), 『瑜伽師地論』 卷66 點吐釋讀口訣 잠정 판독 및 해독안, 공동 연구 자료, 미간행.
- 김성주·문현수·이강혁·이용·장경준·하정수·허인영(2024), 가천박물관 소장 『瑜伽師地論』 卷53 點吐釋讀口訣의 판독, 해독 및 현대 한국어 번역, 『국가지정문화재(초조본 유가사지론 권53, 신응경) 보존처리』, 가천박물관 관·연수구창·고창문화재보존, 141-248.
- 이승재 외(2005), 『각필구결의 해독과 번역 Ⅰ 初雕大藏經『瑜伽師地論』 卷第五·卷第八』, 태학사.
- 장경준(2008), 「點吐口訣 研究의 成果와 當面 課題」, <口訣研究> 21, 口訣學會, pp.67 ~98.
- 장경준(2009가), 「湖林本『瑜伽師地論』 卷3의 點吐에 대한 기초 연구」, <口訣研究> 23, 口訣學會, pp.285~304.
- 장경준(2009나), 「湖林本『瑜伽師地論』 卷三의 點吐口訣에 사용된 符號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53, 국어국문학 회, pp.61~80.
- 장경준 외(2021), 역주 원고 초안(한국연구재단 지원 “중층적 구결 자료 『합부금광명경』 卷3의 종합적 연구” 중간 결과물 2021. 6. 13. 최종 작성분), 미간행.
- 장경준 편(2019), 석독구결 자료 6종 전산입력본(skrot_2019_01), 口訣學會/국어사학회 배포, 미간행.
- 점토구결연구모임(2006-2007), 남선사본 『유가사지론』 권8 잠정 판독 및 해독안(미간행).
- 점토구결연구모임(2008), 호림본 『유가사지론』 권3 잠정 판독 및 해독안(미간행).
- 황선엽·이전경·하귀녀 외(2009), 『석독구결사전』, 박문사.

海士本 『大慧普覺禪師書』의 서지와 언어¹⁾

배진솔 · 이흥구(한국, 서울대)

목 차

1. 서론
 2. 서지와 자료의 성격
 3. 구결과 부호
 - 3.1. 구결
 - 3.2. 부호
 4. 주석의 성격과 언어상의 특징
 - 4.1. 주석의 성격
 - 4.2. 표기 양상
 - 4.3. 음운 현상
 - 4.4. 문법 요소
 5. 결론
- 참고문헌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규장각 소장 해사본(海士本) 『대혜보각선사서(大慧普覺禪師書)』의 서지 사항을 살펴보고 구결과 부호 및 주석의 언어에 대해 소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혜보각선사서』는 불교 강원의 사집(四集) 중 하나로 14세기부터 18세기까지 여러 차례 간행된 문헌이다. 같은 사집 문헌인 『고봉화상선요(高峰和尚禪要)』가 그러하듯 많은 판본에 구결이 기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일찍이 남권희(1999)에서 확인하여 보고한 바 있는데, 해당 논의에서는 능인암본(1604)의 구결 기입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이루어진 소장 자료 해제 작업의 과정에서 『대혜보각선사서』 8종에 모두 구결이 보인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그 특징이 간단히 기술된 바 있다(신중진 2001). 이렇듯 『대혜보각선사서』는 시대별 구결의 변천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사 및 구결 연구에서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본고에서 살핀 해사본 『대혜보각선사서』는 난외에 다양하고 자세한 주석이 기입되어 있는

1) 해당 문헌은 해군사관학교에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위탁한 도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해사본(海士本)”으로 약칭하도록 한다. 현재 영인본이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https://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N00012_00).

데, 한글과 한자 약체자를 더불어 사용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사항은 최근에 발견되거나 주목 받은 『월천두시』나 만송문고본 『조웅전』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해사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가 없다는 점에서, 본고에서 그 서지 사항을 확인하고 언어상의 특징을 살펴보려 한다.

논의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 해사본의 서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간행 시기를 추정한다. 이어서 3장에서는 기입된 구결자의 목록을 정리하고, 부호의 사용 양상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해사본의 난외 주석의 표기와 언어상의 특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한다.

2. 서지와 자료의 성격

2.1. 『대혜보각선사서』의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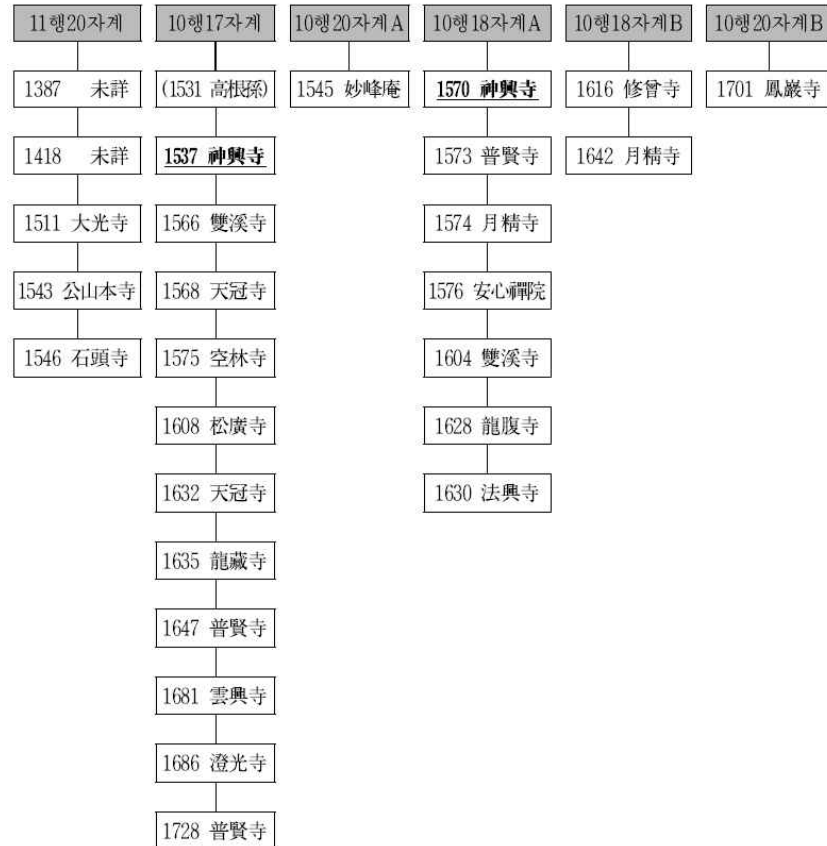
『대혜보각선사서』는 중국 송대 고승인 대혜(大慧) 종고(宗杲, 1089-1163)의 저작이다. 대혜 종고는 송나라 철종 원우 4년(1089)에 출생하여 효종 원년(1163)에 입적한 인물로, 당시 좌선의 고요함에만 빠져 있던 묵조선(默照禪)을 배격하고 간화선(看話禪)을 정착시켰다. 간화선은 조사들의 공안(公案)을 화두로 삼아 탐구해 들어가는 방법인데 대혜 종고의 노력에 힘입어 이후 임제종(臨濟宗)의 지배적인 선풍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선종도 이 간화선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 『대혜보각선사서』는 『대혜보각선사어록』(전 30권) 가운데 권25에서 권30에 해당하는 서장(書狀) 부분만을 별도로 간행한 것이다. 대혜 종고가 당대의 명사 42명(사대부 39명, 여성 1명, 승려 2명)과 주고받은 62편의 서신이 수록되어 있다. 건도(乾道) 2년(1166) 8월, 경산 묘희암에서 간행된 목판본으로, 제자인 혜연(慧然)이 기록하고 정지거사(淨智居士) 황문창(黃文昌)이 교정·편집했다고 전해진다. 이 초간본의 권말에는 “乾道二年歲次丙戌八月/ 勅賜經山妙喜菴刊行”이라는 간기(刊記)가 적혀 있다.

한국에 어떤 판본이 전래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늦어도 고려 신종(1198-1204)년간에는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²⁾ 한국에서 간행된 판본 중에는 우왕(禹王) 13년(1387) 이색(李穡)이 발문을 써서 간행한 목판본이 최고본으로 추정된다. 배현숙(1990)에 의하면 조선조에만 26회 이상 개판되었다고 하며, 최근 사집 판본의 계통을 정리한 손성필·전효진(2018)을 참조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2) 이는 고려의 지눌(知訥)이 승도들에게 설법함에 항상 금강경(金剛經)으로 입법하고 육조단경(六祖壇經)으로 연의하고 화엄론(華嚴論)과 대혜록(大慧錄)으로 보충했다는 기록에 의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표 1〉 조선시대 간행 『대혜보각선사서』의 판본 계통



조선시대에 이처럼 많은 판본이 간행된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그 가운데 하나로, 16세기 후반부터 한국 불교에 사미(沙彌)·사집(四集)·사교(四教)·대교(大教)로 구성된 강학 체계인 이력(履歷)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17세기 전반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성립하고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손성필·전효진 2018: 231). 특히 이 시기에는 한 사찰에서 사집 불서를 함께 간행한 기록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현존 문헌을 기준으로 16세기 전반 지리산 신흥사(神興寺)가 가장 먼저 사집 불서를 함께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검토한 해사본도 이 신흥사(송광사) 계열 판본에 해당한다.³⁾

2.2. 해사본 『대혜보각선사서』의 서지

지금까지 규장각 소장 『대혜보각선사서』의 판본들에 대한 서지 사항은 여러 차례 조사 및 정리되었다. 그러나, 해사본의 경우 비교적 최근인 2015년 해군사관학교에서 규장각에 기탁한 도서로 아직 서지 사항이 면밀하게 조사되지는 못했다. 본고에서 확인한 해사본의 형태 서지는 다음과 같다.

3) 배현숙(1990)에서는 이러한 10행 17자의 판본들을 송광사 계열로 명시했고, 손성필·전효진(2018)에서는 신흥사 계열로 명시하여 둘을 병기하였다.

청구기호: 海士 귀한 129

標紙書名: 箴銘頌 全, 卷首題: 大慧普覺禪師書, 版心題: 書(合綴: 揀病論(版心題))

板本: 木版本 1冊, 匡郭: 半葉匡郭 18.0×14.0cm, 無界, 10行17字

刊記: 乾道二年 歲次丙戌 八月 勅賜徑山妙喜菴刊行

構成: 本文 113장, 文昌과 李穡의 발문 2장, 刊記 1장, 慧謙의 〈狗子無佛性話揀病論〉 4장

이때, 초간본의 간기가 기입되어 있을 뿐, 해사본 자체의 간행년도와 간행지는 기입되어 있지 않아 기존에 간행 시기 불명으로 처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하면 해사본은 1635년 용장사 판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⁴⁾

먼저 10행 17자본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해당 판본에는 1531년에 고근손(高根孫)에 의해 간행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최소한 그 이후로 간행 시기를 설정할 수 있다.⁵⁾

다음으로 합철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규장각에 소장된 9종의 『대혜보각선사서』는 혜심(慧諶, 1178-1234)의 『狗子無佛性話揀病論』이 합철된 판본과 그렇지 않은 판본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합철된 판본은 〈가람古 294.34-J732d〉, 〈古 1840-3〉, 〈古 1840-3C〉, 〈奎中 2366〉에 해당하는데, 해당 판본들은 대체로 17세기 초중반에 간행된 것들이다.⁶⁾ 이를 고려하면 여타 합철본들처럼 17세기 중반에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최소한 합철된 간행본이 간행된 이후인 1616년 이후로 간행 시기를 잡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측에 적힌 시주자명에 등장하는 인명이 있는데, 이 목록을 정리해 본 결과, 아래 〈표 2〉의 김지완·남권희(2017: 274)에서 제시한 용장사판 『대혜보각선사서』의 시주자명 명단과 정확히 일치함을 보였다.⁷⁾ 해당 판본에는 간기가 “崇禎八年 乙亥八月日 全叅道 泰仁地 雲住山 龍藏寺 刊”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참조하면 해사본의 경우도 1635년 전라도 태인 운주산 용장사에서 간행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4) 용장사는 현재 폐사지로 전라도 태인현 산내면(현 정읍시 산내면 매죽리)에 위치한 사찰이다. 이곳에서 간행된 불서는 총 14종이며, 모두 1635년 4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다고 한다(김지완·남권희 2017: 255).

5) 가정(嘉靖) 10년, 한 도인이 구본(舊本)이 있으나 글자가 작아 노안으로는 자세히 보이지 않으므로 다시 써줄 것을 청하므로 고근손(高根孫)이 제주에서 썼다는 기록이 부기되어 있다.

6) 간행본의 간기를 살폈을 때, 〈가람古 294.34-J732d〉와 〈奎中 2366〉은 1616년(광해군 8)에 처희(處熙)가 간행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古 1840-3C〉는 1631년(인조 9) 천관사에서 간행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7) 이 목록은 총 153명에 이른다. 더불어 116장에 추가로 56명의 동참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도합 209명이 간행불사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김지완·남권희 2017).

〈표 2〉 용장사판 난외 시주자 목록

장차	시주자	장차	시주자	장차	시주자	장차	시주자
1	·	31	李進/朴朱	61	芑厓/李彥遷	91	玁玉/金氏
2	仁今	32	李出/女愛	62	啍伊/崔桂龍	92	黃麥丁/金氏
3	天淮	33	李得仁/경	63	召吏/崔桂龍	93	春日/丁氏
4	尙彦	34	柳氏/姜得卜	64	夢成/宋毅	94	金德水/丁氏
5	洪得立	35	金億壽/姜得卜	65	李成叔	95	李已
6	[]愛[]	36	金億壽/安旺女	66	介進/朴德仁	96	崔彦倍/金氏
7	金仁補	37	九代/啍花	67	食德/朴德仁	97	春代/安士元
8	金致敬	38	九代/金世	68	文宝成/張云	98	高忠乞/鄭氏
9	柵文立	39	朴德龍	69	豆士明/柳[]世	99	劉命伊
10	成德男	40	順介/張守男	70	的伊/金厚乃	100	劉弘申
11	李夢良	41	信浩/徐出生	71	金勝水	101	勝浩/崔海令
12	李獻道	42	三干/孫石男	72	·	102	道心/沈奧世
13	李獻道	43	熙運/金景立	73	芑今/朴敬邑	103	鄭卜只
14	李芑之	44	元哲/張貴仁	74	徐鳳/申應守	104	경/天淮
15	金奉世	45	海信/張貴仁	75	芑世/申應田	105	金君丁
16	金代尙	46	金氏/張貴仁	76	從伊/崔菴卜	106	車上佐
17	金代尙	47	金氏/張貴仁	77	丁邑介/崔菴卜	107	金遐乙同/走今
18	菴今	48	鄭氏/張貴仁	78	若靈/崔樂金	108	劉壽/金亡乃
19	張甘孫	49	尹氏/本介	79	金一生/孫五世	109	金春丁
20	張甘孫	50	李氏/本介	80	守性介/朴必生	110	金春丁
21	金大春	51	楊氏/海春	81	金之/申敬男	111	李彥上
22	金大春	52	金氏/海春	82	宝彦倍/申敬男	112	鄭德明
23	愛春/朴男	53	丁氏/金德生	83	李德世/李難卜	113	朴礼山
24	惠行/朴男	54	李德/金譯浩	84	尙叩	114	郭銀石
25	尙熙/朴德仁	55	李成叔/白如遷	85	喪惡山/趙日立	115	自穎/金玉世
26	尙熙/朴德仁	56	宋發/金連朴	86	法尙/金德生	116	〈刊記〉
27	良良孫/元金	57	安氏/金毛老	87	金大元	117	朴文山
28	玉代/金氏	58	楊氏/愛春	88	喪春卜/今介	118	[]遷/曹愛同
29	奉春/金氏	59	尹氏/申金	89	德伊/今介	119	性敏/僅尙
30	奉守	60	宋氏/李彥遷	90	思印/文順卜	120	·

이어서 해사본이 지닌 몇 가지 특징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먼저 다른 판본과는 달리 표지서명이 “大慧普覺禪師書”가 아닌 “箴銘頌”으로 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본문의 방향과는 반대로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처음 1장의 경우도 이어지는 부분과 달리 구결이나 주석이 기입되어 있지 않으며, 판식이나 지질 등 여러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다음으로 판심부(版心部)의 경우 통일되어 있지 않고 각 장이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일부는 무어미(無魚尾)로 되어 있는 한편, 상하(上下) 내향(內向)·상향(上向)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발견된다. 어미 자체도 一, 二葉 등 다양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에 ‘木, 林, 玄’이나 연꽃무늬 등을 판각해 넣은 경우도 보인다. 김지완·남권희(2017: 285)에 의하면 이러한 모습은 용장사 간행본 12종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해당 논의에서는 이러한 ‘악식문자’들이 각 수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바 있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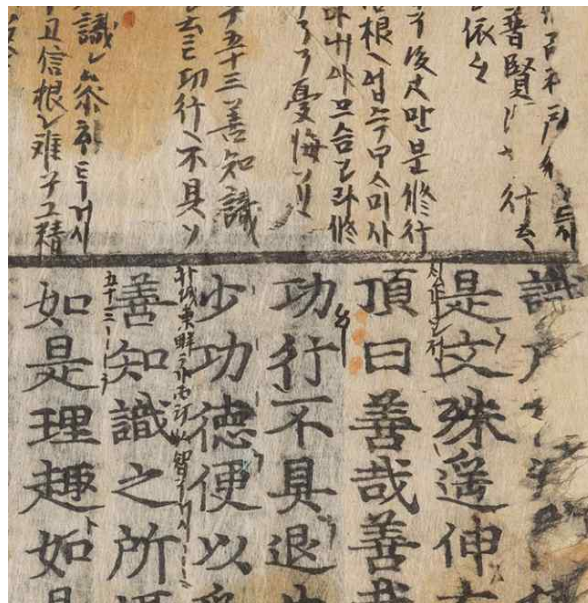
〈표 3〉 해사본에 나타나는 어미 예시



8) 이 외에도 마지막 장에 선시(禪詩)가 필사되어 있다는 점도 제시해 볼 수 있다. 그중 일부만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漣溪月落夜□然 魚目明珠混□年 水向竹過□出碧 風徒花裏通未香 不是雲門傳大法 後人有滯守苦 □ 龍得水時添意氣 虎靠山處長威聲 … ”

끝으로 국어사, 문자론적으로 참조할 만한 점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먼저 해사본에는 여타 음독구결 문헌과 같이 본문 한문 구결의 우측 하단에 약체 구결이 기입되어 있으며, 일부 석독 표기도 발견된다. 신중진(2001)의 조사에 따르면 해사본 외의 규장각 소장 『대해보각선사서』 8종에는 모두 이러한 음독 구결이 발견된다고 하는데, 16세기 초부터 조선 후기까지 다양한 판본이 있으므로 차후 비교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본문의 행간은 물론, 난외에 많은 양의 주석이 보이는데, 대부분 한글로 되어 있으며, 차자표기를 섞어 활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그림 1]). 이때의 차자표기에 사용되는 것은 한자 약체자로, 본문에 기입된 구결자와 대체로 일치하여 쉽게 해독될 수 있다. 주로 조사나 어미 등의 문법 요소를 표기하며, 어간이나 어절 전체를 표기하는 데에도 사용되는데, 이러한 양상은 『두시언해』의 필사본인 『월천두시』나 『정을선전』, 강서현(2025)에서 보고된 만송문고본 『조웅전』과도 유사한 것이다.⁹⁾



[그림 1] 해사본의 구결과 주석 <3b>

3. 구결과 부호

3.1. 구결

3.1.1. 구결자 목록과 출현 양상

해사본에 나타나는 구결자를 모으면 아래와 같으며 약 40자 가량으로 파악된다. 이들 구결자는 본문 우측 토와 좌측 토, 난외 주석문의¹⁰⁾ 일부에 나타나는데, 위치에 따른 분포나 표기 방식

9) 물론 문헌의 성격은 매우 다르다는 점을 지적해 둘 수 있다. 본고의 『대해보각선사서』는 불서인 데 반하여, 『월천두시』는 유학자들에 의해 필사된 문헌이고, 『정을선전』과 『조웅전』은 고전 소설에 해당한다.

10) 물론 난외 주석문에 나타나는 약체자의 경우, 한문을 풀어읽는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구

의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물론, 좌측 토와 난외 주석문에서는 한글이 혼용됨에 따라 ‘니’, ‘지’ 등이 구결자가 아닌 한글로 나타나는 예는 종종 나타난다.

ㄱ(가), ㄴ(거), ㄷ(고), ㄹ(곰), ㄴ(나), ㄴ(녀), ㄴ/ㄴ(니), ㄴ(느), ㄴ(다), ㄴ(대), ㄴ(더), ㄴ(명), ㄴ(도), ㄴ(디), ㄴ(들), ㄴ(딕), ㄴ/ㄴ(라), ㄴ(로), ㄴ(리), ㄴ(마), ㄴ(만), ㄴ/ㄴ(며), ㄴ(면), ㄴ(물), ㄴ(스), ㄴ(사), ㄴ(스), ㄴ(시), ㄴ(아), ㄴ(애), ㄴ(어), ㄴ(여), ㄴ(오), ㄴ/ㄴ(와), ㄴ(을), ㄴ(의), ㄴ(이), ㄴ(호), ㄴ(히), ㄴ(히)

본문 우측 토는 다른 문헌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형식의 구결문으로, 전형적인 음독구결로 나타난다. 해사본의 한 면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각 문장의 말미에 ‘ㄴ/ㄴ’(히야), ‘ㄴ/ㄴ’(히니), ‘ㄴ/ㄴ’(히고)와 같은 ‘ㄴ-’와 연결어미가 결합된 구결이 기입되며, 필요한 경우에 체언 뒤에 ‘ㄴ’(애), ‘ㄴ’(의), ‘ㄴ’(로)와 같은 조사가 부기된다. 이 외에 목적격 조사 ‘ㄴ’이나 주격 조사 ‘ㄴ’ 등은 우측 토가 아닌 좌측 토로 기입되는 일이 많다.

- (1) 又是世間第一等討便宜底人ㄴ(로다)。須是急着手脚ㄴ/ㄴ(히며)。冷却面皮ㄴ/ㄴ(히야)。不得受人差排ㄴ/ㄴ(히고)。自家理會本命元辰ㄴ/ㄴ(히여)。教去處ㄴ(로)分明ㄴ/ㄴ(히사)。便是世間出世間一箇了事底大丈夫也·(라)。〈19b〉

한편, 해사본에는 지면에 따라 구결문 출현 양상의 차이도 보인다. 〈1a〉, 〈1b〉에는 우측 토만이 출현한다. 합철된 『狗子無佛性話揀病論』 앞에 위치하여 발문에 해당하는 〈114b〉-〈115b〉 세 쪽은 구결이 일절 기입되어 있지 않다. 나머지 부분은 우측 토, 좌측 토, 난외 주석이 기입되어 있으며 난외 주석의 분량은 지면에 따라 편차가 크다. 주석의 분량이 많은 지면은 난상과 난하의 범위를 넘어 변란의 양변에도 주석문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좌측 토와 난외 주석문에는 종종 한글이 혼용되어 쓰이나 우측 토에는 오로지 구결자만이 나타난다.

3.1.2. 석독 표기의 양상

음독구결이 표기된 문헌 중에는 원각사본 『능엄경』이나 일사본 『고봉화상선요』와 같이 석독 표기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때의 석독 표기란 조선시대 구결 자료에서 원문의 한자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읽을 수 있도록 기입한 요소(장경준 2022ㄱ: 244)를 말한다. 해사본에도 석독 표기가 나타나는데, 아래에서 살펴 보도록 한다.

먼저는 우측 토에 대하여, 본문 한자의 좌측 하단에 구결자를 기입해 문법적 기능을 추가로 표시한 경우를 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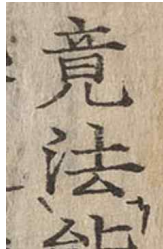
결”이라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자체, 종류 등은 본문의 구결자와 동일하여, 목록에서는 함께 제시하되 다른 점이 나타나면 추가로 언급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난외 주석문에 대해서는 4장에서 다루었다.

(2) 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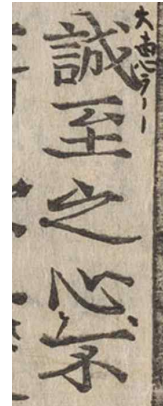
〈118b〉

ㄴ.



〈118b〉

ㄷ.



〈118b〉

(2) ㄱ. 頓亡前來諸善知識彌勒教[ㄷ]ㄴ ㄴ 〈118b〉

ㄱ'. 前來諸善知識彌勒教ㄷ 頓亡ㄴ

(이전의 모든 선지식 미륵보살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ㄴ. 但知虛幻 非究竟法[ㄴ]ㄴ ㄴ 〈118b〉

ㄴ'. 但知虛幻 究竟法 非ㄴ

(다만 허망한 것이 궁극적인 법의 아님을 알아)

ㄷ. 亦出誠至之心[ㄴ] ㄴ 〈118b〉

ㄷ'. 亦誠至之心 出 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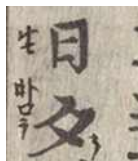
(모두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

(2ㄱ)에서 우측 토 ‘ㄴ’에 더하여 ‘教’의 좌측에 목적적 조사 ‘ㄷ’을 기입하여 “前來諸善知識彌勒教”이 ‘頓亡’의 목적어임을 나타내고 있다. (2ㄴ), (2ㄷ)에서도 좌측 토가 기입된 부분은 각각 보어와 치격어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인다.¹¹⁾

이어서 한글을 활용해 독법을 제시하거나 한자를 삽입해 의미를 보충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구결자를 복합적으로 활용하기도 하며, 문법 기능도 함께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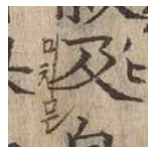
(3)

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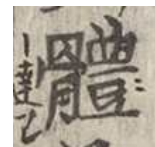
日夕[나ㄴ밤
ㄴ]

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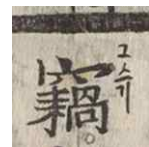
及[미치르ㄷ]

ㄷ.



體[-達ㄴㄷ]

ㄹ.



竊[그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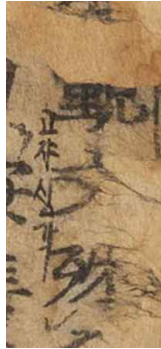
(3ㄱ)의 경우 본문의 ‘日夕’을, (3ㄴ)은 본문의 ‘及’을 풀어 읽을 수 있도록 한글과 구결자를 부기한 것이다. 각각 ‘ㄴ’, ‘ㄷ’과 같이 문법적 역할을 담당하는 구결자가 함께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ㄷ)은 ‘體’에 ‘-達ㄴㄷ’을 삽입해 의미를 보충한 것이다. 이는『월천두시』에서 본문에 나타난 어휘에 덧붙여 부연할 때 ‘-’를 활용한 방식과 유사하다(김성주 2020: 314). 이러한 석독

11) 이와 같은 현토 양식은 석독구결과도 다소 유사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ㄷ’과 ‘ㄴ’이 모두 같은 글자에 현토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몇몇 부분에서는 대격어에 좌측 토를, 용언에 우측 토를 부기하여 석독구결과 유사한 현토 양식을 보이기도 한다.

표기는 대체로 한자의 좌측에 나타나나, (3ㄷ)과 같이 우측에 기입된 경우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석독 표기는 대개 본문 내 어구를 치환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나, 연결어미와 후행 용언의 일부가 나타날 때도 있다. (4)는 좌측에 ‘고자 칭각’을 기입한 예이다.

(4)



〈3b〉

- (4) 欲奉觀(고자 칭각)文殊[ㄷ]ㄴ. 〈3a〉
(문수보살을 뵈고자 생각하였다.)

한편, 많은 경우 난외 주석문과 동일한 표현이 본문 좌측 토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통해, 난외 주석문과 석독 표기가 동일한 인물에 의해 기입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¹²⁾

- (5) ㄱ. 則以幻藥ㄴ(안꺈가-) 復治幻病ㄴ. 〈2b 본문 좌측 토〉
ㄴ. 안꺈 1 幻藥 ㄴ 科擧婚官 ㄴ 乃 그르 ㄷ 저퍼 ㄴ 心 ㄴ 乃 〈2b 난외 주석문〉

3.2. 부호

3.2.1. 어순 지시 부호

조선시대 구결 자료에는 원문에 한국어 어순을 지시하는 부호가 기입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어순 지시 부호는 문헌에 따라 점으로 기입되거나 한자 숫자로 기입되기도 하며, 기입 위치의 경우 좌측이나 우측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장경준(2022ㄱ: 251)을 참조하면 파리본 『능엄경』의 경우 어순 지시 부호가 한자 우측에 놓였고, 원각사본 『능엄경』의 경우 좌측에 놓여 있었으며, 범응본 『법화경』의 경우 좌·우측을 모두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해사본의 경우 점으로 기입한 경우만 발견되며, 현토 위치는 좌·우측이 모두 나타난다. 점은 3개까지만 찍혀 있다. 현토 방식의 경우 널리 알려진 해석에 반영되는 한자에 순서대로 숫자를 하나씩 더해 가면서 번호를 매기는 방식(장경준 2022: 253)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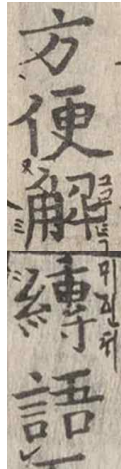
12) 난상주는 많은 경우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시 쓴 것에 해당해 해독에 참조할 수 있다.

(6) 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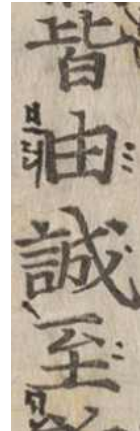
<3a>

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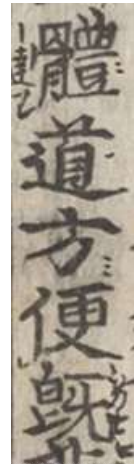
<9b>

ㄷ.



<5a>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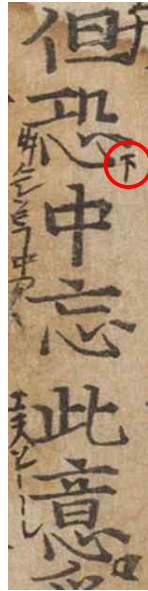
<20b>

먼저 (6ㄱ)와 (6ㄴ)을 통해, 각각 점이 우측과 좌측에 기입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6ㄱ)의 경우 비교적 단순하게 순차적인 해독을 지시하고 있는데, (6ㄴ)의 경우 “方便¹解³縛²語”와 같이 기입되어 있어서 “方便¹ 縛²[미인되] 解³[그르느] 語¹”로 순서를 조정해 읽을 수 있다.¹³⁾ 이어서 (6ㄷ)의 경우도 “皆由³誠¹至²”로 되어 있어서 “皆 誠¹ 至²□¹ 브터” 정도로 풀어 읽을 수 있을 듯하다. 이는 난상주의 “精誠¹ 至極²ノモ³ 成滿⁴”를 참조하면 좀더 명확하게 이해된다. (6ㄹ)의 경우 “體²道¹方便³”으로 되어 있어, “道 體²[達¹ 〇] 方便³” 정도로 해독되는 것이다. 더불어, 여러 한자가 동일한 어순을 보이는 경우 문헌마다 서로 다른 방법을 활용하곤 하는데, 해사본에서는 두 한자 사이에 점을 찍어 주는 방식만 발견되었다. 이는 (6ㄴ)과 (6ㄹ)에 나타나는 “方便”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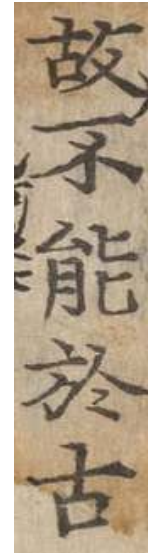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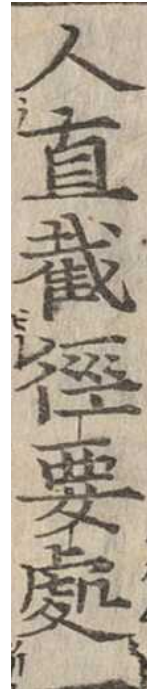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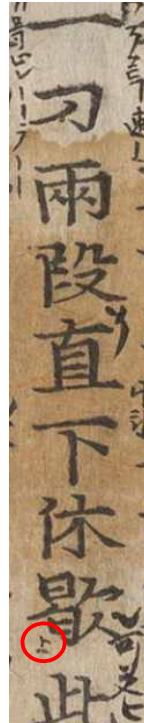
한편, 어순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上, 下’와 같은 부호도 확인이 된다. 아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3) 이 부분의 전체 원문은 “又是錯認方便解縛語”로 “또한 방편으로 매인 것을 풀어주는 말을 잘못인식하여 집착하는 것이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듯하다.

(7) ㄱ.



ㄴ.



〈5b〉

〈5b〉

(7ㄱ)에서 “恐”은 “中忘此意”의 술어로, 한국어 어순으로 풀어 읽을 때는 마지막에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¹⁴⁾ 이러한 해독 순서를 반영하여 술어인 “恐”의 우측 하단에 ‘下’를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¹⁵⁾ (7ㄴ)에서는 “歇”의 좌측 하단에 ‘上’이 기입되어 있다. 이 문장의 경우도 전체 술어는 “不能”으로 한국어 어순에 따르면 “-歇”에 이어 “不能”을 읽어야 자연스럽다. 이 경우는 술어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마지막 한자인 “歇”에 ‘上’을 기입하여 다시 위로 올라가 “不能”과 연결해 읽도록 지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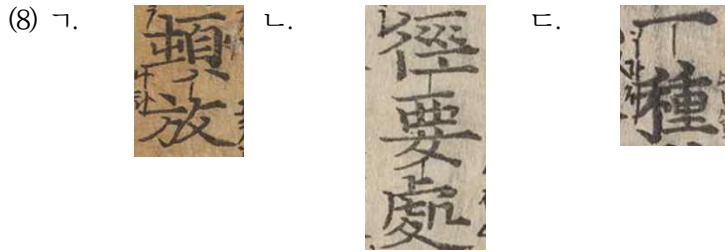
끝으로 장경준(2021: 49)에서는 음독구결 문헌인 범응본 『법화경』에 사용된 인접한 한자의 자획과 자획을 잇는 짧은 선 모양의 부호를 확인하고 ‘붙임선’이라 이름 붙인 바 있다. 일사본에서도 이러한 붙임선이 발견된다. 예를 들면 다음 (8)과 같다.¹⁶⁾

14) 이를 반영하면 “但 벼슬 中 工夫 此意 忘 恐(다만 벼슬하는 중에 공부하는 이러한 뜻을 잊어버릴까 두렵다)” 정도로 해독할 수 있다.

15) 장경준(2022ㄴ)에서 소개한 프랑스로부터 소장 『능엄경』에서도 동사에 ‘下’를 표기하는 모습이 보여 참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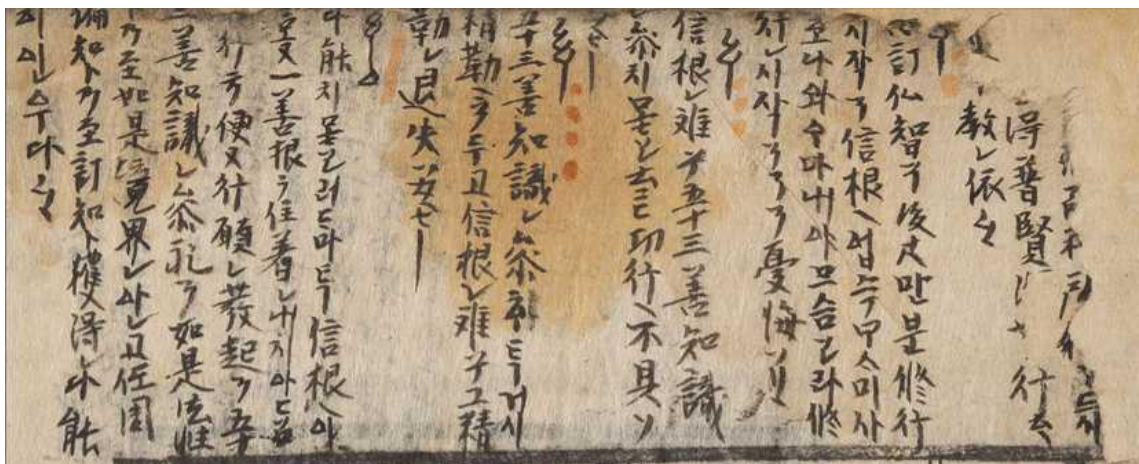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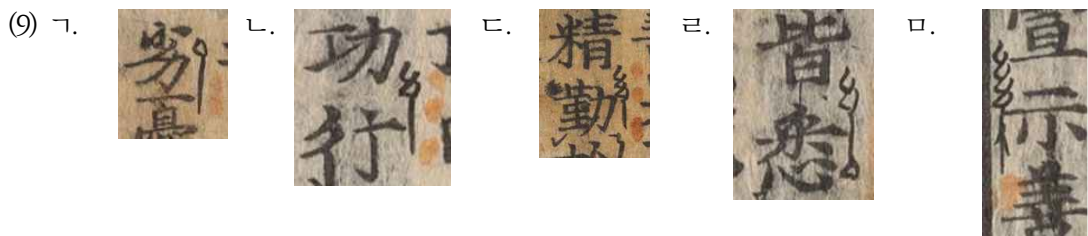
16) 일부 보자에 대한 기호도 발견되는데, 〈1b〉에서 ‘其’와 ‘鈍’ 사이에 빠진 글자인 ‘奈’가 추가되어야 할 곳에 ○가 사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다른 판본에 해당 위치에 ‘奈’가 출현한다는 점을 통해 뒷받침될 수 있다.

해사본 〈1b〉	가람본 〈1b〉



3.2.2. 주석 지시 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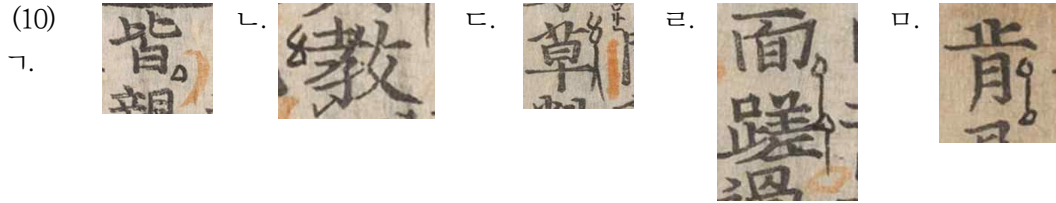
앞선 2장의 서지 부분에서 언급했듯 해사본에는 난외에 많은 양의 주석이 발견된다. 이러한 주석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다양한 기호가 사용되는데, 이는 『능엄경』(정은영 2022)이나 『고봉화상선요』(이흥구 2024) 등 여러 문헌에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하다. 아래에서 정리해 보도록 한다.



[그림 2] 해사본 <3b> 난상주

(9)는 <3b>의 본문에 나타나는 주석 지시 부호들을 잘라낸 것으로 <3b>의 난상 부분인 [그림 2]의 개별 주석들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 즉 본문과 난상주의 시작 부분에 동일한 기호를 기입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주석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다. 이 주석 지시 부호는 대개 본문의 우측에 나타나나 좌측에 나타나기도 하며, 문장에 대략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나타나며 문장 첫 부분에 표기되는 경향성은 보이지 않는다. 비록 동일한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기는 하나, 주석 지시 부호는 두 층위로 나뉘는데, 흑색으로 표시한 것과 빨간 점으로 표시한 것이 모두 나타난다.

부호의 모양의 경우 (9)와 같이 원에 꼬리를 길게 이은 것들이 주로 나타난다. 다만, 아래 (10ㄱ, ㄴ)과 같이 단순히 원만을 이어그린 경우도 있다.



대체로 원의 개수로 주석을 변별하는 것으로 보이며, 원의 개수는 4개까지 보인다. 주석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꼬리의 개수나 원 사이의 선을 그은 형태를 활용해 변별하는데, 이는 (10ㄷ, ㄹ, ㅁ)의 부호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주석의 성격과 언어상의 특징

4.1. 주석의 성격

난외 주석은 본문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거나 특정 용어의 의미를 부연하는 역할을 한다. 이 가운데에는 본문의 내용을 번역한 것에 가까운 주석도 포함되어 있다. 대체로 핵심 단어와 문법 요소들은 본문 및 구결문과 동일한 것이 나타나므로, 이를 활용하여 판독하는 것이 가능하다.

- (11) ㄱ. **[본문]** 而公所謂大罪者 聖賢ㄱ 亦不能免ㄴ (공께서 말하는 ‘큰 죄’라는 것은 성현들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니) <2b>

ㄴ'. **[주석문]** 孔子大聖人、ㄱ 科擧婚官ㄴ 免치 모ㄴㄴㄴㄴㄴㄴㄴ 顔ㄴ 般子 ㄴ擧ㄴ玉ㄴ
 ㄴ 1 사람드리 賢人、ㄱ 科擧婚官ㄴ 免치 모ㄴㄴㄴㄴㄴㄴㄴ 公ㄴ 罪 아ㄴ、
 ㄴ、(孔子大聖人이라도 科擧婚官을 免하지 못한다 하였고 顔ㄴ 般子 ㄴ擧ㄴ玉하는
 사람들이 현인이라도 科擧婚官을 면하지 못한다 하였으니 공의 죄가 아니라 할 것
 이다) <2b>

ㄴ. **[본문]** 能回心此箇門中ㄴㄴ 以般若智水ㄴ 滌除垢染之穢ㄴㄴ (이 문 안으로 마음을 돌려 반야지의 물로 때로 물든 더러움을 씻어내고) <2b>

ㄴ'. **[주석문]** 工夫ㄴㄴㄴㄴ ㄴ스ㄴ 般若水ㄴ 科擧婚官ㄴ 垢染之穢ㄴ (工夫하는 마음은 般若水이고, 科擧婚官은 垢染之穢다 ...) <2b>

- (12) ㄱ. **[본문]** 若別有人有法 則是邪魔外道ㄴ 見解也ㄴ、(만약 별도의 (깨달은) 사람이 있고 별도의 (깨달을) 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邪魔外道の 견해이다) <2b>

ㄴ'. **[주석문]** ... 그 밖과 各別히 부처 되ㄴ 사람이 이ㄴ고 各別히 부처 되ㄴ 法、이ㄴ
 ㄴㄴㄴ 邪魔外道ㄴ 見解、ㄴ、(... 그밖에 各別히 부처가 될 사람이 있고, 各別히 부처가 될 법이 있다 하면 邪魔外道の 견해이다) <2b>

ㄴ. **[본문]** 教中ㄴ (首楞)所謂隨識而行ㄴ 不隨智ㄴ 以故ㄴ 昧卻本地(眞智)風光ㄴ 本來面目ㄴ
 ㄴㄴㄴ (경전에 識을 좇고 智를 따르지 않으니, 이로 인해 본래의 빛과 본래의 얼굴

을 잃어버리니) <7b>

ㄴ'. [주석문] 敎中ヲカ 식乙 조セ고 智乙 조세지 아히ッ 1 다스ヌ 本地 風光 昧却ッロ
生死ッ 1 | ヲソニヒ 藏主カ 計較 安排乙 마乙、 ヲソ ヒ르ルセ | (경전에도 識
을 좇고 智를 좇지 않은 탓으로 本地 風光 昧却하고 生死한다 하였으니, 藏主도 計較
安排를 말라 하여 말했겠다) <7b>

(11)은 본문의 내용이나 용어를 부연한 주석의 예이다. (11ㄱ)은 성현들도 피할 수 없는 ‘큰 죄’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해당 구절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11ㄴ)에서도 본문에 등장한 ‘般若智水’와 ‘垢染之穢’가 무엇인지 부연하고 있다.

(12)는 본문의 내용을 번역한 것에 가깝다. 다만, (12ㄱ)에서는 ‘人, 法’의 의미를 좀더 구체화하여 제시하였으며, (12ㄴ)도 추가적인 해석을 덧붙여 제시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4.2. 표기 양상

난외 주석은 한자, 한글, 한자 약체자 3종의 복합 구성을 보인다. 이 중, 한자 약체자는 본문에도 나타나는 것인데, 그 사용에는 차이가 있다. 본문의 음독구결이나 석독 표기에 사용된 약체자는 “한문으로 된 텍스트를 국어로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문 원문 중간에 전후의 문맥이나 문법적 관계가 드러나도록 국어의 문법 요소 등을 차자로 표기해 넣는 것”(장윤희 2004: 52)에 해당한다. 그러나, 난외 주석문에 나타나는 한자 약체자는 이러한 차자표기로서의 “구결”의 정의에 들어맞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한자와 한글을 보완하여 “국어를 표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어 차별성을 지닌다.¹⁷⁾

이때, 한자 약체자의 쓰임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어미나 조사 등의 문법 요소를 표기하거나 반복적으로 출현해 굳어진 부분을 표기하는 경우다. 이는 기존의 구결문에서의 쓰임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다른 하나는 어간을 포함한 어절 전체를 구결로 표현하거나 어간의 일부분을 표기한 경우다. 이러한 사용은 한자를 활용한 고유명사 표기나 향찰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3) ㄱ. 善財童子ㄴ 福城 東畔ㄴ 가 初遇 文殊 ヲソ 頓證佛智ッロ 發三心ッソ <3a>

ㄴ. 靜處ㄴ서 ㅎ딘 工夫 히히지 마乙、 ヲソ 히르러 ヲヒ 1 <10b>

(13ㄱ)의 ‘ㄴ, ㄴ’는 조사에 해당하며, ‘ッ, ヲ’는 ‘ㅎ야, ㅎ고’를 표기한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기존의 구결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반면 (13ㄴ)은 어간에 대한 약체자의 활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먼저 “마乙、”의 경우 어간 ‘말-’의 발음을 ‘乙’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한자가 아닌 한글에 첨기된 것이나, 발음을 표기했다는 점에서 차자 표기 전통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히히지”, “히르러”에서는 ‘닛-, 니르-’와 같은 어간 전체나 어간의 두음을 약체자를 활용해 표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반대로 문법 요소에 해당하는 ‘-지’, ‘-려’ 등의 부분이 한글로 표기되었다). 특히 지면에 따라 같은 어휘라도 어떤 곳에서는 한글로, 어떤 곳에서는 구결로 표기되어 자유롭게 사용되는 모습도 확인된다(‘니르-’와 ‘히르-’).

17) 물론 난외 주석문에도 다른 불서의 구절을 인용하고 구결자를 덧붙인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주로 구결에서 문법 요소 표기에 사용되었던 한자 약체자가 해사본에서는 어휘 표기에도 폭넓게 활용된다. 이러한 표기 방식은 석독구결을 비롯한 기존 차자 표기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표음성이 한층 더 강화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문현수(2023)에서는 음독구결의 표음성에 대해 언급하며, 석독구결에 비해 동음이형 구결자의 수가 늘어나고 다양한 이형태가 적극적으로 표기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해사본의 표음성도 이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다.

이어서 해사본에서 보이는 몇 가지 표기상의 특징을 정리해 보도록 한다. 앞서 어간이나 어절의 일부를 한자 약체자를 활용해 표기한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 그중에서도 ‘ㄴ’을 중모음의 표기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추가로 제시해 볼 수 있다.

(14) 매: 머그ㄷ 거ㄴ마ㄴ 서ㄷ워 벼스ㄷ ㄴㄴ <2a>

계ㄴ: 혼자 사지 모ㄷㄴ 거ㄴ지브ㄷ <2a>

제: 彌勒ㄴ ㄴㄴ 번 指 ㄴㄷ 저ㄴ [門]ㄷ □리고 善財 諸□智識ㄴ ㄴㄴ <3a>

왜: 三尊宿ㄴ 道安 因緣ㄴ 公ㄴ 一笑中ㄴ 釋然ノロㄴ 較量ㄴ ㄴㄴ <17b>

(14)에서 볼 수 있듯 어절의 끝위치는 물론 어중에서도 ‘ㄴ’가 사용되고 있는데, 대개 다른 모음의 뒤에 덧붙여 ‘매, 계, 제, 왜’ 정도로 해독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ㄴ’은 주격조사로 표기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두 번째로 중성 표기의 경우 한글로만 사용되는 것과 약체자로만 사용되는 것이 명확하게 나뉜다. 즉, ‘ㄱ, ㄴ, ㄹ, ㅁ, ㅂ, ㅇ’의 경우 한글로만 사용되고 ‘ㄷ, ㅌ’은 약체자로만 사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15) 벼슬: 벼스ㄷ ㄴㄷ <10b>

올의여: 專오ㄷㄴ여 <2a>

허퇴를: 허퇴ㄷㄴ <7b>

주르ㄷ <2b>

이궐: 이궐ㄷ 바 <2a>

갈: 가ㄷㄴ <18a>

(16) 못: 참치 모ㄷㄴ ㄴㄷ <10b>

잇: 잇ㄷ ㄴㄴ ㄴㄴ <11a>

거죽: 거즈ㄷ마ㄷ ㄴㄴ <5a>

앗가: 아ㄷ가 <2b>

(15)에서 어말이나 어중에 등장하는 중성의 ‘ㄴ’을 표기하는 데 ‘ㄷ’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ㄷ’의 경우 ‘허퇴ㄷㄴ[허퇴를]’과 같은 목적격 조사나 ‘이궐ㄷ 바[이궐 바], 가ㄷㄴ[갈 식]’과 같은 관형사형 어미의 표기에 사용되기도 한다.¹⁸⁾ 이어서 (16)에서는 다양한 환경에서 보이는 중성 ‘ㅌ’의 표기를 발견할 수 있다. 반대로 한글이 구결자에 부기되어 발음을 표

18) ‘ㄷ’은 한글 ‘ㄴ’과 유사한 자형으로 표기된다. 아래 사진에서 좌측에 부기된 ‘지난 거즈ㄷ’에서 ‘나’와 ‘스’ 하단의 자형은 비교적 유사하나 전자는 ‘ㄴ’, 후자는 ‘ㄷ’로 판독된다. 이와 유사하게 ‘아ㄷ ㄴㄴ 信ㄴㄴ’ <26a>와 같이 ‘ㄹ’과 ‘ㅁ’ 동시에 쓰이고 있다. ‘ㄴ’에 후행하는 ‘ㄹ’은 대개 ‘ㄴㄹ’(흙)으로 판독된다.

기하는 ‘ノロ’(흠)이나 ‘즈ㅈㅈㅈㅈ(죇죇)’ 예도 확인할 수 있는데 (17)과 같다.

- (17) 흠: 釋然ノロトヽ 較量ㅈㅈㅈㅈ <17b>
 죇: 즈ㅈㅈㅈㅈ거나 치거나 <13a>

이 외에 ‘.’와 ‘ㅡ’는 비교적 정연하게 나뉘어 사용되며 모음조화를 지키는 경향을 보이는데, 일부 혼기도 발견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¹⁹⁾

- (18) ㄱ. 을: 사라ㅈㅈ <5a>, 고흐ㅈㅈ <6b> 을: 그르ㅈㅈ <2b>
 ㄴ. 벼슬: 벼스ㅈㅈ <2a> 벼스ㅈㅈ <24b>

4.3. 음운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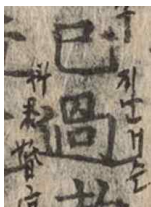
해사본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음운현상으로는 구개음화가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9) ㄱ. 工夫 □ㅈㅈ 科學婚官ㅈ 싱각지 아ㅈㅈㅈ <3a>
 ㄴ. 信根ㅈ 離ㅈㅈ 五十三 善知識ㅈ 參치 모ㅈㅈㅈ ㅈㅈㅈ <3b>
 ㄷ. 悟入處 求ㅈㅈㅈ 거지 知解지위 그 밋기 知解 업다 <21a>
 ㄹ. 부쳐 <20b>, 마ㅈㅈ <17b>
 ㄷ. 심ㅈㅈ ㅈㅈㅈ ㅈㅈㅈ <20b>

해사본에서는 (19ㄱ, ㄴ)와 같이 부정의 ‘-디’가 ‘지, 치’로 통일되어 표기된다. 더불어, (19ㄷ)과 같이 중세 한국어의 ‘-디비’와 관련지어 볼 만한 어형인 ‘지위’도 나타난다.²⁰⁾ 이러한 구개음화는 자주 사용되는 어휘에서도 발견되는데, (19ㄹ)과 같이 ‘부터’를 ‘부쳐’로 표기하거나 ‘가티’를 ‘가치’로 표기한 예가 자주 보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19ㄷ)과 같은 ㅎ구개음화의 예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구개음화를 통해 해사본 구결 및 주석의 기입 시기를 17세기 말 이후로 조정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음운 현상을 제시해 보면 (20)과 같다.

- (20) ㄱ. 至極ノ모ㅈ <5a>, 모ㅈㅈㅈㅈㅈㅈ <11a>
 ㄴ. ㅈㅈ 두위 <18a> ㅈㅈ 두어 <23a>
 ㄷ. 그러구ㅈㅈ <15b>, 저리구ㅈㅈ <26a> 저리구ㅈㅈ <26a>



- 19) 함용병서의 사용도 흔히 보이는데(ㅈㅈ: ㅈㅈ ㅈㅈ ㅈㅈㅈㅈ: ㅈㅈ ㅈㅈ ㅈㅈ), 대체로 경음을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20) ‘-디비’에 대한 통시적 연구인 김종록(1997: 15)에 의하면 18세기에는 ‘-디’나 구개음화된 ‘-지’의 표기가 더 우세하다고 한다. 18세기 들어 구개음화된 ‘-지위’가 발견된다고 하는데 이마저도 『청구영언』의 것이라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해사본의 ‘지위’라는 표기는 특수한 것으로 생각된다.

(20ㄱ)은 원순성 동화의 예로, ‘므’는 모두 ‘모’로 표기되는 경향이 보인다. (20ㄴ)은 반모음첨가의 예가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예로 ‘두어’와 ‘두워’가 모두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20ㄷ)에서는 ‘그러구ㅓ 1’, ‘저러구ㅓ 1’ 등과 같이 고모음이 사용된 것도 보인다.

4.4. 문법 요소

문법 요소는 대체로 근대 한국어에 흔히 나타나는 조사나 어미들이 사용되나²¹⁾ 시기 추정과 관련해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데, “ㅓㅓㅓ 1”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아래 예를 살펴 보도록 한다.

- (21) ㄱ. 教中ㄴㄷ 식ㅓ 조ㅓ고 智ㅓ 조ㅓ지 아ㅓㅓ 1 다스ㅓ 本地 風光 昧却ㅓㅓ 生死ㅓ 1
| ㅓㅓㅓㅓ 藏主ㄴ 計較 安排ㅓ 마ㅓㅓ ㅓㅓ ㅓㅓㅓㅓㅓ 1 <7b>
ㄴ. 文殊ㅓ 福城 東畔ㅓ서 花四說 ㅓㅓ 저ㅓ 五百童子 그 說法 ㅓ르러 가ㅓ 저기 善財童子ㅓ 居首ㅓ 가ㅓㅓㅓㅓ 1 <3a>
ㄷ. 比喻ㅓㅓ ㅓㅓㅓㅓㅓㅓㅓ 1 <8a>

(21)의 “ㅓㅓㅓㅓ 1” 부분은 각각 ‘니르ㅓㅓ다’(21ㄱ), ‘갓ㅓㅓ다’(21ㄴ), ‘닐르ㅓㅓ다’(21ㄷ) 정도로 해독할 수 있다. 이러한 ‘-ㅓㅓ-’에 대해, 고광모(2002: 32)에서는 『일동장유가』에서부터 발견된다고 보았으며, 이병기(1997: 36)를 참조하면 『한중록』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출현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해사본 주석의 기입 시기를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 이후로 내려 볼 수 있다(물론, 반대로 ‘-ㅓㅓ-’의 이른 시기의 용례로 간주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각각은 모두 [추측]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인다.²²⁾

이러한 “ㅓㅓㅓㅓ 1”은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해당 형태로 고정되어 나타나는 한편, ‘-엇-’과 관련해서는 다음 (22)와 같은 표기를 확인할 수 있다.

- (22) ㄱ. 賢人ㅓ 科擧婚官ㅓ 免치 모ㅓㅓㅓ ㅓㅓㅓㅓ 1 <2b>
ㄴ. 信根ㅓ 離ㅓㅓ 그 精勤ㅓ 退失ㅓㅓㅓㅓ 1 <3b>

(22ㄱ)은 ‘햏야시나’에 해당하는 것이다. ‘-어시-’에 대응되는 ‘-엇-’ 표기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나, 많은 경우 (22ㄴ)의 ‘ㅓㅓㅓㅓ 1’와 같이 나타난다. 이는 ‘햏엿다/햏엿다’ 정도로 해독할 수 있을 듯하다.²³⁾ 이 외에 ‘ㅓㅓㅓㅓ 1 [햏얏느], ㅓㅓㅓㅓ 1 [햏얏고]’와 같은 표기도 보인다.

21) 사용된 조사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주격: ㅓ(-이), 처격: ㅓ(-아), ㅓㅓ(-예), 대격: ㅓ(-을), 도구격: ㅓ(-로), 속격: ㅓ(의), 여격: ㅓㅓㅓㅓ(의게), ㅓㅓㅓㅓ(게), 보조사: 1(-은), ㄴ(-도), ㅓ(-사), ㅓㅓ(-곰) 등”. 의 문형에는 다소 의고적인 ‘ㅓㅓ, ㅓ’가 사용된다. 관형사형 어미에는 “ㅓㅓ 1(햏느), ㅓㅓ(햏), ㅓ 1(햏)”의 대립이 발견된다. 이 외에도 자주 등장하는 어미(구조체)로 ‘ㅓㅓㅓ(-이나), ㅓㅓ(-대)/ㅓㅓ(-되), 1ㅓㅓ(-다가), ㅓㅓ(-어), ㅓㅓ(-고), ㅓㅓ(-며), ㅓㅓ(-면), ㅓ 1(-언), ㅓㅓ(-리라), ㅓㅓ(-니라), ㅓㅓㅓ(-노라), ㅓ 1(-어다) 등을 제시할 수 있다.

22) 의미가 다른 사동의 ‘-게 햏야’ 구성도 발견된다. “저기 그르ㅓ 이리 ㅓㅓ ㅓㅓ 有無ㅓ 着지 아ㅓㅓㅓㅓㅓ ㅓㅓㅓ” <21b>

23) 비록 한 건이나 다음과 같은 용례도 확인된다. 해독에 어려움이 있어 본문에 언급하지는 않는다. “保任ㅓㅓ ㅓㅓㅓㅓ 久久ㅓㅓ 本心ㅓ 契合ㅓㅓ 1 이리 大法ㅓ ㅓㅓㅓㅓ 1 이리ㅓㅓㅓㅓㅓ 1”

5. 결론

(생략)

참고문헌

- 고광모(2002), ‘-겠-’의 형성 과정과 그 의미의 발달, 『국어학』39, 국어학회, 27-48.
- 김성주(2020), 『월촌두시』 언해문 연구, 『돈암어문학』38, 돈암어문학회, 301-325.
- 김종록(1997), 중세국어 접속어미 ‘-디비’의 통시적 변천과 기능, 『문학과언어』 19, 문학과언어학회, 29-54.
- 김지완·남권희(2017), 17세기 태인 용장사 간행 불서의 서지적 분석, 『서지학연구』 71, 한국서지학회, 253-296.
- 남권희(1999), 朝鮮 中期부터 舊韓末까지의 口訣資料에 관한 書誌學的 研究, 『고문서연구』 18, 서지학회, 446-508.
- 남풍현(1999), 『구결연구』, 태학사.
- 문현수(2023), 형태소 중심의 석독구결과 형태 중심의 음독구결, 『어문논집』 98, 민족어문학회, 213-244.
- 박진호(2011), 영남대 소장 구결 자료 ‘大慧普覺禪師書’에 대하여, 『민족문화논총』 48,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17-145.
- 배현숙(1990), 大慧普覺禪師書 異本考, 『서지학연구』 5, 한국서지학회, 161-181.
- 손성필·전호진(2018), 16·17세기 ‘사집(四集)’ 불서의 판본 계통과 불교계 재편, 한국사상사학 58, 한국사상사학회, 229-282.
- 신중진(1998), 말음첨기(末音添記)의 생성과 발달에 대하여, 『구결연구』4, 구결학회, 85-114.
- 신중진(2001), 『大慧普覺禪師書』 해설, 『奎章閣所藏 語文學資料』, 서울대학교 奎章閣.
- 안병희(1977), 『중세국어 구결의 연구』, 일지사.
- 玉堂一休 譯註(2023), 『서장: 대혜보각선사서』, 글항아리.
- 이병기(1997), 미래 시제 형태의 통시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전경(2002), 『15세기 불경의 구결 표기법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 용(2023), 차자표기에 나타나는 초성·종성 통용자, 『구결연구』 50, 구결학회, 205-228.
- 이 용(2016), 문자언어로서 한국어의 발생과 발달에 관한 시론적 접근, 『구결연구』 37, 구결학회, 133-163.
- 이흥구(2024), 일사본 『고봉화상선요』의 구결과 부호 연구, 2024년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문.
- 장경준(2021), 법응스님 소장 『법화경』 구결의 어순 표시, 『구결연구』 47, 구결학회, 41-78.
- 장경준(2022ㄱ), 원각사 소장 능엄경 구결의 어순 표시, 『구결연구』 49, 구결학회, 240-270.
- 장경준(2022ㄴ),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능엄경』구결의 어순 표시, 『국어학』 104, 국어학회, 49-86.
- 장윤희(2004), 석독구결 및 그 자료의 개관, 『구결연구』 12, 구결학회, 47-80.
- 정은영(2022),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능엄경』 구결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하정수(2022), 고양 원각사 소장 『능엄경』의 서지(書誌)와 판본(板本) 연구, 『구결연구』 49, 구결학회, 203-238.

〈2분과〉

중세 베트남어에서의 한어 파찰음 성모의 실현 양상 연구

르우티킴옌(한국, 전남대)

목차

1. 서론
 2. 연구 대상 및 방법
 3. 베트남어의 음운 체계의 변화
 4. 중세 베트남어에서의 한어 파찰음 성모의 실현 양상
 5. 결론
- <참고문헌>

1. 서론

본 연구는 『An Nam dịch ngữ(安南譯語)』를 중심으로 중세 베트남어에서 한어 성모 파찰음이 어떠한 양상이 나타났는지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한자문화권에 속한 베트남어 한자음은 중국어의 한자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자가 베트남에 유입되면서 한자음 역시 전파되었다. 그 과정에서 원음을 살리면서도 고대 베트남어 음운 체계에 맞추어 한자음을 수용하여 이로 인해 한자음이 독자적인 변화를 겪는 경우가 있다.

한어 성모 파찰음은 베트남에 유입된 이후 파찰음이 낮선 베트남어 음운 체계에서 동화되지 못하고 강화 또는 약화로 인해 파열음 또는 마찰음으로 변하였다. 따라서 유입 당시 한어의 영향으로 인해 베트남어에서 성모 파찰음이 존재하였으나 현재 베트남어 음운 체계에서 성모 파찰음이 없는 것은 베트남어 음운체계 내부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가령 한어 파찰음인 章母/ʈʂ/에 속한 ‘準-chuẩn’과 같은 경우 베트남어 한자음에서 무성무기 파열음, 한어 파찰음인 昌母/ʈʂʰ/에 속한 ‘昌-xương’과 같은 경우 베트남어 한자음에서 무성무기 마찰음으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역사적 시기별의 음운 변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 관점에서는 파찰음은 파열음과 마찰음의 특징을 모두 가진 자음으로, 조음 과정에서 폐쇄를 형성했다가 완전히 파열시키지 않고 좁은 틈으로 공기를 내보내 마찰을 일으키며 소리가 나는 특징을 가진다. 전통 한어에서도 淸濁의 구별을 통하여 한어의 조음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전통 한어에서 다루는 조음 방법에 따라서는 全淸은 무성무기음, 次淸은 무성유기음, 全濁은 유성음, 不淸不濁은 鼻音·流音·악마찰음에 해당하는 유성음이다. 이 가운데 全淸, 次淸, 全濁이 모두 장애음, 不淸不濁이 공명음에 해당된다. 전통 한어의 특징은 계승하면서 현대 조음방법과 결합하면 무성무기음인 파찰음 精母/ʈʂ/, 莊母/ʈʂʰ/, 照母/ʈʂ/, 무성유기음인 파찰음 淸母/ʈʂʰ/, 初母/ʈʂʰ/, 穿母/ʈʂʰ/, 유성음인 파찰음 從母/dʒ/, 牀母/dʒ/, 神母/dʒ/과

같은 조합이 이루어진다.

베트남어 한자음 체계가 중고음의 음운 체계에서 발전해 온 사실은 분명하다. 고대에서 분류했던 조음 위치나 淸濁(청탁)과 같은 요인만으로 성모 체계를 살펴보면 현대 발음 방법에 초점을 두는 베트남어 한자음 체계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한어의 파찰음은 현재까지 조음 방법이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는 베트남어 한자음 성모 체계에 관한 대표 연구로는 Nguyễn Tài Cẩn(1998)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대부분 조음 위치를 중심으로 살펴 성모 체계의 특징을 다루었다. 그러나 음운론에서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일반적으로 따로 분리시켜서 논의할 수 없듯이 한자음에서도 조음 위치나 조음 방법이 모두 중요한 부분이며 따로 논의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베트남어 한자음의 수용 양상을 조음 방법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n Nam dịch ngữ(安南譯語)』(또는 『Hoa di dịch ngữ(華夷譯語)』)는 15세기에서 16세기경 명나라 중국인들이 편찬한 한월사전(漢越辭典)이다. 출간 후 번역서는 거의 잊혀졌다. 훨씬 후일 일본 학자 Kondo morosighe(近藤重藏)가 그의 저서 『An Nam Kỳ Lược Cáo(安南紀略稿)』에서 이 사전을 처음으로 소개했다. 이 문헌은 베트남에서 중세 베트남어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현재까지 『An Nam dịch ngữ(安南譯語)』를 중심으로 논의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Vương Lộc(1995)에서는 『An Nam dịch ngữ(安南譯語)』를 바탕으로 15세기 베트남어의 음운 변화에 대하여 논의하여 이 시기에 일어난 음운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 외에 Shimizu Masaaki(2008)에서는 역사 음운론적 관점에서 『An Nam dịch ngữ(安南譯語)』와 『An Nam quốc dịch ngữ 安南國譯語』 사이의 표기법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An Nam quốc dịch ngữ 安南國譯語』의 몇 가지 고유한 특징을 제시하고 베트남어의 조성 변화 과정에서의 이 문헌의 위계를 재검토하였다. 이 연구들은 『An Nam dịch ngữ(安南譯語)』에서 나타난 베트남어 고유어의 음운 규칙 및 변화 과정을 위주로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중세 시기 베트남어 음운 체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 자료에서 파찰음으로 표기된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주목하여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베트남어 한자음 성모가 한어의 파찰음 성모에 속한 경우도 그러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음 방법 측면에서 한어의 파찰음 성모에서 나타난 베트남어 한자음 성모가 파열음과 마찰음이 발달한 베트남어 음운 체계에서 어떤 변화 규칙의 영향을 받아 파열음 또는 마찰음으로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들은 15세기 어떻게 표기되었는지 『An Nam dịch ngữ(安南譯語)』를 통하여 밝히고자 한다. 이 문헌을 통하여 베트남어에서 파열음 또는 마찰음으로 변화하게 된 한어의 파찰음은 중세 베트남어에서 나타난 양상에 대한 어떤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지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면 중세 베트남어에서의 한어 파찰음 실현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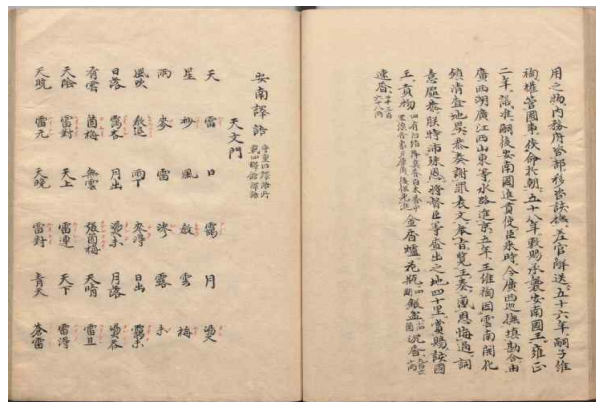
전쟁에서 대부분 사라진 고대 문헌에 비하여 중세 베트남어를 연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중세 문헌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다. 가령 『Quốc Âm Thi Tập(國音詩集)』, 『An Nam dịch ngữ(安南譯語)』, 『An Nam quốc dịch ngữ 安南國譯語』, 『Phật thuyết đại báo

phụ mẫu ân trọng kinh(佛說大報父母恩重經)』 등은 그것이다. 이 가운데 『An Nam dịch ngữ(安南譯語)』는 중세 베트남어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베트남어 학계에서 이 문헌을 통하여 많은 성과가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An Nam dịch ngữ(安南譯語)』를 활용하여 논의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주로 중세 베트남어 자음 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이 자료에서 수록된 어휘 가운데 한어의 파찰음에서 나타난 베트남어 한자음 성모를 가진 것들을 아직 주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An Nam dịch ngữ(安南譯語)』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조음 방법 측면에서 파열음과 마찰음이 발달한 베트남어 음운 체계의 변화 규칙의 영향을 받아 파열음 또는 마찰음으로 변화해 온 한어의 파찰음 성모에서 나타난 베트남어 한자음 성모가 이 문헌에서 어떻게 표기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하여 역사 음운론적 측면에서 어떤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 문헌은 한자를 사용하여 ‘문(門)’이라는 각 주제에 따라 716개의 베트남어 어휘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주제의 각 어휘는 위 줄에 한자로 번역 어휘를 적고, 그 아래 줄에는 해당 베트남어 어휘를 적는다. 여기서 베트남어 어휘의 발음도 정사각형 한자로 표기된다.

<표 1> 『An Nam dịch ngữ(安南譯語)』



『An Nam dịch ngữ(安南譯語)』에는 총 17개의 주제와 716개의 어휘가 수록되어 있다. 이 사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천문문(천체 현상에 관한 52개 어휘); 2) 지리문(지리적 현상에 관한 46개 어휘); 3) 시령문(시간과 날씨에 관한 86개 어휘); 4) 화목문(식물에 관한 59개 어휘); 5) 조수문(동물에 관한 62개 어휘); 6) 궁실문(주거·건축에 관한 25개 어휘); 7) 기용문(생활 도구에 관한 54개 어휘); 8) 인물문(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 관한 58개 어휘); 9) 인사문(인간의 활동에 관한 46개 어휘); 10) 신체문(신체 부위에 관한 47개 어휘); 11) 의복문(의류 및 직물에 관한 31개 어휘); 12) 음식문(음식과 음료에 관한 53개 어휘); 13) 진보문(귀중품과 금속에 관한 30개 어휘); 14) 문사문(문서와 서류에 관한 12개 어휘); 15) 청색문(색상에 관한 14개 어휘); 16) 수목문(숫자와 관련된 13개 어휘); 17) 통용문(방향, 위치, 성질 등을 나타내는 28개 어휘)(Vương Lộc, 1995:2).

이 문헌에서 수록된 한자에 해당하는 베트남어는 고유어인 경우도 있고 한자어인 경우도 있다. 전자는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고유한 언어이며 후자는 한어의 파찰음 성모에서 나타난

베트남어 한자음 성모를 가진 차용어이다. 이런 것들은 『An Nam dịch ngữ(安南譯語)』에서 모두 한어의 음가로 표기되어 있다.

<표 2> 『An Nam dịch ngữ(安南譯語)』에서 나타난 베트남어의 주음 방법 예시

베트남 고유어			베트남 한자어		
한어	베트남어	주음 기호	한어	베트남어	주음 기호
³⁵⁷ 傘	tán	旦/tan/	⁶⁹⁶ 左(精)	tả	雞/tsa/
⁵⁸⁵ 腥	tanh	丁/tin/	⁵⁶⁴ 皂(從)	tạo	遭/tsau/
³ 月	tháng	燙/t'ap/	¹³⁵ 秋(清)	thu	初/tɕ'u/
⁴⁴⁷ 見	thấy	體/t'i/	³⁷³ 鞦(清)	thu	初/tɕ'u/
²²⁷ 兒	trái(*<blái)	勒/lei/	⁵⁸⁴ 鮓(莊)	trá	卓/tɕau/
⁵¹² 太陽	trán(*<tlán)	爛/lan/	³³⁸ 棹(澄)	trác	仄/tɕau/
⁵⁸⁰ 粥	cháo	皂/tsau/	⁵⁶¹ 枕(章)	chăm	針/tɕim/
⁸⁰ 流	cháy	載/tsai/	⁶⁴² 殊(章)	chu ₁	主/tɕy/

위의 <표 2>를 보면 베트남어 고유어와 베트남 한자어 즉 한어의 파찰음 성모에서 나타난 베트남어 한자음 성모를 가진 차용어는 모두 한어 음가로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간에 차이가 보인다. 예를 들어 같은 현대 베트남어 t는 이 시기에 고유어인 경우는 한어의 /t/로 표기되는데 차용어인 경우는 /ts/로 표기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중세 베트남어 음운 체계를 살피기 위하여 한어의 음가로 표기된 베트남 고유어에만 중점에 두어 논의했으나 한어 파찰음 성모에서 나타난 베트남어 한자음 성모가 한어의 파찰음으로 표기된 경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An Nam dịch ngữ(安南譯語)』를 통하여 이 시기에 나타난 베트남어의 음운 변화 규칙을 설명하였으나 한어 파찰음 성모에서 나타난 베트남어 한자음 성모가 한어의 파찰음으로 표기된 경우를 대부분 고대 베트남어의 흔적이라고 보았다. 가령 현대 베트남어의 t는 이 시기에 한어의 /s/, /ʃ/, /ts/, /ts'/, /tɕ/로 표기된 것은 고대의 무성 경구 마찰음 *s(> t)가 여전히 존재한 것으로 보았다.

『An Nam dịch ngữ(安南譯語)』를 살펴본 결과 베트남어 고유어를 제외하고는 한어의 파찰음 성모에서 나타난 베트남어 한자음 성모가 한어의 파찰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것들은 이 시기에 한어의 파찰음 성모가 중세 베트남어에서 나타난 양상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n Nam dịch ngữ(安南譯語)』에서 수록된 한어의 파찰음 성모가 베트남어 한자음 성모에 초점에 두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이 문헌에서 나타난 베트남어 한자음 성모가 한어의 파찰음 성모에 속한 것을 추출하여 베트남어의 파열음에 대응하는 한어의 파찰음과 베트남어의 마찰음에 대응하는 한어의 파찰음으로 분류한 후 중세 시기에 이것들은 문헌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에 대하여 다음 3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3. 베트남어의 음운 체계의 변화

베트남어는 단지 한어의 퇴화된 일부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베트남어는 한어가 베트남에 유입되기 전에 오래된 역사를 가지며, 오스트로아시아어족(Ngữ hệ Nam Á)의 몬-크메르어(Ngữ tộc Môn-Khmer)파에 속한 언어로서, 비엣-므엥어군(Nhóm Việt-Mường)에 속하며 이 어군에 속한 언어들과는 가까운 관계에 있다. 이로 인해 초기

비엠티어(tiếng tiền Việt-Mường) 형태가 베트남어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Trần Trí Dõi, 2011:46). 한어는 베트남에 유입된 이후 베트남어 음운 체계의 영향을 받아 이로 인해 한자음이 독자적인 변화를 겪었다. 그 과정에서 한어의 파찰음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베트남어 음운 체계를 통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베트남어 음운 체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베트남어 시대 구분에 대한 이견이 있다. 이 견해들은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베트남어 시대 구분

H. Maspéro(1912)	Nguyễn Tài Cẩn(1998)	Trần Trí Dõi(2011)
① Proto-Annamite	① Proto-Annamite (VIII, IX)	① Mon-Khmer
② Annamite archaïque (X)	② Annamite archaïque (X, XI, XII)	② Proto Viet-Muong (BC ±1000년 ~ AC I)
③ Annamite ancien (XV)	③ Annamite ancien (XIII~XVI)	③ Archaic Viet-Muong (I ~ VIII, IX)
④ Annamite moyen (XIII)	④ Annamite moyen (XVII, XVIII, XIX 초기)	④ Viet-Muong commun (X ~ ±XIV)
⑤ Annamite moderne (XIX)	⑤ Annamite early moderne (프랑스 식민지 시대)	⑤ Old Vietnamese (XIII 말엽 ~ XV)
	⑥ Annamite moderne (1945 ~ 현재)	⑥ Middle Vietnamese (XV ~ XIX)
		⑦ Modern Vietnamese (XIX ~ XX)

위의 <표 3>를 보면, 연구자에 따라 베트남어 시대 구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 Maspéro(1912)에서는 『An Nam dịch ngữ(安南譯語)』, 『Từ điển Annam - Lusitan - Latinh』¹⁾등과 같은 문헌이 등장한 시기에 의하여 베트남어 시대를 구분하였다. Nguyễn Tài Cẩn(1998)에서는 한자(Chữ Hán), 쯔놈(Chữ Nôm), 쯔구억응우(Chữ Quốc ngữ) 등의 언어적 상황에 따라 베트남어 시대를 구분함으로써 베트남어 역사를 뚜렷이 반영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일반적으로 후기, 즉 베트남어가 기록되었거나 이를 기록할 수 있는 문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문자나 문헌이 없는 시기의 특징을 드러내기 어렵다.

이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Trần Trí Dõi(2011)에서는 Pre-language reconstruction의 원칙에 따라 베트남어의 역사를 7단계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베트남어의 역사를 7단계로 구분하는 목적은 시기별 베트남어의 음운 변화 규칙에 초점을 두는 데 있다. 한어가 베트남어에 유입된 이후 베트남어의 음운 체계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게 된다. 이 변화들을 이해하려면 음운 변화 규칙으로부터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Trần Trí Dõi(2011)에서 Pre-language reconstruction의 원칙에 따라 베트남어의 역사를 7단계로 구분하는 것은 시기별 베트남어에서 음운 변화 규칙에 따라 한어의 수용 양상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Trần Trí Dõi(2011)에서 제시한 베트남어 시대 구분에 따라 고대 베트남어 음운 체계에서 일어난 음운 변화를 적용하되 중세 베트남어에서의 한어의 파찰음 수용 양상을 한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Từ điển Annam - Lusitan - Latinh』은 선교사이자 언어학자인 A. de Rhodes가 편찬하고 1651년 로마에서 출판한 Annam - Lusitan - Latinh의 3개 언어 사전이다. 이 사전에는 주로 쯔구억응우(Chữ Quốc ngữ) 8,000개 항목을 수록하며 추가로 그 당시 쯔구억응우(Chữ Quốc ngữ)의 문법과 발음 방법까지 제시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기 비엣-므엉어(Proto Viet-Muong) 형태가 베트남어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초기 비엣-므엉어(Proto Viet-Muong)는 베트남어 역사에서 첫 번째 발전 단계로 볼 수 있으며, 비엣-므엉어군의 proto language이라고 할 수 있다(Trần Trí Dõi, 2011:130). 따라서 베트남어 역사에서 어떤 특정 언어 현상의 변화를 고려할 때 초기 비엣-므엉어(Proto Viet-Muong)로부터 연구해야 한다. 초기 비엣-므엉어(Proto Viet-Muong)의 음운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4> Proto Viet-Muong의 자음 체계(Trần Trí Dõi, 2011:136)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양순	치조	경구개	연구개	성문
유기음 파열음	*p ^h	*t ^h		*k ^h	
무성 파열음	*p	*t	*c	*k	*ʔ
유성 파열음	*b	*d	*ʃ	*g	
전비강 자음/인두 자음	*ʔb	*ʔd	*ʔʃ	*ʔg	
비음	*m	*n	*ɲ	*ŋ	
측음과 탄음	*w	*r			
		*l			
무성 마찰음		*s	*s'		*h
유성 마찰음		*z	*j		

<표 4>를 보면, 이 시기에는 베트남어에서는 파열음, 마찰음, 비음, 유음이 존재하지만 파찰음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파열음과 마찰음 모두에서 무성음과 무성:유성의 이지적 대립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나 파열음인 경우 Viet-Muong commun 시기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무성:유성의 이지적 대립 관계가 무성음화 과정으로 인해 사라졌다. 또한 Proto Viet-Muong 시기의 어두 음절인 Cv를 가진 CvCVC 구조는 Archaic Viet-Muong 시기에는 어두 음절 탈락의 경향으로 인해 어두 음절인 Cv가 없어지면서 둘째 음절인 C가 마찰음화 현상으로 인해 일련의 초성 마찰음인 *v, *z, *j(*z), *ʃ가 나타났다²⁾.

<표 5> Viet-Muong commun의 자음 체계(Trần Trí Dõi, 2011:153)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양순	치조	경구개	연구개	성문
유기음 파열음	*p ^h	*t ^h		*k ^h	
무성 파열음	*p>ɸ	*t>d	*c	*k	*ʔ
전비강 자음	*ʔb	*ʔd	*ʔʃ	*ʔg	
유성 마찰음	*v	*z	*j(*z)	*ʃ	
비음	*m	*n	*ɲ	*ŋ	
측음과 탄음	*w	*l	*r		
무성 마찰음		*s	*s'		*h

2) 이 시기의 베트남어 역사에서 초성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어두 음절, 다른 하나는 둘째 음절이다. 어두 음절은 단음절어 CVC의 초성 자음이었고, 둘째 음절은 이음절어 CvCVC의 주음절의 초성 자음이었다. CvCVC 구조에서의 주음절의 초성 자음은 C이고 이들은 베트남어-므엉어 어두 음절인 Cv가 없어져서 생긴 마찰음이다(M. Ferlus, 1981:22). 이에 따르면 v는 입술 파열음 *p, *b의 쌍으로 인해 발생하고, d/gi는 설단 파열음 *t, *d의 쌍으로 인해 발생하고, 베트남어 gi/d는 설단 파열음 *c, *ʃ의 쌍으로 인해 발생하고 베트남어 g/gh는 연구개 파열음 *k, *g의 쌍으로 인해 발생하고, r는 마찰음 *s, *z의 쌍으로 인해 발생하였다(Trần Trí Dõi, 2011:145).

Viet-Muong commun 시기에는 무성음화(vô thanh hóa) 과정으로 인해 *p/*b > *p, *t/*d > *t, *c/*ʃ > *c, *k/*g > *k의 변화가 일어났다. Old Vietnamese 시기에 들어오면서 *p > *b, *t > *d의 유성음화 현상이 일어나 무성음 *p, *t가 내파음 *b, *d로 변화하였는데 현재까지는 이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 변화로 인해 *p, *t의 자리가 비어있는데 이 가운데 조음 위치가 가까운 마찰음 *s 일부가 *t의 자리에 대체하였다. 또한 전비강 자음은 Viet-Muong commun 시기까지는 존재하였다가 그 이후에 *ʔb>*m, *ʔd>*n, *ʔʃ>*ɲ, *ʔg>*ŋ의 비음화 과정이 이루어져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Middle Vietnamese 시기에는 음절의 급진적인 단음절화 경향으로 인해, Proto Viet-Muong 시기의 일부 복성모와 이음절이었던 단어가 축약된 일부 복성모는 이 시기에 단음절 초성으로 변형되었다(*tl, *bl > tr, *ml > l, nh). 이 복성모들은 17세기까지 존재하며 『Từ điển Annam - Lusitan - Latinh』에서 많이 등장하였다.

베트남어 음운 체계에서는 가장 혼란에 빠진 부분은 바로 파찰음의 존재 여부에 관한 것이다. Vương Lộc(1995:24)에 따르면 15세기에는 ch는 경구개 파찰음으로 tr는 권설 파열음으로 베트남어 자음 체계에서 나타났다.

<표 6> 15세기의 베트남어 자음 체계(Vương Lộc, 1995:24)

양순	치조	권설	경구개	연구개	성문
	t /t/	tr /t/	ch /tʰ/	k, c, q /k/	/ʔ/
ph /pʰ/	th /tʰ/	s /s/	x /ʃ/	kh /kʰ/	h /h/
b /b/	đ /d/				
(b /β/	d /ð/		gi /dʒ/	g /ɣ/	
u, v /w, v/	l /l/	r /ʒ/			
m /m/	n /n/		nh /ɲ/	ng, ngh /ŋ/	
복성모: *pl, *bl, *ml, *tl, *kl, *phl, *khl					

그러나 17세기의 베트남어 자음 체계에서는 이 두 음가는 다른 모습이 보인다. Gregerson(1969)에 따르면 17세기에는 ch는 경구개 파열음 /c/로, tr/tʰ는 권설 파찰음 /tʃ/로 존재하였다.

<표 7> 17세기의 베트남어 자음 체계(Gregerson, 1969)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양순 - 순치		치경	권설	경구개	연구개	성문
파열음	b /b/*		d /d/	đ /d/		g, gh /g/	
	(p /p/)		t /t/		ch /c/	k, c, q /k/	/ʔ/
	ph /pʰ/		th /tʰ/			kh /kʰ/	
비음	m /m/		n /n/		nh /ɲ/	ŋ(ng/ngh)	
마찰음	(b /β/	v /v/					
				s /s/	x /ʃ/		h /h/
파찰음				tr /tʃ/	gi /dʒ/		
설측음			l /l/				
전동음			r /r/				

17세기의 베트남어 자음 체계는 15세기의 베트남어 자음 체계와의 차이가 있다. 이 가운데 베트남어 음운 체계에서 나타난 파찰음이 15세기와 17세기 사이에 서로 혼란한 모습이 보인다. 현대 베트남어에서는 tr와 ch가 모두 파열음으로 변화하게 되어 이 혼란 현상이 본

격적으로 끝났으나 베트남어의 역사 음운론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이 음가들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Proto Viet-Muong 시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변화 과정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화들은 현대 베트남어 음운 체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현대 베트남어 음운 체계에 대하여 많은 이견이 있다. Đoàn Thiện Thuật(1976:163)에서는 베트남어 자음 체계가 22개가 있으며 /b, m, f, v, t, t', d, n, z, ʒ, s, ʃ, c, t, ɲ, l, k, ɣ, ɳ, ɤ, h, ʔ/이라고 주장하였다. 허용(2012:225)에서는 베트남어 자음 체계에 'w'(활음)와 'j'(활음)를 추가하여 /b, m, f, v, t, t', d, n, z, ʒ, s, ʃ, c, t, ɲ, l, k, ɣ, ɳ, ɤ, h, ʔ, w, j/ 총 24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장선미 외(2017:299)에서는 베트남어 자음 체계에 'p'(양순음)와 'w'(활음)와 'j'(활음)를 추가하여 /p, b, m, f, v, t, t', d, n, z, ʒ, s, ʃ, c, t, ɲ, l, k, ɣ, ɳ, ɤ, h, ʔ, w, j/ 총 25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가운데 본 연구는 Đoàn Thiện Thuật(1976:153)에서 제시한 현대 베트남어 음운 체계가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w'와 'j'와 같은 음소만을 명확히 가리키는 데에는 '반모음'이 더 적절해서 자음 체계에서 제시하지 않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이다. 둘째, 'p'는 양순음이지만 오직 음절말 위치에서만 나타나며 *p > *b의 변화로 인해 *p의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이다. 'p'(양순음)와 'w'(활음)와 'j'(활음)을 제외하면 베트남어 자음 체계가 총 22개가 있다. Đoàn Thiện Thuật(1976:153)에서 제시한 현대 베트남어 음운 체계는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현대 베트남어의 자음 체계(Đoàn Thiện Thuật, 1976:153)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양순	치조		경구개	연구개	성문
				치경	권설			
파열음	장애음	무성 유기		t ^h				
		무성 무기		t	t	c	k	ʔ
		유성	ɸ	d				
공명음		비음	m	n		ɲ	ŋ	
마찰음	장애음	무성	f	s	ʃ		χ	h
		유성	v	z	ʒ		ʁ	
공명음		유음		l				

이처럼 현대 베트남어에서 파열음과 마찰음이 존재하는데 파찰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고대 베트남어 음운 체계의 특징이며 한어의 성모 체계와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어가 베트남어에 유입된 이후에 파열음과 마찰음이 발달한 베트남어 음운 체계에서 역사 음운론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어의 파찰음이 어떤 음운 변화 규칙에 따라 변하여 현대 베트남어 음운 체계에서와 같이 파열음과 마찰음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 이 과정에서 중세 베트남어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다음 4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4. 중세 베트남어에서의 한어 파찰음 성모의 실현 양상

4.1. 베트남어에서의 한어 파찰음 성모의 변화 양상

앞에서 제시한 고대 베트남어 음운체계는 베트남 고유어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며 한어가 베트남에 유입된 이후 베트남어의 음운 변화 규칙에 따라 일정한 변화를 겪었다. 베트남어 한자음은 주로 8~9세기에 당나라 시대의 음운 체계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Nguyễn Tài Cẩn(2000:146)에서는 이 시기의 한어 성모 체계를³⁾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9> 8~9세기 한어의 성모체계(Nguyễn Tài Cẩn, 2000:146)

	全清(전청)	次清(차청)	全濁(전탁)	次濁(차탁)
非組	非 f	敷(f') f	奉 v	微(m>) w
幫組	幫 p	滂 p ^c	並 b	明 m
端組	端 t	透 t ^c	定 d	泥 n
來組				來 l
知組	知 ʈ	徹 ʈ ^c	澄 ɖ	娘 ŋ
精組	精 ts	清 ts ^c	從 dz	
	心 s		邪 z	
莊組	莊 ʈʂ	初 ʈʂ ^c	崇 ɖʂ	
	生 ʂ		俟 ʐ	
章組	章 tʂ	昌 tʂ ^c	船 ɖʂ	
	書 ʂ		常 ʐ	
日組				日 ɳ
見組	見 k	溪 k ^c	群 g	疑 ŋ
	影 ʔ			喻(Oj>) j
	曉 x		匣 ɣ	雲(vj>) Oiw xi

이 한어 성모 체계는 고대 베트남어의 역사적 음운 변화 규칙의 영향을 받아 변화되어 오늘날의 베트남어 한자음 성모 체계가 형성되었다. 한어 성모 체계 가운데 파찰음이 고대 베트남어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게 되었다. Nguyễn Tài Cẩn(2000)에서는 조음 위치 측면에서 齒音(치음)의 변화 양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0> 조음 위치에 따른 齒音(치음)의 변화 양상(Nguyễn Tài Cẩn, 2000)

한어			변화 과정				베트남어
齒頭音 (치두음)	精(정)	ts	精(정) > 心(심) > t		ts → s → t		t/t/
	淸(청)	ts ^c	淸(청) > 透(투) > t ^c		ts ^c → t ^c		th/t ^h /
			淸(청) > 昌(창) > ʃ		ts ^c → t ^c → t ^c → ʃ		x/s/
	從(종)	dz	從(종) > 精(정) > 心(심) > t		dz → ts → s → t		t/t/
齒上音 (치상음)	莊(장)	tʂ	莊(장) > 知(지) > ʈ		tʂ → ʈ		tr/t/
	初(초)	tʂ ^c	初(초) > 徹(철) > ʂ		tʂ ^c → t ^c → ʂ		s/ʃ/
			初(초) > 徹(철) > 昌(창) > ʃ		tʂ ^c → t ^c → t ^c → ʃ		x/s/
	崇(송)	dʒ	崇(송) > 生(생) > ʂ		dʒ → ʂ		s/ʃ/
正齒音 (정치음)	章(장)	tʂ	章(장) > c		tʂ → t//c → tʂ → c		ch/c/
	昌(창)	tʂ ^c	昌(창) > ʃ		tʂ ^c → t ^c → ʃ		x/s/
	船(선)	dʒ	船(선) > 書(서) > 透(투) > t ^c		dʒ → ʃ → t ^c		th/t ^h /

이처럼 조음 위치에 따라 한어의 齒音(치음)에 속한 齒頭音(치두음), 齒上音(치상음), 正

3) Nguyễn Tài Cẩn(2000:146)에서는 한어 성모 체계의 조음 위치를 구별하기 위하여 특수 부호를 사용하였다.

齒音(정치음) 성모의 변화 양상을 살필 수 있으나 고대에서 분류했던 조음 위치나 淸濁(청탁)과 같은 요인만으로 성모 체계를 살펴보면 현대 조음 방법에 초점을 두는 베트남어 한자음 체계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음 위치가 아닌 조음 방법에 초점을 두어 베트남어 한자음 체계를 살피는 것은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통 한어의 특징은 계승하면서 현대 조음 방법과 결합하면 무성무기음인 파찰음 精母/ts/, 莊母/tʃ/, 照母/tɕ/, 무성유기음인 파찰음 淸母/tsʰ/, 初母/tʃʰ/, 穿母/tɕʰ/, 유성음인 파찰음 從母/dz/, 牀母/dʒ/, 神母/dz/과 같은 조합이 이루어진다. 이 한어의 파찰음들은 조음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11> 조음 방법에 따른 한어 파찰음 성모의 변화 양상

한어			변화 과정		베트남어	
파찰음	精(정)	ts	精(정) > 心(심) > t	ts → s → t	파열음	t/t/
	從(중)	dz	從(중) > 精(정) > 心(심) > t	dz → ts → s → t		th/tʰ/
	淸(청)	tsʰ	淸(청) > 透(투) > tʰ	tsʰ → tʰ		tr/t/
	船(선)	dʒ	船(선) > 書(서) > 透(투) > tʰ	dʒ → ʃ → tʰ		ch/c/
	莊(장)	tʃ	莊(장) > 知(지) > t	tʃ → t	마찰음	x/s/
	章(장)	tʃ	章(장) > c	tʃ → tʰ/c → tʃ → c		s/ʃ/
	淸(청)	tsʰ	淸(청) > 昌(창) > ʃ	tsʰ → tʰ → tʰ → ʃ		x/s/
	初(초)	tʃʰ	初(초) > 徹(철) > ʃ	tʃʰ → tʰ → ʃ		s/ʃ/
			初(초) > 徹(철) > 昌(창) > ʃ	tʃʰ → tʰ → tʰ → ʃ		s/ʃ/
	崇(송)	dʒ	崇(송) > 生(생) > ʃ	dʒ → ʃ		x/s/
	昌(창)	tʃʰ	昌(창) > ʃ	tʃʰ → tʰ → ʃ		x/s/

위의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精(정), 從(중), 淸(청), 船(선), 莊(장), 章(장)은 조음 방법에 따라 강화로 인해서 베트남어 음운 체계에서 파열음으로 변화하였다. 반면에 조음 방법에 따라 약화로 인해서 베트남어 음운 체계에서 마찰음으로 변한 것들은 淸(청), 初(초), 崇(송), 昌(창)이 있다. 이 한어 파찰음들은 베트남어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 규칙에 따라 변화하게 되었다.

파열음 t에 대응하는 精母(정모)와 從母(중모)는 모두 베트남어 음운 체계의 s > t의 변화 과정에 거쳐 한어의 파찰음이 베트남어에서 무성무기음인 파열음이 된 것이다. 精母(정모)는 파찰음이 낮선 베트남 음운체계에서는 약화로 인해 心母(심모)에 합류된 후 /s/로 발음되었다가 /t/로 바뀌었다. 그러나 유성무기음인 파찰음 /dz/으로 무성무기음인 파찰음 精母(정모)와의 유무성 대립 관계를 가진 從母(중모)는 無聲音化(무성음화) 현상이 일어난 후 유무성의 대립의 약화로 인해 소실되어 유무성의 구별이 없어진 것이다. 결국 從母(중모) > 精母(정모) > 心母(심모) > t의 변화 과정을 거쳐 從母(중모)가 精母(정모)와 유무성의 구별 없이 파열음 t로 변화하게 된다.

파열음 th에 대응하는 淸(청)와 船(선)은 변화 결과가 같지만 변화 원리는 서로 다른 양상이 보인다. 베트남어 한자음에서는 淸母(청모)가 th/tʰ/로 반영된 것은 일반적이다. 그러나 th/tʰ/는 淸母의 직접적인 변화 결과가 아니다. 무성유기음인 透母(투모)에 합류하여 tsʰ > tʰ(= tʰ = tʰ)의 과정에 거친 후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유성무기음인 船母(선모)는 無聲音化(무성음화) 과정에 거친 후 유무성 대립 관계를 가진 무성무기음인 章母(장모)에 합류하지 않고 무성무기음인 마찰음 書母(서모)에 합류하였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透母(투모)에 또 합류하여 ʃ > tʰ의 파열음화 과정을 통하여 무성 파

열음 th/tʰ로 발음하게 되었다. 이는 베트남어 음운 체계의 *s' > t'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파열음 tr에 대응하는 莊母(장모)는 무성유기음인 파찰음으로 베트남어 음운 체계에서 존재할 수 없으며 知母(지모)와 유사한 조음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知母(지모)에 합류하였다. 결국 이 한어의 성모는 ts > t의 변화 과정을 통하여 tr/t로 반영된 것이다. 이 한어의 성모에서 나타난 파열음 tr/t는 고대로부터 존재해 온 베트남어 고유어에서의 *pl, *bl, *tl, *kl 복성모에서 유래한 파열음 tr/t와 유사하나 이들의 변화 원리는 서로 구별된 것으로 보인다.

파열음 ch에 대응하는 章母(장모)는 베트남에 유입된 이후 독자적인 변화 경향으로 유입되며 독자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Nguyễn Tài Cẩn(2000:207)에 따르면 한어의 무성음 성모는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베트남어에 유입되지 않고 해당 유성음 성모와의 쌍으로 만들어지면서 합류를 통하여 같은 음가로 변화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한어의 /k/와 /g/는 모두 베트남어의 k로, 한어의 /p/와 /b/는 모두 베트남어의 b로, 한어의 /t/와 /d/는 모두 베트남어의 d로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章母(장모)는 그 원리로 변화하지 않고 ts → t/c → ts → c의 변화 과정에 의하여 파열음 ch에 대응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 성모는 베트남어에 유입된 이후 Proto Viet-Muong 시기로부터 존재해 온 경구개 파열음 *c에 합류되면서도 변이음 t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음운 측면에서 *c가 t와 가까우며 tsᶜ > tᶜ, tsᶜ > tᶜ, tsᶜ > tᶜ의 변화 원리에 따라 *c > t의 변화도 일어나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베트남어 한자음에서 淸母(청모)가 일반적으로 th에 대응한다. 그러나 이 외에 무성 마찰음 x/s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 무성 마찰음 x/s에 대응하는 淸母(청모)가 透母(투모)에 합류한 후 昌母(창모)에 합류하였다. 즉 tsᶜ > tᶜ > tᶜ > s의 변화가 일어난 후 한어의 파찰음이 tᶜ > s의 마찰음화 과정의 영향을 받아 베트남어에서 마찰음 x/s로 변화하게 되었다. tᶜ > tᶜ의 변화에 대하여 (Nguyễn Tài Cẩn, 2000:210)에서는 /tᶜ/와 /tᶜ/는 서로 가까운 조음 위치에 있으므로 tᶜ > tᶜ의 변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무성 마찰음 s/s에 대응하는 파찰음 初母(초모)는 徹母(철모)에 합류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淸母(청모)가 透母(투모)에 합류한 것처럼, 즉 tsᶜ > tᶜ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같은 조음 위치에서 初母(초모)가 徹母(철모)에 합류하여 tsᶜ > tᶜ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다만 tsᶜ > tᶜ의 변화와 달리 tsᶜ > tᶜ의 변화가 이루어진 이후 tᶜ > s의 마찰음화 현상이 발생하여 初母(초모)가 마찰음 s/s에 대응하게 되었다. 한편 일부 初母(초모)가 徹母(철모)에 합류한 후 tᶜ > s의 변화의 길로 가지 않고 昌母(창모)에 합류한 후 tᶜ > s의 변화 과정을 통하여 x/s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初母(초모)가 徹母(철모)에 합류하느냐 昌母(창모)에 합류하느냐에 따라 그 변화 양상이 다르다. 여기서 적용된 tᶜ > s의 변화 규칙이 tᶜ > s의 변화와의 병행 관계가 있다. 즉 tᶜ > s의 변화가 일어나면 tᶜ > s의 변화도 이에 따라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Nguyễn Tài Cẩn, 2000:210). 따라서 음운 변화 규칙 측면에서는 tᶜ > s의 변화 원리는 tᶜ > s의 변화 원리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성음 파찰음 從母(종모)인 경우 無聲音化(무성음화) 과정에 거친 후 무성무기 파찰음 精母(정모)에 먼저 합류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무성무기 마찰음 心母(심모)에 합류하여 파열음 t/t로 반영하는데 무성 마찰음 s/s에 대응하는 崇母(송모)는 다른 양상이 보인다. 이 성모는 無聲音化(무성음화) 과정을 거친 후 무성무기 파찰음 莊母(장모)에 합류하지 않고 무성무기 마찰음 生母(생모)에 합류하여 마찰음 s/s로 발음하게 되었다.

무성 마찰음 x/s에 대응하는 昌母(창모)는 베트남어 한자음에서 tsᶜ > tᶜ > s의 변화 결

파이다. 파찰음이 베트남에 유입된 후에 일반적인 추세를 따라 간소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다. 즉 $ts^c > t^c$, $tʃ^c > t^c$ 의 음운 변화 규칙에 따라 $ts^c > t^c$ 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베트남어 음운 체계에서는 $s > t^c$ 의 파열음화 과정이 끝나기 시작하면 반대로 마찰음화 현상이 나타나 $t^c > s$ 의 변화가 시작하게 된다(Nguyễn Tài Cẩn, 2000:209~210). 이로 인해 昌母(창모)는 $t^c > s$ 의 변화 과정에 거쳐 마찰음화 현상으로 x/s로 반영하게 되었다. 특이한 것은 淸母(청모)와 初母(초모)도 昌母(창모)에 합류한 후 $t^c > s$ 의 변화를 통하여 무성 마찰음 x/s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베트남어에서 한어 파찰음 성모가 다양한 음운 변화에 의하여 조음 방법에 따라 파열음 또는 마찰음으로 변화하였다. 그 변화 과정에서 중간 단계 즉 15세기 문헌인 『An Nam dịch ngữ(安南譯語)』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났는지 다음과 같이 지시하고자 한다.

4.2. 조음 방법에 따른 한어 파찰음의 15세기 양상

4.2.1. 파열음에 대응하는 한어 파찰음의 15세기 양상

1) 파열음 t에 대응하는 精母(정모) / 從母(종모)의 15세기 양상

精母(정모)는 파찰음이 낱선 베트남 음운체계에서는 精母(정모)가 약해져서 心母(심모)에 합류된 후 /s/로 발음되었다가 파열음 /t/로 변화하였다. 즉 파찰음이었던 精母(정모)는 고대 베트남어의 $s > t$ 의 변화 과정을 거쳐 베트남어에서 무성무기음인 파열음이 된 것이다.

이 과정은 고대 베트남어에서 $*s > t$ 의 파열음화 현상과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Old Vietnamese 시기에는 $*t > d$ 의 내파음화 현상이 일어나서 $*t$ 의 위치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조음 위치가 같은 마찰음 $*s$ 일부가 파열음화 현상으로 인해 그 자리에 대체하였다. 이에 따라 이 시기에 $*s$ 발음을 가졌던 일부 단어들이 이 시대에 주요 파열음 t($< *s$)로 바뀌었다(Trần Trí Dõi, 2011:160). 15세기 무렵에 이르러 $*s$ 는 무성 파열음 t로 변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과정은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 걸쳐 완결되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성모에 속한 한어의 성모들이 t로 변하려면 모두 먼저 $*s$ 로 합쳐지는 단계를 거쳐야 했다(Hoàng Thị Ngọc, 1996:111).

『An Nam dịch ngữ(安南譯語)』에서는 베트남어 초성이 t인 42개의 어휘 가운데 25개가 한어의 t로 표기되어 있다. 즉 이 시기에 $*s > t$ 의 변화가 끝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어의 /ts/로 표기된 경우가 있다.

<표 12> 『An Nam dịch ngữ(安南譯語)』에서 나타난 ‘t’의 주음 방법

한어	베트남어	주음 기호	한어	베트남어	주음 기호	한어	베트남어	주음 기호
³⁵ 斜	tà	打/ta/	⁶⁹⁶ 左(精)	tả	雜/tsa/	³⁸⁶ 總	tổng	從/ts'yn/
³⁵⁷ 傘	tán	旦/tan/	⁵⁶⁴ 皂(從)	tạo	遭/tsau/	²⁷⁴ 繫	tung	中/tʃun/
⁵⁸⁵ 腥	tanh	丁/tin/	⁶²⁷ 晶(精)	tinh	靜/tsin/	⁶² 牆	tường	整/tʃin/
¹⁸ 晴	tạnh	旦/tan/	¹³¹ 戌(心)	tuất	足/tsy/	⁵⁹³ 椒	tiêu	高/kau/
⁴⁴⁰ 我	tao	刀/tau/	²¹⁸ 子(精)	tử ₁	字/tsl/	⁶⁰⁹ 碎	tấm	屯/t'uen/
⁴⁸⁶ 守	tay	歹/tai/	⁶⁶⁸ 紫(精)	tử ₂	雜/tsa/	⁵⁰⁰ 喉	tàng	桑/saŋ/
¹¹⁸ 辛	tân	登/teŋ/	²⁶¹ 雀(精)	tuốc ₁	爵/tsiau/	¹⁵⁵ 八	tám(<*sám)	滲/sem/

466進	tấn	登/teŋ/	282雀(精)	túôc ₂	爵/tsiau/			
558西	tây ₁	得/tei/	574醬(精)	tường	將/tsiaŋ/			
264犀	tây ₂	堆/tuei/	121子(精)	tý	字/tsɿ/			
298嘶	tê	得/tei/						
353箭	tên	得/tei/						
641銅	tiền	典/tien/						
651信	tín	頂/tiŋ/						
610鱗	to	多/to/						
198蒜	tôi	對/tuei/						
225蘇	tô	多/to/						
213速	tốc	度/tu/						
413○	tôi	堆/tuei/						
19陰	tối	對/tuei/						
280蝦	tôm	端/tuən/						
418善	tốt	鐸/to/						
544絲	tơ	多/to/						
369囊	tơ	堆/tuei/						
126已	tý	的/ti/						

위의 <표 8>에서 베트남어 고유어가 아닌 베트남어 한자음 성모가 t인 9개 어휘(⁶⁹⁶tả (左), ⁵⁶⁴tạo(皂), ⁶²⁷trình(晶), ²¹⁸tử₁(子), ⁶⁶⁸tử₂(紫), ²⁶¹túôc₁(雀), ²⁸²túôc₂(雀), ⁵⁷⁴tường(醬), ¹²¹tý(子))가 한어의 파찰음 /ts/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이 9개 어휘의 성모는 주로 精母(정모) 또는 從母(종모)에서 나타난 것들이다.

從母(종모)는 齒頭音(치두음)에서 유성무기음인 파찰음 /dz/으로 무성무기음인 파찰음 精母(정모)와의 유무성 대립 관계를 가진 음가이다. 그러나 이 성모는 無聲音化(무성음화) 현상이 일어난 후 유무성의 대립의 약화로 인해 소실되어 유무성의 구별이 없어진 것이다. 그 이후에 從母(종모) > 精母(정모) > 心母(심모)의 합류 과정으로 *s > t 변화 과정에 의하여 무성 파열음 /t/로 발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시기에 이 성모들은 베트남어에서 精母(정모)와 從母(종모)의 유무성의 구별 없이 모두 한어의 파찰음 /ts/로 발음되었다고 추정한다. 그 이후에는 이들은 精母(정모)와 從母(종모)의 유무성의 구별 없이 모두 베트남어의 /t/로 표기되었으며 현재까지 변함없이 존재해 왔다.

한편 H. Maspéro(1912)에 따르면 15세기에 *s > t 과정이 기본적으로 완료되었다. Nguyễn Tài Cẩn(2000)에서도 H. Maspéro의 이 견해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An Nam dịch ngữ(安南譯語)』에서 제시한 이 9개 어휘의 주음 방법을 보면 본 연구는 이 시기에는 精母(정모)와 從母(종모)는 아직 파찰음으로 발음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Vương Lộc(1995:32)에서는 현대 베트남어의 t는 이 시기에 한어의 /s/, /ʃ/, /ts/, /ts'/, /tʃ/로 표기된 것은 고대의 무성 경구 마찰음 *s(> t)가 여전히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과연 한어의 /s/, /ʃ/, /ts/, /ts'/, /tʃ/로 표기된 것은 고대의 무성 경구 마찰음 *s(> t)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t는 한어의 /s/, /ʃ/, /ts/, /ts'/, /tʃ/로 표기된 것인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고대 베트남어 자음 체계에서 원래 파찰음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5세기~16세기까지는 精母(정모)와 從母(종모)는 베트남어 음운 체계에서 한어의 파찰음 /ts/로 발음되었다가 그 이후에는 *s > t의 베트남어 음운 변화 규칙의 영향으로 인해 *t(< s)⁴⁾로 변화하게 된 것으로 추정한다.

4) 베트남어에서는 *t > d의 내파음화 현상이 끝난 후에 *s > t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d(< t)는 端母(단모)와 定母(정모)에서 나타나는 것과 달리 *t(< s)는 *s > t의 원리에 의해서 주로 精母(정

2) 파열음 th에 대응하는 淸母(청모)의 15세기 양상

베트남어 한자음에서는 淸母(청모)가 透母(투모)에 합류하여 $ts^c > t^c (= t' = t^h)$ 의 과정을 거친 후 th/t^h 로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어 한자음 성모인 th/t^h 는 淸母의 직접적인 변화 결과가 아니다.

『An Nam dịch ngữ(安南譯語)』에서는 현대 베트남어의 th 는 $/t'/(8개)$, $/s/(6개)$, $/s'/(5개)$, $/ts/(1개)$, $/t_s/(2개)$, $/t_s'/(3개)$ 로 표기되었다.

<표 13> 『An Nam dịch ngữ(安南譯語)』에서 나타난 ‘th’의 주음 방법

한어	베트남어	주음 기호	한어	베트남어	주음 기호	한어	베트남 어	주음 기호
⁵⁸¹ 湯	thang	貪/t'am/	⁵⁴² 紗	the(*<se)	些/sie/	¹⁹⁷ 葱	thông	總/tsuŋ/
³ 月	tháng	燙/t'aŋ/	³⁶⁰ 鑰	then	叁/sam/	¹²⁹ 申	thân	玠/t'sin/
⁴⁴⁷ 見	thấy	體/t'i/	³⁹⁷ 嬌	thím(*<sim)	信/sin/	²⁹⁵ 蛛	thù	主/t'sy/
⁶²⁴ 錫	thiếc	剔/t'i/	⁵⁰⁶ 肉	thịt(*<sit)	席/sin/	⁵⁹¹ 剩	thặng	成/t's'iq/
³⁰⁸ 廳	thính	聽/t'iq/	⁶⁵⁰ 書 ⁵⁾	thư	思/sl/	¹³⁵ 秋	thu	初/t's'u/
²⁵⁵ 兔	thỏ	托/t'au/	⁷⁰⁴ 稀	thưa(<*sũa)	些/sie/	³⁷³ 鞦	thu	初/t's'u/
¹⁰ 吹	thổi	退/t'uei/	⁶³ 城	thành(*<sanh)	省/ŋeŋ/			
³⁸⁹ 通	thông	統/t'uŋ/	⁶⁰² 燒	thieu(*<siêu)	燒/ŋiau/			
			³⁸ 缺	thiếu(*<siêu)	少/ŋiau/			
			¹²⁵ 辰	thìn(*<sìn)	忱/ŋim/			
			⁴²⁶ 匠	thợ(*<sợ)	署/ŋy/			

H. Maspéro(1912)에 따르면 현대 베트남어의 $*t'$ 는 고대의 무성 경구개 마찰음 $*s'$ 에서 유래된다. 15세기~16세기에는 베트남어에서 $*s' > t'$ 의 변화⁶⁾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Vương Lộc(1995:34)에서는 15세기~16세기에 $*s' > t'$ 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현대 베트남어의 th 는 한어의 $/t'/$ 로 표기된 것이며 한어의 $/s/$, $/s'/(5개)$, $/ts/$, $/t_s/$, $/t_s'/(3개)$ 로 표기된 것은 고대의 무성 경구개 마찰음 $*s'(> t')$ 이 여전히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과연 한어의 $/s/$, $/s'/(5개)$, $/ts/$, $/t_s/$, $/t_s'/(3개)$ 로 표기된 것은 고대의 무성 경구개 마찰음 $*s'(> t')$ 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th 는 한어의 $/s/$, $/s'/(5개)$, $/ts/$, $/t_s/$, $/t_s'/(3개)$ 로 표기된 것

모)와 從母(종모)에서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5) 『An Nam dịch ngữ(安南譯語)』에서는 현대 베트남어의 th 는 한어의 $/s/$ 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書母(서모)에서 나타난 것이다. 즉 $s > t'$ 의 변화 과정을 말한다. 고대 베트남어에서 $*s' > t'$ 의 변화는 $*s > t$ 의 변화 과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발생한 현상이다(Nguyễn Tài Cẩn(2000:191~192)). 그러므로 $s > t$ 의 변화가 일어나면 $*s' > t'$ 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15세기 『Phật thuyết đại báo phụ mẫu ân trọng kinh(佛說大報父母恩重經)』에서 $*s$ 를 사용하여 t 를 표기하거나 $*s$ 를 사용하여 t' 를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s$ 를 사용하여 t 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參(sách)을 사용하여 tách을 표기한다. $*s$ 를 사용하여 t' 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柴(sài)를 사용하여 thầy를 표기한다. Hoàng Thị Ngọc(1996:42)에 따르면 이 문헌에서 $*s$ 를 사용하여 t 를 표기하거나 $*s$ 를 사용하여 t' 를 표기하는 현상은 15세기와 16세기 초의 쓰임과 베트남어의 특징이다. 한편 Trần Trí Dõi(2011:160)에 따르면 Old Vietnamese 시기에는 고대 베트남어에서는 $*s > t(*s > tai)$ 의 변화 과정이 이루어졌지만 므엉어(tiếng Mường)에서는 $*s > s$ 또는 $*s > t'(*s > sai/thai)$ 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 두 언어의 차이가 보인다. 따라서 $s > t'$ 의 변화는 므엉어(tiếng Mường)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
- 6) 17세기 중반까지는 『Từ điển Annam - Lusitan - Latinh』에서 베트남어의 th 가 나타난 것으로 $*s' > t'$ 의 변화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

인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An Nam dịch ngữ(安南譯語)』에서는 베트남어 고유어를 제외하면 베트남어 한자음 성모가 th인 경우 透母(투모)는 한어의 /t'/로, 淸母(청모)는 한어의 /ts/, /tʂ'/로 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14> 『An Nam dịch ngữ(安南譯語)』에서 나타난 淸母와 透母의 양상

한어	베트남어	주음 기호	한어	베트남어	주음 기호	한어	베트남어	주음 기호
⁵⁸¹ 湯(透)	thang	貪/t'am/	¹⁹⁷ 葱(淸)	thông	總/tsuŋ/	¹³⁵ 秋(淸)	thu	初/tʂ'u/
³⁰⁸ 廳(透)	thính	聽/t'ing/				³⁷³ 鞦(淸)	thu	初/tʂ'u/
²⁵⁵ 兔(透)	thỏ	托/t'au/						
³⁸⁹ 通(透)	thông	統/t'up/						

위의 <표 14>에서 나타난 어휘는 베트남어 한자음 성모가 th인 것들이다. 한어의 /t'/로 표기된 'thang, thính, thỏ, thông'은 각각 '湯, 廳, 兔, 通'에 해당하며 透母(투모)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湯, 廳, 兔, 通은 15세기~16세기에 한어의 /t'/로 표기되며 현재까지는 변함 없이 th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淸母에서 나타는 葱, 秋, 鞦는 그 당시 한어의 /ts/, /tʂ'/로 표기되었다가 /t'/로 변화하게 되어 th로 발음하게 되었다. 이를 고려하면 15세기~16세기에 淸母는 아직도 파찰음으로 발음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현대 베트남어의 th가 이 시기에 한어의 /s/, /ʃ/, /ts/, /tʂ/, /tʂ'/로 표기된 것은 고대의 무성 경구개 마찰음 *s'(> t')이 여전히 존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시기에 淸母(청모)가 透母(투모)에 아직 합류하지 않았으며 서로 구별된 것으로 보인다.

3) 파열음 tr에 대응하는 莊母(장모)의 15세기 양상

莊母(장모)는 베트남어 한자음에서 무성음인 파열음 tr/t로 발음되고 있다. 莊母(장모)는 무성유기음인 파찰음으로 베트남어 음운체계에서 존재할 수 없으며 知母(지모)와 澄母(정모)와 유사한 조음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澄母(정모)와 함께 知母(지모)에 합류하였다(Nguyễn Tài Cẩn, 2000:194). 이에 따라서 이 한어의 성모는 tʂ > t의 변화 과정을 통하여 무성 파열음 tr/t로 반영된 것이다.

다른 베트남어의 초성과는 달리, tr/t는 Proto Viet-Muong 시기의 *pl, *bl, *tl, *kl 복성모에서 유래한 음가이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Middle Vietnamese 시기에는 음절의 급진적인 단음절화 경향으로 인해, Proto Viet-Muong 시기의 일부 복성모와 이음절이었던 단어가 축약된 일부 복성모는 이 시기에 단음절 초성으로 변형되었다. 이로 인해서 이 시기에 *pl, *bl, *tl(<*kl) > tr의 변화를 통하여 tr/t가 베트남어 음운 체계에서 권설음 조음 위치의 음가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베트남어 고유어에서 나타난 tr/t는 Proto Viet-Muong 시기의 *pl, *bl, *tl, *kl 복성모에서 유래한 것은 분명하다. 다만 베트남어 한자음에서 莊母(장모)에서 나타난 tr/t는 베트남어 고유어처럼 *pl, *bl, *tl, *kl 복성모에서 유래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An Nam dịch ngữ(安南譯語)』에서는 베트남어의 tr는 한어의 /tʂ/(7), /tʂ'/(1), /ʃ/(1), /l/(15), /p/(1), /t/(1), /k/(1)로 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한어의 /l/, /p/, /t/, /k/로 표기된 경우는 베트남어 고유어이며 *pl, *bl, *tl, *kl 복성모에서 나온 것들이다(Vương Lộc, 1995:41). 본 연구에서 검토한 결과, 한어의 /tʂ/(7), /tʂ'/(1), /ʃ/(1)로 표기된

것들 가운데 베트남어 한자음 성모인 tr로 발음되고 있는 ⁵⁸⁴鮐(莊), ³³⁸棹(澄), ²⁹⁵蚰(知), ³⁰²雉(澄), ³⁴中(知)는 莊母(장모), 知母(지모), 澄母(징모)에 속한 어휘들인데 이 시기에 /tʂ/(7), /tʂ'/(1)로 표기되었다.

<표 15> 『An Nam dịch ngữ(安南譯語)』에서 나타난 ‘tr’의 주음 방법

한어	베트남어	주음 기호	한어	베트남어	주음 기호
⁵⁸⁴ 鮐(莊)	trá	卓/tʂau/	⁴¹³ 奴婢	tôi trai(*<blai) tôi gái	堆來堆愛/tuei lai tuei ai/
³³⁸ 棹(澄)	trác	仄/tʂau/	³⁹⁹ 兒	cháu trai(*<blai)	勒/lei/
³⁷⁷ 盃	trán(chén)	站/tʂam/	²²⁷ 兒	trái(*<blái)	勒/lei/
²⁹⁵ 蚰(知)	tri	知/tʂi/	⁵¹² 太陽	trán(*<tlán)	爛/lan/
³⁰² 雉(澄)	trī	止/tʂl/	⁷¹³ 慢	tràng(*<tlàng)	浪/lan/
³²⁰ 房	trù phòng	主放/tʂy/	⁶⁴⁴ 鍍金	tràng(*<tlàng)	弄/luy/
⁶¹⁰ 籬	trú(trấu)	阻/tʂu/	⁶⁸⁶ 百	trăm(*<tlăm)	欄/lan/
³⁴ 中(知)	trung	冲/tʂ'un/	²⁴⁸ 牛	trâu(*<klâu)	革萆/ko lou/
²¹² 沈	trầm	忱/ʂim/	²¹⁹ 萆	trâu(*<blâu)	萆/lou/
			²⁰ 天上	trên(*<tlên) trời(*<blời)	雷連/luei lien/
			³⁷ 圓	tròn(*<tlon)	鸞/lucen/
			⁷⁸ 清	trong1(*<tlong)	竜/lyn/
			¹⁰³ 書	trong2(*<tlong)	弄靄/luy/
			¹ 天	trời(*<blời)	雷/luei/
			⁷² 前	trước(*<tlước)	勒/lei/
			⁹⁴ 菓	trái(*<blái)	拜/pai/
			⁴⁸⁰ 還	trả(*<tlả)	達/ta/
			³³² 鼓	trống(*<klống)	共/kuy/

이 시기에 知母(지모), 徹母(철모), 澄母(징모)가 莊母(장모), 初母(초모), 崇母(숭모)와 章母(장모), 昌母(창모), 船母(선모)에 합류하여 /tʂ/, /tʂ'/, /ʂ/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⁵⁸⁴鮐(莊), ³³⁸棹(澄), ²⁹⁵蚰(知), ³⁰²雉(澄), ³⁴中(知)는 성모 구별 없이 /tʂ/, /tʂ'/로 발음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를 고려하면 이 시기에 한어의 파찰음이 아직 tr로 변화하지 않았으며 *pl, *bl, *tl, *kl 복성모에서 유래한 베트남어 고유어와 구별된 것을 알 수 있다.

『Từ điển Annam - Lusitan - Latinh』에서는 trường(張)을 blang, trung(中)을 tlong, trá(詐)을 blá, trường(場)을 tlàng 등으로 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Nguyễn Tài Cẩn(2000:196)에서는 『Từ điển Annam - Lusitan - Latinh』에서 수록된 tr/t/ 가운데 복성모로 시작하는 베트남어 고유어가 압도적으로 많으나 베트남어 한자음은 대부분 ‘tr’로 시작한 것이며 심지어 trường(張), trung(中), trá(詐), trường(場) 등은 복성모로 표기되더라도 일부가 ‘tr’로 표기하고 있어서 莊母(장모), 知母(지모), 澄母(징모)는 *pl, *bl, *tl, *kl 복성모의 단계에 거치지 않고 tr/t/로 바로 변화했다고 주장하였다.

한어의 /tʂ/는 권설 파찰음으로 베트남어의 권설 파열음 tr/t/과 가까운 위치에 있다. 또한 『An Nam dịch ngữ(安南譯語)』에서 한어의 파찰음이 아직 tr로 변화하지 않았으며 *pl, *bl, *tl, *kl 복성모에서 유래한 베트남어 고유어와 구별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에 유입된 이후 莊母(장모), 知母(지모), 澄母(징모)는 15세기~16세기까지는 아직 한어의 권설 파찰음으로 발음되며 17세기부터 바로 베트남어의 권설 파열음 tr/t/로 변화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Từ điển Annam - Lusitan - Latinh』에서는 trường(張)을 blang, trung(中)을 tlong, trá(詐)을 blá, trường(場)을 tlàng 등으로 표기한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

4) 파열음 ch에 대응하는 章母(장모)의 15세기 양상

무성무기 파찰음이었던 章母(장모)는 베트남에 유입된 이후 대부분 무성무기 파열음 ch/c에 변화하게 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성모는 독자적인 변화 경향으로 유입되며 독자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독자적인 변화 경향을 가진 이 음가는 독특한 변화 과정을 가지게 된다. 다른 파찰음들은 대부분 베트남어의 역사적 음운 변화 규칙에 따라 일반적인 경향으로 변화해 왔다. 그러나 章母(장모)는 예외적인 경향으로 ch로 변화하게 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 ch는 베트남어 음운 체계에서 경구개 파열음 *c이며 Proto Viet-Muong 시기로부터 존재해 온 음가로 보인다. Nguyễn Tài Cẩn(2000:208)에 따르면 章母(장모)는 $t_s \rightarrow t/c \rightarrow t_s \rightarrow c$ 의 변화 과정을 거쳐 ch로 변화하였다. 그 변화 과정의 중간 단계에서 이 성모가 *c에 합쳐지면서도 변이음 t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음운 측면에서 *c가 t와 가까운 관계로 $*c > t$ 의 변화가 가능하며 $t_s^c > t^c$, $t_s^c > t^c$, $t_s^c > t^c$ 의 변화 원리에 따라 $t_s > t$ 의 변화도 음운론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이다.

『An Nam dịch ngữ(安南譯語)』에서는 한자를 활용하여 이 ch를 세 가지 방법으로 주음하였다.

<표 16> 『An Nam dịch ngữ(安南譯語)』에서 나타난 ‘ch’의 주음 방법

한어	베트남어	주음기호	한어	베트남어	주음기호	한어	베트남어	주음기호
⁵⁷⁸ 酸	chua	多/to/	⁵⁸⁰ 粥	cháo	皂/tsau/	³⁹⁰ 父	cha	查/t̚sa/
³¹⁴ 寺	chùa	多/to/	⁸⁰ 流	chảy	載/tsai/	³⁹⁹ 姪	cháu	照/t̚siau/
			⁴⁸⁵ 死	chết	則/tsai/	⁵⁵⁴ 被	chăn	站/t̚sam/
			⁶²⁵ 鉛	chì	濟/tsi/	¹⁷ 無○	chẳng○○	張○○/t̚siaŋ○○/
			⁵⁴⁴ 線	chì	即/tsi/	⁵⁶¹ 枕(章)	chăm	針/t̚sim/
			⁴³⁸ 姐	chị	即/tsi/	⁴⁹⁴ 脚	chân	真/t̚sin/
			³⁶⁴ 席	chiếu	醺/tsiaŋ/	²²⁴ 孩兒茶	chè	者/t̚sie/
			²⁵⁹ 鷺	chim	賁/tsi/	¹⁵⁶ 九	chín	軫/t̚sin/
			²³⁹ 熟	chín	盡/tsin/	³⁹⁸ 夫	chồng	冢/t̚suŋ/
			⁴⁸² 與	cho	作/tsau/	⁶⁴² 硃(章)	chu ₁	主/t̚sy/
			²⁵⁰ 犬	chó	坐/tso/	⁵¹⁴ 珠	chu ₂	主/t̚sy/
			⁶⁵⁶ 字	chữ	資/ts1/	³⁹⁶ 叔	chú	視/t̚sy/
						³³¹ 鐘(章)	chung	中/t̚suŋ/
						²⁵³ 鼠	chuột	卓/t̚sau/
						²⁶⁵ 鑾(章)	chương	章/t̚siaŋ/

<표 12>에서 ch는 /t/, /ts/, /t̚s/로 표기된다. 이 가운데 /t/로 표기된 ch는 2개 밖에 없는데 경우 /ts/, /t̚s/로 표기된 경우 27자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Vương Lộc(1995:45)에 따르면 /t/로 표기된 ch는 Proto Viet-Muong 시기부터 존재해 온 *c이며 ch가 /ts/, /t̚s/로 표기된 것은 이 시기에 베트남어에서 파찰음이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An Nam dịch ngữ(安南譯語)』에서 베트남어 고유어를 제외하면 한어의 /t̚s/로 표기된 베트남어 한자음 성모인 ch는 ⁵⁶¹枕, ⁶⁴²硃, ³³¹鐘, ²⁶⁵鑾가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章母(장모)에서 나타났다. 이는 이 시기에 ch가 베트남어 고유어와 베트남어 한자음에서 구별 없이 모두 파찰음으로 발음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이 시기에 章母(장모)는 베트남어에서 차용어로 그 음가의 고유 특징이 아직 유지되며 베트남어 고유어와 구별되지 않았

다. 따라서 ch가 /ts/, /tʃ/로 표기된 것은 이 시기에 베트남어에서 파찰음이 형성된다는 Vương Lộc(1995:45)의 주장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An Nam dịch ngữ(安南譯語)』에서 나타난 베트남어 고유어를 보면 Proto Viet-Muong 시기부터 존재해 온 파열음 *c가 이 시기에 파찰음으로 변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이 음가가 고대로부터 파열음이 아닌 파찰음으로 발음된 것인지 추정하기 어렵다.

한편 Nguyễn Tài Cẩn(2000:208)에서는 ts → tʃ/c → ts → c의 변화 과정을 통하여 17세기에 들어오면서 파찰음이 다시 나타났다가 17세기 이후에는 파찰음이 다시 무성 파열음 *c로 변화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어 한자음에서 파찰음이었던 것이 *c로 변화했다가 다시 파찰음으로 나타난 후 또 다시 *c가 된 것은 여전히 의문이 든다. 또한 17세기에 『Từ điển Annam - Lusitan - Latinh』에서 등장한 ch는 무성 파열음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음가를 무성 파열음으로 보는 것은 타당한 것인지 이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4.2.2. 마찰음에 대응하는 한어 파찰음의 15세기 양상

1) 마찰음 x에 대응하는 昌母(창모)의 15세기 양상

파열음과 마찰음이 발달한 베트남어 음운 체계에서는 $s > t^c$ 의 파열음화 과정이 끝나기 시작하면 반대로 마찰음화 현상이 나타나 $t^c > s$ 의 변화가 시작하게 된다. 昌母(창모)는 $ts^c > t^c > s$ 의 변화 과정에서 $t^c > s$ 의 마찰음화 현상에 의하여 x/s(7)로 반영하게 되었다.

<표 17> 『An Nam dịch ngữ(安南譯語)』에서 나타난 ‘x’의 주음 방법

한어	베트남어	주음 기호	한어	베트남어	주음 기호	한어	베트남어	주음 기호
⁹³ 遠(喻)	xa	賒/sie/	²⁴ 青	xanh	蒼/ts'ay/	⁴⁷¹ 扯	xé	車/ts'ie/
¹⁰⁹ 古(見)	xưa	施/s/	¹³⁴ 春(昌)	xuân	中/tʃuŋ/	⁶⁶⁰ 唱(昌)	xướng	昌/ts'ian/

『An Nam dịch ngữ(安南譯語)』에서는 베트남어의 x는 한어의 /s/(2), /ts'/(1), /tʃ/(1), /ts'/(2)로 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Vương Lộc(1995:46)에 따르면 이 시기에 x가 /s/로 표기된 것은 무성 경구개 마찰음 *s'의 흔적이며 한어의 파찰음 /ts'/, /tʃ/ /ts'/'로 표기된 것은 x의 일부가 고대 무성 발음 방법을 ch로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가운데 베트남어 고유어를 제외하고는 昌母(창모)에서 나타난 베트남어 한자음 성모가 x인 경우가 있는데 ¹³⁴春, ⁶⁶⁰唱은 그것이다. ¹³⁴春, ⁶⁶⁰唱은 현대 베트남어에서는 x로 반영되고 있지만 『An Nam dịch ngữ(安南譯語)』에서는 한어의 /tʃ/, /tʃ'/'로 표기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이 시기에는 昌母(창모)는 파찰음으로 발음된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어의 파찰음 /tʃ/ /tʃ'/'로 표기된 ¹³⁴春, ⁶⁶⁰唱과 같은 경우 x의 일부가 고대 무성 발음 방법을 ch로 보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7) x는 17세기에는 『Từ điển Annam - Lusitan - Latinh』에서 x의 음가는 /s/(=c)였으나 오늘날에는 /s/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조음 방법 측면에서 한어의 파찰음 성모에서 나타난 베트남어 한자음 성모가 파열음과 마찰음이 발달한 베트남어 음운 체계에서 어떤 변화 규칙의 영향을 받아 파열음 또는 마찰음으로 변화해 왔는지 또한 『An Nam dịch ngữ(安南譯語)』를 통하여 이들은 15세기 어떻게 표기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본고의 연구 결과 한어의 파찰음은 파열음과 마찰음이 발달한 베트남어에서 존재할 수 없으며 강화 또는 약화로 인해서 파열음 또는 마찰음으로 변했다. 따라서 조음 측면에서 파열음에 대응하는 한어 파찰음과 마찰음에 대응하는 한어 파찰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전자는 파열음 t에 대응하는 精母(정모) / 從母(종모), 파열음 th에 대응하는 淸母(청모) / 船母(선모), 파열음 tr에 대응하는 莊母(장모), 파열음 ch에 대응하는 章母(장모)가 있으며 후자는 마찰음 x에 대응하는 淸母(청모), 마찰음 s 또는 x에 대응하는 初母(초모), 마찰음 s에 대응하는 崇母(승모), 마찰음 x에 대응하는 昌母(창모)가 있다.

파찰음은 차용어로 그 음가의 고유 특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서 베트남어 음운 체계에서 베트남어 음운 변화 규칙 즉 파열음화 현상(*s > t, *s' > t' 등) 또는 마찰음화 현상(t^c > s, t^c > s')의 영향을 받아 파열음 또는 마찰음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파열음화 현상 또는 마찰음화 현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가운데 독자적인 변화 경향을 가진 章母(장모)는 독특한 변화 과정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An Nam dịch ngữ(安南譯語)』를 살펴본 결과 실제로 이 문헌에서 파열음 t에 대응하는 精母(정모) / 從母(종모), 파열음 th에 대응하는 淸母(청모), 파열음 tr에 대응하는 莊母(장모), 파열음 ch에 대응하는 章母(장모), 마찰음 x에 대응하는 昌母(창모)의 실현 양상만 나타났다. 이 문헌에서 발견된 이 한어 파찰음들은 이 시기에 대부분 파찰음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시기에 한어의 파찰음들은 베트남어 음운 체계에서 차용어로 고유 특징을 그대로 유지되면서 베트남어 고유어와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파열음 ch에 대응하는 章母(장모)만 베트남어 고유어와 구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한편 『An Nam dịch ngữ(安南譯語)』를 연구하면서 『화이역어(華夷譯語)』 중 하나인 한국어와 한어 사이의 대응을 보인 『조선관역어(朝鮮館譯語)』를 알게 되었지만 아직 연구하지 못한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An Nam dịch ngữ(安南譯語)』처럼 이 문헌을 연구하면 15세기 한국 한자음 양상을 체계적으로 살피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또한 한어 성모에 대응하는 베트남어 자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데에 운모 즉 모음과 성조는 관여적이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본 연구의 한계로 보고 추후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장선미 외(2017), 「한국어 교육을 위한 베트남인 학습자의 초성 자음 난이도 위계 설정 연구」, <교육문화연구> 23-5, 교육문화연구학회, pp.395~414.
- 정원수(2010), 「한국어/중국어/영어/일본어/몽골어/베트남어의 음운체계 분석 및 이 언어들의 공용문자로서의 한글 표기 방안」, 한국어정보학회 국제학술대회, pp.218~233.
- 허용(2012), 「베트남어와 크메르어의 자음체계 연구」, <언어와 언어학> 57, 언어와언어학회, pp.223~248.
- Đoàn Thiện Thuật(1976), 『Ngữ âm tiếng Việt』, Nhà xuất bản đại học quốc gia Hà Nội.
- Hoàng Thị Ngọc(1996), 『Chữ Nôm và tiếng Việt qua bản giải âm Phật thuyết đại báo phụ mẫu ân trọng kinh』, Trung tâm nghiên cứu quốc học. Nhà xuất bản văn học.
- Nguyễn Tài Cẩn(1995), 『Giáo trình lịch sử ngữ âm tiếng Việt』, Nhà xuất bản giáo dục.
- Nguyễn Tài Cẩn(2000), 『Nguồn gốc và quá trình hình thành cách đọc Hán Việt』, Nhà xuất bản đại học quốc gia Hà Nội.
- Trần Trí Dõi(2011), 『Giáo trình lịch sử Tiếng Việt』, Nhà xuất bản giáo dục Việt Nam.
- Vương Lộc(1995), 『An Nam dịch ngữ』, Nhà xuất bản Đà Nẵng.
- Shimizu Masaaki(2006), 『Sự ảnh hưởng của cấu trúc âm tiết từ Hán Việt đến sự biến đổi các tổ hợp phụ âm đầu trong tiếng Việt』, Khoa Ngôn ngữ học, Đại học Khoa học Xã hội & Nhân văn, Đại học Quốc gia Hà Nội.
- Shimizu Masaaki(2008), 『Một số nhận xét về cách phiên âm từ Việt bằng chữ Hán trong An Nam quốc dịch ngữ và trong Tứ Di Quảng Ký – qua việc so sánh với An Nam dịch ngữ』, Kỷ yếu hội thảo quốc tế Việt Nam học lần thứ ba, Tiểu ban ngôn ngữ và tiếng Việt, Đại học quốc gia Hà Nội.
- Henri Maspéro, 1912, Etudes sur la phonétique historique de la langue annamite: les initiales, Bulletin de l'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12, tr.1-127.

역사 층위 분석을 통해 본 한국 한자음 후아음 성모의 혼란

張俊翼(장준익)(중국, 南京大)

要 約

일반적으로 見母, 溪母의 한국 한자음 성모는 /ㄱ/이고, 匣母의 한국 한자음 성모는 /ㄴ/이다. 그러나 見, 溪母의 한국 한자음 성모가 /ㄴ/이 되고, 匣母의 한국 한자음 성모가 /ㄱ/이 되는 예외가 존재했다.

기존 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대체적으로 유추로 설명하려 했으나 유추의 원인이 되는 한자가 상용한자가 아닌 경우도 있었고, 아예 유추로 설명할 수 없는 예외도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사 층위 분석을 활용해 한국 한자음 후아음 성모의 혼란 양상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見母, 溪母의 한국 한자음 성모가 /ㄴ/으로 나타나는 것도 匣母의 한국 한자음 성모가 /ㄱ/으로 나타나는 것의 운모 유형이 대부분 중고음 혹은 그 이전 상고음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했다.

見母, 溪母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국어에서는 喉音이었던 적이 없이 줄곧 牙音이었기 때문에 한국어 자체적인 격음화가 아음의 후음화의 방식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匣母의 경우 상고음 당시 아음이었던 것을 한국 한자음에서 /ㄱ/으로 수용된 것이 극소수 그대로 남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한국 한자음, 역사 층위, 성모, 후아음, 격음화, 상고음

1. 序論

후기 중세 한국어¹⁾에서 /ㄴ/은 음소로서 다른 자음과 매우 잘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李基文(1998)의 주장대로 한국어가 알타이어족에 속했다면 고대 한국어에서도 과연 /ㄴ/이 존재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있다. 알타이어 어족의 공통 조어에는 /h/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찍이 李基文(1998:28)은 이에 대해 더 연구할 필요는 있지만 대부분 ‘i’에 선행한 ‘*s’에 소급하는 것같이 생각된다고 했다. 그리고 俞昌均(1960, 1980, 1983, 1991), 김동소(1982), 조규태(1986), 장세경(1990), 등은 『三國史記』, 『三國遺事』 등에서 고유 명사를 표기한 借音字를 분석하여 고대 한국어에 /h/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²⁾

물론 반론도 존재한다. 朴炳采(1971)은 『訓蒙字會』 한자음의 내부 음운 구조를 분석해 고대 한국어에 /h/가 존재했으며 이후 한국어 자음의 유기음화를 유도하는데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박동규(1995)는 위의 다른 학자들처럼 『三國史記』, 『三國遺事』의 借音字를 분석했지만 朴炳采(1971)처럼 고대 한국어에 /h/가 존재했다고 봤다.

그러나 이는 알타이어 공통조어의 상황과는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설명을 요한다. 한국어가 알타이어족에 속해 있다는 가설이 기초 어휘의 비교 등으로 최근 설득력을 많이 잃기는 했지만 여전히 다른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어의 자음 체계가 알타이어 공통조어의 자음 체계와 다르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연찬(1997)은 오히려 한국어의 자음 체계가 알타이어 공통조어보다 더 앞서

1) 李基文(1998)의 한국어 시대 구분을 따른다. 따라서 훈민정음이 반포된 조선 전기의 한국어를 후기 중세 한국어로 본다.

2) 단, 俞昌均(1991)은 신라어에만은 /x/가 있다고 보았다.

는 단계였다고 봤다. 즉, 한국어의 /ㅎ/이 ‘*si’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한국어의 /ㅎ/이 ‘i’ 앞에서 구개음화되어 알타이어 공통조어에서는 ‘*hi>si’와 같은 변화가 이미 일어났다는 것이다.

한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ㄷ/, /ㅌ/ 등 설치음에서와 달리 /ㄱ/, /ㅎ/ 등 후아음에서는 구개음화가 잘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³⁾ 정연찬(1997)의 이 같은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알타이어에서는 /ㅎ/의 구개음화가 일어났으나 한국어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문제는 고대 한국어에 /ㅎ/이 정말 존재했다면 반대로 『三國史記』, 『三國遺事』의 차자 표기에서는 어째서 /ㄱ/과 /ㅎ/의 혼란(이후, 후아음의 혼란으로 약칭한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宋基中(1995)은 한국어에서 후음이 아음의 유기음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본래 아음의 일부가 유기음이 아닌 후음으로 변화되었다고 추정했다. 그리고 당시의 후음이 /h/가 아닌 아음과 유사한 /x/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화가 가능했다고 봤다. 단, 宋基中(1995)의 이런 주장은 고대 한국어에서부터 유기음화 현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났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權仁瀚(1997)은 匣母(*ɦ⁴⁾)字가 見母(*k), 溪母(*kʰ)字와 동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한국 한자음의 상고음 층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李方桂(1980), 鄭張尙芳(2000), Baxter, Sagart(2014) 등에 따르면 중고 匣母(*ɦ)는 상고음에서 ‘*g’ 따위의 아음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⁵⁾ 따라서 한국 한자음이 상고음의 영향을 받았다면 匣母(*ɦ)字에 한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추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학자들마다 고대 한국어에 /ㅎ/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 한자음의 상황은 다르다.

<표 1> 한국 한자음⁶⁾ 후아음 성모의 대응

중고음	全濁(무성 무기음)	次濁(무성 유기음)	全濁(유성음)
아음	見k: ㄱ 91.89% (510/555)	溪kʰ: ㄱ 87.84% (195/222)	群g: ㄱ 99.34% (151/152)
후음	影Ø: ㅇ ⁷⁾	曉h: ㅎ 94.89% (167/176)	匣ɦ: ㅎ 84.54% (286/323)

위 표에 보듯이 아음은 /ㄱ/으로 후음은 /ㅎ/으로 반영된 비율이 각각 90%에 육박한다. 河野六郎(1968), 伊藤智ゆき(2007), 위국봉(2015) 등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 한자음의 주요 역사 층위는 『慧琳音義』(807)로 대표되는 후기 중고음이다. 즉, 한국 한자음은 후기 중고음을 수용한 후 상당수는 오늘날까지 전승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朴炳采(1971)는 고대 한국어에서도 분명 /ㅎ/이 존재했을 것이라 본 것이다.

河野六郎(1968: 93)는 溪母(*kʰ)字가 일부 /ㅎ/이 되는 것이 溪母의 유기성을 /ㅎ/로 반영한 예일 수도 있다는 논의를 전개했는데 위 표에서 보듯이 溪母(*kʰ)나 見母(*k)나 차이

3) 표준어의 일반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 방언에서는 후아음에서도 구개음화가 일어나기도 했다.

4) 匣母에 대해서 Karlgren(1926), 邵榮芬(1982) 등은 ‘*ɣ’로 재구하나, 潘悟雲(2000), 鄭張尙芳(2003) 등은 상고음과의 관련성 및 후음의 일반적인 개념에 의거해 ‘*ɦ’로 재구한다. 본고는 일단 潘悟雲(2000)을 따른다.

5) 단, 鄭張尙芳(2003)은 일부 匣母는 구개수음인 ‘*g’로, 일부는 중고음 그대로 ‘*ɦ’였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6) 한국 한자음 자료는 伊藤智ゆき(2007), 權仁瀚(2009)를 참고했다.

7) 影母(Ø)字가 /ㅇ/이 된 것은 /ㄱ/, /ㅎ/의 혼란이 아니기에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거의 없다. 見母(*k)든 溪母(*kh)든 /ㄱ/으로 대응되는 것이 정칙이고 /ㅎ/으로 대응되는 것이 예외다.

물론 이런 예외에 대해 기존의 河野六郎(1968), 朴炳采(1971), 伊藤智ゆき(2007), 李敦柱(1990) 등은 한국 한자음에 類推 현상이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표 2> 한국 한자음 아후음의 유추 현황

見母(*k):ㅎ	항(亙/恒), 히(該荑痍/亥), 히(痲懈/解), 히(偕/諧), 한(盱盱/汗), 함(割/轄), 함(緘/咸), 함(蛤閣/合), 항(港/巷), 확(鑼躍/穫獲), 환(鰓環), 환(申患), 현(筭/現), 협(夾袂類策英鉄姉/俠), 형(荊形), 흙(謫/獮), 회(儉胎滄/會), 회(姬/熙)
溪母(*kh):ㅎ	히(錯楷/諧), 함(龕/含), 함(瞞檣/盞), 항(伉抗/航), 환(蛻闊/活), 협(愜篋/俠), 혈(挈/絜), 회(恢/灰), 흙(欠欽/歛)
群母(*g):ㅎ	한(趕/旱)
曉母(*h):ㄱ	각(霍/獲), 금(矧/今)
匣母(*h):ㄱ	가(暇/假), 간(痼瞞/間), 갈(駢謁曷竭/葛), 감(憾/感), 감(酣/甘), 갑(匣/甲), 과(蹀/果), 격(翩/隔), 경(脛/經), 계(械/戒), 계(蹊/溪), 계(系/係), 곡(鵠/告), 곡(穀穀/穀), 괴(槐/塊), 굉(宏紘/宏), 퀘(潰/櫃)

위 표에서 괄호 안에 왼쪽에 있는 한자가 유추된 한자며, 오른쪽에 있는 한자가 유추를 유도한 한자다. 대체적으로 왼쪽은 비상용한자고, 오른쪽은 상용한자⁸⁾거나 기본 부수자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어 자체에서 후아음이 혼란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見母(*k)字 ‘히’(痲懈 *kæ), ‘히’(偕 *kæi), ‘효’(梟 *kieu⁹⁾), ‘효’(校 *kieu), 溪母(*kh)字 ‘회’(恢 *khuai)는 중국어 근현대음에서도 한국 한자음에서처럼 성모가 후음이 되었다.

반대로 匣母(*h)字 ‘감’(欲 *həm), ‘퀘’(潰 *huai), ‘깁’(莖 *hæŋ), ‘경’(脛 *hiɛŋ), 곤(棍 *huəm), 규(畦 *hiuei)는 중국어 근현대음에서 성모가 아음이 되었다. 이런 한국 한자음들은 어쩌면 다른 시대의 중국음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기존 학자들이 類推라고 보는 것들 중 몇 가지는 의심스럽다. 예를 들어, 類推의 원인이 되는 한자들이 상용한자가 아니거나 더 보편적으로 쓰이는 기본 부수자를 제치고 類推의 영향을 줬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伊藤智ゆき(2007: 173)는 見母(*k)字 ‘한’(盱盱)이 ‘한’(汗)에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기본 부수자 ‘간’(干 *kan)이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적다. ‘할’(割)이 ‘할’(轄)에 유추되었다고도 했지만 한국어 문헌에서 ‘할’(割)은 ‘할’(轄)보다 더 자주 등장하는 상용한자다.

또한 본고의 기준에 따르면¹⁰⁾ ‘확’(鑼躍)이 ‘확’(穫獲)에 유추되었다고 보기도 힘들다. 李敦柱(1990: 84)는 見母(*k)字 ‘흙’(謫)이 ‘흙’(獮)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했지만, ‘흙’(獮)은 비상용한자다.

伊藤智ゆき(2007: 177)는 溪母(*kh)字 ‘항’(伉抗)이 ‘항’(航)의 유추를 받았다고 했으나 본고의 기준으로는 ‘항’(航)도 상용한자가 아니다. 기본 부수자인 ‘亢’도 溪母字다. ‘혈’(挈)도 ‘혈’(絜)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했지만, ‘혈’(絜)은 비상용한자인데다 多音字로 見母

8) 본고에서 상용한자라 함은 伊藤智ゆき(2007) 기준 18종의 15, 16세기 한국어 문헌에서 3회 이상 나타난 경우를 가리킨다. 3회 미만 출현하거나 權仁瀚(2009)에서만 나타나는 경우 비상용한자로 본다.

9) 潘悟雲(2000)에 따르면 『切韻』(601)에서는 4등에 개음 ‘i’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 한자음의 주요 역사 층위는 후기 중고음이며, 『慧琳音義』 당시 3, 4등이 합류하며 4등에도 개음 ‘i’가 덧났을 것이라 추정된다.

10) 15, 16세기 한국어 문헌에 3회 미만 출현하면 비상용한자다.

(*k)의 음도 존재한다. ‘흠’(欠欽)이 ‘흠’(歆)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했지만 ‘흠’(歆)도 상용한자가 아니다.

朴炳采(1971:32)는 見母(*k)字 ‘히’(偕) 溪母(*kh)字 ‘히’(錯楷) 등이 ‘히’(諧)에 유추되었다고 봤지만, 이들의 기본 부수자는 ‘기’(皆)다.

河野六郎(1968: 91)은 見母字 ‘협’(夾挾頰筴莢鋏峽), 溪母字 ‘협’(愜篋) 등이 ‘협’(俠) 따위에서 유추되었다고 했는데, 이들의 기본 부수자는 見母(*k)字인 ‘夾’이지 匣母(*h)字인 ‘俠’이 아니며, 위에서 보듯이 見母(*k)字의 수가 훨씬 많다.

伊藤智ゆき(2007: 181)는 曉母(*h)字 ‘곽’(霍)이 ‘곽’(籀)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지만 ‘곽’(籀)은 상용한자가 아니다. 또한 匣母字 ‘계’(系)가 ‘계’(係)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지만 ‘계’(係)는 상용한자가 아니며, 기본 부수자는 오히려 ‘系’다. 중국어에서는 반대로 오늘날 보통화에서 匣母字 ‘系’(*fi > ei)의 영향으로 見母(*k)字 ‘係’가 ‘ei’가 되었다.

이렇듯 기존 학자들은 類推의 기준을 너무 느슨하게 잡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게다가 見母(*k)字 ‘혁’(革), ‘혈’(子), 溪母(*kh)字 ‘확’(確), ‘확’(廓), ‘혹’(酷), ‘휴’(虧), ‘힐’(詰), 匣母(*h)字 ‘격’(覈)¹¹⁾, ‘곡’(榘斛)¹²⁾은 위와 같은 느슨한 기준으로도 類推로 도저히 설명되지 않아 문제가 된다.

결론적으로 한국 한자음 후아음은 아음의 경우 /ㄱ/으로 후음의 경우 /ㅎ/으로 반영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가 되는 한국 한자음도 꽤 있고, 이중에 類推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예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예들을 역사 층위 분석법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박창원(2002: 159)이 지적한 것처럼 후기 중세 한국어의 한국 한자음과 신라의 지명 개정 사이에는 1000년에 가까운 세월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 세월 동안에 한자음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이 된다.

이미 장준익(2025)에서는 한국 한자음의 유무기음 수용 양상을 역사 층위 분석법을 통해 분석해 본 바 있다. 한국 한자음 운모가 송대음 내지 근대음과 다르거나 한국 한자음 자체적인 운모 변화가 일어나 새로운 한자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적은 경우 한국 한자음 성모는 고대 한국어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내부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한국 한자음 운모가 송대음 내지 근대음과 유사할 경우 한국 한자음 성모도 송대음 내지 근대음과의 관계 속에서 개신될 가능성이 있었다.

2. 한국 한자음 아음의 유기음화

한국 한자음 아음의 특이점 중 하나로 성모로 격음 /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다. 한국 한자음 아음에서 격음 /ㄱ/은 伊藤智ゆき(2007)와 權仁瀚(2009)의 자료에서 믿을 만한 것이¹³⁾ ‘쾌’(快噲)뿐이다. 그리고 장준익(2025: 173)은 ‘쾌’(快噲)의 운모가 근

11) 伊藤智ゆき(2007:181)에서는 ‘견’(見)의 성모 ‘ㄱ’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현’(現)이 유추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과 모순된다.

12) 伊藤智ゆき(2007:181)에서는 ‘각’(角)의 성모 ‘ㄱ’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히’(解) 등도 상용한자인 것을 고려해 보면, 반드시 ‘ㄱ’으로 감염될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

13) 伊藤智ゆき(2007)에서 ‘격’(覈), ‘괄’(闊) 따위의 기록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모두 『蒙山法語諺解』(송광사판, 1577)에서 확인된 것들이다. 伊藤智ゆき(2007: 69) 스스로 언급했듯이 이 자료에 수록된 한국 한자음은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영향을 받은 것이 많아 의심스럽다.

대음 유형이기 때문에 근대음 성모 ‘k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봤다.

<표 3> 한국 한자음 순설치음의 불규칙 격음 비율

운모 유형	중고음	송대음	근대음
순음	73.53% (50/68)	61.90% (13/21)	39.77% (35/88)
설음	56.52% (78/138)	50% (39/78)	17.31% (9/52)
치음	44.14% (66/140)	28.40% (23/81)	24% (24/100) ¹⁴⁾

문제는 한국 한자음 순설치음에서는 불규칙한 격음이 꽤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불규칙한 격음이란 중국어의 次清音(무성 유기음) 혹은 송대음 이후의 平聲 全濁音¹⁵⁾과 대응되지 않는 한국 한자음 격음을 가리킨다.

장준익(2025)에서는 결론 부분에서 불규칙 격음의 비율을 운모 유형별로 정리하지 못했는데 여기에서 위 표를 작성했다. 그리고 위 표에서 보듯이 한국 한자음의 운모 유형이 중고음 유형인 경우 불규칙 격음 비율이 제일 높고, 송대음, 근대음으로 갈수록 비율이 떨어진다.

게다가 ‘폐표핑팍핍필핍품’, ‘퇴팅탁틱탁톡털틀’, ‘치취척찰촬출’ 등 중고음 운모 유형의 특정 한국 한자음 음절 유형은 평음 없이 격음으로만 편향됐다. 장준익(2025: 207)은 이것이 바로 한국어 자체적인 격음화가 진행된 근거로 봤다. 문제는 왜 한국 한자음 아음에서는 이러한 격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불규칙한 후음만 나타났느냐다.

본고에서는 이런 한국 한자음 아음의 불규칙한 후음이 한국어 자체적인 유기음화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는 앞서 宋基中(1995)의 견해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고대 한국어에서 후음이 아음의 유기음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본래 아음의 일부가 유기음이 아닌 후음으로 변화되는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다.

따라서 불규칙한 후음화가 일어난 한국 한자음의 운모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준익(2025)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운모들은 거의 대부분 중고음 운모 유형일 가능성이 높다.

<표 4> 한국 한자음 불규칙 후음의 운모 유형 분석

성모	중고음	송대음	근대음
見母 *k	히(該芟痍/廢懈/偕), 할(割), 화(鑼躍), 혁(革), 혈(子), 효(梟/校), 회(儉膾檜滄), 홀(謫), 희(姬)	한(緘), 함(蛤閤鰓), 험(夾袂頰莢莢鉞缺)	흥(亘), 한(盱軒), 향(滄), 환(鱣/串), 현(算), 형(荊)
溪母 *kʰ	히(錯楷), 화(確廓), 환(蛭闊), 혈(挈), 힐(詰), 혹(酷), 회(恢), 휴(虧), 흠(欠欽)	한(龕), 함(臚檻), 험(愜簾)	향(伉抗)
群母 *g	한(趕)		

위 표에서 밑줄 그은 것은 본고의 기준으로 類推가 의심되는 한자음들을 표시한 것이

14) 장준익(2025:202)은 尤韻(*iou), 虞韻(*iu)에서 운모가 ‘ㅂ’인 것을 근대음 운모 유형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실수다. ‘취’(就聚驟取娶趣翠臭)는 중국어와 관련 없이 한국 한자음 자체에서 운미 ‘i’가 덧난 유형으로 중고음 운모 유형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 표에서는 이 실수를 바로잡았다.

15) 주지하듯이 宋代의 韻圖『聲音唱和圖』 등에서 濁音清化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全濁音 중 平聲字는 무기 유성음이 되는 것이다.

다. 본고에서는 먼저 <표4>에서 각 운모의 역사 층위를 나눈 기준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먼저 중고음 운모 유형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해 보고자 한다.

‘히’(該/癡/偕) 등 蟹攝 1, 2等 韻母 ‘i’는 『切韻』 음운 체계에서 특정 重韻(*æi, *ai)을 반영한 韻母다. 趙翠陽(2009), 黃淳伯(1993) 등의 연구에 따르면 이 重韻은 이미 『慧琳音義』에서 다른 韻에 합류해 소실된다. (*æi>*ai, *ai>*ai)

‘할’(割), ‘확’(鑿) 등 한국 한자음에 韻尾 ‘ㄱ’, ‘ㄴ’이 있는 것도 전형적인 중고음 유형이다. 물론 중고음 韻尾 ‘t’가 한국 한자음에서 왜 ‘ㄴ’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¹⁶⁾ 『聲音唱和圖』 天聲圖를 보면 韻尾 ‘t(r)’, ‘k’가 宋代音에서 이미 소실되었다.

‘효’(梟/校) 등은 效攝韻의 韻母(*ieu)가 한국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韻腹과 韻尾가 융합되어 ‘요’가 된 것이다. 한국어는 중국어처럼 韻尾 ‘u’를 한 음절 내에 발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변형이다. 이에 따라 중국어와의 음성 차이가 커서 宋代音이나 근대음의 영향을 받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회’(恢) 등을 보면, 蟹攝 1等 合口韻(*uæi)의 한국 한자음 韻母는 보통 ‘외’다. 해당 韻은 『切韻指掌圖』에서 止蟹攝 3, 4等韻(*iuæi)과 함께 배치되어 있다. 즉, 宋代音에서 이미 중고 韻母 *uæi(외)와 *iuæi(폐)의 합류가 일어나 『中原音韻』의 *uei로 변해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휴’(虧)를 보면 중고음 *khiui의 韻尾 ‘i’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韻尾 ‘i’는 宋代音 및 근대음에도 남아 있는 음성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한국 한자음들은 宋代音이나 근대음의 영향을 새로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한다.

희(姬)를 보면 중고음(*ki)과도 전혀 관련 없는 운모를 취하고 있다. 희(姬)는 重紐 대립이 없는 之韻(*i)字기 때문에 ‘이’는 重紐 B類 개음조차도 아니다.¹⁷⁾ 다만, 『四聲等子』, 『切韻指掌圖』 등 宋代 韻圖를 보면 止攝韻이 한 圖에 나타나고 『平水韻』 등을 통해 보면 重紐의 차이도 소실되었기 때문에 宋代音에서는 止攝韻의 운모 자체가 이미 ‘i’가 되어 한국 한자음에 거의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었다.

흠(欽)은 深攝 重紐 B類韻(*uim)으로 모음 ‘이’는 重紐 B類 쌍개음 ‘ui’ 중 ‘ui’를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다.¹⁸⁾ 물론 송대음에서는 重紐의 차이가 소실된 ‘im’이었기 때문에 송대음 이후부터는 한국 한자음 성모에 거의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된다.

흠(欠)의 중고음은 *khiem이고, 상고음도 談部(*am)字다. 즉, 한국 한자음 흠(欠)은 잘못 수용된 것으로 중국음과 관련 없이 자체적으로 변화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한(趕)의 중고음은 *gien이다. *v를 /h/로 반영한 것은 申祐先(2017)의 주장대로 아직 3等 모음 *v가 존재하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v/e > e) 『慧琳音義』에서 이미 3, 4等 重韻이 합류하는 경향이 보인다. 즉, 이 역시도 중고음 운모 유형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16) 唐五代 西北方音에서 입성 운미 ‘t’가 ‘r’로 변했는데, (羅常培 1933) 이를 /ㄹ/로 반영했다는 가설, (李基文 1998) 한국어 내부적으로 韻尾 /ㄷ>ㄹ/의 변화가 있었다는 가설, (위국봉 2012) 한자음 수용 당시 고대 한국어에서 韻尾 /ㄷ/이 존재하지 않아서 /ㄹ/로 수용되었다는 가설, (엄익상 2015) 한자음 수용 당시 ‘t’ 입성과의 대응에 있어서 韻尾 /ㄷ/보다 /ㄹ/이 더 유리했다는 가설, (申祐先 2016) 고대 한국어의 음절 제약에 의해 韻尾 /ㄹ/로 수용되었다는 가설 (張俊翼 2018) 등이 있다.

17) 따라서 張俊翼(2019: 22)에서는 한국 한자음 止攝韻의 韻母 ‘-i’를 止攝韻 자체의 합류 이후 韻腹(一)과 韻尾(ㅣ)의 결합으로 보고 있다. 한국 한자음에서 重紐의 차이는 개음 ‘i’의 유무로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지 개음 ‘一’(B類)와 ‘ㅣ’(A類)의 차이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18) 潘悟雲(2000: 81)은 역사적으로 重紐 B類 쌍개음 ‘ui’가 ‘i’로 축약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한국 한자음 모음 ‘이’는 ‘ui’가 축약된 ‘i’를 반영했을 가능성도 있다. 張俊翼(2019: 20)에서는 韻腹 ‘e’를 반영한 것으로 봤다.

이제 송대음 운모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합’(蛤) 등을 보면, 한국 한자음은 보통 韻尾 ‘p’를 잘 반영하고 있다. 『聲音唱和圖』天聲圖에 따르면 韻尾 ‘t(r)’, ‘k’는 소실되었지만 ‘p’는 남아 있다. 『中原音韻』에 와서는 모든 入聲 韻尾가 소실된다.

‘함’(緘) 등을 보면, 한국 한자음은 韻尾 ‘m’을 반영하고 있다. 韻尾 ‘p’와 마찬가지로 『聲音唱和圖』天聲圖에서는 韻尾 ‘m’을 ‘n’, ‘ŋ’과 구분하고 있다. 『中原音韻』에서 일부 韻尾 ‘m’이 ‘n’에 합류했고, 『朝鮮館譯語』 시기에 韻尾 ‘m’이 ‘n’에 완전히 합류한다.

위 표에서 그밖의 운모는 모두 근대음 운모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한자음 아음 중에 불규칙 후음이 되는 운모는 거의 대부분 중고음 혹은 송대음 운모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음 운모 유형도 일부 눈에 띄나 거의 대부분 類推에 의한 것이거나 모음이 /ㅏ/인 경우다. 순설치음에서도 모음이 /ㅏ/인 경우 근대음 운모 유형에서도 불규칙 격음이 대거 등장했다.

예를 들어 장준익(2025)에서 지적한 것처럼 ‘파’(芭芭疤把肥把肥樞把罷), ‘패’(敗唄稗穽), ‘판’(瓣辦), ‘타’(打), ‘태’(鈇), ‘탄’(誕憚綻), ‘차’(嗟瘡鱸), ‘채’(債寨), ‘찬’(讚贊) 등의 불규칙 격음을 근대음 운모 유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한’(肝肝), 환(鰓串), ‘항’(港), ‘항’(伉抗)도 이런 유기음화의 예시로 보인다. 개구도가 큰 모음 /ㅏ/가 운모 유형과 관련 없이 한국어 특유의 격음화를 촉발시킨 것으로 보인다.

3. 상고음 역사 층위의 한국 한자음 아음

이제 반대로 한국 한자음 후음 중 불규칙한 아음이 등장하는 예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한자음 후음이 아음이 되는 것은 역사 층위가 다른 것으로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는 앞서 權仁瀚(1997)의 의견과 동일하다. 李方桂(1980), 鄭張尙芳(2000), Baxter, Sagart(2014) 등 저명한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匣母(*h)字의 상고 성모가 ‘*g’ 따위의 아음이었을 것이라 했다.

특히 중국어 역사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던 曉母(*h)字의 한국 한자음 성모가 /ㄱ/이 된 예는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¹⁹⁾ 상고음 당시 아음이라고 추정되는 匣母(*h)字의 한국 한자음 성모가 /ㄱ/이 된 예는 꽤 많이 등장한다. 그렇다면 匣母(*h)字의 한국 한자음 성모가 /ㄱ/은 상고음 성모 ‘*g’를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표 5> 한국 한자음 匣母(*h)字의 불규칙 아음의 운모 유형 분석

시대	匣母字
詩經 韻部	간(簡), 감(曷蜎駮), 감(酣/飲), 곡(鵠/穀/榘榘)
漢代 韻部	가(暇), 과(踝), 곤(棍), 괴(槐), 규(畦)
중고 이후	감(憾), 경(脛), 격(詗/現), 계(械/蹊/系), 김(莖), 평(宏紘), 궤(潰)

밀줄 친 것들은 본고의 기준으로 類推의 가능성이 높은 것들로 사실 상당수의 匣母(*h)字의 성모 /ㄱ/은 類推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곡(榘榘), 격(現), 감(飲) 등

19) 앞서 살펴봤듯이 ‘곽’(霍), ‘금’(矜)뿐인데 伊藤智ゆき(2007: 181)는 ‘곽’(霍)은 ‘곽’(霍)에서 ‘금’(矜)은 ‘금’(矜)에서 유추되었다고 했다.

類推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도 설명하기 위해 匣母(*ɸ)字의 한국 한자음 운모 유형을 위와 같이 분류했다.

기존 李方桂(1980), 鄭張尙芳(2000), Baxter, Sagart(2014) 등의 상고음 韻母 연구에서 중시된 것은 『詩經』(기원전 7세기-9세기)의 押韻 체계, 즉, 흔히 말하는 상고 韻部다. 그러나 『尚書大全』과 『史記』에 기록된 箕子朝鮮의 존재를 전설로 치부한다면 실질적으로 한국 한자음과 상고음의 관련성은 漢武帝의 漢四郡 설치 이후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羅常培, 周祖謨(1958) 자료를 통해 漢代의 韻部가 詩經 시대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俞敏(1999)의 연구를 통해 後漢 시대에 중고 匣母(*ɸ)字가 여전히 ‘*g’ 따위로 轉寫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구체적으로 위 표의 운모 유형을 어떻게 나누게 되었는지 하나하나 설명해보고자 한다.

먼저 詩經 韻部와도 동일한 운모 유형인 한국 한자음을 설명해 보겠다. ‘癰’은 상고 元部(*an)에 속해 있다. 鄭張尙芳(2003)은 ‘*gre:n’으로, Baxter, Sagart(2014)는 ‘*gʷran’로 봤다. Baxter, Sagart(2014) 외 많은 학자들이 元部(*an)의 모음은 일반적으로 ‘*a’로 재구한다. 개음 ‘r’의 경우 상고음 당시 실제 존재했었다더라도 한국어 자체에 개음 ‘r’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본다.

‘曷’은 상고 曷部(*at)字다. 鄭張尙芳(2003)은 ‘ga:d’²⁰⁾로 Baxter, Sagart(2014)는 ‘gʷat’로 본다. ‘酣/飲’은 상고 談部(*am)字다. 鄭張尙芳(2003)은 ‘ga:m’로 Baxter, Sagart(2014)는 ‘gʷam’로 본다.

‘鵠’은 상고 覺部(*uk)字, ‘穀穀/榘榘’은 상고 屋部(*ok)字다. 중고음에서는 반대로 ‘鵠’이 沃韻(*ok)이고, ‘穀穀/榘榘’이 屋韻(*uk)이 된다. 한국 한자음은 중고음에서도 1等韻인 沃韻(*ok)과 屋韻(*uk)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모두 ‘ㄱ’이 되었다. 따라서 상고음 당시에도 屋部(*ok)와 覺部(*uk)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漢代音 역사 층위의 운모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暇’는 중고 去聲字로 鄭張尙芳(2003)은 ‘*gra:s’로, Baxter, Sagart(2014)는 ‘gʷras’로 본다. ‘s’ 운미가 후에 거성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한국어에도 ‘ㅅ’은 韻尾로 올 수 있으므로 만약 한국 한자음이 詩經 시대의 한자음을 반영했다면 ‘ㅅ’ 韻尾가 나타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俞敏(1999)의 對音 자료를 보면 去聲字임에도 ‘s’ 韻尾가 轉寫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 한자음 ‘가’(暇)를 최대한 소급하면 漢代音 운모 유형으로도 볼 수 있다고 본다.

‘蹀’은 상고 歌部(*al)字다. 羅常培, 周祖謨(1958)에 따르면 일부 상고 歌部(*al)字는 漢代에 魚部(*a)字와 압운된다. 운미 ‘l’ 혹은 ‘i’가 이미 소실된 것이다. 또한 鄭張尙芳(2003), Baxter, Sagart(2014)는 詩經 시대에 개음 ‘i’나 ‘u’가 없다고 보았는데,²¹⁾ 俞敏(1999)의 對音 자료를 보면 漢代音에는 이미 중고음에서처럼 개음 ‘i’나 ‘u’가 나타난다.

‘昆’은 상고 文部(*ən)字다. 鄭張尙芳(2003)은 ‘*ku:n’으로, Baxter, Sagart(2014)는 ‘*kʷun’으로 보는데 한국한자음 ‘곤’의 운모는 漢代音 이후 ‘*kuən’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槐’은 상고 微部(*əl)字다. 羅常培, 周祖謨(1958)에 따르면 일부 상고 微部(*əl)字는 漢

20)鄭張尙芳(2003:188)은 이른 시기 티베트어의 전사 상황, 한국 한자음의 t입성 운미를 /ㄹ/로 대응시킨 것(d에서 r로의 변화가 용이했음), 梵漢對音, 각지의 방언 상황 등을 근거로 상고 입성 운미가 p, t, k가 아닌 b, d, r 였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 한자음에서 t 입성 운미가 /ㄹ/로 대응된 것은 唐五代 西北方音의 수용 문제가 아니게 된다.

21)위의 재구음에서 보듯이 鄭張尙芳(2003)은 모음 장단의 차이가 개음 ‘i’의 유무로 발달되었다고 보았고, Baxter, Sagart(2014)는 인두음 ‘ɿ’의 유무가 개음 ‘i’의 유무로 발달되었다고 봤다.

代에 脂部(*ei)字와 압운된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漢代音에서는 중고음에서처럼 개음 ‘i’나 ‘u’가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 한자음 ‘괴’(槐)의 운모 유형은 최대한 보면 漢代音까지 관련 있어 보인다.

‘畦’는 상고 支部(*e)字다. 한국 한자음 ‘규’의 韻母는 쌍개음 ‘iu’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 역시 漢代音까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제 중고음 이후 운모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憾’은 侵部(*əm)字다. 羅常培, 周祖謨(1958)에 따르면 漢代에도 여전히 侵部(*əm)에 속해 한국 한자음 ‘감’의 운모와 차이가 크다.

‘脛’, ‘覲’은 4等字로 邵榮芬(1982) 이후 일반적으로 중국 학계에서 『慧琳音義』 이전까지는 개음 ‘i’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 한자음 ‘경’, ‘격’은 중고음 이후의 운모 유형이다.

‘翻’은 2等字로 潘悟雲(2000)에 따르면 상고 개음 ‘r’이 중고음에서 ‘w’가 되며, 근현대음에서는 아예 개음이 없다. 따라서 한국 한자음 ‘격’은 類推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r’ 또는 ‘w’를 ‘j’로 잘못 수용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

‘械’는 職部(*əks)字, ‘蹊’는 支部(*e)字, ‘系’는 錫部(*eks)字다. 羅常培, 周祖謨(1958)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魏晉南北朝 시대에 이르러야 각각 중고음의 皆韻(械), 齊韻(蹊), 祭韻(系)에 편입된다.

또한 한국 한자음에서 梗攝韻의 ‘ᄎ/ᄌ’은 일반적으로 曾攝韻의 ‘ᄎ/ᄌ’과 구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韻母 유형이다. ‘莖’은 상고 耕部(*eŋ)字고, ‘宏紘’은 蒸部(*əŋ)字였으나 羅常培, 周祖謨(1958)에 따르면 魏晉 시대에 耕部(*eŋ)에 편입된다. 즉, 고대 한국어 모음 /ɨ/의 음가가 정말 /e/ 같은 전설 모음이었다면 ‘ᄎ/ᄌ’이 아닌 ‘ᄎ/ᄌ’인 것이 자연스럽다.²²⁾

고대로 소급될수록 한국어 모음 /ɨ/의 음가는 /e/ 같은 전설 모음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ᄎ’(莖), ‘ᄎ’(宏紘)의 운모는 중고 이후의 운모 유형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潰’는 중고 灰韻(*uəi)字로 한국 한자음 운모는 ‘괴’가 되는 것이 정칙이다. 그러나 한국 한자음은 ‘궤’며, 이는 ‘匱’ 등에 類推되었거나 현대음 ‘kʰuei’를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한국 한자음의 운모 유형을 분석해 보면 漢代 韻部 혹은 詩經 韻部까지 소급할 수 있는 ‘간’(痼), ‘갈’(曷蜎裼), ‘감’(酣/飲), ‘곡’(鵠/穀穀/榘斛), ‘가’(暇), ‘과’(蹀), ‘곤’(棍), ‘괴’(槐), ‘규’(畦) 등의 한국 한자음 성모 /ɣ/은 상고 성모 *g를 반영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다.

특히 여기서 ‘감’(飲), ‘곡’(榘斛)의 경우 類推로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고에서 설명하는 대로 상고 성모 *g를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중고 이후의 운모 유형으로 보이는 ‘감’(憾), ‘경’(脛), ‘격’(翻/覲), ‘계’(械/蹊/系), ‘ᄎ’(莖), ‘ᄎ’(宏紘), ‘궤’(潰)는 상고 성모 *g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類推되었거나 근현대음 /ɣ/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潰’의 현대 보통화음은 ‘kʰuei’다.

4. 結論

河野六郎(1968), 伊藤智ゆき(2007), 위국봉(2015) 등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 한자음의

22)그래서 장준익(2021)은 한국 한자음 수용 당시의 고대 한국어 /ɨ/의 음가는 아직 /e/ 파위의 전설 모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바 있다.

주요 역사 층위는 『慧琳音義』(807)로 대표되는 후기 중고음이다.

그러나 한국 한자음이 후기 중고음을 완전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후기 중고음 수용 과정에서 한국어에 맞게 변형되어 수용되거나, (t 入聲 韻尾, 平聲 崇母, 순음의 ㅅ3等 개음, 후아음의 3等 개음 탈락 등) 한국 한자음의 오랜 전승 과정에서 변화되거나, (운미 ‘i’ 생성, 격음화 등) 일부지만 다른 역사 층위의 한자음을 수용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도 한국 한자음 아음의 후음화 현상이 유기음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일부 한국 한자음 아음이 상고 성모 ‘*g’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지적할 수 있었다.

중국 학계에서는 중국어사의 관점에서 한국 한자음을 과거 한자음을 轉寫하는 도구로만 보는 경향이 강했다. 고대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외 대응을 예외로 치부하고 설령 예외의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국어사의 관점이 되기 때문에 무시 받고는 하였다.

반대로 한국 학계에서는 중국어사의 명료한 이해 없이 중국 학계의 재구음을 그대로 한국 한자음의 해석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고음과 관련해서도 여러 학자들의 재구음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매우 위험하게 보인다.

본고에서도 지적했지만 한국 한자음과 상고음의 관련성을 漢代音에서부터 찾는 작업이 매우 시급해 보인다. 詩經音과 漢代音은 다르다. 일반적인 상고음 연구가 詩經音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漢代音 연구를 통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보인다.

참고문헌

- 權仁瀚(1997), 「고려시대 한국한자음에 대한 일고찰: 《삼국유사》 소재 찬시의 압운 분석을 중심으로」, 『冠嶽語文研究』22, 289-316쪽.
- 權仁瀚(2009), 『中世 韓國漢字音의 分析的 研究』, 박문사.
- 김동소(1982), 「ㅎ 말음 명사의 어원」, 『國語學論叢』(공포 조규설 교수 화갑 기념 논문집), 형설출판사.
- 박동규(1995), 『고대 국어 음운 연구 1』, 전주대학교 출판부.
- 박창원(2002), 『고대국어음운(1)』, 태학사, 2002.
- 朴炳采(1971), 『古代國語의 研究, 音韻篇』, 高麗大學校 出版部.
- 宋基中(1995), 「古代國語 漢字音에 관련된 몇 가지 관찰」, 『한일어학논총』, 國學資料院.
- 엄익상(2015), 『한국한자음 중국식으로 다시보기』, 한국문화사.
- 위국봉(2012), 「韓國漢字音 舌內入聲韻尾에 대한 考察」, 『國語學』 63, 221-246쪽.
- 위국봉(2015), 『고대 한국어 음운 체계 연구 : 전승 한자음을 대상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 俞昌均(1960), 「古代地名 表記의 聲母體系: 主로 『三國史記』의 「地理志」을 中心으로」, 『靑丘大論文集』 3.
- 俞昌均(1980), 『韓國古代漢字音의 研究 1』, 啓明大學校 出版部.
- 俞昌均(1983), 『韓國古代漢字音의 研究 2』, 啓明大學校 出版部.
- 俞昌均(1991), 『삼국시대의 漢字音』, 民音社.
- 李基文(1998), 『國語史概說』, 塔出版社.
- 李敦柱(1990), 『訓蒙字會 漢字音 研究』, 弘文閣.
- 장세경(1990), 『고대 차자 복수인명 표기 연구』, 國語資料院.
- 장준익(2021), 「한국 한자음의 음절 대응을 통해 본 고대 한국어 /ㄱ/의 음가」, 『口訣研究』47, 5-40쪽.

장준익(2025), 「역사 층위 분석을 통해 본 한국 한자음의 유무기음 수용 양상」, 『口訣研究』54, 163-214쪽.
정연찬(1997), 『개정 한국어 음운론』, 한국문화사.
조규태(1986), 『고대국어의 음운 연구』, 형설출판사.

羅常培(1933), 『唐五代西北方音』, 國立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單刊甲種之十二.

羅常培, 周祖謨(1958), 『漢魏晉南北朝韻部演變研究』, 科學出版社.

潘悟雲(2000), 『漢語歷史音韻學』, 上海教育出版社.

邵榮芬(1982), 『切韻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申祐先(2016), 「論韓國漢字音ㄷ/-l/韻尾」, *Language and Linguistics* 17(2), 235-263쪽.

李方桂(1980), 『上古音研究』, 常務印書館.

俞敏(1999), 「後漢三國梵漢對音譜」, 『俞敏語言學論文集』, 常務印書館.

伊藤智ゆき(2007), 『朝鮮漢字音研究』, 汲古書院. (이진호 역, 『한국 한자음 연구: 본문편, 자료편』, 역락, 2011.)

張俊翼(2019), 「朝鮮漢字音中漢語重紐的表現形式及其成因」, 『民族語文』 2019(1), 11-27쪽.

鄭張尚芳(2003), 『上古音系』, 上海教育出版社.

趙翠陽(2009), 『慧琳《一切經音義》韻類研究』, 中國社會科學研究生院博士學位論文.

河野六郎(1968), 『朝鮮漢字音の研究』, 天理時報社. (이진호 역(2010), 『한국 한자음의 연구』, 역락)

黃淬伯(1993), 『慧琳一切經音義反切考』, 臺灣常務印書館.

William H. Baxter, Laurent Sagart(2014), *Old Chinese a new reconstr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Bernhard Karlgren(1926), *Etudes sur la phonologie chinoise*, Archives d'études orientales publiées par J.A. Lundell, Vol. 15, (趙元任 譯(1940), 『中國音韻學研究』, 常務印書館.

한국 진언 범자 읽기

—<오대진언>(1485)을 중심으로—

安英姬(안영지)(중국, 雲南民族大)

1. 서론

본 고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오대진언>(1485)는 범-한-중 세 가지 문자로 병기된 문헌으로 대역 관계를 통하여 음운 대응 관계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제일 우선 범자를 읽어야 하나 범자는 음소 문자가 아니라 음절 문자로 매 글자마다 자형이 다른 이유로 안영희(2018)에서는 범자 읽기 관련하여 자세히 다루지 못하였다. 본 고는 이에 대한 아쉬움을 덜고자 집중적으로 범자 읽기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한다. 한국 진언 범자는 한국 학계에서 대개 실담범자로 보고 있으니 국제 학계에서는 한국 범자 자료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못한 이유로 한국 진언 범자 분류에 대한 정설이 없다. 본 고는 범어와 범자 관련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부터 국제 학계에서 잘 알려진 일본의 실담형 범자 구성 및 체계에 대해 알아 보고 다음 한국 진언 범자의 자형 특징에 대해 설명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본 고를 통해 한국 진언 자료에 나타난 범자를 전사할 수 있도록 함을 연구목적으로 하겠다.

2. 범어와 범자 관련 역사적 배경

2.1 범어와 밀교

梵語는 고대 인도어¹⁾인 산스크리트를 말한다. 고대 인도어는 시기적으로 크게 두 단계로 나뉘며 초기단계는 베다(Veda)어, 후기단계가 산스크리트(Sanskrit)이다. 베다어는 기원전 2000-3000년경까지 소급할 수 있고, 산스크리트는 기원전 400년 경 파니니(Panini)문법 이후 사용하기 시작한 문학어이다. 넓은 의미에서 梵語는 베다어와 산스크리트를 모두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에서 산스크리트만 한정하여 부른다. 梵語란 용어는 중국에서 부르기 시작한 것이며 한자 ‘梵’은 인도 전통 종교인 브라만교에서 우주만물을 창조한 神인 ‘브라마(Brahmā)’의 산스크리트 음을 음역한 것이다.²⁾ 산스크리트는 완성된 언어란 의미로 주로 지식인 계층이 사용하는 ‘고급 언어’이며 이를 雅語라 부르기도 한다. 프라크리트는 자연스러운 언어라는 의미로 규범화된 산스크리트와 대조적이며 俗語라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방언³⁾을 말한다. 불교(佛敎)는 기원전 6세기 석가모니의 부처가 되기 위한 가르침으로부터

- 1) 고대 인도어는 계통적으로 인도유럽어족에 속하며 하위 분류로 인도이란어파에 속한다. 고대 인도의 역사는 단순 지금의 인도 하나의 나라와만 직속 연결시켜 보면 안 된다. 역사상 고대 인도의 관도는 비록 고대 제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흔히 고대 인도는 지금의 인도뿐만 아니라 주변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및 스리랑카등 주변 국가들을 포함하여 함께 본다.
- 2) 사실 한자 ‘梵’은 인도문화가 중국으로 들어와서 새롭게 만든 한자라고 한다. 東漢 기원 100년 許慎의 《說文解字》에 ‘梵’자가 없고 후대들의 설문해자 교정과정에서 추가하였으며 서역의 번역서에서 유래되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 3) 고대 인도어의 방언으로 주로 서북방언과 남부방언을 예로 들 수 있다. 서북방언의 예로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4세기까지 지금의 파키스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간다라(Gandhara)國이라는 고

시작되었는데 불교 탄생의 배경은 당시 反 브라만교의 여러 신생 종교 중의 하나이며 일반 대중(大衆)들을 교화하고 각성⁴⁾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초기 불교의 사용 언어는 고급 언어의 산스크리트가 아닌 俗語 즉 프라크리트이었다. 하지만 불교가 점차 발전하고 분열하고 세력을 갖춘 부파 특히 기원전 1세기 무렵 대승불교로부터 국가 차원의 정치적인 지지를 받게 되면서 불교 언어 또한 점차 고급 언어의 산스크리트로 전환하게 된다.

고대 인도 역사상 최대의 통일국가였던 마우리아왕조의 제3대왕 아쇼카왕(Asoka, 기원전 271-231)시대, 기원 1세기 후반부터의 쿠산왕조, 그리고 서북방언 지역의 간다라國(기원전 3세기-4세기) 모두 적극적인 불교 보호정책을 펼쳤었다. 이 과정에서 불교는 점차 口傳으로부터 문자로 기록되고 경전을 만들기 시작한다.⁵⁾ 이런 변화는 불교로 하여금 초기 순수한 대중의 교화와 각성을 위한 불타 정신으로부터 점차 정치적인 위상과 사회적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로 변신하며 사용 언어 또한 자연히 雅語의 산스크리트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경전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경전의 독송과 전수(傳受) 또한 더욱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그러면서 불교 언어는 생활언어와 멀어지고 경전 언어의 전통을 고수하면서 전해왔다.

고대 인도에서 원시 불교가 점차 부파(部派)불교로 갈라지다가 나중에 주술의 영향이 점점 커지면서 점차 밀종(密宗)으로부터 점차 밀교(密敎)⁶⁾로 자리 잡은 것이다. 밀교는 수행 과정에서 주술이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⁷⁾ 처음에 주술은 불교에서 단지 보조적인 수단에만 불과하였지만 기원 6-7세기로 들어서면서 대승불교에도 점차 영향을 받게 되면서 독립적인 밀교 사상체계를 갖추게 된다. 대승불교에서 《大日經》을 중심으로 형성된 밀교를 '순수한 밀교'라 하여 '순밀(純密)'이라 부르고, 그 전에 체계적이지 않은 것을 '잡밀(雜密)'이라고 한다. 특히 7세기 초부터 급격히 발전하면서 서인도가 중심지였다가 8세기 초 남인도로 이동하다가 8세기 후반에 들어서 동인도로 전파된다.⁸⁾ 기원 10세기 후기 이슬람군이

대국가가 있었는데 이 지역에서 사용하던 언어가 바로 고대 인도어 서북방언의 프라크리트이다. 간다라국은 그리스계 문화와 인도의 전통 문화가 혼합되어 형성된 특유의 간다라 문화가 매우 발달한 나라였다. 간다라국의 문화는 주변의 나라 특히 실크로드를 통하여 중국으로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다음 남부방언의 예로 팔리어가 있다. 팔리어는 현재 스리랑카, 미얀마, 타이, 캄보디아등 여러 나라에 남아있는 소승불교의 경전에 사용된 언어이다. 현재는 불교 문헌어로만 남아있지 실제 생활에서 모어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다.

- 4) 늘 석가모니를 불타(佛陀)라고 부르는데 '불타'는 각성한 한 사람의 '각자(覺者)'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최초 불타정신은 절대적인 최고 위치에 있는 원시 신앙적 성격의 브라만교에서 각성하라는 것이다.
- 5) 현재 볼 수 있는 최초 불교 관련 문자기록은 기원전 3세기 아쇼카왕 시대의 비문이다. 아쇼카왕 비문의 내용은 아쇼카왕의 훈령(訓令)이 적힌 것으로 불교 정신에 입각한 훈계내지 교화/교훈 등이 주를 이룬다.(전순환 2005:15)
- 6) 불교는 크게 현종(顯宗)과 밀종(密宗)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차이는 현종은 석가모니의 말씀을 받들고, 밀종은 비로저나(毗盧遮那) 대일여래불(大日如來佛)의 法을 받든다. 현종은 법을 가르치고 수행하는 것들을 공개하지만 밀종은 비공개적으로 의궤(儀軌)를 엄수해야 하며 또한 반드시 스승으로부터 전수를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수행 과정을 밟아야 한다.
- 7) 주술은 원래 옛 브라만교에서부터 전해온 것으로 초기 불교시기 석가모니는 주술을 엄격히 금지시켰다. 그러나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옛 브라만교를 믿었던 사람들도 불교로 들어오면서 그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주술적인 특징도 함께 갖고 오게 되며 대중적 전파의 수요에 따라 점차 주술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먼저 남부 소승불교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 점차 북부 대승불교로 전파한 것이다.
- 8) 동인도로 전파되면서 밀교에서 새롭게 금강승(金剛乘) 과가 분화되어 나오는데 이 과는 인도교(印度敎)의 성력숭배(性力崇拜)의 영향을 받아 남녀가 함께 수행하는 방법으로 성불(成佛)에 이르는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수행법이 점차 세속화 되고 대중화 되고 체계화 되면서 형성한 것이 시륜교(時輪敎)이다. 금강승시기부터 밀교의 후기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시기를 또한 "좌도밀

침입하여 들어오면서 11세기부터 인도에서 불교가 붕괴되기 시작하고 수 많은 스님들이 중국의 티베트나 네팔 등 지역으로 피난 가고 결국 12세기말 불교는 인도지역에서 종적을 감추게 된다. 인도불교는 시기적으로 원시불교(原始佛敎), 부파불교(部派佛敎), 대승불교(大乘佛敎), 밀교(密敎)로 볼 수 있겠다.

2.2 범자와 진언

문자의 역사는 언어의 역사와 다르다. 범자는 기원전 3세기 아쇼카왕 비문에 새긴 문자인 브라흐미(Brahmi)문자로부터 기원한다. 브라흐미문자는 점차 북부와 남부 서로 다른 문자계통으로 발전하는데 지금의 버마문자, 타이문자 등은 대개 남부 계통에 속하고 대승불교의 경전의 기록은 대개 북부계통 브라흐미문자로 기록되어 있다. 북부 계통의 브라흐미 문자는 기원 4세기경에 굽타(Gupta)왕조에서 굽타형 문자로 변형되어 유행하기 시작하는데 이를 ‘굽타문자’라 부르기도 한다. 사실 이는 문자의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굽타왕조시기에 유행하였던 문자의 서예 방식이기 때문에 ‘굽타문자’라 부르기보다 ‘굽타형 범자’⁹⁾라 부른 것이 더욱 적절하다. 실담형 범자는 북부계통 굽타형 범자에서 점차 발전하여 대개 6-7세기 중원지역에서 유행하던 범자체이다.

중국에서 불경이 중국어로 번역되기 시작한 것은 대개 東漢시기부터 이다. 초기 대표적인 역경사로는 鳩摩羅什(344년-413년)이다.¹⁰⁾ 구마라집을 대표로 하는 초기 번역시기를 흔히 “舊譯”라 부르고 7세기 현장(600년-664년)의 역경부부터는 “新譯”이라고 부른다. 초기 불경 역경사들의 출신을 보면 거의 모두 서역지역의 나라 사람들이다. 7세기 현장(602년-664년)이 인도로 갈 때 중국과 중앙아시아 등 지역과의 교류가 상당히 성숙한 시기였다. 신역시기 불경 번역은 매우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음역과 의역이 잘 결합되었다. 당시 불경 번역 대부분 중국어로 의역을 하지만 일부 반드시 음역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를 ‘不翻’이라고 하고 ‘五種不翻’의 규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1조항이 바로 ‘비밀한 뜻이 있으면 번역하지 않으니 다라니와 같은 것이 이에 해당된다(秘密故, 如陀羅尼)’로 되어 있다. 즉 다라니 번역은 직접 귀로 범어를 듣고 들리는 대로 한자를 적어 음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장이후 즉 8세기 들어서서 밀교경전의 번역이 성황을 이루게 되는데 성행했는데 개원삼대사(開元三大士)로 불리는 선무외(善無畏, 637년-735년)¹¹⁾, 금강지(金剛智, 669년-741년)¹²⁾, 불공(不空, 705년-774년)¹³⁾ 가 있었다.

교(左道密敎)시기라고 한다. 전통적으로 여성을 나타내는 신은 항상 남성을 나타내는 신의 왼쪽에 있으므로 “좌(左)”는 점차 여성의 대표로 굳혀졌다. 즉 금강승시기부터 밀교 수행에서 여성을 이용한 수행시기가 시작됨을 말한다.

9) 이외 또 언급해야 할 문자가 있는데 바로 카로슈티(kharoṣṭhī)문자이다. 카로슈티문자는 간다라국에서 사용하던 문자이다. 간다라국의 지배자는 사실 그리스계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간다라문화에는 그리스문화의 영향이 상당히 들어있다. 이들이 사용하는 문자 카로슈티문자 역시 아람계통에 속한다. 즉 카로슈티문자는 비록 브라흐미문자와 거의 같은 시기에 존재하지만 전혀 다른 계통의 문자이다. 간다라국에서 사용하는 언어 특히 피지배자들은 대개 인도의 서북방언을 사용하여 고대 인도어 범주에 들어가지만 이들의 카로슈티문자는 인도 문자 계통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10) 초기 불경 번역에서 유명한 역경사로 東漢 시기의 安世高와 支婁迦讖이 있다. 安世高는 생몰미상이며 서역에 있는 안식국(安息國)사람이다. 번역 불경은 대개 소승불교의 경전이었으며 그가 주로 활동한 곳은 낙양(洛陽)지역이며 마지막 활동 시기의 기록은 대개 170년 경으로 추정된다. 支婁迦讖도 생몰미상이며 서역의 월지국(月支國)사람이다. 그가 활동한 주요 지역 역시 낙양(洛陽)지역이며 활동한 시기 역시 안세고와 비슷하지만 좀 늦은 시기로 추정되어 180-190년경일 것이다. 하지만 그가 번역한 경전은 초기 대승불교의 경전 14종이다.

11) 선무외는 동인도의 오다국(오리사)에서 태났으며 716년 장안에 이르렀고 현종을 귀의시키고 밀교경전을 번역하고 인도의 순정밀교를 처음으로 중국에 전했다.

시기적으로 보아 구역시기 범자는 주로 굽타형 범자였을 것이고 신역시기 범자는 실담형 범자였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불교 관련 최초 기록으로는 《삼국사기》 고류려 本紀 357년(소수림왕 2) 6월에 중국 前秦의 符堅으로부터 불상과 경문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은 欽明天皇十三年(기원552년) 백제의 명왕(明王)이 불상과 경전등을 가져왔다고 한다. 즉 일본은 한국 보다 200년 더 늦은 시간 그리고 직접 중국이 아닌 한반도를 통하여 불경이 전하여졌음을 알 수 있겠다. 시기적으로 보아 한반도에서는 굽타형 범자를 접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으나 현재 이를 지지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없는 듯하다.

역사적으로 중국과 고대 인도 지역과의 교류는 대개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진행되는데 대개 8세기를 기준으로 이보다 이른 시기는 주로 서북지역의 육로를 통하였고 늦은 시기는 동남부 해안을 통하여 다녔을 것이다. 중국 불경 번역 구역시대는 주로 서역 사람들이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역경 작업을 하였는데 대개 서북지역의 육로를 통하여 건너왔으며 점차 길이 생기고 7세기 현장이 육로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천축을 다녀올 수 있었다. 한반도 불교의 유입은 이미 일찍 4-5세기에서부터 시작되었고 6세기-7세기 안홍¹⁴⁾ 명랑으로부터 밀교는 잡밀(雜密)시기부터 이미 한반도로 들어왔다. 기록에 의하면 안홍이 3인의 호승(胡僧)을 신라에 데리고 왔다고 한다. 이 시기 한반도에서 직접 인도까지 갔다는 기록은 찾기 어렵지만 중국으로 갔었던 건 분명하며 대개 육로를 통한 교류였을 것이다. 하지만 8세기 신라 승 혜초(704-787)가 인도로 갔을 때는 중국 남부 해로로 갈 수밖에 없었으며 중국 지금의 광주(廣州)지역에서 금강지와 불공을 만났으며 혜초가 인도에 있는 4년 동안은 티베트와 중국 당나라가 인도지역 주도권의 쟁탈하기 위한 전쟁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일본에서 밀교의 본격적인 전파와 발전은 空海(774~835)¹⁵⁾로부터 시작되는데 그의 스승은 혜과(慧果)이고 혜과의 스승이 불공이다. 즉 앞서 불공과 그의 스승 금강지와 함께 신라 승 혜초와 만가 중국 지금의 광주지역에서 만났었다는 기록을 보아 금강지와 불공 역시 해로를 통한 것으로 보인다. 혜초의 기록에도 있지만 중국과 티베트의 장기간 전쟁으로 인하여 사원의 스님들이 계속 주변국가로 흩어지기 시작한다. 선무외, 금강지, 불공등 역시 이 시기 중국으로 건너왔다.

어쩌면 실담형 범자는 대개 날란다(Nalanda)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7세기 당나라 현장의 천축행 마지막 목적지가 날란다사원이었으며 8세기의 개원삼대사의 선무외, 금강지, 불공 모두 날란다사원의 출신 혹은 그 제자들이었다. 중인도 지역에 위치한 날란다사원은 5세기부터 당시 불교 대학으로 매우 유명한 사원이었지만 8세기 굽타왕조의 몰

12) 금강지는 남천축의 마뢰야국(摩賴耶國) 출신이며 당 개원(開元) 7년(719)에 광저우(廣州)에 도착하였고 741년 뤼양(洛陽)에서 병으로 입적하였다.

13) 不空은 사자국(師子國: 스리랑카) 사람으로 불공금강(不空金剛)이다. 당(唐)나라 고승으로 밀종종사(密宗祖師)이다. 금강지 사후에 황제의 명을 받들어 천축(天竺) 용지처(龍智處)에서 밀법을 전수받았으며 제자가 약 2천 명에 달할 정도로 많았는데 혜과의 제자로 일본승려 공해(空海)가 있다.

14) 《삼국사기》에 따르면 안홍은 576년(진흥왕 37) 불법을 구하러 수나라에 갔다가 호승(胡僧) 비마라(毘摩羅) 등 3인과 함께 귀국하면서 《능가경(楞伽經)》 《승만경(勝鬘經)》 등의 경전과 부처의 사리(舍利)를 가지고 왔다고 한다. 하지만 수나라가 건국된 것은 581년으로 기록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치원(崔致遠)이 지은 <의상전(義湘傳)>에는 625년(진평왕 47) 천축승 비마라진제(毘摩羅眞諦) 등 3인과 함께 귀국하여 황룡사(皇龍寺)에 머무르면서 밀교경전을 번역하고 <동도성립기(東都成立記)>를 지었다고 한다.

15) 일본 불교 진언종(眞言宗)의 개조(開祖)로 범명은 홍법대사(弘法大師)이다. 20세에 출가하였고 30세 쯤에 당나라로 건너가 청룡사의 혜과(惠果)를 만나 관정(灌頂)을 받았으며 여러 가지 서적과 불상, 만다라, 법구, 혜과의 유물 등 밀교와 관련된 자료를 많이 모았다. 삼년후 귀국 하여 밀교 경전을 널리 전파하고 이른바 동밀(東密)을 개창하였으며 진언종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락과 함께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였으며 12세기 이슬람군 침입으로 날란다사원이 거의 훼손에 가까운 큰 피해를 입었지만 그 후에도 명맥을 이어나갔는데 적어도 14세기까지는 존재하였을 것이라 한다. 사실 일찍이 7세기 무렵 당시 티베트 지역 정권 토번(吐蕃)의 집권자인 松贊干寶(617-650, Songtsen Gampo)는 현지 토속 종교를 밀어내고 인도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고 티베트 문자의 창제에 적극적이었는데 송찬간보의 명을 받고 톤미산보타(Thomi Sam Bhota)가 인도로 갔다가 돌아와 범자를 기초로 티베트 문자를 만들었다. 인도 불교의 영향을 많은 받은 지역 중의 하나로 꼽히는 티베트지역의 범자는 ‘藍札體梵字’ 즉 난찰형 범자라 부르는데 중국 중원지대 실담형 범자와 일정한 차이가 있다. 어쩌면 당시 톤미산보타는 날란다사원까지 가지 않았으며 실제로 파라문 리경(利敬)으로부터 범자를 배웠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과 일본의 범자는 대개 같은 기원을 가졌을 것이다. 현재 학계에 널리 알려진 실담형 범자의 자형 모습은 보통 일본의 문헌자료에서 나타난 범자를 두고 말한다. 한국 진언 범자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설상 한국 진언 범자를 알더라도 이를 실담형 범자라 하지 않으며 나가리형 범자라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나가리형 범자란 실담형 범자와 데바나라리 범자의 중간형이라 정의를 내리는데 앞서 고찰한바 데바나가리 범자는 티베트지역 범자와 같은 계통으로 실담형 범자와 또 다른 기원일 것으로 이를 같이 볼 수 없다고 보는게 본고의 주장이다. 본고는 한국 진언 범자를 여전히 실담형 범자로 보는데 그 이유는 우선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한국 진언 범자와 일본 실담형 범자와의 기원이 같을 것으로 보이며 다음은 한국 진언 자료 실담장에도 '실담범자'라 명확히 적혀 있었으며 그 다음 주목해야 할 것은 지공(指空)스님이다.

지공스님은 13세기 고려시기 한반도로 건너 왔었던 서역 스님이며 불교사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지공스님이 당시 고려 범자 자형을 교정 해주었다고 한다. 지공스님 또한 중인도 사람이며 날란사원 출신이며 절을 시적 일찍이 중국 당시 원나라 대도로 건너 갔었다가 후에 대부분 시간을 중국 서남지역 사천(四川), 운남(雲南)지역에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현 운남성 楚雄 武定山 사찰 正續寺 또한 지공스님에 의해 세워졌다는 기록이 있다. 지공스님이 만년에 중국 강남지역으로 갔었다고 고려에서 시집 온 어느 중국 관리의 부인 소개를 받고 원나라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고려로 가게 되었다고 한다. 중국 사천성 서창(西昌) 지역에서 원나라 시기의 운남성 대리(大理) 지역에서는 명나라 시기의 범자로 새겨진 비석들이 발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대진언> 천수경 진언의 한역 관련 기록에 의하면 “唐開元三朝灌頂國師特進試鴻臚卿肅國公食邑三千戶實封三百戶大興善寺三藏沙門 不空奉 詔譯”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 베이징시 房山石經을 베꼈음으로 보여준다. 즉 한국 진언 범자 자형은 범자 비석문과 관련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한국 진언 범자와 일본의 실담형 범자와의 자형 차이 또한 비석에 글자는 새기는 과정에서 생긴 자형 변이 모습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한국 진언 범자 자형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볼 것인데 이에 앞서 제3장에서 먼저 흔히 알려진 일반 실담형 범자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하고 다음 제4장에서 한국 진언 범자와 일본의 실담형 범자와의 자형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다.

3. 실담형 범자에 대한 기초적 이해

3.1 실담형 범자의 기본체계

실담형 범자에 대해 체계적인 소개는 중국 唐나라 智廣(760-830?)의《悉曇字記》등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정작 실담형 범자가 형성되었던 중국에서는 현재 범자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고《悉曇字記》를 비롯해서 실담형 범자 관련 자료는 일본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실담형 범자에 대한 이해는 일본의 자료를 근거로 하는데 중국학자들의 실담 연구 역시 일본의 범자를 근간으로 한다. 본고 역시 일본의 실담형 범자로 실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할 것인데 산스크리트 마다와 체문의 기본 소개와 실담형 범자 모양의 스캔자료는《簡易學梵字》(2003)을 참고하였다.

범자는 크게 마다(摩多)와 체문(體文)으로 2분할 수 있는데 마다(摩多)는 母의 뜻으로 중국어의 韻母 혹은 한국어의 중성(혹은 모음)과 대응시킬 수 있다. 그리고 범자의 체문(體文)은 중국어의 字母 혹은 한국어의 초성(혹은 자음)과 대응시킬 수 있다. 범자의 체문은 모두 35개가 있는데 그 중 25개는 각각 5개씩 5개의 聲類로 나누어 五聲類라 부른다. 오성류에는 喉音, 口蓋音, 反舌音, 齒音, 脣音이 있다. 이 오성류들을 현대 음성학의 조음위치로 해석해서 본다면 각각 연구개음, 경구개음, 권설음, 치조음, 순음에 속한다¹⁶⁾. 그리고 범자는 한글과 달리 독립적인 자음 표기가 없으며 산스크리트의 자음을 이해하기 위해 모음이 'a'인 음절로 대신한다. 예를 들어, 자음 'k'를 나타내는 범자는 사실 음절 'ka'를 나타내는 문자이기도 하다.

	五類聲	무성음(無聲音)		유성음(有聲音)		비음 (鼻音)
		무기음(清)	유기음(濁)	무기음(清)	유기음(濁)	
1	喉音(연구개음)	𑖀 ka	𑖁 kha	𑖂 ga	𑖃 gha	𑖄 ṇa
2	口蓋音(경구개음)	𑖅 ca	𑖆 cha	𑖇 ja	𑖈 jha	𑖉 ṇa
3	反舌音(권설음)	𑖊 ṭa	𑖋 tha	𑖌 ḍa	𑖍 ḍha	𑖎 ṇa
4	齒音(치조음)	𑖏 ta	𑖐 tha	𑖑 da	𑖒 dha	𑖓 na
5	脣音(순음)	𑖕 pa	𑖖 pha	𑖗 ba	𑖘 bha	𑖙 ma

위 도표를 보면 매 조음위치마다 각각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이 있으며, 무성음과 유성음 각각 또 무기음과 유기음의 대립이 있다. 무성음의 유기성/무기성의 대립은 비교적 보편적인 것이나 유성음의 유기성/무기성 대립은 유형론적으로 좀 드문 현상이다. 그리고 또 비교적 특이한 것은 각 조음위치마다 비음이 하나씩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총 35 자음에서 위 25개 자음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자음을 편구성(遍口聲)이라고 부르는데 현대 음성학적으로 말하면 마찰음, 반모음, 유음 그리고 복자음등에 해당 한다.

	遍口聲	마찰음(摩擦音)	반모음	유음	복자음
1	喉音(연구개음)	𑖀 ha			
2	경구개음(口蓋音)	𑖁 śa	𑖃 ya		
3	권설음(反舌音)	𑖆 ṣa	𑖈 ra		
4	치조음(齒音)	𑖓 sa		𑖑 la	
5	脣音(순음)	𑖕 va			
					𑖙 kṣa

16) 흔히 'k-'계열을 '牙音'이라 하고, 't-'계열을 '舌音'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각각 '喉音'과 '齒音'이라고 한다. 본고는 연구의 편리를 위하여 위 '喉音'을 연구개음이라하고 '口蓋音'을 경구개음, '齒音'을 치조음이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反舌音'이란 용어는 다소 생소하며 한국어 음운체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권설성의 특징을 갖는 것이므로 '권설음'이라고 부르겠다.

편구성을 본다면 마찰음 역시 비음과 같이 각 조음위치마다 하나씩 다 배열되어 있다. 그리고 현대 음성학적으로 후음에 속하는 ‘h’을 연구개음과 같은 계열로 자리를 매겨준 것도 특이하다. 그리고 자음연쇄 부분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지만 범자 음절에서도 한국어 활음과 같이 기능을 하는 반자음이 존재하는데 ‘r’과 ‘y’ 두 가지가 있다. 관련 상세한 설명은 자음 연쇄에서 할 것이다¹⁷⁾ 그리고 ‘ks’은 형태상 분명 복자음에 속하는데 실답자기에서 기본 자음으로 간주하였다. 다음 llam은 잘 사용되지 않는 표기이다. 연구의 편의를 위하여 본고는 ‘ks’은 자음연쇄와 함께 다룰 것이며 llam은 한국 진언자료에서 나타나지 않으므로 연구 범위에 넣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총 35개 범자 체문에서 두 개를 제외한 33개를 산스크리트 기본 자음으로 할 것이다.

다음은 범자 마다에 대해 보겠다. 마다는 모두 16개 있는데 크게 通摩多와 別摩多로 나누어 통마다에는 12개가 있고 별마다에는 4개가 있다. 그리고 마다도 체문과 같이 五聲類의 틀에 넣어 분류한다. 현대 음성학과 결부하여 본다면 아래와 같다.

通摩多(12개)	喉音(연구개음)	ᄠa ᄠā ᄠe ᄠai ᄠah
	口蓋音(경구개음)	ᄡi ᄡi
	脣音(순음)	ᄢu ᄢū ᄢo ᄢau ᄠam
別摩多(4개)	反舌音(권설음)	ᄣr ᄣr
	齒音(치조음)	ᄤl ᄤl

위 도표를 보면 통마다에서 喉音(연구개음) 마다는 중저모음에 속하고 口蓋音(경구개음) 마다는 전설고모음에 속하며 脣音(순음) 마다는 대개 원순모음에 속한다. 그런데 喉音(연구개음)의 ‘ah’와 脣音(순음)의 ‘am’은 음절말에 자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엄격히 말하면 기타 모음과 다르다. 범자는 훈민정음과 같이 초성, 중성, 종성으로 3분하지 않고 체문과 마다로 2분 하였으므로 마다의 범주에 넣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am, ah’의 ‘-m, -h’은 한국어의 종성과 좀 차이가 보이는데 늘 앞뒤 음운환경에 따라 음가가 수시로 변화한다. 산스크리트 연구에서 음운변화를 흔히 산디현상이라고 부르는데 ‘-m’은 늘 후행 자음이 牙音일 때 ‘ᄡ’으로 변화하거나, ‘s’가 특정한 환경에서 ‘-h’로 변화하여 이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기 고하다. 산스크리트 연구분야에서 흔히 ‘-m’을 ‘아누스와라’라 부르고 ‘-h’을 ‘위사르가’라고 부른다. (전순환 2005 참고) 그리고 별마다는 비교적 특이한바 4개의 마다 ‘r, ᄣr, l, ᄤl’은 자음의 성격을 띠지만 마다로 분류하였다. 실제로 이 4개 마다는 모음과 같은 위치에 있어 ‘자음성 모음’이라 볼 수도 있겠다.

현대 음성학 이론에 의하면 모음은 저애를 받지 않는 음이므로 엄격하게 보면 위 16개 마다 전체를 모음으로 보기 어렵다. 본고는 현대 음성학 이론을 따라 위 16개 마다에 대해 다시 재분류를 진행할 것이다. 우선 별마다 4개의 자음성을 고려하여 자음연쇄와 함께 연구를 진행할 것이고 ‘am, ah’을 음절말에 자음이 있는 형태로 간주하여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즉 범자의 마다를 통하여 분석한 산스크리트의 모음은 10개이다.

현대 음성학의 모음 사각도와 결부하여 고, 중, 저의 대립과 원순과 비원순의 대립으로

17) 이진호 수정판 <국어음운론 강의>에서 전통적으로 부르던 한국어 음절구조에서의 ‘활음’을 ‘반모음’이라 불렀다. 필자 역시 하나의 독립적인 음소를 갖춘다는 점에서 ‘활음’보다 ‘반모음’이라고 부른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나누면 아래와 같다.

비원순			원순	
	短母音	長母音	短母音	長母音
高	i	ī	u	ū
中	e	(ai)	o	(au)
低	a	ā		

위 도표를 보면 5개 단모음(短母音) ‘a, e, i, o, u’와 짝 지은 5개 장모음(長母音) ‘ā, ai, ī, au, ū’가 특징적이다. 그 중 기본 세 모음 ‘a, i, u’와 짝을 이루는 장모음 ‘ā, ī, ū’은 여전히 단모음(單母音)이지만 ‘e, o’와 짝을 이루는 장모음 ‘ai, au’는 동시에 이중모음(二重母音)이기도 하다.

3.2 실담형 범자의 문자변형

범자에서 모음을 단독적으로 나타낼 때 별도의 범자를 사용하지만 자음과 결합할 때는 한글과 같이 음소표기와 음소표기의 결합이 아니라 자음표기에 사용되었던 기본모음 ‘a’의 범자에 모음을 나타내는 부차적인 표기를 덧붙여준다. 예를 들면 장모음 ā는 일반 범자의 오른쪽 귀퉁이에 모음표기를 해주는데 □과 같이 한다. 다른 모음도 마찬가지이다. 구체적으로 모음 표기를 k자음 즉 ‘ka’ 음절(𐄀)을 예로 보겠다.

모음음절		“자음+모음” 결합음절	
a	𐄀	ka	𐄀
ā	𐄁	kā	𐄁
i	𐄂	ki	𐄂
ī	𐄃	kī	𐄃
u	𐄄	ku	𐄄
ū	𐄅	kū	𐄅
e	𐄆	ke	𐄆
ai	𐄇	kai	𐄇
o	𐄈	ko	𐄈
au	𐄉	kau	𐄉
aṁ	𐄊	kaṁ	𐄊
aḥ	𐄋	kaḥ	𐄋

위 도표를 보면 기본자음 𐄀에 모음 기호가 덧붙여서 자음과 모음 결합의 음절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ku, kū’를 본다면 자음 모양이 좀 변형되었음을 볼 수 있다. 즉 ‘ku’의 𐄄, ‘kū’의 𐄅를 보면 모음기호가 아래에 붙어 상하구조를 갖고 있으며 기본자음의 𐄀

이 𑖦의 형태로 변화함을 볼 수 있다. 이런 형태변화는 자음군에서도 보여주는 예를 들면 ‘kya’는 𑖦𑖅, ‘kra’는 𑖦𑖅이다. 이런 자음의 변형은 다른 자음에서도 나타나며 上部에 있을 때의 형태와 下部에 위치하였을 때의 형태가 다르기도 하는데 아래 도표와 같다.

		上部	下部			上部	下部
1	𑖦 ka	𑖦	𑖦	18	𑖦 da	𑖦	𑖦
2	𑖦 kha	𑖦	𑖦	19	𑖦 dha	𑖦	𑖦
3	𑖦 ga	𑖦	𑖦	20	𑖦 na	𑖦	𑖦
4	𑖦 gha	𑖦	𑖦	21	𑖦 pa	𑖦	𑖦
5	𑖦 ṇa	𑖦	𑖦	22	𑖦 pha	𑖦	𑖦
6	𑖦 ca	𑖦	𑖦	23	𑖦 ba	𑖦	𑖦
7	𑖦 cha	𑖦	𑖦	24	𑖦 bha	𑖦	𑖦
8	𑖦 ja	𑖦	𑖦 𑖦	25	𑖦 ma	𑖦	𑖦
9	𑖦 jha	𑖦	𑖦	26	𑖦 ya	𑖦	𑖦
10	𑖦 ṇa	𑖦	𑖦 𑖦	27	𑖦 ra	𑖦	𑖦
11	𑖦 ṭa	𑖦	𑖦	28	𑖦 la	𑖦	𑖦
12	𑖦 tha	𑖦	𑖦	29	𑖦 va	𑖦	𑖦
13	𑖦 ḍa	𑖦	𑖦	30	𑖦 śa	𑖦	𑖦
14	𑖦 ḍha	𑖦	𑖦	31	𑖦 ṣa	𑖦	𑖦
15	𑖦 ṇa	𑖦	𑖦	32	𑖦 sa	𑖦	𑖦
16	𑖦 ta	𑖦	𑖦	33	𑖦 ha	𑖦	𑖦
17	𑖦 tha	𑖦	𑖦	34	𑖦 kṣa	𑖦	𑖦

앞서 살펴본 기본자음 33개 자음은 單子音에 속하며 그리고 단자음에 기본모음 특히 모음 a인 음절이 산스크리트 모든 음절 개수에서 거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그 외 음절유형은 자음연쇄가 보편적이다. 실담형 범자에서 이런 자음연쇄의 유형에 대한 분석을 실담자기에서 살펴볼 수 있다. 실담형 범자는 음절의 유형에 따라 모두 18개의 章으로 나누었는데 크게 單章, 餘單章, 重章, 異章, 難覺章, 孤合章으로 나눈다. 앞 17장을 정장(正章)이라 하고 제18장을 고향장(孤合章)이라 이름하며, 정장을 또 전7장, 후 7장, 이장(異章)으로 나눈다.

單章: 하나의 자모에 의해 구성

餘單章: 자모와 반체의 결합

重章: 자모를 중복시켜 구성

異章: 앞의 내용과 구성이 같지 않다는 뜻

제1장이 單章이며 하나의 자모에 의해 구성되었는데 이를 初章이라 부르기도 하고 실담자의 처음 나타는 글자들을 따서 ‘迦迦章’이라 부르기도 한다. 제1장은 34개 자음에 개의 마다(모음)이 붙어 글자로 총 408자를 만든다. 여기서 개 마다란 6개의 마다에서 자음성모음인 ‘r, ṛ, l, ḷ’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r, ṛ, l, ḷ’과 자음과의 결합은 따로 제16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남은 개 마다에서 음절말음인 ‘am, ah’을 제외한다면 여기서 실담문자 보여주

는 음절구조는 기본적으로 ‘CV형’이 될 것이다.

실답자기에서 ‘y’와 ‘r’을 반체(半體)자모라 불러 기타 자음과 대조를 이루며 반체자모가 참여하는 음절의 글자들을 餘單章에 넣었다. 즉 Cy-, Cr-와 같은 자음연쇄의 구조를 갖는다. 그리고 y와 r이 삽입되는 위치에 똑같은 방식으로 기타 자음 ‘l, v, m, n’을 넣는데 이들은 ‘y, r’과 달리 반체가 아닌 완전한 자모로 보아 두 완전한 자음의 결합이란 의미로 重章이라 부른다. 그리고 위의 여러 음절 유형의 음절 초에 또 r-의 어두자음이 자음 붙어서 二重, 三重의 자음연쇄 음절 구조를 형성하기도 한다. 즉 제1장은 기본음절이며 單子音 C-의 구조를 갖고 제2장부터 기본음절의 자음과 모음 사이에 기타 자음이 삽입되어 Cy-, Cr-, Cl-, Cv-, Cm-, Cn-의 자음연쇄 구조를 갖는데 각각 제2, 3, 4, 5, 6, 7장을 이룬다. 다음 제8장부터는 앞서 음절 앞에 또 r-의 어두자음을 덧붙여서 rC-, rCy-, rCr-, rCl-, rCv-, rCm-, rCn-의 자음연쇄 구조로 제8, 9, 10, 11, 12, 13, 14장을 형성한다.

위 내용들을 아래 도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章	章名	字數	결합	범자	자음구조
제1장	迦迦 _引 章 初章, 單章	408	자음+12모음표기	𑖀 (kā) 𑖁 (ki)	C-
제2장	枳也枳耶 _引 章 餘單章	384	자음+ 𑖥 (y) +모음표기	𑖡 (kya) 𑖢 (kyā)	Cy-
제3장	迦略迦略 _引 章 餘單章	396	자음+ 𑖦 (r) +모음표기	𑖣 (kra) 𑖤 (krā)	Cr-
제4장	迦囉迦囉 _引 章 重章	384	자음+ 𑖨 (l) +모음표기	𑖥 (kla) 𑖧 (klā)	Cl-
제5장	迦嚩迦嚩 _引 章 重章	384	자음+ 𑖪 (v) +모음표기	𑖨 (kva) 𑖩 (kvā)	Cv-
제6장	迦磨迦磨 _引 章 重章	384	자음+ 𑖬 (m) +모음표기	𑖪 (kma) 𑖫 (kmā)	Cm-
제7장	迦那迦那 _引 章 重章	384	자음+ 𑖮 (n) +모음표기	𑖬 (kna) 𑖭 (knā)	Cn-
제8장	阿勒迦章 餘單章	396	𑖯 (r) +자음+모음표기	𑖯 (rka) 𑖰 (rki)	rC-
제9장	阿勒枳耶章 餘單章	384	𑖯 (r) +자음+ 𑖥 (y) +모음표기	𑖱 (rkya) 𑖲 (rkyā)	rCy-
제10장	阿勒迦略章 餘單章	396	𑖯 (r) +자음+ 𑖦 (r) +모음표기	𑖱 (rkra) 𑖲 (rkrā)	rCr-
제11장	阿勒迦囉章 重章	384	𑖯 (r) +자음+ 𑖨 (l) +모음표기	𑖱 (rkla) 𑖲 (rklā)	rCl-
제12장	阿勒迦嚩章 重章	384	𑖯 (r) +자음+ 𑖪 (v) +모음표기	𑖱 (rkva) 𑖲 (rkvā)	rCv-
제13장	阿勒迦磨章 重章	384	𑖯 (r) +자음+ 𑖬 (m) +모음표기	𑖱 (rkma) 𑖲 (rkmā)	rCm-
제14장	阿勒迦那章 重章	384	𑖯 (r) +자음+ 𑖮 (n) +모음표기	𑖱 (rkna) 𑖲 (rknā)	rCn-
제15장	阿盎迦章 異章	348	비음+자음+모음표기	𑖳 (nka) 𑖴 (ñca)	nC-
제16장	紇哩章 異章	136	자음+ 𑖴 (ṛ), 𑖵 (ṝ)	𑖴 (kr̄) 𑖵 (kr̄̄)	Cr
제17장	阿索迦章 異章	396	일부자음+자음+모음표기	𑖶 (ska) 𑖷 (dga)	sC-등

제18장	阿跛多章 無盡章,孤合章	124	기타 결함	𑖦 (pta) 𑖧 (tka)	CC-등
------	-----------------	-----	-------	-----------------	------

4. 한국 진언 범자의 자형 특징

◆ 開音節, 단자음, CV (單자음+모음)

	자음	a/ā 모음			i / ī 모음			u / ū 모음		
		실답	진언범자		실답	진언범자		실답	진언범자	
1	k-	𑖪	𑖪	𑖪	𑖪	𑖪		𑖪		
2	kh-	𑖫	𑖫		𑖫			𑖫		
3	g-	𑖬	𑖬		𑖬	𑖬		𑖬		
4	gh-	𑖭		𑖭	𑖭			𑖭		
5	ṇ-	𑖮			𑖮			𑖮		
6	t-	𑖯	𑖯	𑖯	𑖯	𑖯		𑖯	𑖯	
7	th-	𑖰	𑖰	𑖰	𑖰			𑖰		
8	d-	𑖱	𑖱		𑖱	𑖱		𑖱		
9	dh-	𑖲	𑖲		𑖲	𑖲		𑖲	𑖲	
10	n-	𑖳	𑖳	𑖳	𑖳	𑖳		𑖳		
11	ṭ-	𑖴	𑖴		𑖴			𑖴		
12	ṭh-	𑖵	𑖵		𑖵			𑖵		
13	ḍ-	𑖶	𑖶		𑖶			𑖶		
14	ḍh-	𑖷	𑖷		𑖷			𑖷		
15	ṇ-	𑖸	𑖸		𑖸	𑖸	𑖸	𑖸		
16	p-	𑖹	𑖹		𑖹			𑖹	𑖹	
17	ph-	𑖺	𑖺		𑖺			𑖺		
18	bh-	𑖻	𑖻	𑖻	𑖻	𑖻		𑖻		𑖻
19	b-	𑖼			𑖼	𑖼		𑖼	𑖼	
20	m-	𑖽	𑖽	𑖽	𑖽	𑖽		𑖽	𑖽	
21	c-	𑖾	𑖾		𑖾			𑖾		
22	ch-	𑖿		𑖿	𑖿			𑖿		
23	j-	𑗀	𑗀		𑗀	𑗀		𑗀		

24	v-	व	व		व	व		व		
25	ś-	श	श		श			श	श	श
26	ṣ-	ष	ष		ष			ष		
27	s-	स	स	स	स	स		स	स	
28	y-	य	य	य	य	य		य	य	
29	h-	ह	ह	ह	ह			ह	ह	
30	r-	र	र	र	र	र		र	र	र
31	l-	ल	ल		ल			ल		

		e모음		ai 모음		o모음		au모음	
	전사	실답	진언						
1	k-	क	क	क	क	क	क	क	
2	g-	ग		ग		ग		ग	
3	kh-	ख		ख		ख		ख	
4	gh-	ग		ग		ग		ग	
5	t-	त	त	त		त		त	
6	dh-	ध		ध		ध		ध	
7	d-	द		द		द		द	
8	n-	न	न	न		न		न	
9	ḍh-	ढ		ढ		ढ		ढ	
10	ṇ-	ण		ण		ण		ण	
11	p-	प		प		प		प	
12	ph-	फ		फ		फ		फ	
13	b-	ब		ब		ब	ब	ब	
14	bh-	भ		भ		भ		भ	
15	v-	व		व		व		व	
16	m-	म		म	म	म	म	म	
17	c-	च		च		च	च	च	
18	ch-	छ		छ		छ		छ	

19	j-	ᄃ		ᄃᄃ		ᄃ		ᄃᄃ	
20	ś-	ᄃᄃ		ᄃᄃᄃ		ᄃᄃ		ᄃᄃᄃ	
21	ṣ-	ᄃᄃ		ᄃᄃ		ᄃᄃ		ᄃᄃ	
22	s-	ᄃᄃ		ᄃᄃᄃ		ᄃᄃ		ᄃᄃᄃ	
	y-	ᄃᄃ		ᄃᄃ		ᄃᄃ		ᄃᄃᄃ	
	h-	ᄃᄃ		ᄃᄃ		ᄃᄃ		ᄃᄃᄃ	
	r-	ᄃᄃ		ᄃᄃᄃ		ᄃᄃ		ᄃᄃᄃ	
	l-	ᄃᄃ		ᄃᄃ		ᄃᄃ		ᄃᄃᄃ	

	전사	실담범자	진언범자
1	kr̥	ᄃᄃ	
2	gr̥	ᄃᄃ	
3	tr̥	ᄃᄃ	
4	dr̥	ᄃᄃ	
5	dh̥r̥	ᄃᄃ	
6	pr̥	ᄃᄃ	
7	br̥	ᄃᄃ	
8	m̥r̥	ᄃᄃ	
9	jr̥	ᄃᄃ	
10	hr̥	ᄃᄃ	

	전사	실담범자	진언범자
1	a	ᄃᄃ	
2	i	ᄃᄃ	
3	e	ᄃᄃ	
4	u	ᄃᄃ	
5	o	ᄃᄃ	
6	ṭ		
7	ṭh		

◆ 開音節, 복자음 CcV (主자음+副자음+모음, 제2자음이 副자음)

1. CyV, CrV

1	kya	ᄃᄃ			kra	ᄃᄃ		
2	gya	ᄃᄃ			gra	ᄃᄃ		
3	ghya	ᄃᄃ			ghra	ᄃᄃ		
4	tya	ᄃᄃ			tra	ᄃᄃ		
5	dya	ᄃᄃ			dra	ᄃᄃ		
6	dhya	ᄃᄃ			dhra	ᄃᄃ		

7	nya	ᄃᆞ			nra	ᄃᆞ		
8	ṇya	ᄃᆞ			ṇra	ᄃᆞ		
9	pya	ᄃᆞ			pra	ᄃᆞ		
10	bya	ᄃᆞ			bra	ᄃᆞ		
11	bhya	ᄃᆞ			bhra	ᄃᆞ		
12	mya	ᄃᆞ			mra	ᄃᆞ		
13	vya	ᄃᆞ			vra	ᄃᆞ		
14	cya	ᄃᆞ			cra	ᄃᆞ		
16	jya	ᄃᆞ			jra	ᄃᆞ		
17	ṣya	ᄃᆞ			śra	ᄃᆞ		
18	sya	ᄃᆞ	 		sra	ᄃᆞ		
19	hya	ᄃᆞ			hra	ᄃᆞ		
20	lya	ᄃᆞ			lra	ᄃᆞ		

1	gri	ᄃᆞ		
2	tri	ᄃᆞ		
3	dri	ᄃᆞ		
4	drī	ᄃᆞ		
5	nri	ᄃᆞ		
6	śri	ᄃᆞ		

1	hye	ᄃᆞ		
2	tye	ᄃᆞ		
3	gre	ᄃᆞ		
4	tre	ᄃᆞ		
5	dre	ᄃᆞ		
6	nre	ᄃᆞ		
7	pre	ᄃᆞ		
8	jre	ᄃᆞ		
9	sre	ᄃᆞ		

1	tyo	ᄃᆞ		
2	kro	ᄃᆞ		
3	jro	ᄃᆞ		
4	śro	ᄃᆞ		
5	tyu	ᄃᆞ		
6	dyu	ᄃᆞ		
7	myu	ᄃᆞ		
8	tru	ᄃᆞ		

1	traī	ᄃᆞ		
2	drau	ᄃᆞ		
3	srau	ᄃᆞ		
4	hla	ᄃᆞ		

2. CvV, CmV, CnV

1	tva			
2	nva			
3	jva			
4	śva			
5	sva			
6	hva			
7	tve			
8	dve			
9	nve			
10	śve			

1	tma			
2	dma			
	nma			
3	śma			
4	ṣma			
5	sma			
6	hma			
7	dmi			
8	ṣmi			

	전사	실담범자	진언범자
1	gna		
2	ghna		
3	tna		
4	pna		
5	gni		
6	gno		

◆ 음절유형4: 開音節, 복자음 cCV (副자음+主자음+모음, 제1자음이 副자음)

1. rCV

	전사	실담	진언범자
1	rga		
2	rta		
3	rtha		
4	rdha		

2. nCV, ṇCV, ṅCV, ṁCV

	전사	실담	진언범자
1	nta		
2	nda		
3	ndha		
4	nti		

5	rṭa	ṛṭ		
6	rṇa	ṛṇ		
7	rpa	ṛp		
8	rbha	ṛb		ṛb
9	rma	ṛm	ṛm	
10	rva	ṛv		ṛv
11	rya	ṛy	ṛy	ṛy
12	rha	ṛh		
13	rja	ṛj		
14	rśa	ṛś	ṛś	
15	rṣa	ṛṣ		
16	rgi	ṛg		
17	rti	ṛt		
18	rthi	ṛth		
19	rdi	ṛd		
20	rdhi	ṛdh		
21	rbhi	ṛbh		
22	rṣi	ṛṣ		
23	rṣī	ṛṣī		
24	rge	ṛg		
25	rte	ṛt	ṛt	
26	rthe	ṛth		
27	rbhe	ṛbh	ṛbh	
28	rye	ṛy		
29	rve	ṛv		
30	rbo	ṛb		
31	rbhu	ṛbh		

5	ndi	ṇḍ		
6	ndī	ṇḍī		
7	nte	ṇḍ	ṇḍ	
8	nde	ṇḍ	ṇḍ	
9	ndhe	ṇḍh		
10	ntu	ṇḍ		
11	ṇṭa	ṇḍ		
12	ṇṭha	ṇḍh	ṇḍh	
13	ṇṭi	ṇḍ		
14	ñca	ṇḍ		
15	ñja	ṇḍ		
16	ṇkha		ṇḍ	
17	ṇga	ṇḍ		
18	nna	ṇḍ		
19	nni	ṇḍ		
20	ṇda			
21	ṇdha			
22	ṇḍi			
23	ṇḍī			
24	ṇde			

3. tCV, dCV

	전사	실담	진언범자	
1	tta			
	tpā			
2	ddha			
3	ddhi			
4	ddhe			

4. sCV, ṣCV, śCV

	전사	실담	진언	
1	ska			
2	sta			
3	sti			
4	sca			
5	sci			
6	stu			
7	spha			
8	spho			
9	skṛ			
10	ṣpa			
11	ṣda			
12	ṣṭa			
13	ṣṭi			
14	ṣṭai			
15	ṣṭha			
16	ṣṭhi			
17	ṣṇa			
18	ṣṇi			
19	ṣṇo			
20	śpai			

5. kCV, mCV

순서	전사	실담범자	진언범자
1	kṣa		
2	kṣi		
3	kdha		
4	kta		
5	kku		
6	kte		
7	kga		
8	mbha		
	bṇa		

◆ 음절유형5: 開音節, 복자음 cCcV (副자음+主자음+副자음+모음)

nCcV, dCcV, sCcV, ṣCcV, kCcV

순서	전사	실담범자	진언범자
1	ntyā		
2	ntrā		
3	ddhya		
4	styā		
5	strā		
6	ṣṭrā		
7	ṣpre		
8	kpra		

◆ 음절유형6: 閉音節, 단자음 CVm, CVh

1. CVm

순서	전사	실답범자	진언범자	
1	kaṁ			
2	gaṁ			
3	taṁ			
4	dāṁ	(dāṁ)		
5	naṁ			
6	ṭaṁ			
7	ṇaṁ	(ṇaṁ)		
8	paṁ			
9	bāṁ	(bāṁ)		
10	bhaṁ			
11	maṁ			
12	vaṁ			
13	jaṁ			
14	ṣaṁ			
15	saṁ			
16	haṁ			
17	raṁ			
18	laṁ			
19	śaṁ			
20	yaṁ			
21	ṭiṁ			
22	ṇiṁ			
23	niṁ			
24	piṁ			
25	viṁ			
26	ṣiṁ			
27	siṁ			
28	riṁ			
29	liṁ			
30	huṁ			
31	suṁ			
32	oṁ			

33	meṃ			
34	jrṃ			
35	bhrṃ			

2. CVḥ

순서	전사	실담범자	진언범자
1	gaḥ		
2	daḥ		
3	naḥ		
4	paḥ		
5	maḥ		
6	vaḥ		
7	yaḥ		
8	haḥ		
9	raḥ		
10	duḥ		
11	bhuḥ		
12	yuḥ		
13	koḥ		

◆ 음절유형7: 閉音節, 복자음 CcVṃ, cCVṃ, CcVḥ

1. CcVṃ

순서	전사	실담범자	진언범자
1	tyaṃ		
2	dyaṃ		
3	myeṃ		
4	ghraṃ		
5	traṃ		
6	truṃ		
7	jaṃ		
8	dmaṃ		
9	hmeṃ		
10	dhvaṃ		

2. cCVm̐

순서	전사	실담범자	진언범자
1	rmaṁ		
2	ddhiṁ		
3	ntaṁ		
4	ndhaṁ		
5	ṇdaṁ		
6	ṇdīṁ		
7	ṣṭaṁ		
8	śmaṁ		
9	kṣaṁ		
10	ptaṁ		
11	mbha		

3. CcVḥ

순서	전사	실담범자	진언범자
1	bhyaḥ		
2	svaḥ		
3	ryaḥ		

**한국어 전사 자료 연구를 위한
가나 대응 로마자 표기의 입력 방식에 대한 제언**
- 일제강점기 한국어 학습서 『局員須知日鮮會話』(1912)를 중심으로 -

김준수(한국, 서울시립대)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이 연구는 중세 한국어 시기부터 발간된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학습서¹⁾를 말뭉치로 구축하는 데 있어 그 기틀을 마련하고자 효과적인 가나 대응 로마자 전사 표기의 입력 방식을 제안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즉, 한국어사를 좀 더 효과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입력 방법을 고안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한·일 양국은 이른 시기부터 교류해 왔으며 양국의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 간행된 학습서는 당대의 현실 언어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다. 특히, 자국의 문자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언어 현실을 나타내려는 시도는 한국어와 일본어 연구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문헌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음운론 연구에는 큰 맹점이 있는데, 문자가 가지고 있는 보수성으로 말미암아 당시의 음운 체계를 구현해 내는 데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 학습서와 같은 역학서 류의 자료들은 현지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대의 현실 발화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각국의 언어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역학서 편찬자들은 그 간극을 매우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 내었다. 예컨대, 개화기 한국어 학습서에서는 일본어 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한국어 모음 /ㅐ/를 나타내기 위해 *ㅐ(e)*, *イヤ(iya)*, *アイ(ai)* 등의 다양한 가나 표기를 활용하였다(김준수 2023). 이러한 일대다(一對多)의 대응을 통해 연구자들은 한국어 /ㅐ/의 음소·음성적 지위를 추측해 볼 수 있었다.

이외에도 역학서에는 당시에 사용된 생활 어휘, 외래어나 역사적 사실 등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어휘 연구나 문화 연구에도 유용하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자료들을 데이터화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큰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근대 한국어 시기 『全一道人』(1729)을 비롯하여 일제강점기까지 간행된 한국어 학습서는 한국어를 어떻게 표기하고 있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바로 한글 표기만 존재하는 학습서, 가나 표기만 존재하는 학습서, 한글 표기와 가나 표기가 공존하는 학습서이다. 이중 가나 표기가 존재하는 학습서 류가 본고의 주된 연구 대상이 된다.

한국어에 대응되는 가나 표기의 성격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발음식 모사, 즉 전사(轉寫, transcription)이고 또 하나는 철자식 모사, 즉 전자(轉字, transliteration)이다(송민 1986: 11 주6). 한국어에 대응되는 가나 표기가 전자적인지, 전사적인지를 판별하려면 결국 가나 표기가 당시의 현실 한국어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1)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서를 濱田敦(1970: 37)에서는 ‘조선자료’로, 陳南澤(2003: 3)에서는 ‘일본자료’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들은 분류에 있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인영(2021)에 따라 ‘대역자료’, 그중 ‘한국어 전사 자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대역 자료’는 외국어 단어나 문장을 그에 대응하는 자국어 표현과 함께 제시한 자료를 일컬으며, ‘한국어 전사 자료’는 한국어를 가나로 나타낸 자료를 뜻한다.

① 한글 표기(한국어)	② (한국어 대응) 가나 표기	③ (가나 대응) 로마자 표기
사람	サラム	saramu
사라미/사람이	サラミ/サラムイ	sarami/saramui
← 전자/전사 →		← 전자 →

〈표 1〉 표기 간의 관계

많은 선행 연구들은 〈표 1〉과 같이 ①과 ②의 대응 관계를 살피고 ②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큰 관심을 두었다(박기영 2005, 허인영 2014, 허인영 2021 등). 그러나 한국어의 음운 구조와 일본어의 음운 체계(구조)뿐만 아니라 각자 사용하는 문자의 성격이 달라, ①과 ②를 직접 대응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일본의 가나는 한글과 동일하게 표음 문자이지만, 보통 하나의 가나 글자가 CV구조(모라 단위)를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사람’ 2음절을 가나 ‘サラム’ 세 글자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 ‘사람’의 ‘람’에 대해서 ‘ラ’는 ‘라’(초성+중성), ‘ム’는 ‘로’(종성)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가나 표기 ‘サラム’의 음절 경계를 구분한다면 ‘サ\$ラム’가 된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①과 ②를 직접 대응하는 것은 연구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②를 ③으로 치환(대체로 전자적 표기로 치환)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방법이 표면적 발음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국제적 일반성이나 분석에 있어서 이점이 크기 때문이다(송민 1986). 가령, ‘사람’에 대해 ‘saramu’와 같은 로마자 표기를 사용한다면,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음소 ‘ㅅ, ㅌ, ㄹ, ㅌ, ㅍ’에 대해 각기 ‘s, a, r, a, mu’가 대응함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자료를 데이터화한다면 컴퓨터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한국어 특정 음소에 대응하는 가나 표기의 빈도를 추출해 내거나 출현 환경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통계적 검증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²⁾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②를 ③으로 치환하는 방법이 선행 연구마다 상이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학습서의 편찬자에 따라 가나 표기에 독창적인 보조기호를 덧붙이는 경우도 있어서 통일된 가나 대응 로마자 전자 표기(이하 로마자 표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서 ③에 대한 새로운 입력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된 로마자 표기의 특징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입력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局員須知日鮮會話』(1912)를 대상으로 하여 그 입력 방식을 적용해 본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파이썬(python)을 활용하여 한국어의 특정 음소와 가나 표기의 대응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로마자 표기의 입력 방식

2.1. 송민(1986)

먼저 송민(1986)에서는 雨森芳洲의 『全一道人』(1729)을 대상으로, 해당 자료에 나타난 근대 한국어 음운 현상을 다루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가나를 음성기호(로마자)로 전자하여 제시하였다.

2) 허인영(2014: 5)에서는 한국어에 대응하는 가나 표기를 통해 음운론적 논의를 진행하려면 가나 전사가 표상하는 어휘 및 음소에 대한 계량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아래는 송민(1986)에 제시된 가나에 대응하는 로마자 전자 목록이다. 여기에는 현대 일본어 문자 체계에 쓰이지 않는 역사적 가나 표기도 몇몇 나타난다.

ア	イ	ウ	エ	オ
'a	'i	'u	'e	'o
カ	キ	ク	ケ	コ
ka	ki	ku	ke	ko
ガ	ギ	グ	ゲ	ゴ
ga	gi	gu	ge	go
サ	シ	ス	セ	ソ
sa	si	su	se	so
ザ	ジ	ズ	ゼ	ゾ
za	zi	zu	ze	zo
タ	チ	ツ	テ	ト
ta	t ^s i	t ^s u	te	to
ダ	ヂ	ヅ	デ	ド
da	d ^z i	d ^z u	de	do
ハ	ヒ	フ	ヘ	ホ
ha	hi	hu	he	ho
バ	ビ	ブ	ベ	ボ
ba	bi	bu	be	bo
パ	ピ	プ	ペ	ポ
p ^q a	p ^q i	p ^q u	p ^q e	p ^q o
ナ	ニ	ヌ	ネ	ノ
na	ni	nu	ne	no
マ	ミ	ム	メ	モ
ma	mi	mu	me	mo
ワ	ヰ		ヱ	ヲ
wa	wi		we	wo
ヤ		ユ		ヨ
ya		yu		yo
ン(음절말)	ッ(음절말)			
N	Q			

〈표 2〉 가나에 대응하는 로마자 표기 목록(송민 1986)

한국어의 음소 개수와 일본어의 음소 개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표 2〉의 목록만으로는 한국어의 음소를 모두 표현해 낼 수 없다. 이런 연유로 『全一道人』의 편찬자 雨森芳洲는 보조기호를 활용하였는데, 아래 표와 같이 가나 우상단에 삼점(〃)를 찍음으로써 기존 가나만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일부 한국어 음성을 전사한 것이다.

ハ〃	ヒ〃	フ〃	ヘ〃	ホ〃
pa	pi	pu	pe	po
サ〃				ソ〃
tsa				tso
			テ〃	
			tse	

〈표 3〉 보조기호를 활용한 가나 표기와 그에 대응하는 로마자 표기(송민 1986)

- ⑤ 장음(長音) [au], [ou], [eu], [iu] 등도 그대로 표기한다.
- ⑥ 『조선말어』에는 자료의 머리 부분에 소권점 ○표에 대한 주석이 있는데, ○표는 반탁음을 표기한 것 같다. pa行 음으로 표기한다.
- ⑦ 한국어는 어두에 탁음이 오지 않으나 『고려사지사』에는 da行 音, ba行 音이 보이고, 『왜어삼재도회』와 『조선말어』에는 da行 音, ba行 音, za行 音이 보인다. 또 어중에서의 탁음 표기도 정확하지 않은 예도 있으나 그대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ㄹ’로 시작하는 예가 있는데, 그것도 그대로 표기한다.

〈표 4〉 가나 대응 로마자 표기 원칙(사노 미에코 1996: 15)

송민(1986)에서 제시한 목록과 달라진 로마자 표기만을 따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ア	イ	ウ	エ	オ
a	i	u	e	o
	シ			
	ʃi			
	ジ			
	ʒi			
	チ	ツ		
	tʃi	tsu		
	ヂ	ヅ	デ	ド
	ʒi	zu	ze	zo
		フ		
		Fu		
ヤ		ユ		ヨ
ja		ju		jo
ン(음절말)				
n				

〈표 5〉 가나 대응 로마자 목록의 일부(사노 미에코 1996)

먼저 ア단은 작은따옴표(’) 없이 알파벳 하나만을 사용하고 있다. ‘シ, ジ, フ’ 등을 ‘ʃi, ʒi, Fu’ 등으로 전사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일본어의 내적 체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요음(활음)에 대해서 ‘y’ 대신 ‘j’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음절말 ‘ン’에 대해서 ‘n’(유니코드 0274) 대신 ‘n’를 사용하고 있다.

2.3. 박기영(2005)

박기영(2005)에서는 개화기 시기에 간행된 한국어 학습서를 대상으로 당시의 한국어 음운 특징을 살폈다. 여기에서는 “본고는 한국어 학습서에 나타나는 가나(假名)표기를 주자료로 사용하므로 가나(假名)표기를 로마자로 轉字하여 표기하되 이 로마자 표기가 음성기호로 해석되어도 무방한 것을 일차적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박기영 2005: 69)라고 그 원칙을 제시하였다.

ア a	カ ka	サ sa	タ ta	ナ na	ハ ha	パ pa	マ ma	ヤ ya	ラ ra	ワ wa
イ i	キ ki	シ si	チ chi	ニ ni	ヒ hi	ピ pi	ミ mi		リ ri	
ウ u	ク ku	ス su	ツ tsu	ヌ nu	フ hu	プ pu	ム mu	ユ yu	ル ru	

エ e	ケ ke	セ se	テ te	ネ ne	ヘ he	ペ pe	メ me		レ re	エ e
オ o	コ ko	ソ so	ト to	ノ no	ホ ho	ポ po	モ mo	ヨ yo	ロ ro	ヲ o
	ガ ga	ザ za	ダ da		バ ba					ン n
	ギ gi	ジ ji	ヂ ji		ビ bi					
	グ gu	ズ zu	ヅ zu		ブ bu					
	ゲ ge	ゼ ze	デ de		ベ be					
	ゴ go	ゾ zo	ド do		ボ bo					

〈표 6〉 가나 대응 로마자 표기 목록(박기영 2005)

‘오’와 ‘ヲ’에 대해서는 당시의 일본어 발음을 고려하여 로마자 ‘e, o’로 옮겼다. ‘치, 지, 즈, 쯔’에 대해서는 로마자 ‘chi, ji, zu, dzu’로 옮겼다.⁵⁾

2.4. 허인영(2014)

허인영(2014)에서는 雨森芳洲의 『全一道人』의 가나로 전사된 한국어를 한글로 복원하여 18세기의 한국어 음운 체계를 살폈다. 선행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가나 표기에 대한 로마자 전자 표기를 사용하였는데, 그 로마자 표기는 앞선 연구들과 대동소이하다.

ハ ^ㅁ	ヒ ^ㅁ	フ ^ㅁ	ヘ ^ㅁ	ホ ^ㅁ
pa	pi	pu	pe	po
		ヌ ^ㅁ		
		^d nu		

〈표 7〉 가나에 대응하는 로마자 표기 목록(허인영 2014)

‘ハ’행에 삼점(ㅁ)이 붙은 경우에는 로마자 ‘p-’로 처리하였으며, ‘ヌ’에 삼점(ㅁ)이 붙은 경우는 윗첨자를 활용하여 ‘^dnu’로 옮겼다. 또한 ‘ス’계 어두자음군과 ‘ㅍ’계 어두자음군에 사용되는 ‘ス’, ‘フ/ブ/フ^ㅁ’를 각각 로마자 ‘s’와 ‘b’로 옮겼다.

2.5. 허인영(2021)

허인영(2021)에서는 근대 한국어 시기에 간행된 역학서를 중심으로 한국어 모음의 변화를 살피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일본어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을 위해 가나 표기와 그에 대응하는 로마자 표기를 제시하였다. 앞선 연구들이 가나 표기를 단순히 전자하여 로마자로 옮겼다면, 해당 연구에서는 로마자를 대괄호([]) 안에 넣어 음성 표기를 나타내려고 하였다. 즉, 로마자 표기는 한국어 복원문을 바탕으로 한 당시의 한국어 발음인 것이다. 로마자 표기 원칙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① 음절 말 환경에 쓰인 ‘ブ(bu), ル(ru), ク(ku), ム(mu), グ(gu)’는 각각 [-p, -l, -k, -m, -ŋ]에 대응시켰다.
- ② 가나 ‘-i’와 ‘-y-’의 연쇄는 [-j-]에, 가나 ‘-u’와 ‘-w-’의 연쇄는 [-w-]에 대응시켰다.

5) 김준수·안기경·문경진·박기영(2020), 김준수(2023), 김준수(2024)도 박기영(2005)와 거의 유사한 로마자 표기법을 쓰고 있다.

③ 일부 전사 자료에서 사용되는 삼점(三點)은 ‘*’로, 호선(弧線)은 밑줄로 나타내었다. 호선이 연속될 경우에는 ‘.’으로 구별하였다.

〈표 8〉 로마자 옮긴 방식(허인영 2021: 21)

가령 『全一道人』에서는 한국어 ‘누워’(복원문)에 대해 ‘ドワ’와 ‘ヌヾワ’가 나타나는데, 이를 허인영(2021)에서는 로마자 [d^hnuwa]로 옮겼다. 이러한 로마자 표기는 비음성이 부족한 한국어 자음 ‘ㄴ’을 일본인들이 청취하고 ‘ド’나 ‘ヌヾ’로 적은 것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로마자 표기 방안은 로마자가 단순히 전자에 머무르지 않고, 당시의 현실 한국어 발음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3. 기존 로마자 표기 입력 방식의 한계점

① 음절 분석과 관련된 문제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로마자 표기 입력 방식의 한계점을 살펴본다. 『全一道人』은 한국어 전사 자료 중, 가나 표기만 있는 자료에 해당된다. 해당 자료에는 군데군데 한글로 된 주석식 첨기가 있는데, 이를 통해 가나 표기가 한국어의 어떤 음절을 전사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첨기는 전면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잇대어진 가나 문자를 읽는 이가 스스로 끊어 읽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아래는 송민(1986)에서 제시된 로마자 표기이다.

(2) 가. minsonirahanonsarami 민손이라흔사람이⁶⁾

손이라

나. カリオチモツハカイハゴ kari'ot^himoqhaka'ihako かりおち (못하게 하고)

(2가)를 보면 원문에는 ‘min’에 호선이 그어져 있어 이를 하나의 음절 ‘민’이라고 읽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손이라’라는 한글 첨기를 통해 ‘sonira’가 3음절의 ‘손이라’에 대응됨을 알 수 있다.⁷⁾ 아래 ‘hanonsarami’의 부분은 근대 한국어와 가나 표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서 끊어 읽어야 하는지(즉, 음절 경계가 어디인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음절 경계를 마침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 ha.non.sa.ra.mi 흔사람이⁸⁾

‘ha’가 ‘ㅎ’에, ‘non’이 ‘ㄴ’에, ‘sa’가 ‘사’에, ‘ra’가 ‘ㄹ’에, ‘mi’가 ‘미’에 대응됨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데이터화하여 컴퓨터 작업함에 있어서 마침표와 같은 음절 경계 표지(maker)를 활용하면 가나 표기(로마자 표기)와 한글 음절을 일대일로 대응하여 한국어 음소에 대응하는 가나 표기가 무엇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6) 한국어 복원은 安田章(1964)에서 제시된 것이다(송민 1986: 18 재인용).

7) 허인영(2014)에서는 한글 첨기는 당시의 관습적 표기를 따르고 있으며, 가나 표기는 한국어의 현실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8) 한국어 복원은 安田章(1964)에서 제시된 것이다(송민 1986: 18 재인용).

② 초성과 관련된 입력 문제

한국어 음운 체계에서 초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은 ‘ㅇ’을 제외한 18개이다. 그 목록은 평음 10개(ㄱ, ㄷ, ㄴ, ㄷ, ㄷ, ㄷ, ㄷ, ㄷ, ㄷ, ㄷ), 격음 4개(ㅋ, ㅌ, ㅍ, ㅊ), 경음 5개(ㅍ, ㅌ, ㅍ, ㅍ, ㅍ)이다. 이중 격음과 격음은 일본어 음운 체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를 가나로 전사하려고 시도했던 편찬자들에게는 큰 문제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한국어 학습서 편찬자들은 몇몇 방법을 동원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평음과 격음(경음)이 다른 소리라는 것을 학습서에 일러두되, 가나 표기로는 평음과 격음(경음)을 동일하게 표시한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대응되는 한글(한국어)이 있거나 학습자가 당시의 개화기 어형을 알고 있어야, 해당 가나가 평음을 나타낸 것인지, 격음(경음)을 나타낸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치마 ヌチマ’와 같이 맨 앞에 축음 표기 ヌ(ッ)를 붙임으로써 평음과 격음(경음)을 구별하려고 한 방법이다. 물론, 축음을 붙인다 하더라도 격음인지, 경음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은 있다.

마지막으로 가나 외의 보조 기호(『全一道人』의 삼점, 탁점, 반탁점 등)를 붙이는 방법이 있다. 세 방식 모두 한국어의 자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의 방편이었겠지만, 문제는 중성(모음)을 제외한 문자열(로마자)의 개수가 각각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본고는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python의 문자열 슬라이싱(slicing)을 활용하여, 이를 한국어 음운(또는 음절)에 대응하려고 한다. 결국 초성을 나타내는 로마자의 문자 개수를 통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개화기나 일제강점기의 한국어 학습서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근대 한국어 학습서에서는 어두자음군을 반영하는 가나 표기가 나타난다. ‘스’계 어두자음군에는 맨 앞에 스(su)를 사용하고, ‘ㅂ’계 어두자음군에는 ブ(bu) 등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싸 스バ’를 로마자로 ‘suba’라고 옮기게 되면 초성에 대응하는 로마자 문자열이 3개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 입력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계 어두자음군에 쓰인 스에 대해서는 로마자 s를, ‘ㅂ’계 어두자음군에 쓰인 ‘ブ’에 대해서는 로마자 ‘b’를 할당한다면 데이터 입력과 처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중성과 관련된 문제

다음으로 중성 입력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겠다. 현대 한국어에서 단모음은 11개(실질적으로는 9개)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중 ‘ㄱ, ㄷ, ㄴ, ㄷ’는 근대 한국어 시기까지 j가 후행하는 하향이중모음이었다. 한국어 ‘가’에 대해서는 力(ka)를, 한국어 ‘개’에 대해서는 ‘カイ’(kai)를 사용하고 있는데, 중성에 대응하는 것을 살펴볼 때, 전자는 로마자 ‘a’가, 후자는 로마자 ‘ai’가 한국어 중성에 대응하게 된다. 이때 문자열의 개수가 1개와 2개로 달라지기 때문에 컴퓨터로 처리하기에 어렵다. 이를 통일해 줄 필요가 있다.

문자열 개수와 관련된 문제는 한국어의 상향이중모음을 가나로 전사할 때도 나타난다.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에는 j계 상향이중모음과 w계 상향이중모음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상향이중모음을 표기하기 쉽다. 가령, 한국어 ‘가, 과’에 대해서는 보통 ‘キヤ(kiya)’와 ‘クワ(kuwa)’를 사용하고 이를 로마자로 ‘kiya’, ‘kuwa’로 옮기는 경우가 있다. 이때, 중성을 가리키는 문자열의 개수가 3개나 되게 된다.

이처럼 단모음이냐, 하향이중모음이냐, 상향이중모음이냐에 따라서 중성(모음)에 대응하는 로마자 문자열의 개수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는 파이썬 슬라이싱 작업에 있어서 어려움을 초래한다.

9) 후음 ‘ㅎ’은 학자에 따라 격음에 속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평음에 포함시킨다.

이를 통일화할 방안이 필요하다.

중성과 관련해서 신경 써야 할 문제가 또 있다. 바로, 장음(長音)의 문제이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모두 운소로서 장음이 존재하고 있다. 다만 한국어 표기에서는 장음을 반영하는 경우가 없지만, 일본어에서는 장음을 가나 표기로 반영하고 있다. 한국어에 대응하는 가나 전사 표기에도 장음을 반영하는 듯한 표기가 보이는데, 박기영(2005)에서는 해당 장음 표기가 어떠한 환경에서 나타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가나 전사 표기가 장음을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동일(유사) 모음을 사용하거나 보조 기호 ‘-’를 사용하는 것 등이다.

‘가’에 대해서 가나 표기는 ‘カア’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로마자로 표기하면 ‘kaa’가 된다. 또는 ‘가’에 대해서 ‘カ-’와 같이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는 로마자로 옮기면 ‘ka-’가 된다. 장음을 나타내는 장치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면, 로마자 표기에 이를 반영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④ 중성과 관련된 문제

마지막으로 중성 입력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한국어의 음절 구조에서 중성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이 7개 자음이 올 수 있으며, 이를 나타내기 위해 가나 표기는 우단 가나(ク, ツ, ル, ム, ブ)를 사용한다. 예컨대, ‘각’에 대해서 ‘カク(kaku)’라는 가나 표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때 중성에 해당하는 가나(로마자)는 ‘ク(ku)’이다. 이때 사용되는 로마자의 문자열 개수는 2개가 된다. 그러나 ‘간’과 같은 경우에는 ‘カン(kan)’처럼 표기되는데, 이때 중성에 사용되는 문자열 개수는 ‘n’ 하나이다. 중성에서도 문자열 개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부분 한국어 중성에서는 ‘ン(n)’나 ‘ツ(Q)’를 제외하면 우단 가나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u를 절삭하여 한국어 중성에 대응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자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가나 표기의 경우에는 한국어 ‘훈’에 대해서 ‘フルク’와 같은 표기를 보여 줄 때, 이를 로마자로 ‘huruku’로 옮기게 되는데, 이럴 경우 중성을 나타내는 문자열이 4개가 되기 때문에 총체적 분석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중성 ‘ㅇ’의 표기인데, ‘ㅇ’은 한국어 학습서마다 다양한 가나 표기에 대응된다. 중성 ㅇ에 대해서는 ‘グ(ku)’에 대응하는 경우, ‘ン(n)’에 대응하는 경우, ‘ング(ngu)’에 대응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중성 ‘ㅇ’에 모음이 후행하는 경우(예컨대, ‘강을’)에는 ‘カングル(kanguru)’이라는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한국어 중성 ‘ㅇ’에 대한 가나 표기는 4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한 자료에서 두 개 이상의 방식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표기 방식이 함의하는 바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자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 컴퓨터 작업을 통해 그 표기가 갖고 있는 의미를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로마자 표기의 새로운 입력 방안과 그 적용

앞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로마자 표기를 확인하고 그 특징과 한계점에 대해서 논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로마자 표기 입력 방안은 아래와 같다.

3.1. 로마자 표기 입력 방안(기본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69개 가나 문자에 대해 대응되는 로마자 전자 표기 목록은 <표 9>와 같다.

ア	イ	ウ	エ	オ
xaa/a	xii/i	xuu/u	xee/e	xoo/o
カ	キ	ク	ケ	コ
kaa	kii	kuu	kee	koo
ガ	ギ	グ	ゲ	ゴ
gaa	gii	guu	gee	goo
サ	シ	ス	セ	ソ
saa	sii	suu	see	soo
ザ	ジ	ズ	ゼ	ゾ
zaa	zii	zuu	zee	zoo
タ	チ	ツ	テ	ト
taa	tii	tuu	tee	too
ダ	ヂ	ヅ	デ	ド
daa	dii	duu	dee	doo
ハ	ヒ	フ	ヘ	ホ
haa	hii	huu	hee	hoo
バ	ビ	ブ	ベ	ボ
baa	bii	buu	bee	boo
パ	ピ	プ	ペ	ポ
paa	pii	puu	pee	poo
ナ	ニ	ヌ	ネ	ノ
naa	nii	nuu	nee	noo
マ	ミ	ム	メ	モ
maa	mii	muu	mee	moo
ワ	ヰ		ヱ	ヲ
xwa	xwi		xwe	xwo
ヤ		ユ		ヨ
xya		xyu		xyo
ン(음절말)	ッ(음절말)			
nn	qq			

<표 9> 가나에 대응하는 로마자 표기 목록

‘ア’단에 있는 로마자 ‘x’는 해당하는 음소가 비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직관성을 위해 ‘없음’을 의미하는 로마자 ‘x’를 사용하였으며, ア행을 제외한 문자들이 대부분 CV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로마자 ‘x’를 추가하여 문자열의 개수를 통일하였다. 이러한 표기는 자음부와 모음부를 구분함으로써 컴퓨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가나 표기 ‘ヰ(wi), ヱ(we)’는 역사적 가나 표기법으로 현대 일본어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가나이다. 이미 18세기에 음운적인 차원에서 /wi/, /we/는 [w]가 소멸하여 /i/, /e/에 합류하였으며 20세기 가나 표기가 정비되면서 표기에서도 자취를 감추었다(오미영 2019). 일본어에서 목적격 조사 ‘o’에 사용되는 ‘ヲ’ 역시도 과거에는 /wo/였지만, 지금은 [o]로만 발음된다. 그러나 한국어 전사 자료에서는 해당 표기들이 한국어의 특정 모음을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개화기 한국어 학습서의 특정 문헌에서는 한국어 속격 조사 ‘의’에 대하여 ‘ヰ’(wi)를 종종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므로 해당 문자가 사용되는 경우 이를 그 현실 발음을 고려한 ‘xii, xee, xoo’로 표기하지 않고, ‘xwi, xwe, xwo’로 표기한다.

종성에 사용되는 ‘ン’와 ‘ッ’는 로마자 ‘nn’와 ‘qq’로 표현된다. 한국어에서는 종성에 여러 개

의 자음이 올 수 있지만, 일본어에서는 종성 위치에 /n/와 /t/밖에 올 수 없다. 그리하여 한국어의 종성을 가나로 나타낼 때 편찬자들은 보통 우행 가나(ク, ヌ, ル, ム, ブ)를 사용하게 된다. 이때 우행 가나를 로마자로 ‘ku, nu, ru, mu, bu’의 두 개의 문자열로 표현하기 때문에, 컴퓨터 작업을 위해 ‘ン’와 ‘ッ’도 로마자 문자열을 2개로 제시하였다. 종성이 없는 경우에는 로마자 ‘x’를 두 번 써서 종성이 비어 있음을 표시한다.

가나 표기에 대응하는 로마자 전자 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10>과 같다. 하나의 한국어 음절에 로마자 문자열 7개가 대응하는 방식이다. 앞의 두 로마자는 초성에,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로마자는 중성에, 여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는 종성에 대응한다.

한글 표기(음절)	ㅅㅅ				
가나 표기(음절)	スビョ-ク				
한글 표기(음운)	ㅅ	ㅅ	ㅅ	ㅅ	ㅅ
가나 표기(음절)	スビョ-(sbyo)				ク(ku)
한글 표기(문자)	ㅅ	ㅅ	ㅅ	ㅅ	ㅅ
가나 표기	ス	ビョ-			ク
로마자 표기	s	b	yo	1	ku
	↑	↑	↑	↑	↑
초/중/종성	초성	중성	음장	중성	종성
7자리	2자리	3자리	3자리	2자리	2자리

<표 10> 한국어 음절에 대응하는 가나와 로마자 표기의 사례

한 음절에 7글자의 로마자가 배당된 것은 초성·중성·종성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수를 고려하면서 가장 적은 개수의 문자열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를 데이터화하고 파이썬의 슬라이싱 기능을 활용하여 초성·중성·종성의 대응 양상을 살펴보면 각 음절의 로마자 문자열 개수를 통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로마자 문자를 가나로 변환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쉽다.

로마자	s	b	y	o	1	k	u
열(列)	0	1	2	3	4	5	6
가나	ス	ビョ			-	ク	

<표 11> 로마자 표기에 할당된 열(列) 번호

파이썬에서는 로마자의 문자열을 셀 때, 첫 번째 문자열을 ‘1’이 아닌 ‘0’에 할당한다. 마찬가지로 로마자를 가나로 전환을 할 때에도 ‘0’에 할당되어 있는 ‘s’는 가나 ‘스’로, 1부터 3에 할당되어 있는 ‘byo’는 ‘비ョ’로 쉽게 전환할 수 있다. 5~6에 있는 ‘ku’도 ‘쿠’로 바꿀 수 있다. 이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어 전사 자료에 나타나는 가나 표기에 대한 분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한 음절에 7개의 로마자를 배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성, 중성, 종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초성 대응 로마자에 관련된 내용

앞서 기존 로마자 표기의 초성에 붙는 문제에 관해 논의한 적이 있다. 특히 어두 자음군을 나타내기 위해 ‘스’와 ‘브’를 사용하거나, 경음 또는 격음을 나타내기 위해 ‘ッ’를 사용하는 일이

있었다. 해당 가나들을 로마자로 ‘su, bu, tu(q)’라고 적게 되면 초성에 배당된 로마자가 3글자가 되어버려서 작업의 부담량이 커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s, b, t’라는 로마자 표기에 배당한다. 반대로 아무런 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x’를 사용한다. 가령 ‘까 ヌカ’는 로마자 표기로 ‘tkaa0xx’로, ‘까 スカ’는 ‘skaa0xx’로, ‘가 カ’는 ‘xkaa0xx’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초성이 없는 ‘야 ヤ’는 로마자로 ‘xyya0xx’로 나타낼 수 있다.

② 중성 대응 로마자에 관련된 내용

중성과 관련된 로마자는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이다. 이중 세 번째~네 번째 열은 모음과 관련되어 있고, 다섯 번째 열은 장음과 관련된 정보이다.¹⁰⁾ 기존의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상향 이중모음에 대해 ‘ギョ kiyō’와 같이 로마자 4글자로 대응하였다. 이때 중성을 가리키는 부분이 3글자나 된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キョ’를 로마자로 ‘xkyo0xx’라고 나타냄으로 중성을 가리키는 부분을 2글자로 줄였다. w계 상향이중모음을 포함하고 있는 ‘クウ’도 ‘kuwa’가 아닌 ‘xkwa0xx’로 나타내었다. 상향이중모음이나 하향이중모음을 고려하면 중성에 최소한 2글자를 배당해야만 하기에, 단모음을 표시할 때는 부득이하게 모음을 나타내는 로마자를 두 번 쓸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가 カ’는 로마자로 ‘xkaa0xx’가 되는 것이다.

일본어 음운 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모음을 가나로 표현하기 위해 복수의 가나 표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어 전설 저모음 ‘애’에 대해서 한국어 학습서의 편찬자들은 ‘アイ(ai)’를 자주 사용하였는데, 이를 본고에서 제안한 로마자로 나타내면 ‘xxai0xx’가 된다. ‘アイ’에 대해서 ‘xxaaii’라고 적지 않고 각 ‘a’와 ‘i’라는 로마자 한 개만을 사용할 것이다.

アイ	アエ	ウイ	ウオ
xai	xae	xui	xuo
オア		オイ	
xoa		xoi	

〈표 12〉 단모음 자가 복수로 출현하는 경우

이외에도 한국어 중성(모음)을 표기하기 위한 다양한 가나 표기가 나온다. 구체적인 사례를 아래에서 살펴볼 것인데, 먼저 초성 ‘스, ス’가 선행하는 경우에 다양한 표기가 등장한다.

(3) 가. 쉼 シュイン, 쉼 ショイン

나. 쉼 チュイ, 쉼 チョイ

다. 채~취 차アエ~チエイ

(3)은 한국어 자음 ‘스, 스’이 선행하는 경우이다. ‘스, 스’가 선행할 때 다양한 표기가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일본어에는 ‘자, 저, 조, 주’가 음운 체계에 없어서 이를 나타낼 문자도 없기 때문에 해당 음절을 나타내기 위해 학습서 편찬자가 여러 표기를 고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어 내적 문제에도 기인하는 부분도 있다. 본래 중세 한국어 시기에 처음이었던 ‘즈’는 그 조음위치가 경구개로 이동하게 되면서 ‘자~쟈, 저~저, 조~쥬, 주~쥬’의 혼기 표기(발음

10) 장음과 같은 초분절적인 요소(운소)는 음절에 걸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중성(모음)이 [+설정성]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음을 중성과 묶어서 처리한다.

은 [자, 저, 조, 주])가 나타나게 되었다. ‘ㅅ’도 경구개 위치로 이동했다가 다시 치음 위치로 돌아옴으로써 ‘사~샤, 서~셔, 소~쇼, 수~슈’의 혼기가 나타나게 되었다.¹¹⁾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처리 방안을 제시한다.

앞서 이단에 요음이 후행하는 경우 ‘キャ xkya0nn’와 같이 표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드물게 ‘원 슈윈’과 ‘원 쇼윈’과 같은 표기가 등장하는데 이에 대해서 기존 연구에서는 ‘siyuin’과 ‘siyoin’이라는 로마자 표기를 사용하였다. 이런 경우에는 중성(모음)을 가리키는 부분이 4개 문자열을 사용하게 되어서 <표 10>에서 제시한 문자열 개수를 초과하게 된다. 또한 선행하는 ‘i’를 삭제한다고 해도 ‘xsyui0xx’, ‘xsyoi0xx’으로 문자열이 8개(모음을 가리키는 문자열 4개)가 됨으로써 문자열의 개수가 늘어나 버린다. 또한 요음 부분을 나타내는 ‘y’를 삭제하면 ‘xsyui0xx’, ‘xsoi0xx’가 되어서 ‘스이’, ‘소이’와 동일한 로마자 표기가 만들어져 중복됨으로써 해당 방법도 활용할 수 없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xsɿin’, ‘xsɿin’를 사용한다. 즉, 이단+yu+i, 이단+yo+i에 대해서 중성 부분은 ‘ɿi’와 ‘ɿi’로 나타낼 것이다. 이를 통해 로마자의 중복 사용을 막고 문자열 개수를 통제함으로써 분석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표기가 나타나는데, 이를 로마자로 어떻게 입력할 것인지 살펴본다. ‘ㅈ’에 일본어 모음이 후행하는 경우에는 ‘チアエ chiae’와 같은 방식으로 적었다. 이럴 경우에는 모음을 나타내는 문자가 3개나 되기 때문에 컴퓨터로 일률적인 분석을 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ㅈ’에 단모음이 후행하는 경우에는 ‘ti’를 ‘c’로 표기하고 이어지는 ㄱ단 가나(ア, ウ, エ, オ)를 로마자 ‘a, u, e, o’로 표기할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ショイ	シュイ
		syiu	sɿiu
		チヨイン	チュイン
		tyiu	tɿiu
チア	チエ	チオ	チウ
caa	cee	coo	cuu
ヂア	ヂエ	ヂオ	ヂウ
jaa	jee	joo	juu
チアV	チエV	チオV	チウV
caV	ceV	coV	cuV
ヂアV	ヂエV	ヂオV	ヂウV
jaV	jeV	joV	juV

<표 13> ‘ㅅ, ㅈ’가 선행하면서 여러 모음이 나타나는 경우의 대응 로마자

다음은 ‘ㄱ’ 뒤에 모음이 후행하는 경우를 살핀다.

ㄱ아	ㄱ에	ㄱ이	ㄱ오	ㄱ우
xma	xme	xmi	xmo	xmu

<표 14> ㄱ 뒤에 여러 모음이 후행하는 경우

위에서 ‘ㄱ오’를 ‘xmo’로 쓰는 것은 한국어 복원 형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만약 한국어 ‘오’에 대해 ‘ㄱ오’가 나타났다면, 이는 장음 /o/를 가리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xwo2xx’으로

11) ‘사~샤’ 혼기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다. ‘ㅅ’도 ‘ㅈ’과 마찬가지로 경구개 위치로 이동했다가 다시 치조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사~샤’의 혼기가 일어났다는 주장이 있다(이기문 1998). 이와 달리 활음 /j/앞에서 ‘ㅅ’이 탈락하는 현상에 대한 과잉 교정으로 인해 ‘사~샤’의 혼기가 나타났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박기영 2005; 김한별 2018; 허인영 2021).

표기해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한국어 ‘워’에 대해 ‘ヲオ’가 나타났다면 ‘xmo0xx’로 써야 할 것이다.

문자상으로 삼중모음에 해당하는 것들도 어떻게 로마자로 표기할 것인지를 살펴본다. ‘내, 꺄’ 등에 대해 다양한 가나 표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실제 나타나는 사례를 로마자로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를 아래 제시해 본다.

	ヲアイ	ウエイ	ウアエ	ウオイ
구 표기	xwoai	xuei	xuawe	xuoi
신 표기	xmɛ	xuə	xuæ	uõ

〈표 15〉 ‘내, 꺄’에 대응하는 로마자 표기

마지막으로 삼점 등을 활용한 가나 표기를 어떻게 가나로 옮길지를 살펴본다. 송민(1986)에서 제시된 삼점 표기(〃)는 아래 〈표 7〉과 같이 로마자로 대응한다. 반탁점(◌)를 붙여 만들어낸 가나 표기에도 다음과 같은 로마자를 부여할 수 있다. 이때는 유니코드 02A7, 0292에 할당되어 있는 ‘f, z’ 등 사용하는데, 이는 특수문자이기는 하지만 유니코드에 등록되어 있고, 자주 등장하지 않으며, 한 개의 문자열로 인식되어 컴퓨터 분석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ハ〃	ヒ〃	フ〃	ヘ〃	ホ〃
vaa	vii	vuu	vee	voo
サ〃			テ〃	ソ〃
fʃaa			fʃee	fʃoo
	チ◌	ツ◌		
	zii	zuu		

〈표 16〉 보조 기호를 활용한 가나 표기와 그에 대응하는 로마자 표기

다음으로는 장음과 관련된 문제이다. 장음과 관련해서는 로마자를 사용하는 대신 유형별로 숫자를 사용하였다. 일본어에서 장음을 나타낼 때는 동일한 모음을 반복해 쓰거나 기호 ‘-’를 사용하는데, 이때 동일한 모음을 로마자로 적게 되면 파이썬에서 각각에 대한 처리 방법을 명시해 놓아야 한다. 그리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숫자로 처리하였다.

‘0’은 장음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1’은 하이픈(-)를 사용해서 장음을 표기한 것, ‘2’는 동일한 자음을 활용하여 장음을 표기한 것¹²⁾이다. 마지막으로 3번은 기타의 방법으로 장음을 표시한 것이다.

③ 종성 대응 로마자에 관련된 내용

다음으로 종성에 대응하는 로마자 표기에 대해 논의한다. 종성 역시 로마자 두 개를 할당하여 전자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ン(N)와 ッ(Q)를 두 번 써야 한다. 한국어 종성을 나타내기 위해 대체로 가나 우단을 활용하고 있다. 다만 종성 ‘ㅇ’에 대해서는 앞선 살핀 것처럼 다양한 표기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하여 ‘ン’에 대응하는 경우에는 ‘nn’으로, ‘ング’에 대응하는 경우에는 ‘ng’로 ‘グ’에 대응하는 경우에는 ‘gu’로 표기한다.

추가적인 문제가 또 있는데, ‘공은 コンゲン/コグン’과 같은 표기에서 문제가 있다. 한국어의 ‘ㅇ’은 연음 되어서 초성에서 발음되는 경우가 없다. 그런데 한국어 전사 자료에서는 종성 ‘ㅇ’

12) 역사적 가나 표기법에 따라 お단의 장음은 뒤에 う(u)나 お(o)를 붙여서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뒤에 모음이 후행할 때 ガ행 가나(ガ, ギ, グ, ゲ, ゴ)를 사용하여 종성 ‘ㅇ’을 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공은 コンゲン/コゲン’에 대하여

‘xkoo0gn.gxuu0nn/xkoo0gg.gxuu0nn’를 사용한다. 두 번째 음절의 첫 번째 문자열에 ‘g’를 표시함으로써 ‘ガ’행 가나가 앞의 음절의 종성 [ㅇ]으로 쓰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전자적인 표기 접바침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흙, 닭’의 종성이 ‘ルク’로 나타나기에 이를 ‘ruku’로 표시한 바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로마자 4글자가 배당되게 되므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rk’와 같이 자음군을 나타낸다.

ルク	ルブ	ルム	ブス	クス
rk	rb	rm	bs	ks

〈표 17〉 받침에 사용되는 가나 표기에 대응하는 로마자 표기

④ 장단점

앞서 가나 전사 표기를 어떠한 원칙에 입각하여 로마자로 전사할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7자리 로마자로 전사를 하게 되면 파이썬의 슬라이싱을 통해 가나와 로마자의 변환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특정 음운에 어떠한 가나 표기가 대응하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처리도 한층 쉬워질 것이다.

물론 ‘カ’를 ‘ka’가 아닌 ‘xkaa0xx’라고 입력하게 되면 2글자 7자리로 늘어나서 데이터에 입력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 입력방안을 적용하면 ‘색-’은 ‘subiyo-ku’처럼 9자리 로마자로 입력되기도 한다. 어떤 음절은 로마자 2글자, 어떤 음절은 로마자가 9글자라면 오히려 컴퓨터로 데이터를 처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음절의 경계를 구분하는 것도 컴퓨터 처리를 위해 중요하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가겟소 カケツソ xkaa0xx.xkee0tt.xsoo0xx’처럼 마침표(.)를 사용하여 음절을 구분하고자 한다.

물론 남은 문제도 있다. 해당 로마자 표기는 가나를 로마자로 전사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는다. 그러나 모음과 자음 사이에 후행하는 촉음 같은 경우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특히 일본어 표기가 정리되지 않았을 때, ツ와 ッ는 활자상으로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한글 표기와 가나 표기가 함께 있는 자료라면, 한글 표기를 통해 가나 표기를 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를 복원해야 하는, 즉 가나만 있는 자료라면 당시의 어형을 고려해서 가나 표기를 로마자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아침’의 근대 한국어 어형은 ‘앗침~아침’이 모두 등장하고 가나 표기가 ‘アッチム’이라면 두 가지 표기를 고려할 수 있다. ‘앗침’으로 본다면 로마자 표기를 ‘xxaa0qq.xtii0mu’로 옮겨야 하고, ‘아침’으로 본다면 ‘xxaa0xx.ttii0mu’로 옮겨야 한다. 이를 일률적으로 본고에서는 전자로 처리하려고 한다.

4. 파이썬(python)을 활용한 한국어와 일본어의 모음 대응의 기술 통제

앞서 마련한 로마자 입력 방식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局員須知日鮮會話』(1912)의 가나 표기를 입력해 놓았다. 해당 학습서는 크게 한국어 문법 기술, 어휘 부분, 회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중 어휘 부분에 나타난 가나 표기를 입력하였다. 해당 교재에 실려 있는 어휘 항목은 총 1,474개이며, 음절로 환산하면 총 3,271개의 음절이다.

4.1. 입력된 스프레드 시트(excel 파일)와 무결성 검증 방법

아래 <그림 1>을 참고하면 첫 번째 열에는 일본어 어형을, 두 번째 열에는 한국어 대역문을, 세 번째 열에는 가나 표기를 확인하고 로마자 표기로 전환하여 직접 입력하였다.

일본어: 가나(일본어)	대역문(한글)	로마자 표기
一(イチ)	일	xxii0ru
二(ニ)	이	xxii1xx
三(サン)	삼	xsaa0mu
四(シ)	수	xsaa1xx
五(ゴ)	오	xxoo1xx
六(ロク)	뉴	xyuu0ku
七(シチ)	칠	xtii0ru
八(ハチ)	팔	xpaa0ru
九(ク)	구	xkuu0xx
十(ジウ)	십	xsii0bu
二十(ニジウ)	이십	xxii1xx.xsii0bu
三十(サンジウ)	삼십	xsaa0mu.xsii0bu
四十(シジウ)	수십	xsaa1xx.xsii0bu
五十(ゴジウ)	오십	xxoo1xx.xsii0bu
六十(ロクジウ)	뉴십	xyuu0ku.xsii0bu
七十(シチジウ)	칠십	xtii0ru.xsii0bu
八十(ハチジウ)	팔십	xpaa0ru.xsii0bu
九十(クジウ)	팔십	xkuu0xx.xsii0bu
百(ヒャク)	백	xpae0ku

<그림 1> 입력 자료의 일부 사례

특히 분석의 기초가 되는 로마자 표기는 입력 오류를 없애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자 표기에 사용된 문자가 7개가 맞는지, 장음을 나타내는 숫자가 다섯 번째에 정확히 위치하는지, 지정해 둔 문자 외에 다른 문자가 입력되었는지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3,271개의 음절의 하나씩 확인하는 것은 그 소요가 크고, 기존의 오류를 완전히 잡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아래와 같은 파이썬 코드를 활용하여 입력된 로마자 표기의 오류를 검출해 낼 수 있다. 아래 표와 그림은 오류 검출 코드와 그 코드로 만들어진 오류 검출 결과이다.¹³⁾

```
import openpyxl

# 엑셀 파일 경로
file_path = r'C:\Users\WORKER\Desktop\try_fixed.xlsx'
wb = openpyxl.load_workbook(file_path)
ws = wb.active # D열: 한글, E열: 대응 문자열

# 새 시트 생성 (검사 결과 기록)
if '문자열_검사결과' in wb.sheetnames:
    del wb['문자열_검사결과']
new_ws = wb.create_sheet('문자열_검사결과')
new_ws.append(['행번호', '한글', '전체문자열', '문제 조각', '오류 유형'])

# 조각 검증 함수
def validate_code_piece(piece):
    if len(piece) != 7:
```

13) 해당 파이썬 코드는 생성형 AI ‘chatgpt’의 도움을 받아 만들었다. 이후의 코드들도 마찬가지이다.

```

    return 'X 길이가 7이 아님'
for i, ch in enumerate(piece):
    if ch.isdigit() and i != 4:
        return f'X {i+1}번째 위치에 숫자 있음'
return '' # 이상 없음

# 2행부터 검사
row_index = 2
while True:
    korean = ws[f'D{row_index}'].value
    code = ws[f'E{row_index}'].value

    if not code:
        break # 빈 셀이면 종료

    # 마침표로 나눠서 여러 조각 검사
    pieces = code.split('.')
    for idx, piece in enumerate(pieces, start=1):
        error = validate_code_piece(piece)
        if error:
            new_ws.append(row_index, korean, code, f'{idx}번째: {piece}', error)
    row_index += 1

# 저장
output_path = r'C:\Users\WORKER\Desktop\문자열_검사결과_포함.xlsx'
wb.save(output_path)
print(f" 다중 음절 문자열 검사 완료! 오류는 '{output_path}'의 '문자열_검사결과' 시트에 저장되었습니다.")

```

〈표 18〉 입력 오류 검출을 위한 파이썬 코드

위의 코드를 통해 엑셀 파일에 새로운 시트가 만들어지는데, 그 일부 내용을 아래 그림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행번호	한글	전체문자열	문제 조각	오류 유형
47	여든	xyyoo1.xtuu0nn	1번째: xyyoo1	✗ 길이가 7이 아님
76	정	xyyon0ng	1번째: xtyon0ng	✗ 길이가 7이 아님
159	어제	xxoo0xx.die1xx	2번째: die1xx	✗ 길이가 7이 아님
168	어제밤	xxoo0xx.die1xx.xpaa0mu	2번째: die1xx	✗ 길이가 7이 아님
217	식암	xsai0xx.xxaamu	2번째: xxaamu	✗ 길이가 7이 아님
243	셔리	xsoo10xx.xrii0xx	1번째: xsoo10xx	✗ 길이가 7이 아님
328	머느리	xmiyo0xx.xnuu0xx.xrii0xx	1번째: xmiyo0xx	✗ 길이가 7이 아님
375	흙다리	xhuu0rk.taa0xx.xrii0xx	2번째: taa0xx	✗ 길이가 7이 아님
385	교군	xky01xx.xguu0nn	1번째: xky01xx	✗ 4번째 위치에 숫자 있음
414	평안북도	xpyo0ng.xxaa0nn.xpau0ku.xtoo0xx	3번째: xpau0ku	✗ 길이가 7이 아님
488	두만강	xtuu1xx.xma0nn.xkaa0ng	2번째: xma0nn	✗ 길이가 7이 아님
533	전매국	xttyo0nn.xmee1xx.xkuu0ku	1번째: xttyo0nn	✗ 길이가 7이 아님
541	디방치판	xtii0xx.xpaa0nn.xcee1xx.xpaa0n.xsoo0xx	4번째: xpaa0n	✗ 길이가 7이 아님
542	구치판소	xkuu0xx.xcee1xx.xpaa0n.xsoo0xx	3번째: xpaa0n	✗ 길이가 7이 아님

〈그림 2〉 입력 오류 검출의 결과 일부

4.2 한국어 중성(모음)과 가나 표기(로마자 표기)에 대한 기술통계

앞에서는 자료를 어떠한 방식으로 입력했고, 입력 오류를 어떻게 줄였는지에 대해 살펴보았


```

        return choseong_map.get(j, j)
    elif position == '중성':
        return jungseong_map.get(j, j)
    elif position == '종성':
        return jongseong_map.get(j, j)
    return j

# 자소 분해 함수
def split_jamos(syllable):
    jamos = list(h2j(syllable))
    jamos = [j for j in jamos if is_jamo(j)]
    if len(jamos) == 2:
        return jamos[0], jamos[1], ''
    elif len(jamos) == 3:
        return jamos[0], jamos[1], jamos[2]
    else:
        return '', '', ''

# 각 행 처리
row_index = 2
while True:
    korean_cell = ws[f'D{row_index}']
    roman_cell = ws[f'E{row_index}']

    if not korean_cell.value or not roman_cell.value:
        break

    hangul_word = korean_cell.value
    roman_code = roman_cell.value

    # 음절 단위로 나누기 (옛한글 포함 대응)
    syllables = regex.findall(r'\X', hangul_word)
    roman_parts = roman_code.split('.')

    if len(syllables) != len(roman_parts):
        print(f"△ {row_index}행: 음절 수와 코드 수 다름 → 건너뛰")
        row_index += 1
        continue

    for syllable, code in zip(syllables, roman_parts):
        # 자소 분해
        ch, jh, th = split_jamos(syllable)
        ch = normalize_jamo(ch, '초성')
        jh = normalize_jamo(jh, '중성')
        th = normalize_jamo(th, '종성')

        대응1 = code[0:2] if len(code) >= 2 else ''
        대응2 = code[2:4] if len(code) >= 4 else ''
        대응3 = code[4] if len(code) >= 5 else ''

```

```
대응4 = code[5:] if th and len(code) >= 7 else ''

new_ws.append([syllable, ch, jh, th, 대응1, 대응2, 대응3, 대응4])

row_index += 1

# 저장
output_path = r'C:\Users\WORKER\Desktop\변환된파일_자소표준화.xlsx'
wb.save(output_path)
print(f" 완료! 결과 저장 위치: {output_path}")
```

〈표 19〉 모음 분석에 활용된 파이썬 코드

〈표 19〉의 코드는 한국어 음절을 초성·중성·종성으로 분석한 다음, 코드는 슬라이싱 기능(짧은 글씨)을 활용하여 각 음소에 어떤 문자열이 대응하는지를 보여 주는 코드이다. 이를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자료가 만들어진다.

음절	초성	중성	종성	대응1	대응2	대응3	대응4
일	ㅇ	ㅣ	ㄹ	xx	ii	0	ru
이	ㅇ	ㅣ		xx	ii	1	
숨	ㅅ	ㅏ	ㅁ	xs	aa	0	mu
수	ㅅ	ㅏ		xs	aa	1	
오	ㅇ	ㅗ		xx	oo	1	
뉴	ㄴ	ㅗ		xy	uu	0	
칠	ㅊ	ㅣ	ㄹ	xt	ii	0	ru
팔	ㅍ	ㅏ	ㄹ	xp	aa	0	ru
구	ㄱ	ㅗ		xk	uu	0	
십	ㅅ	ㅣ	ㅍ	xs	ii	0	bu

〈그림 3〉 한국어 음소에 대응하는 로마자 일부

〈그림 3〉을 보면 ‘대응1’에는 초성에 대응하는 로마자가, ‘대응2’에는 중성에 대응하는 로마자가, ‘대응3’에는 장음의 유무·형식을 나타내는 숫자가, ‘대응4’에는 종성에 해당하는 로마자가 출력된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ㄱ, ㅈ, ㅊ, ㅋ, ㆁ, ㄷ’의 여섯 모음을 대상으로 기술 통계를 실시하고자 한다. 즉, 한국어 특정 모음에 대응하는 (복수의) 로마자와 선행 자음에 따른 그 빈도를 추출해 내려고 한다. 이러한 작업을 수업하기 위해서 파이썬에서 아래와 같은 코드를 실행하였다.

```
import openpyxl
from collections import defaultdi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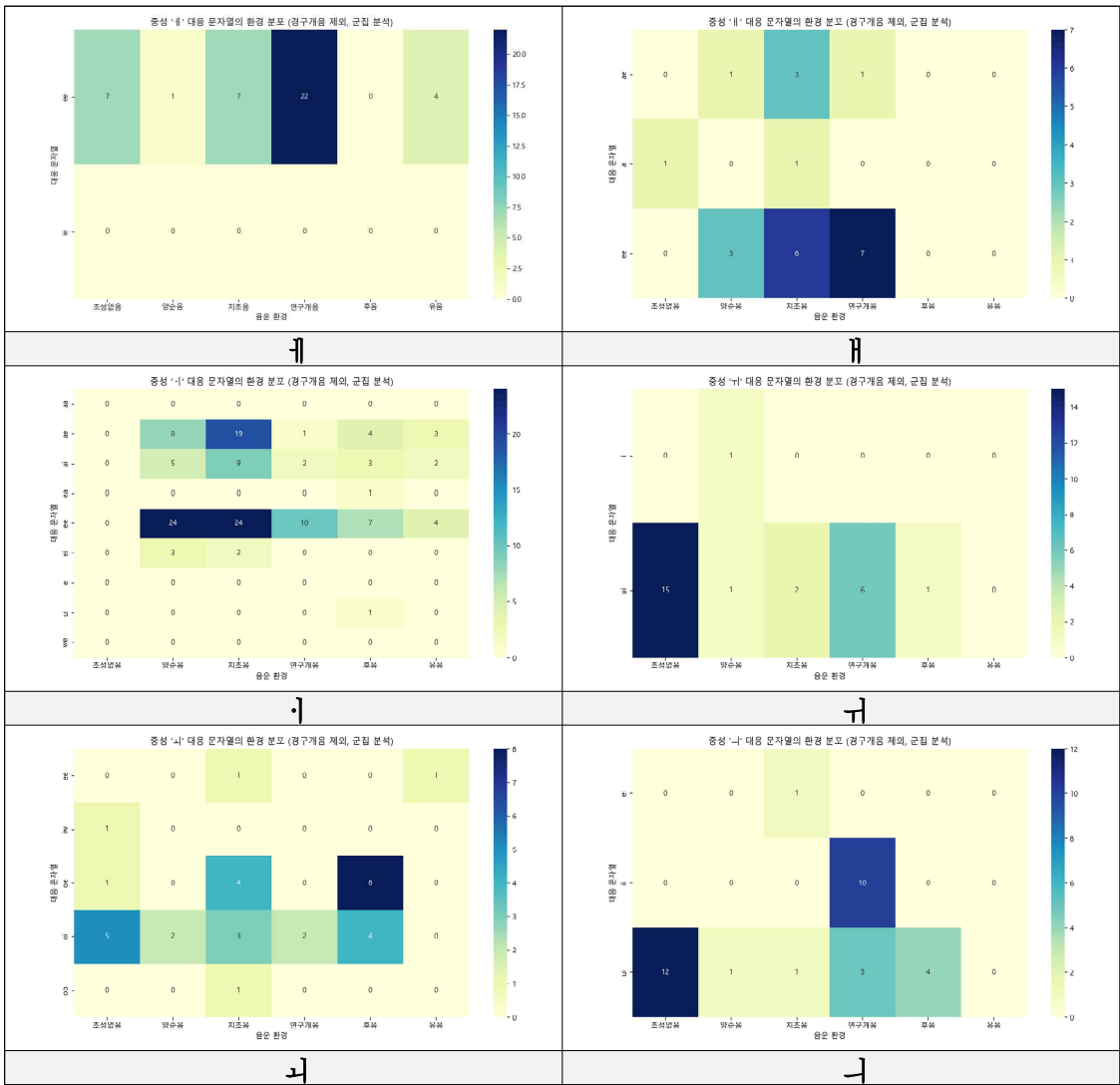
# 파일 경로
file_path = r'C:\Users\WORKER\Desktop\변환된파일_자소표준화.xlsx'
wb = openpyxl.load_workbook(file_path)
ws = wb['자소_대응']

# 결과 저장 구조
```

```
# 구조: {중성: {대응2: {초성: 빈도}}}  
analysis = defaultdict(lambda: defaultdict(lambda: defaultdict(int)))  
total_counts = defaultdict(lambda: defaultdict(int)) # 중성-대응2 총합  
  
# 중성 목록 수집  
for row in ws.iter_rows(min_row=2, values_only=True):  
    syllable, ch, jh, th, d1, d2, d3, d4 = row  
    if jh and d2:  
        analysis[jh][d2][ch] += 1  
        total_counts[jh][d2] += 1  
  
# 새 시트 만들기  
if '중성_분석' in wb.sheetnames:  
    del wb['중성_분석']  
ws_out = wb.create_sheet('중성_분석')  
  
# 1. 중성별 대응2 빈도 요약  
ws_out.append(['중성별 대응2 빈도 요약'])  
ws_out.append(['중성', '대응2', '전체 빈도'])  
for jh in sorted(analysis):  
    for d2 in sorted(analysis[jh]):  
        count = total_counts[jh][d2]  
        ws_out.append([jh, d2, count])  
  
# 2. 빈 줄  
ws_out.append([])  
ws_out.append(['[중성+대응2 조합별 초성 빈도]'])  
  
# 헤더 만들기  
all_initials = set()  
for jh in analysis:  
    for d2 in analysis[jh]:  
        all_initials.update(analysis[jh][d2].keys())  
all_initials = sorted(all_initials)  
  
ws_out.append(['중성', '대응2'] + all_initials)  
  
# 데이터 기록  
for jh in sorted(analysis):  
    for d2 in sorted(analysis[jh]):  
        row = [jh, d2]  
        for ch in all_initials:  
            row.append(analysis[jh][d2].get(ch, 0))  
        ws_out.append(row)  
  
# 저장  
wb.save(file_path)  
print(" 중성 분석 완료! '중성_분석' 시트가 추가되었습니다.")
```

〈표 20〉 빈도 추출을 위한 파이썬 코드

위의 표에 제시된 코드를 실행하면 한국어 모음에 대응하는 로마자와 초성에 따른 빈도를 알 수 있는데, 이를 히트맵(hit-map)으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표 21〉 ㄷ, ㅌ, ㄴ, ㄹ, ㄱ, ㅋ에 대응되는 로마자의 빈도의 히트맵

위의 히트맵은 ‘초성없음’, ‘양순음’, ‘치조음’, ‘연구개음’, ‘후음’, ‘유음’으로 초성별 환경을 나누어서 한국어 종성에 대응하는 가나(로마자)의 빈도를 보여 준다. ‘ㄱ’에 대응하는 문자열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카이제곱(Chi-Square Test) 검정을 활용하여 각 환경에서 나타나는 로마자의 빈도가 유의미한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중성	환경쌍	카이제곱 통계량	자유도	p값
ㄷ	초성없음-연구개음	9	2	0.01
ㄴ	후음-유음	13	2	0
ㄱ	초성없음-연구개음	10.01	1	0
ㅋ	치조음-연구개음	8.97	2	0.01

〈표 22〉 환경쌍에 따른 한국어-로마자 대응의 유의미성 확인

통계 검증 결과, 4가지 경우에서만 p값이 0.05 이하로 그 환경쌍이 유의미하다고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특히 ‘ㄷ’의 경우 ‘초성없음’ 환경에서는 ‘ai’가 나타났지만, 그 외의 환경에서는

‘ee’로 나타났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5. 내용 요약 및 향후 과제

본고에서는 한국어 전사 자료의 원활한 연구를 위해 가나에 대응하는 로마자 전자 표기를 어떻게 입력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특히 자료를 컴퓨터로 분석·처리할 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로마자 입력 형식을 제안하였다.

즉, 한국어 음절 하나에 대응되는 가나 표기를 7글자의 로마자 표기로 나타내었는데, 이때 1~2열 문자는 초성을, 3~4열 문자는 중성을, 5열 문자는 장단(長短)을, 6~7열 문자는 종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를 파이썬의 슬라이싱을 기능을 활용하면 중성에 대응하는 문자열의 빈도를 추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성에 따라 나타나는 빈도와 그에 대한 통계적 분석도 가능하다.

분석의 용이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본고에서는 일제강점기 한국어 학습서 『局員須知日鮮會話』(1912)의 어휘를 대상으로 한글 및 로마자 입력을 완료하였다. 다음 파이썬을 활용하여 음절을 쪼개서 종성과 그 종성에 대응하는 로마자를 추출해 내었고, 그 빈도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한국어 학습서와 같은 대역자료는 양국의 언어, 발음 방법 등의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병렬 말뭉치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이를 말뭉치로 구축함에 있어서 해당 정보들을 빠짐없이 구축하고 차후에 활용하게 하려면 정밀한 구축 방침이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가나에 대응하는 로마자 전자 표기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json 및 xml 형식의 한일 병렬 말뭉치 구축 방안과 편집기 제작 등을 향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준수(2023), 「개화기 한국어의 표기와 음운에 대한 연구-개화기 일본에서 간행된 한국어 학습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준수(2024), 「개화기 한국어 학습서의 표기와 어휘 연구: 『實地應用 日韓會話獨習』(1904)을 중심으로」, 『구결연구』 54, 구결학회, 251~256.
- 김준수·안기경·문경진·박기영(2020), 「19세기 말~20세기 초 일본 간행 한국어 학습서를 통해 본 한국어 발음 교육-한글 표기에 대응하는 가나 표기를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38, 37-84.
- 김한별(2018), 「국어의 음운 변화 ‘syV>…>sV’에 대한 재고찰」, 『국어학』 72, 국어학회, 323-365.
- 박기영(2005), 「開化期 韓國語의 音韻 研究—日本에서 간행된 韓國語 學習書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사노 미에코(1996), 「17·18世紀 日本 資料에 나타난 韓國語 研究」, 『國語研究』 144, 國語研究會.
- 宋敏(1986), 『前記近代國語 音韻論 研究(國語學叢書 8)』, 國語學會.
- 오미영(2019), 『日本語 문어문법』, 숭실대학교 지식정보처 중앙도서관.
- 이기문(1998), 『국어사개설』, 개정판, 태학사.
- 허인영(2014), 「『奎一道人』의 한국어 복원과 음운론적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허인영(2021), 「전사 자료를 통해 본 한국어 전설모음의 형성 과정」, 고려대 박사학위논문.